

평산신씨가
시조 장절공 종중

판권

목차

평산신씨가 고서·고문서의 역사와 가치

1. 평산신씨가의 고서·고문서	06
2. 평산신씨 시조 신승겸과 장절공 묘역	07
3. 평산신씨 정언공파 가문의 인물과 관직생활	09
4. 평산신씨가 고서·고문서의 종류와 특징	13

평산신씨가의 고문서

1. 국가 정사에 참여하다	20
2. 학문과 사상을 교유하다	57
3. 가계의 경영을 기록하다	92
4. 가문의 예법을 지키다	112

평산신씨가의 고서

1. 장절공의 가계를 이어가다	150
2.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다	168
3. 선대의 충효를 본받다	179
4. 선현의 지혜를 배우다	187
5. 경사 학문을 탐구하다	206

도판목록 찾아보기	216
-----------	-----

평산신씨가
고서·고문서의
역사와 가치

縱殊語稟賦而無異寧以民而視民
縱非我而亦我惟茲理也孔昭盍共
賦而稱之瞻萬方而曷異睠九宇而
自以豈其有也文方一言蔽曰同吾

同厚續資始而化育渾成體而無間
嗟吾人之蔽理疑物我之各殊推粹
駁之不侔訝性形之初異環萬邦以
百黎謂人々之各異然吾溯夫厥初
有是理之同得天無私於大包性同
稟於太極形之成而理賦一以是而
均受循萬姓而共稟指一本而同歸
凡天下之黎元非共胞而其誰受既
同於爾我視何間於昆季叅彼此而

1. 평산신씨의 고서·고문서

춘천 평산신씨의 고서·고문서는 장절공 신승겸 장군의 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이다. 신승겸기념관은 장절공 묘역 내에 있는 시설로 장절공 묘역이 1976년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묘역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었다. 이 기념관에는 평산신씨 종중에서 보관해 오던 각종 고서·고문서 등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장절공 신승겸 장군은 고려개국 공신이며 평산신씨 시조이다. 그는 후삼국 시대인 927년 대구 팔공산에서 고려의 왕건 군사와 후백제의 견훤군이 치른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견훤이 왕건 군사를 기습 공격해 태조 왕건이 매우 위급하게 되자 왕건을 피신시키고 분전하다가 전사한 인물이다. 이러한 신승겸 장군의 충절은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만고불변萬古不變 충신의 표상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신승겸의 시신을 수습하여 최고의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루도록 하였다. 목이 없는 시신에 두상을 황금으로 만들어 안치하도록 하고 특이하게 봉분을 3개로 만들어 춘천에 매장하도록 하였다. 춘천을 매장지로 선택한 것은 춘천이 출신이라는 설과 현 매장지가 음택의 길지로 태조가 선정해 두었던 자신의 장지를 신승겸에게 하사하였다고도 한다.

전제왕조 국가에서 충성은 국가를 유지하는 커다란 질서였다. 그리하여 국왕에게 특히 충성하였거나 큰 공적이 있는 인물의 신주는 국왕의 신주를 모시는 종묘에 모셨다. 신승겸 장군도 이러한 배향공신에 책봉하여 그가 태조 왕건을 대신하여 죽은 사실과 업적에 대한 예우를 하였다. 그리고 그 공을 높이고자 팔관회에서 추모하는 행사를 벌였고, 그 후손들에게 특례를 주어 벼슬 없는 자는 벼슬을 주고 관직이 있는 자는 한 등급 승진시키는 특혜를 주었다.

이와 같은 신승겸 장군에 대한 추숭 사업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져 고려의 왕과 충신들을 배향하는 숭의전崇義殿에 모셔져 제사지냈다. 신승겸 장군에 대한 추숭 사업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본격화하여 관련이 있는 지역에 사원을 건축하는 등의 사업이 전개되었다. 1589년 출생지인 곡성에 사당이 건립되어 위패를 모시다가 1695년에 ‘덕양德陽’이라는 사액을 받아 사액서원이 되었다. 평산신씨의 본관이 된 평산에서는 1687년 사액된 동양서원東陽書院을 건립하였고, 신승겸 장군이 죽은 공산전투가 있었던 대구에는 1607년 표충사表忠祠를 지어 추모하였다.

그리고 춘천에는 1650년 도포서원道浦書院이 건립되어 신승겸 장군의 위패를 봉안하고 충절의 상징으로 제향되었다. 이러한 장절공 신승겸 장군 후손들의 고서·고문서 자료들이 묘역 내의 기념관에 보관되어있다. 이 자료들은 전근대 대표적인 충절의 가문인 평산신씨의 자료로서 주로 평

산신씨 정언공파의 문서자료이다. 특히 고문서류에는 1871년 강원도관찰사로 부임한 신응조申應朝(1804~1899)를 중심으로 그 선후대의 간찰簡札 문서와 시문류, 그리고 시권試券과 교지教旨 등이 소장되어 있다. 고서류에는 문집류와 족보류가 대다수를 이루고 신승겸 장군의 묘소에 참배한 인사들의 묘알록廟謁緣이 전한다.

2. 평산신씨 시조 신승겸과 장절공 묘역

1) 장절공 신승겸

신승겸申崇謙(?~927)의 본관은 평산平山이고 초명은 신능산申能山으로 평산 신씨申氏의 시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전라도 곡성현谷城縣 출신으로 고려 태조 왕건王建(877~943)이 평산에서 사성賜姓하였다고 하고,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에는 광해주光海州 사람이라 하였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 「춘천도호부·인물조」에 그의 이름이 실려있으며, 또한 그의 묘가 춘천에 있는 것 등에 근거하면, 그는 본래 곡성 출신으로 뒤에 춘천에 옮겨와서 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몸집이 장대하고 무용武勇이 뛰어나 궁예 말년에 홍유洪儒(?~936)·배현경裴玄慶(?~936)·복지겸卜智謙(?~?) 등과 함께 혁명을 일으켜 궁예弓裔(?~918)를 몰아내고 왕건王建을 추대해 개국일등공신開國一等功臣에 봉해졌다. 태조 즉위 후 7, 8년 동안 소강상태였던 후백제와의 긴장 관계는 견훤甄萱(867~936)이 신라를 공격함으로써 악화되었다. 927년 견훤이 고을부高鬱府를 습격하고, 신라를 공격해 경애왕景哀王을 죽이고 갖은 만행과 약탈을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태조는 크게 분개해 사신을 신라에 보내어 조제弔祭[조의를 나타내어 제사를 지냄]하는 동시에 친히 정예기병[정기精騎] 5천을 거느리고 대구의 공산公山[현 팔공산] 동수桐藪[현 지묘동]에서 견훤을 맞아 싸우게 되었다. 그러나 후백제군에게 포위되어 태조가 위급하게 되었을 때, 신승겸이 대장이 되어 원보元甫 김락金樂(?~927)과 더불어 힘써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간신히 위기를 벗어난 태조는 신승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해 시호를 장절壯節이라 하였다. 또한 아우 신능길申能吉과 아들 신보申甫를 모두 원윤元尹[태봉泰封의 벼슬 이름]으로 삼고, 지묘사智妙寺를 창건해

그들의 복을 빌게 하였다. 994년(성종 13) 4월에 태사太師로 추증되어 태사개국장절공太師開國壯節公으로 태묘太廟의 태조 사당에 배향되었다. 신승겸의 행적을 기록한 『평산신씨장절공유사平山申氏壯節公遺事』에는 1120년 예종이 신승겸과 김락을 추도하며 지었다는 「도이장가悼二將歌」라는 향가가 전한다.

2) 신승겸장군 묘역

장절공 신승겸 묘는 화악산에서 동남쪽으로 흘러내린 산맥 끝에 형성된 북배산 동남쪽 지맥의 자락에 자리잡고 있다. 소재지는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방동 1리이다. 묘 전면부는 진입하는 소로에 이르기까지 폭 45m, 길이 200m 정도의 넓이로 수목을 정리하여 앞이 트이도록 하였다. 묘소에는 뒤편에 묘장을 두르고 봉분을 세 개 조성하였으며, 봉분 앞쪽으로 2중으로 기단이 조성되었다. 중앙 봉분을 중심으로 기단을 통해 봉분으로 오르는 3개의 계단이 만들어졌고, 중앙 봉분 앞에 묘비와 상석을 배치하고 있다.

신승겸 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인삼분묘一人三墳墓로 조성되었다. 이처럼 특이한 형태로 조성되게 된 사유는 그간에 전해오는 자료를 종합하면 금두상 제작 매장에 따른 도굴 방지설防止說과 부인 묘 병치설坵置說로 정리될 수 있다. 전자와 관련하여 신승겸 신도비문神道碑文에 세상에 전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기를 “태사께서 전사하여 두부를 상실하였으므로 왕께서 금으로 태사의 얼굴을 주조해 몸체와 합하여 안장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1479년 손순효孫舜孝(1427~1497)가 작성한 「장절공유사壯節公遺事」에는 목수에게 명하여 머리와 얼굴을 새겨 만들고 관복을 갖추어 입혀서 장사지냈다고 하였다. 물론 이 두 가지 설 가운데 어느 설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만 두상이 없이 돌아온 신승겸의 시신을 보고 매우 애통해 한 태조 왕건이 두상을 제작하도록 하여 온전한 시신처럼 만들어 안장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작 방식은 단정할 수 없지만 두상을 제작해 안장하였다는 것 자체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설 가운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금두상 제작설은 오랜기간 동안 널리 퍼져 나가면서 사실로 받아들여져 실제로 여러 차례 신승겸장군 묘에 대한 도굴 미수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신승겸 묘는 전국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음택陰宅[묘자리] 명당지 가운데 한 곳이다. 이곳은 화악산에서 백리행룡百里行龍[높고 낮은 산이 백리나 뻗어 있는 형세]한 괘등형掛燈形[등불에 매달아 놓은 모습]의 명당이라고 하며, 이 명당자리 하나를 이루기 위해 금강산으로부터 화악산이 뻗어내렸다고 이를 정도로 천하의 명당이라고 한다. 이 때문인지 세간에 신승겸묘지는 도선국

사道誥國師(827~898)가 태조 왕건을 위해 잡아준 명당터라고 전해 오고 있다. 장절공 묘택의 좌청룡은 장군봉이고 우백호는 마산인데, 옛날에 장군봉에서 장군이 나왔으나 타고 갈 용마龍馬가 없어서 그냥 가버렸고, 이윽고 마산에서 용마가 나와 장군을 찾았으나 주인이 없자 용마는 중도로 가서 죽었는데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어 주어 그것이 이른바 중도의 '말무덤'이라고 전하다.

이곳에는 그의 사당인 장절사壯節祠가 있고, 그 앞에는 1805년에 건립된 신도비가 있다. 신도비각이 있으며, 비는 조선시대 일반적인 형태인 팔각지붕형 갖석과 비신, 비대석으로 되어있다. 비문은 김조순金祖淳이 짓고, 신위申緯가 썼으며, 좌의정 서매수徐邁修가 전篆하였는데, 크기는 비신이 높이 3.1m, 폭 1.1m이다. 이외에 묘역에는 4동의 재실과 최근에 건립한 기념관이 있어 평산신씨가의 고서·고문서를 보관하고 있다.

3. 평산신씨 정언공파 가문의 인물과 관직생활

평산신씨 정언공파正言公派 가문의 소장 고문서 중에서 교령류는 134점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문서들은 1699년(숙종 25)부터 1882년(고종 19)까지 작성되었는데, 이를 통해 17~18세기 평산신씨 정언공파 인물들의 관직생활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교령류 134점 중에는 신석화의 백패白牌 1점, 신야의 백패 1점과 고신告身 15점, 신상현의 고신 22점, 신응조의 고신 64점과 유지有旨 1점, 신일영의 고신 30점이 있다. 호적류 문서는 신석화의 호적단자, 신야의 호적단자, 신경한의 준호구, 신의의 준호구, 신태수의 민적부가 각각 1건씩 전한다. 호적류 문서는 모두 한성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당시 이 가문의 거주지가 대체로 한성부임을 알 수 있다.

평산신씨의 세계世系는 시조 신승겸의 15세 대에서 19파로 갈리는데, 그 중 사간공파思簡公派·문희공파文僖公派·제정공파齊靖公派·정언공파正言公派·한성윤공파漢城尹公派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 문서의 인물들은 15세 신호申曉를 중시조로 하는 정언공파의 후손이다.

신석화申錫華(1672~1714)는 시조 신승겸申崇謙으로부터 22세에 해당하며 신야申堃(1697~1759)는 23세, 신경한申景翰은 24세, 신의申愷(?~?)는 25세, 신상현申常顯(1777~1864)은 26세, 신응조申應朝(1804~1899)는 27세, 신기선申幾善은 28세, 신일영申一永(1845~1898)은 29세, 신태수申澤秀

(1881~?)는 30세로 이어져 왔다.

『평산신씨대동보』(1989년)에 따르면 신석화((1672~1714)는 23대손으로 자후가 천뢰天賚로, 첫 번째 부인이 여흥민씨驪興閔氏인데, 부원군 민유중閔維重(1630~1687)의 셋째 딸로 인현왕후仁顯王后(1667~1701)의 여동생이다. 신석화의 두 번째 부인은 전주이씨全州李氏였다. 신석화에게는 2남 4녀가 있었는데, 장남이 바로 신야申埜이다. 신석화는 28세이던 1699년(숙종 25) 식년시式年試에서 진사 3등 62인[전체 92등/100명]으로 입격하였다. 이후 그는 성균관에서 수학하였고, 빙고별검氷庫別檢, 장흥주부長興主簿, 감찰監察, 호조좌랑戶曹佐郎, 순안현령順安縣令, 익위翊衛 등을 역임하고 1713년 가평군수加平郡守를 사직하면서 관직 활동을 마쳤다.

신야申埜(1697~1759)는 자가 문지文之로 안동김씨安東金氏와 혼인하여 아들 신경한과 신경악申景嶽을 두었다. 그는 30세이던 1726년(영조 2) 식년시式年試에서 생원 3등 25인[전체 55등/100명]으로 입격하였다. 이후 36세이던 1732년 3월 20일에는 조봉대부朝奉大夫 행행 현릉참봉顯陵參奉에, 같은 해 8월 10일에는 조산대부朝散大夫 행행 현릉참봉에 임명되었고, 1년 뒤인 1733(영조 9)년 7월 18일에는 봉렬대부奉列大夫 행행 전생서봉사行典牲暑奉事에 임명되었다.

39세이던 1735년(영조 11) 1월 25일에는 봉정대부奉正大夫 행행 장흥고직장行長興庫直長에 임명되었는데, 이를 통해 신야가 전생서봉사行典牲暑奉事에서 장흥고직장으로 옮긴 것을 알 수 있다. 3개월 뒤인 4월 18일에는 중훈대부中訓大夫 행장흥고직장에 임명되었고, 다시 7개월 뒤인 11월 13일에는 중직대부中直大夫 행장흥고직장에 임명되었다. 40세이던 1736년(영조 12) 3월 16일에는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행 장흥고직장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 6월 2일에는 통훈대부 행행 장흥고주부長興庫主簿에 임명되었는데, 장흥고주부는 장흥고의 종6품 관직이었다. 그리고 같은 날 통훈대부 행종부시주부行宗簿寺主簿에도 임명되었다. 7월 2일에는 통훈대부 행행 호조좌랑戶曹佐郎에 임명되었다.

41세이던 1737년(영조 13) 7월 12일에는 통훈대부 행행 호조정랑戶曹正郎에 임명되었고, 9월 15일에 임실현감任實縣監에 임명되었다. 그는 이후 한동안 관직 활동이 보이지 않다가 12년 뒤인 53세이던 1749년(영조 25) 12월 21일 통훈대부 행행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에, 54세이던 1750년(영조 26) 9월 7일에 통훈대부 행행 용인현령龍仁縣令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62세이던 1758(영조34)년에 돈녕주부敦寧主簿에 제수되었다. 5월 25일에는 통훈대부 행행 종친부전부宗親府典簿에 임명되었다. 이후 그는 63세이던 1759년(영조 35) 5월 28일에 수운판관水運判官에 임명되었고, 죽은 뒤인 1858년(철종 9) 6월 4일에 증손 신상현에 의해 사복정司僕正에 증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경한의 손자인 신상현申常顯(1777~1864)은 자가 영세寧世이고, 호가 귀암歸菴으로, 여흥민씨와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다. 그는 29세이던 1805년(순조 5) 증광시增廣試에서 진사 2등 8인[전체 13등/100명]으로 입격하였다. 입격 이후 그는 성균관에서 수학하였고, 36세이던 1812년(순조 12)

4월 13일 광릉참봉光陵參奉에 임명되어 첫 관직생활을 하였다.

신상현은 38세이던 1814년(순조 14) 1월 7일 조봉대부朝奉大夫 행행 내섬시봉사內贍寺奉事로, 6월 24일 봉렬대부奉列大夫 행행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에 임명되었다. 같은 날의 『승정원일기』는 의금부도사 이시좌李時佐와 내섬봉사內贍奉事 신상현을 서로 바꾸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39세이던 1815년(순조 15) 7월 9일에는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행 의금부도사에, 40세이던 1816년 4월 5일에는 형조좌랑刑曹佐郎에, 6월 14일에는 종묘령宗廟令에 임명되었다.

41세이던 1817년(순조 17) 12월 16일에는 화순현감과和順縣監에, 44세이던 1820년 10월 5일에는 전설별제典設別提에, 11월 20일에는 통훈대부 행행 한성부주부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승정원일기』순조 21년(1821년) 5월 10일 기사는 한성부주부 신상현과 장악원주부 박호수朴鎬壽를 서로 바꾸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같은 해 10월 5일에는 통훈대부 행행 영희전령永禧殿令에 임명되었다.

46세이던 1822년(순조 22) 2월 10일에는 통훈대부 행행 토산현감兎山縣監에 임명되었고, 같은 날 토산현감 겸 황주진관토산병마절제도위黃州鎭管兎山兵馬節制都尉에도 임명되었다. 황주는 황해도에 설치된 거진巨鎭으로, 거진은 조선시대 각 도에 설치된 중간 규모의 군사진영이며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가 담당하였다. 토산은 황주의 소규모 진영인 제진諸鎭 중 하나로 병마절제도위가 담당하였는데, 이 관직은 동반東班의 현령·현감 등 수령이 겸직하였다. 즉 병마절제도위는 종6품의 서반외관직西班外官職으로 동반東班의 현령·현감 등 수령이 겸직한 것이다. 따라서 신상현은 토산현감이면서 황주진관토산병마절제도위를 겸직하였다.

48세이던 1827년(순조 27) 12월 22일에는 토산현감을 거쳐 삭녕군수朔寧郡守에 임명되었다. 51세이던 1827(순조 27)년 6월 25일에는 통훈대부 행행 서흥도호부사瑞興都護府使로 임명되었고, 7월에는 겸 황강진관서흥병마동첨절제사黃岡鎭管瑞興兵馬同僉節制使 대현수성장大峴守城將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신상현이 서흥도호부사瑞興都護府使로써 겸직한 것이다. 53세이던 1829(순조 29)년 6월에는 성주목사 겸 성주진병마첨절제사星州鎭兵馬僉節制使 독용수성장禿用守城將에 임명되었다. 4년 뒤인 1833년(순조 33)에는 57세의 나이로 어모장군禦侮將軍 행용양위부사과行龍驤衛副司果에, 58세 1834년에는 서원현감西原縣監에, 1년 뒤인 1835년(헌종 1) 1월 3일에는 통훈대부通訓大夫 겸 청주목사淸州牧使에 임명되었다. 63세에는 음죽현감陰竹縣監에 제수되었고, 다음 해인 1840년(헌종 6) 2월에는 통훈대부 행행 이천도호부사行利川都護府使로 임명되었다.

이후 80세이던 1856년(철종 7) 1월에는 절충장군折衝將軍 행행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에, 3월에는 절충장군 행용양위부호군 겸 오위장五衛將에 임명되었는데, 오위장은 오위의 으뜸 벼슬로 정 3품의 관직이다. 또한 『승정원일기』는 신상현이 같은 날 첨지僉知에도 임명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82세 되던 1858년(철종 9) 5월에는 가선대부嘉善大夫 행행 용양위호군에, 6월에는 부총

관副總管에, 12월에는 가선대부 행 용양위호군에 임명되었다.

신응조(1804~1899)는 가장 많은 64점의 고신告身을 남겼다. 그는 1852(철종 3) 정시庭試에서 병과丙科 10인[전체 13등/25명(갑1, 을2, 병22)]으로 급제하여 검열·이조정랑·부제학 등을 두루 거쳤고, 1866년에 이조참판·대사헌, 1871년에 강원도관찰사, 1873년에 형조판서·이조판서, 1874년에 예조판서에 임명되었다. 그는 1882년 7월 판부사判府事로 있으면서 왜양일체론倭洋一體論의 척사斥邪적 입장에서 사학邪學과 양술洋術을 배격하였다. 특히 그는 인천개항은 삼남과 서북의 이권을 침탈당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지리상의 요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양세력을 배척하고 수교 및 통상을 제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임오군란 이후 재집권한 대원군에 의하여 우의정에 임명되었지만 임오군란이 종결된 후 사퇴했고, 관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있다가 나중에 좌의정에 임명되었고, 곧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에 임명되었다. 퇴임한 뒤에는 기로소耄老所[조선시대 연로한 퇴임 관리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설치한 기구에 들어갔으며, 죽은 뒤에 문경文敬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신응조의 손자 신일영申一永(1845~1898)의 고신告身은 32점이 남아있다. 『국조방목國朝榜目』에 의하면 신일영은 28세이던 1872(고종 9)년에 정시庭試 병과丙科 8인[전체 11등/21명(갑1, 을2, 병18)]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그는 가주서假注書, 주서注書, 기사관記事官 등의 관직을 역임하였다. 30세이던 1874년(고종 11) 2월 14일에는 조봉대부 행행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에 이어 같은 달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행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 지제교知製敎 겸兼 경연검토관經筵檢討官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에, 전략장군宣略將軍 행행 용양위부사龍驤衛府使에 임명되었다. 5월에는 통훈대부 행행 병조정랑兵曹正郎에, 11월에는 통훈대부 행행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지제교 겸兼 경연검토관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에 임명되어, 30세에 관직생활을 시작함과 동시에 다양한 관직변화가 확인된다.

31세이던 1875년(고종 12) 8월에는 통훈대부 행행 홍문관부교리行弘文館副校理 지제교 겸兼 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 춘추관기주관에 임명되었고, 10월에는 통훈대부 행행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지제교 겸兼 경연시독관 춘추관기주관에 임명되었다. 32세이던 1876년(고종 13) 2월에는 통훈대부 행행 홍문관수찬 지제교 겸兼 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에, 8월에는 전략장군 행행 용양위부사과에 임명되었다. 2개월 뒤에는 통훈대부 행행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임명되었고, 12월 5일에는 다시 통훈대부 행행 홍문관수찬 지제교 겸兼 경연검토관 춘추관기사관에 임명되었다. 33세이던 1877(고종 14)년 4월에는 통훈대부 종친부정宗親府正 겸兼 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에 임명되었다. 한 달 뒤인 6월에는 어모장군禦侮將軍 행행 용양위부사직龍驤衛副司直에, 8월에는 통훈대부 행행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 지제교知製敎 겸兼 경연시독관經筵侍讀官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에 다시 임명되었다. 또한 같은 달에는 어모장군 행행 용양위부사직에도 임명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통훈대부

행행 홍문관부응교弘文館副應敎 지제교 겸 경연시강관經筵侍講官 춘추관편수관에 임명되었다. 11월에는 통훈대부 행행 사간원사간司諫院司諫에, 다음 달인 12월에는 어모장군 행행 용양위부사직에 임명되었다.

34세이던 1878년(고종 15) 9월에는 겸 남학교수南學敎授에, 11월에는 통훈대부 행행 홍문관부응교 지제교 겸 경연시강관 춘추관편수관에 임명되었다. 다음 달인 12월에는 통훈대부 행행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 겸 남학교수에 임명되었다. 35세이던 1879(고종 16)년 1월에는 통훈대부 행행 홍문관부응교 지제교 겸 경연시강관 춘추관편수관에 다시 임명되었다. 38세이던 1882년(고종 19) 4월에는 통훈대부 행행 홍문관부응교弘文館副應敎 지제교 겸 경연시강관 춘추관편수관에 임명되었고, 6월 22일에는 동부승지同副承旨에, 6월 29일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우부승지承政院右副承旨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에 임명되었다.

이후 신일영은 38세이던 1882년에 형조참의刑曹參議, 41세이던 1885년에 부호군, 48세이던 1892년에 우승지右承旨, 50세이던 1894년에 대사성大司成, 청주목사淸州牧使, 우부승선右副承宣, 54세이던 1898년 연산군수連山郡守,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등을 역임하고 그해에 생을 마감하였다.

4. 평산신씨가 고서·고문서의 종류와 특징

1) 고서

평산신씨 춘천 종회의 소장 고서는 총 122점인데, 문집류가 49점으로 가장 많은데 대부분 근현대에 발간된 자료이다. 족보류는 39점인데 이 역시 대체로 현대에 편찬·간행되었다. 그리고 역시 현대에 발간된 서원지書院誌 6점이 전한다. 『표충단지表忠壇誌』는 신승겸 장군이 전사한 곳에 세운 표충단의 사적과 문헌 등을 모아 신옥申鉦이 엮은 책이다. 『용산단지龍山壇誌』는 신승겸 장군의 유적지인 곡성 구룡리의 용산재龍山齋와 구룡문九龍門을 1960년에 세우면서 1961년 덕양서원德陽書院 용산단龍山壇등에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신승겸 장군의 유허지의 역사와 사적에 관련한 내용, 유사·사적·유묵·문헌·제영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사간공파思簡公派 세보, 임원, 방명록 등이 실려 있다. 『율리사창건지栗里祠建誌』는 평산신씨의 시조인 신승겸申崇謙을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신현申賢·신혼申暉·신연申演·신기申淇와 조선시대의 신철申澈·신오申澳 등 7인을 배향한 사우祠宇의 창건과 행장行狀 등을 기록한 책이다. 그 외에 『한림정지翰林亭誌』, 『노은영당지老隱影堂誌』, 『충열사지忠烈祠誌』 등이 있다.

종 류	수 량	종 류	수 량
간찰첩	1	예학서	3
경서	2	일기	2
기행록	3	절목	2
문집	48	족보	39
방명록	1	필사	5
서원지	7	행장	1
역사서	6	향안	1
총계		121	

평산신씨 강릉 종회의 고서 중 주목할 만한 자료로는 『장절공묘소정식절목壯節公墓所定式節目』과 『장절공묘소수호절목壯節公墓所守護節目』 그리고 『묘알록墓謁錄』 등이다. 『장절공묘소정식절목』 등이 있는데, 이는 현재 장절공 제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헌이다. 강원도 관찰사 신헌조申獻朝(1752~1807)의 서문에 의하면 1803년에 절목節目이 정리되어 완성되었다. 『장절공묘소정식절목』에는 신헌조의 서문에 이어서 장절공 묘소를 관리하기 위한 경비 마련 및 관리, 묘소 관리를 위한 인원의 배치 및 운용, 제향 준비 절차, 제수 진설, 제향 거행 순서 등 장절공 묘소의 관리 및 제향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이 모든 행위가 종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1897년(광무 1)년에는 묘역 근처에 거주하던 신복려라는 사람이 서울에 사는 이나가라는 사람과 공모해서 청나라 사람을 끌어들여 묘역 안에서 80여 그루의 노송을 벌목하였다가 후손들에게 고발당하여 처벌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신건조申建朝가 쓴 『장절공묘소수호절목壯節公墓所守護節目』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이 절목을 보면 감관監官 1명, 묘직墓直 1명, 수호군守護軍 30인을 정하되 수호군은 당초 관에서 역으로 배정하였으나 호포제戶布制 실시 이후 수호군들

이 일신양역一身兩役[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맡음]이라 하여 즐겨하지 않자 종종에서 호포가액戶布價額을 마련하여 대납하였다. 그리고 수호군은 춘추제향 때 의무적으로 2일씩 입번入番[관리가 관청에 들어가 숙직하게 근무하는 일]하고, 일이 있을 때는 지시에 따라 거행하며, 기타 묘역의 소제와 묘역 안 나무의 금양禁養[산의 나무나 풀을 함부로 베지 못하게 금지하여 가꿈] 등을 각별히 이행하되 혹 범작자犯斫者[베지 못하게 한 나무를 함부로 베는 사람]가 있으면 수호군은 즉시 감관監官[각 관아에서 금전이나 곡식의 납을 맡아보거나 중앙정부를 대시하여 특정 업무의 진행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관리]에게 알리고 감관은 도유사都宥司에게 알려 조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종문에서 모금한 것과 1897년 범작犯斫 사건 때 회수한 나무 판매 대금 300냥과 사건 관계자로부터 받은 속전 6냥을 보태서 사용하였다.

『장절공묘소수호절목』에는 제사 음식을 차리는 방식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조선 초기부터 사대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주자朱子(1130~1200)의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기반으로 하고, 율곡栗谷 이이李珣(1536~1584)의 『격몽요결擊蒙要訣』에 나오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렇지만 신송겸의 제사에서는 그것들 보다 훨씬 확대된 방식의 제사 음식이 차려졌으며, 그것은 강원도 내의 다른 가문과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었다.

장절공 묘역에 참배하는 후손이나 기타 내방객의 『묘알록墓謁錄』이 남아있다. 언제부터 『묘알록』이 작성되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1786년(정조 10)에 양양현감 신대관申大觀이 묘를 참배하고 묘예墓隸(?)를 불러 『묘알록』을 물으니 '고록古錄은 모두 망일亡逸하였다'고 대답하였다. 신송겸 묘재실에 비치되어 있던 이 고록은 적어도 임진왜란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 소장본의 『묘알록』 첫머리에는 신대관이 1786년에 작성한 글이 실려있지만 신대관이 처음 참배한 것은 1771년이었다. 그러므로 서문은 1785년(정조 9)에 신대관이 양양현감이 되어 다시 신송겸 묘를 참배할 때 써서 붙인 것으로 보인다.

2) 고문서

평산신씨 춘천 종중의 고문서 자료는 총 475점이고, 간찰류가 166점으로 가장 많다. 간찰류는 모두 가족 간의 편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간찰이 다수이고, 신경한의 간찰이 38점이다. 교령류는 모두 134점의 교서·교지·백패가 전한다. 특히 정언공과正言公派 가문의 고신告身 64건 뒷면에는 '이리오○○(吏吏吳○○)'가 확인되는 데, 이리吏吏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던 이조정색서리吏曹政色書吏를 가리킨다.

세분	건수	세분	건수
교령_교서	2	첩관통보_포폄	3
교령_교지_신상현	22	치부기록_관안	1
교령_교지_신석화	3	치부기록_납세	1
교령_교지_신야	15	치부기록_단자	1
교령_교지_신응조	64	치부기록_장례	3
교령_교지_신일영	30	치부기록_화제	1
교령_백패_신야	1	서간통고_간찰	166
가계기록_가승	2	시문류_시권	7
가계기록_묘지명	8	시문류_시문	62
가계기록_연보	2	시문_제문	15
가계기록_정려	1	시문_기문	8
가계기록_행장	9	완의	1
계문서 등	1	호적	1
산송	1	제례	7
상장례	3	혼인	6
장서목록	1	기타	10
저술	17	총	475

신상현, 신응조, 신일영이 발급받은 고신 뒷면에 이조정색서리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름을 살펴보면 오한원吳漢源이 6점, 오근원吳近源 1점, 오계원吳繼源 1점, 오상묵吳相默 13점, 오명환吳命煥 43점으로 모두 오씨(吳氏) 성을 가진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성씨만을 가지고 이들의 관향 또한 같은 친척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조선후기에 서리 채용이 취재에서 세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은 동성동본이면서 가까운 친척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조정색서리들이 특정 집안의 문서를 담당할 경우 단골 또는 단골리 등의 별칭으로도 불리었는데, 오상묵과 오명환은 화성의 풍양조씨 가문의 고신告身에도 단골리로 문서의 뒷면에 이름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시문이 다수 남아 있으나 누구의 시문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대다수여서 아쉬움이 남는다.

다음 제문祭文이 15편이 남아 있는데 신석화가 지은 부인 민씨에 대한 제문을 비롯하여 가족 간의 제문과 신용조의 죽음에 대한 제문 등이 있다. 가계 기록류에는 묘갈명墓碣銘을 필사한 자료와 신석화와 신야·신경한의 행장과 신경한이 지은 조모 의령남씨에 대한 행장 등을 필사하여 남긴 자료가 있다. 그 외 신야와 신경한·신태수 등의 혼인과 관련한 납폐지納幣紙가 있고, 지방관의 근무성적을 정리한 표품褒貶 문서와 수령안, 조선말 고종 때 청주지역의 공납안貢納案 등의 문서를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平山申氏大同譜大宗中, 平山申氏大同譜, 1989.
-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4
- 崔承熙,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2003
- 고민정, 「조선 후기 춘천 사족의 사회조직구조와 운영방식」, 『서강인문논총』 51, 2018.
- 김풍기, 「조선 후기 제례(祭禮)에 나타난 제수(祭需) 진설(陳設)의 사례 연구 - 『장절공묘소정식절목서(壯節公墓所定式節目序)』, 『한민족문화연구』 73, 한민족문화학회, 2021.
- 申大秀, 「申崇謙의 出身·成長과 宣揚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유재춘, 「春川 소재 壯節公 申崇謙遺蹟地의 조성 경위와 특징」, 『인문과학연구』 37,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 홍성익, 「춘천 신숭겸장군 묘역의 역사성과부속 시설물 배치에 대한 검토」, 『인문과학연구』 73,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2.
- 조상우, 「『平山申氏壯節公遺事·平山申氏家乘』의 서지와 내용, 그리고 그 의미」, 『어문논집』 94, 민족어문학회, 2022

天命而今夫在乎子思之時則只言性而在乎孟子之時
則言其善不善然後方可以明性在乎孟子之時則始
言善不善而至于程張之時則言其本然氣質然後
亦可以明性矣然則孟子之始言性善者豈非發明子
思言性之本乎程張之始言者亦非擴充孟子論性之
義乎以是推之則一箇性也而思聖之訓至孟子而益
彰那聖之訓至程張而尤著則前聖後聖雖曰或言
或不言而孟子之言善不善豈非思聖之言性乎程張
之氣質本然有言不言之義莫詳於是矣而呂氏子約論

此生命之義如有曰夫子性命謝揚二子亦論性命之義而

평산신씨의
고문서

知學子沈魯信年三十六本青松居士
又學子生 樂敬
生又知學 樂書
祖通大天行 社稷男公 又次
曾祖通政父行大興郡守 州鎮官 兵馬洞會判別使 義顯
外祖孫善公 知學子 丙申年 五陽郡 德府 判別使 孫 魯公 上 十

問云

一
一
一

對於戲性是一也而時愈降而言益詳何者性本於

1. 국가 정사에 참여하다

평산신씨가의 문서 가운데 관직 진출과 관련된 문서는 과거시험 답안지인 시권試券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생원·진사과 복시覆試 합격자인 생원·진사에게 발급한 합격증서인 백패교지白牌教旨와 조선시대 왕이 신하에게 관직·관작·자격·시호·토지·노비 등을 내려주는 명령서인 教旨, 국왕의 명령서인 교서敎書 등이 있다. 또 관직 생활 중 남긴 문서로 관리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포폄褒貶 문서, 지방 수령들의 명단인 수령안, 지방관아에서 중앙관청에 납부하는 공물을 정리한 공납안貢納案, 선행을 칭찬하고 세상에 드러내어 널리 알리는 정표문旌表文, 상소문上疏文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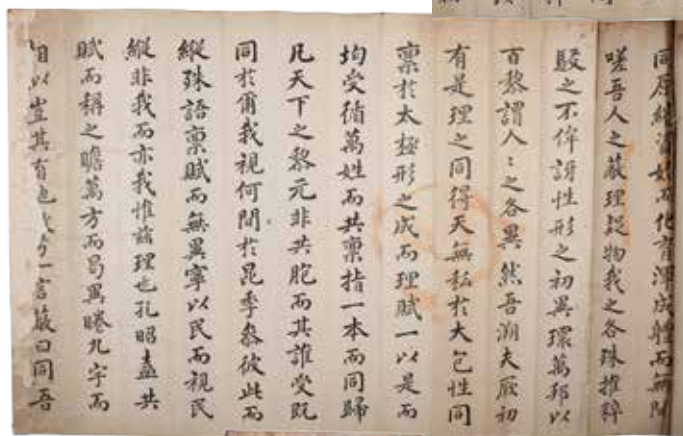
평산신씨가의 시권은 신의申愷(?~?)의 소과小科 시권을 비롯하여 신용조申應朝(1804~1899)의 소과 시권 2점, 신태수申澤秀(1881~?)의 소과 시권, 심노신의 소과 시권과 누구것인지 알 수 없는 시권 2점이 있다. 교지는 평산신씨가의 고문서 가운데 간찰簡札 다음으로 많은 수량을 보이고 있는데, 신석화申錫華(1672~1714)·신야申堉(1697~1759)·신상현申常顯(1777~1864)·신응조·신일영申一永(1845~1898)의 교지가 있다. 포폄 문서는 강원도와 평안도의 관리들에 대한 평가 문서이고, 수령안은 충청도 관내의 수령 명단이며, 공납안은 청주지역에서 공납한 내역이다. 그 외 신헌조申獻朝(1752~1807)가 강원도내 군현 수령의 근무성적을 간단하게 정리한 문서인 세초, 신용조가 강원도관찰사로 각지를 돌아보며 남긴 글로 보이는 「계전선생신공관찰관서서桂田先生申公觀察關西敍」, 임진왜란 때 순국한 문경현감 신길원申吉元(1548~1592)의 충절에 대해 내린 「정표문旌表文」이 있다.

01 신의 시권

申愷 試券

68.6×195.0cm

1783년(정조 7) 유학幼學 신의가 28세 때 소과小科에서 3등 69인으로 입격한 시권. 시권 수납 순위는 래축來軸[천자문 순서로 18번째 글자인 '來'를 적어 묶은 묶음] 네 번째[사래四來 : 전체 1,804번째]이고, 시험 과목은 부賦이며, 시제는 張載(1020~1077)의 「서명西銘」에 나오는 “민오동포民吾同胞[백성은 나의 동포이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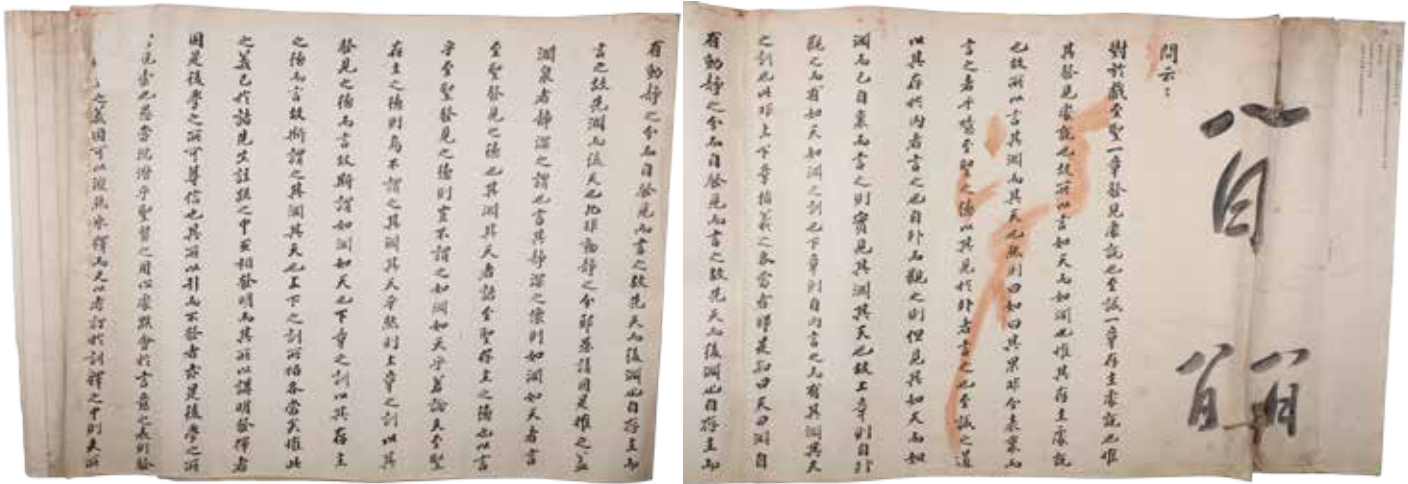
02 신응조 시권

申應朝 試券

73.2×196.7cm

1828(순조 28)년 유학幼學 신응조가 25세 때 소과小科에서 차하次下[12 등급 중 열 번째]* 성적으로 합격한 시권. 시권 수납 순위는 백축白軸 여덟 번째[팔백八白 : 전체 1,338 번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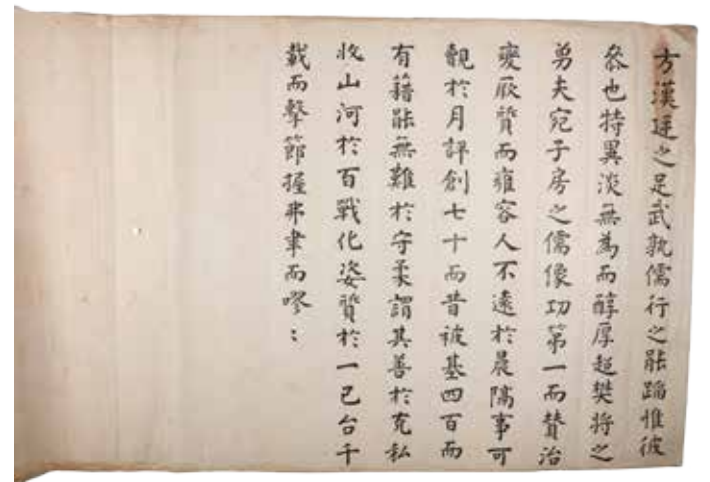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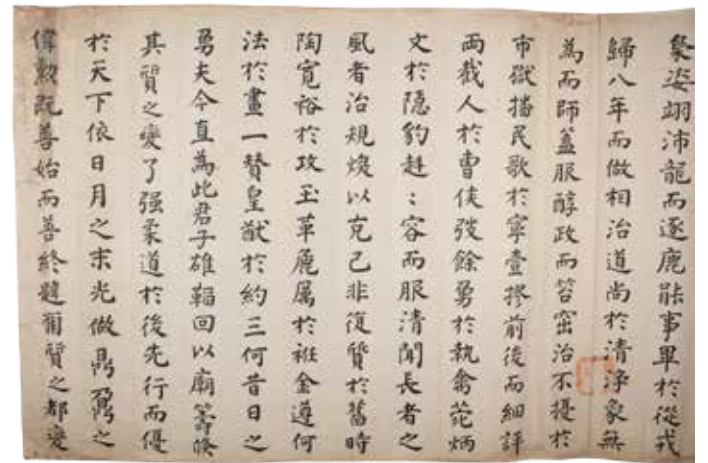
* 12등급 :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이상二上, 이중二中, 이하二下, 삼상三上, 삼중三中, 삼하三下이며,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



申應朝 試券

75.3×196.0cm

1834년(순조 34) 유학 신응조가 31세 때 식년시式年試 소과小科에서 진사 3등 4인[전체 34등/100명(1등1, 2등23, 3등186)]으로 입격한 시권. 시권의 수납 순위는 서축書軸의 여덟 번째 [팔서八書 : 전체 198번째]이고, 시험 과목은 부賦이며, 시제試題는 “치국위천하기질도변治國爲天下氣質都變[나라를 다스림은 천하의 기질을 모두 변하게 하는 것이다]”이다. 초장初場[첫 번째 시험]은 3월 20일, 종장終場[마지막 시험]은 22일, 출방出榜[합격자 발표]은 24일, 방방放榜[합격증서 수여날]은 4월 4일로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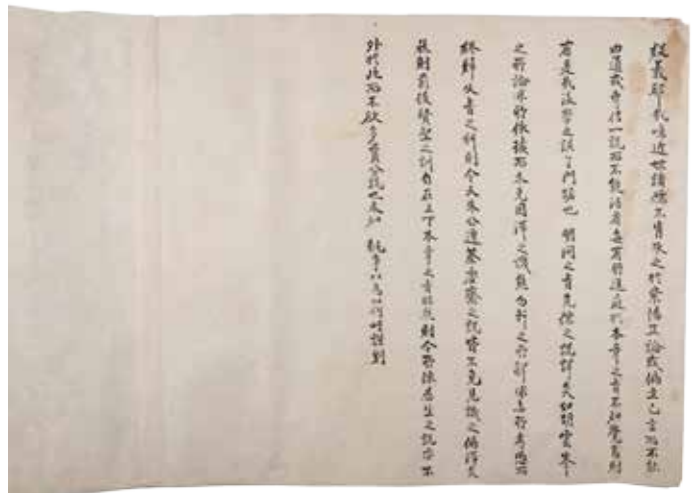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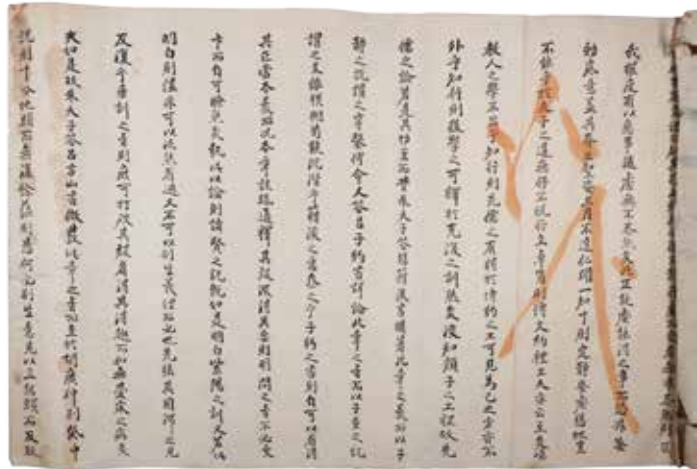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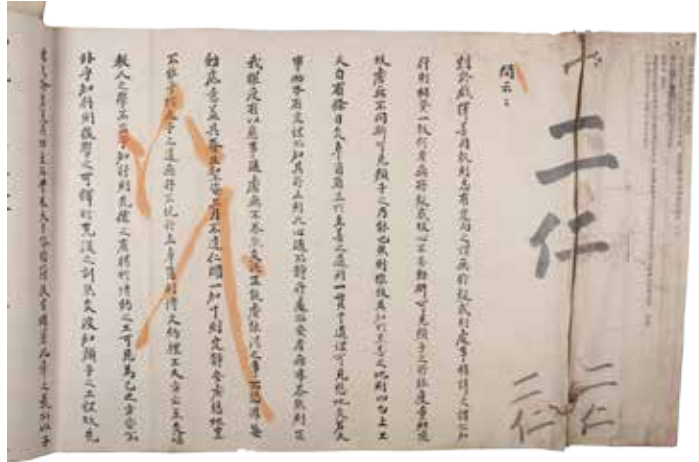


신탁수 시권

申澤秀 試券

66.3×195.0cm

1888년(고종 25) 유학 신탁수(1881~?)가 18세 때 식년시식年試 소과小科에서 생원 3등 177인[전체 205등/214명(1등 5, 2등23, 3등186)]으로 입격한 시권. 시권의 수납 순위는 전체에서 인축仁軸의 두 번째[이인二仁 : 전체 3,692번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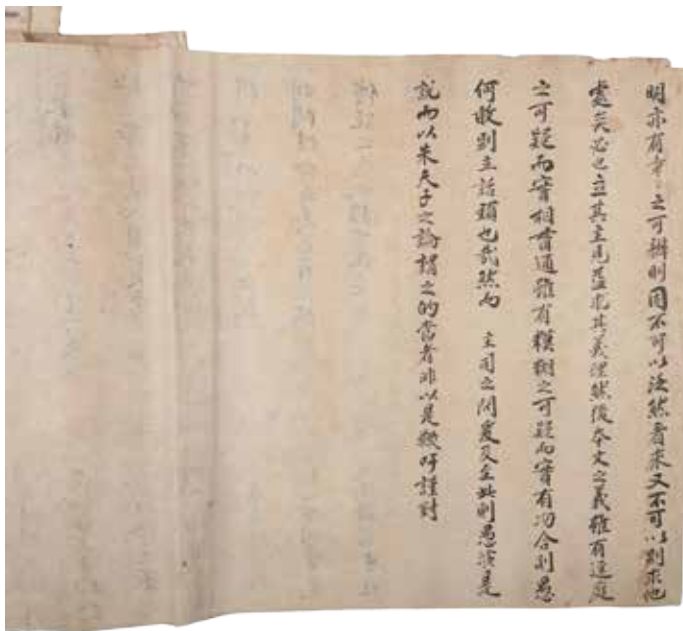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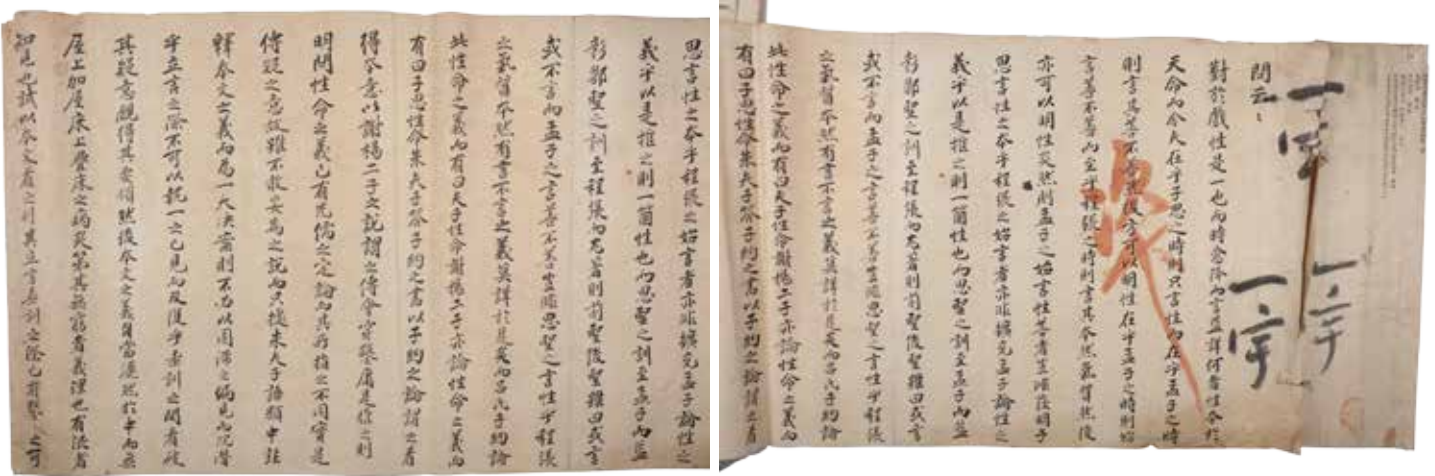


심노신 시권

沈魯信 試券

65.0×166.0cm

유학幼學 심노신이 36세 때 소과小科에서 차하次下로 합격한 시권. 시권의 수납 순위는 우축宇軸 첫 번째[일우一字: 전체 61번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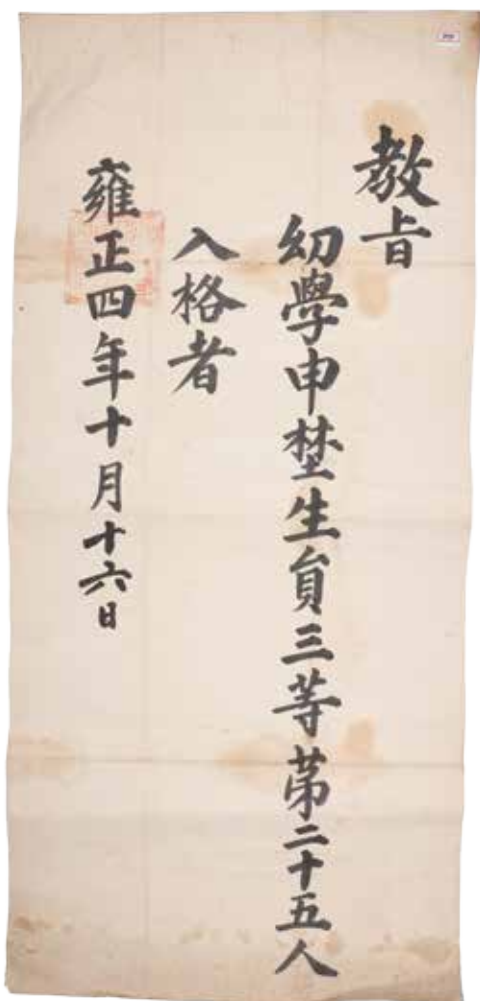


06 신야 백패 교지

申堃 白牌 教旨

99.5×46.7cm

1726년(영조 2)년 10월 16일에 유학幼學 신야(1697~1759)가 30세 때 식년시式年試에서 생원 3등 25인[전체 55등/100명(1등5, 2등25, 3등70)]으로 합격한 뒤에 발급받은 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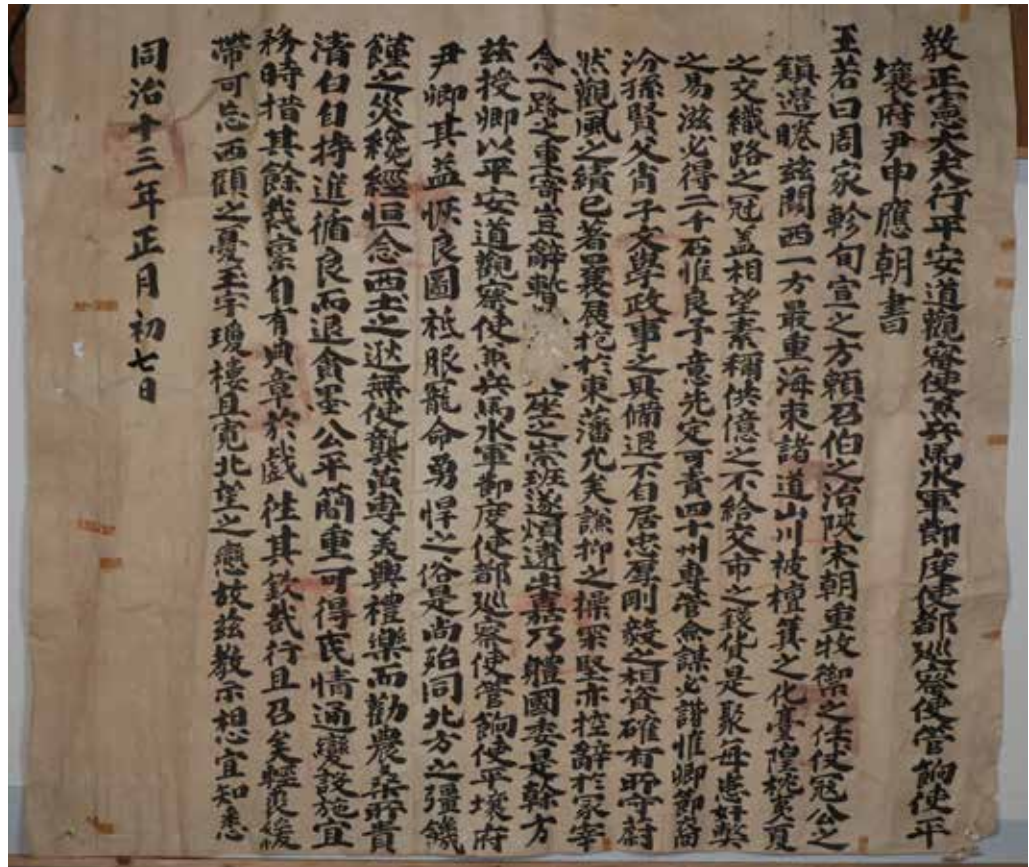


07 | 신응조 교서

申應朝 教書

118.5×112.5cm

1873년(고종 10) 1월 26일에 고종이 신응조(1804~1899)에게 내린 교서. 1872년(고종 9) 10월 14일에 강원도江原道 관찰사觀察使 겸 병마수군절도사兵馬水軍節度使 도순찰사都巡察使 원주목사原州牧使에 임명되었던 신응조의 임기를 유임시키고 나서 이듬해인 1873년(고종 10) 1월 26일에 정헌대부正憲大夫 행평안도관찰사行平安道觀察使 겸 병마수군절도사兵馬水軍節度使 도순찰사都巡察使 관향사管餉使 평양부윤平壤府尹으로 임명한 교서이다.



教正憲大夫行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管餉使平壤府尹申應朝書

王若曰周家軫旬宣之方賴召伯之治陝宋朝重牧禦之任仗寇公之鎮邊睠茲關西一方最重海東諸道山川被檀箕之化臺隍枕夷夏之交織路之冠蓋相望素稱供億之不給交市之錢貨是聚每患奸弊之易滋必得二千石惟良予意先定可責四十州專管僉謀必諧惟卿節裔汾孫賢父肖子文學政事之具備退不自居忠厚剛毅之相資確有所守蔚然觀風之績已著曩展抱於東藩允矣謙抑之操架堅亦控辭於冢宰念一路之重寄豈辭暫■■■座之崇班遂煩遠出嘉乃體國委是幹方茲授卿以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管餉使平壤府尹卿其益恢良圖祇服寵命勇悍之俗是尙殆同北方之疆饑饉之災纔經恒念西土之遯無使龔黃專美興禮樂而勸農桑所貴清白自持進循良而退貪墨公平簡重可得民情通變設施宜務時措其餘裁稟自有典章於戲往其欽哉行且召矣輕裘緩帶可忘西顧之憂玉宇瓊樓且寬北望之戀故茲教示想宜知悉
同治十三年正月初七日

정헌대부正憲大夫 행평안도관찰사行平安道觀察使 겸兼 병마수군절도사兵馬水軍節度使 도순찰사都巡察使 관향사管餉使 평양부윤平壤府尹 신응조申應朝 교서敎書

왕이 이르기를, “주周나라는 왕명을 두루 선포[순선旬宣]¹⁾하는 방도를 헤아렸기에 소백召伯을²⁾ 힘입어 섬陝 지역을 다스린 것이고, 송나라는 목민과 방어의 임무를 중시했기에 관공寇公을³⁾ 의지해 국경을 안정시킨 것이다. 이 관서 지방을 돌아보면 우리나라 여러 도 가운데 가장 중요하니, 산천은 단군과 기자의 교화를 입었고, 돈대墩臺[주변 관측이 용이하도록 평지보다 높은 곳에 설치한 소규모 군사 기지]와 해자壕字[성 주변에 파 놓은 못]는 이하夷夏[오랑캐와 중국]가 교차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빈번하게 왕래하는 사신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아 평소에 대접하는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며, 호시포市[국가 간의 물물교역]의 재화가 모여들어 간폐奸弊[교묘하게 속이는 부정행위]가 쉽게 불어나 매번 우환이

1) 순선旬宣: 관찰사觀察使의 임무로서 널리 사방으로 복종시켜 왕명王命을 두루 펼치는 일. 『시경詩經』 『대야大雅』의 “내순내선來旬來宣”에서 온 말.
2) 소백召伯: 주나라 무왕武王의 신하로 이름은 석훤. 성왕成王 때에는 삼공三公이 되어 주공周公과 함께 섬주陝州를 동서로 나누어 서쪽을 맡아 다스렸다.
3) 관공寇公: 후한後漢 때의 구순寇攄. 영천 태수潁川太守를 지냈는데, 천자를 따라 출정했을 때 영천의 백성들이 길을 막고 구순을 다시 1년 동안 빌리고 싶다고 황제에게 청한 일이 있다.

되니, 반드시 2천석二千石의 녹봉을 받는 어진 관리를 얻어야 한다. 내 뜻을 먼저 정하였더니, 40개 고을을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도 제대로 합치되었다.

경卿만이 절조 높은 후손이자 훌륭한 부모를 둔 뛰어난 자식으로, 학문과 정사政事가 갖추어졌음에도 사양하여 자처하지 않으니, 충후忠厚·강의剛毅의 마음이 서로 도와 확고히 지키는 바가 있음이다. 다른 지방의 풍속을 자세히 살핀 성대한 공적이 이미 드러나 전부터 동번東藩에 포부를 펼쳤으나, 진실로 남에게 사양하는 지조가 매우 굳세어 또한 이조판서에게 사임을 청하였다. 한 도를 관장하는 중임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면 어찌 잠시라도 팔좌八座[재신급宰臣級 8명의 고위 관료]의 높은 반열 -2차 결락- 끝내 멀리 나가는 것을 번거롭게 여겨 사양할 수 있겠는가? 너의 나라를 제 몸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상히 여겨 나라 안정시키는 일을 맡기노라.

이에 경에게 평안도관찰사平安道觀察使 겸 병마수군절도사兵馬水軍節度使) 도순찰사都巡察使 관향사管餉使 평양부윤平壤府尹를 제수하니, 경은 좋은 계책을 더욱 펼쳐 짐의 명에 공손히 복종하도록 하라. 날래고 사나운 풍속을 숭상하는 것이 거의 북방 지역과 같고, 기근의 재앙이 겨우 지났으니, 항상 염두하고 서쪽으로 가면 공수龔遂와 황패黃霸⁴⁾ 아름다움을 독차지하게 하지 말라. 예악禮樂을 흥기 시키고 농사일과 누에 치는 일을 권면하라. 청렴결백하게 자신 단속하기를 귀히 여기고, 어진 자를 들어 올리며 탐관오리를 물러나게 하라. 공평하고 엄중하면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상황에 맞게 대처[通變]해 시행하고 의당 때에 맞게 조치하는 것에 힘쓸 것이며, 그 나머지 품의하고 재가받을 일에 있어서는 법에 나와 있으니 그대로 하면 될 것이다.

아! 가거든 왕명을 시행하는 데에 공경히 하라. 떠나면 또한 부를 것이다. 가벼운 옷을 입고 허리띠를 느슨하게 해 서쪽 변방에 대한 걱정을 잊을 수 있을 것이며, 궁궐에서 또한 북쪽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는 마음을 편히 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이렇게 교시하는 바이다. 잘 알았으리라 생각한다.

동치 13년(1874년) 정월 초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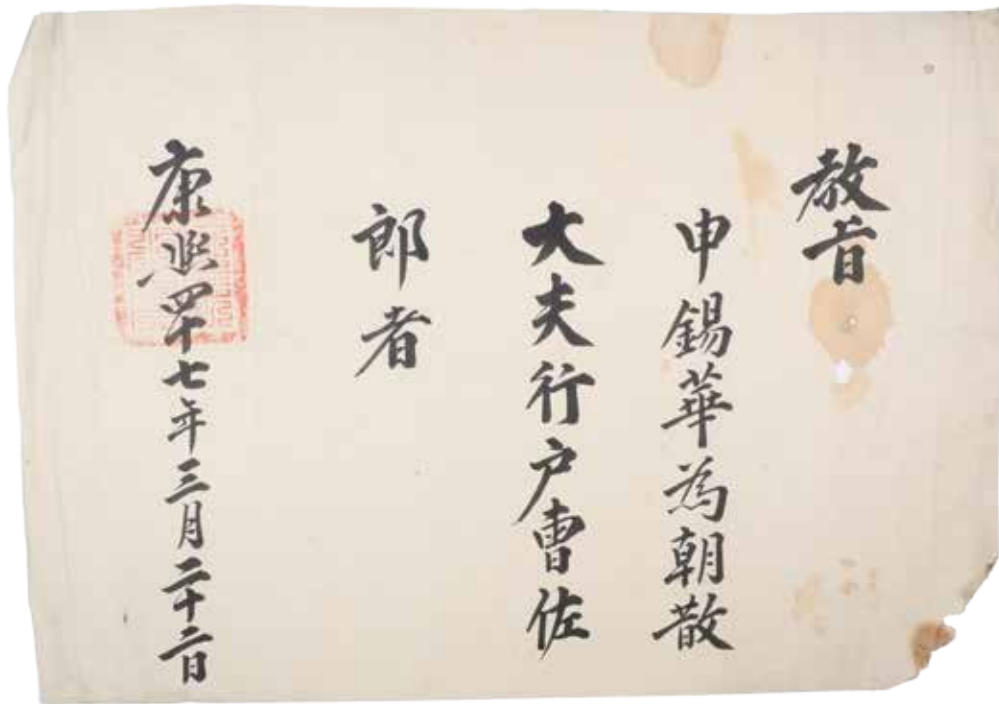
4) 공수龔遂와 황패黃霸 : 한漢 선제宣帝 때의 순리循吏인 발해태수渤海太守 공수와 영천태수潁川太守 황패의 병칭이다.

신석화 교지

申錫華 教旨

52.5×75.0cm

1708년(숙종 34) 3월 22일 신석화(1672~1714)를 조산대부朝散大夫 행호조좌랑行戶曹佐郎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신석화는 28세이던 1699년(숙종 25) 식년시式年試에서 진사 3등 62인[전체 92등/100명(1등5, 이등25, 3등70)]으로 입격한 뒤에 빙고별검米庫別檢, 장흥주부長興主簿, 감찰監察, 호조좌랑戶曹佐郎, 순안현령順安縣令, 익위翊衛 등을 역임하고 1713년 가평군수加平郡守를 사직하면서 관직 활동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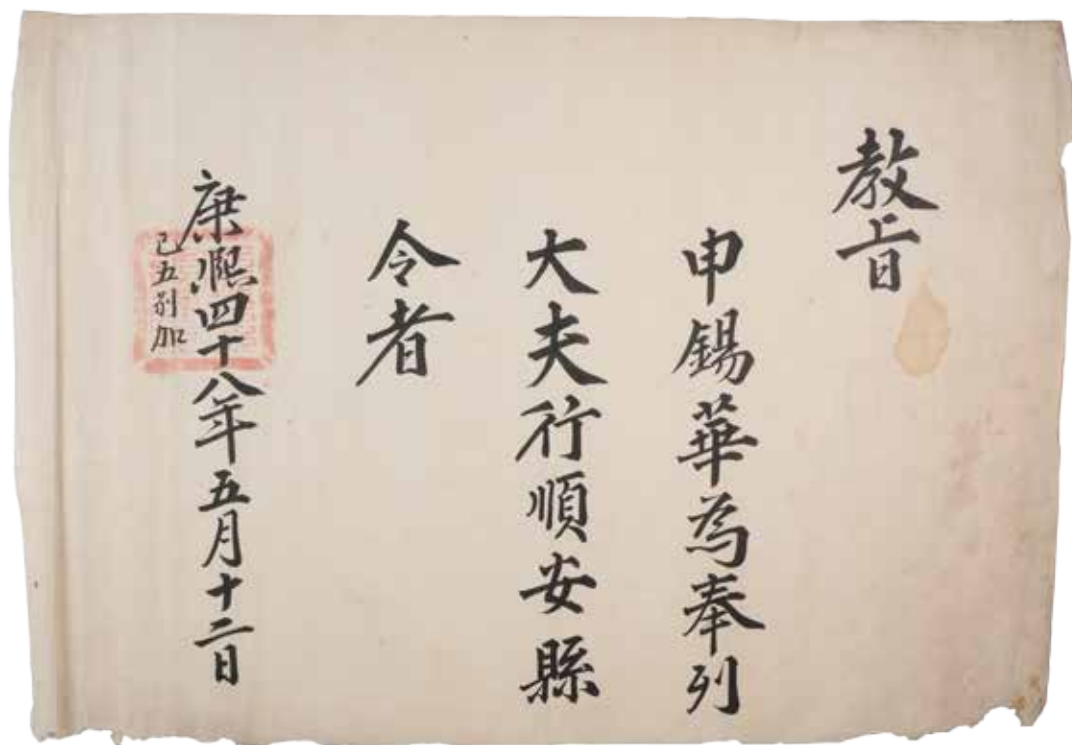


09 신석화 교지

申錫華 教旨

53.8×78.0cm

1709년(숙종 35) 신석화(1672~1714)를 봉열대 부奉列大夫 행순안현령行順安縣令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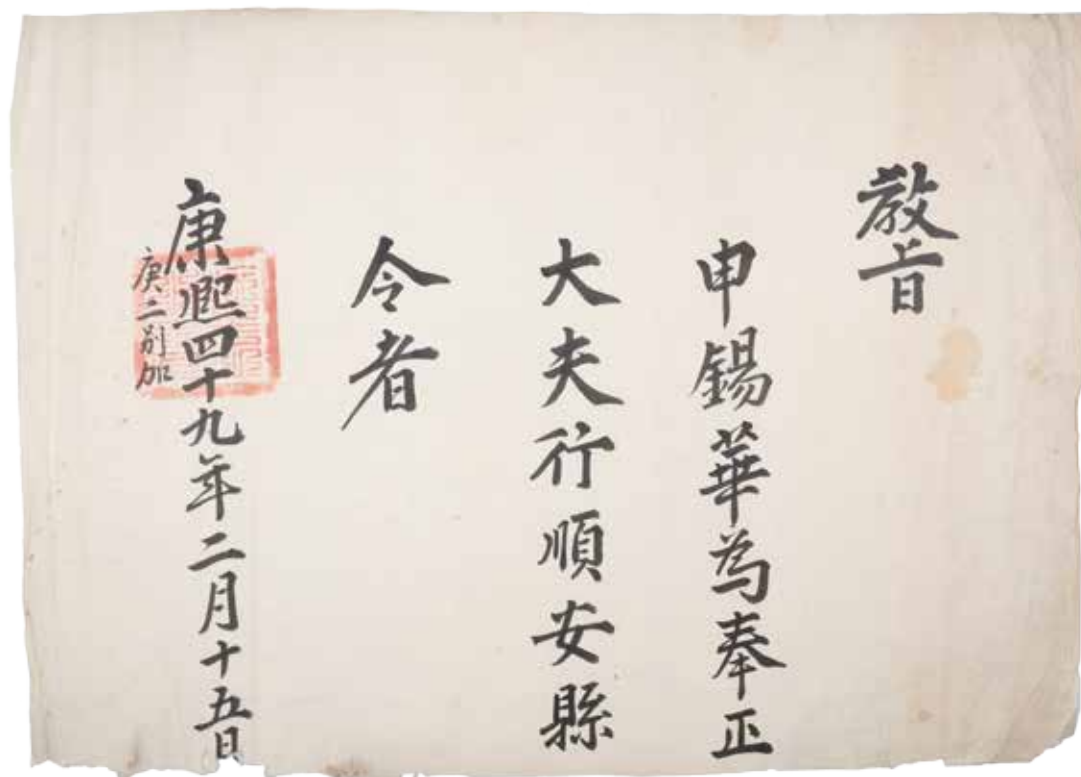


10 | 신석화 교지

申錫華 教旨

54.0×75.5cm

1710년(숙종 36) 2월 15일 신석화(1672~1714)를 봉정대부奉正大夫 행행 순안현령順安縣令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1 | 신야 교지

申埜 教旨

56.8×79.0cm

1732년(영조 8) 3월 20일 신야(1697~1759)를 조봉대부朝奉大夫 奉行 현릉참봉顯陵參奉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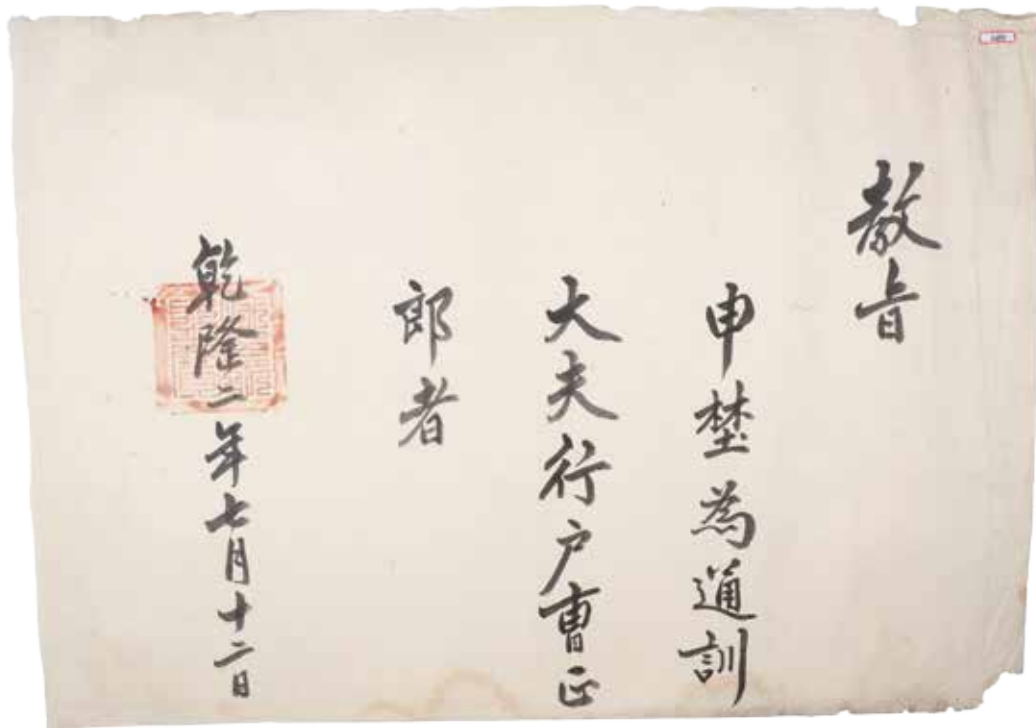


신야 교지

申楚 教旨

56.5×80.5cm

1737년(영조 13) 7월 12일 신야(1697~1759)를 통후대부通訓大夫 행행 호조정랑戶曹正郎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13 신야 교지

申埜 教旨

56.8×79.0cm

1758년(영조 34) 5월 25일 신야(1697~1759)를 통훈대부通訓大夫 奉行 종친부전부宗親府典簿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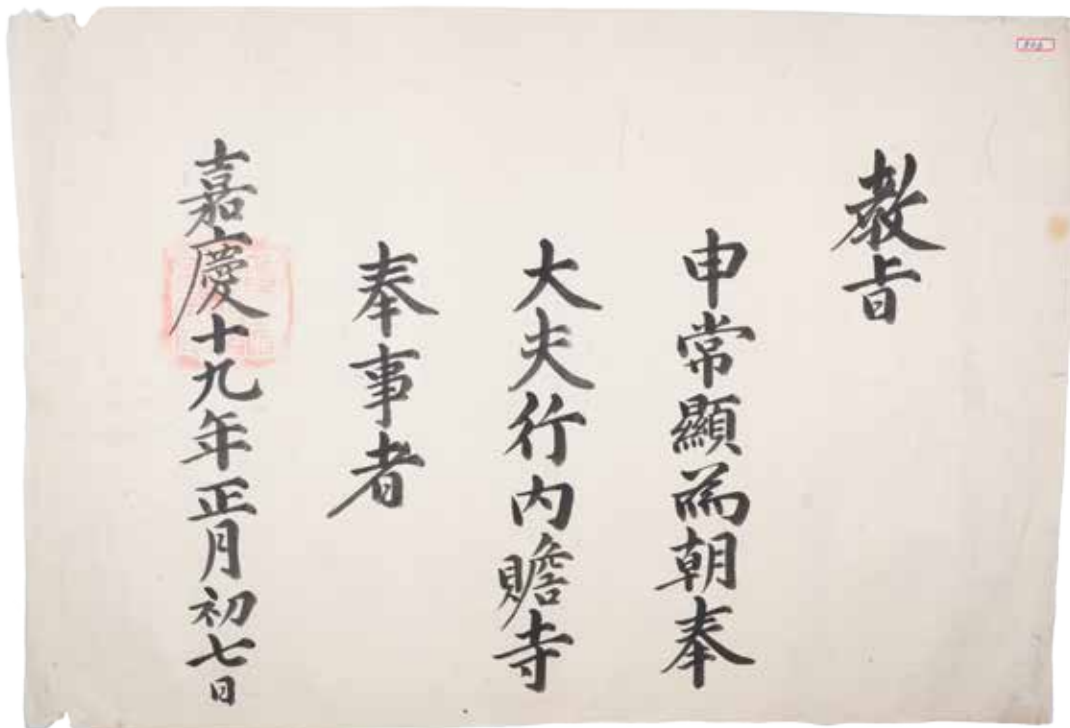


신상현 교지

申常顯 教旨

56.3×82.3cm

1814년(순조 14) 1월 7일 신상현(1777~1864)을 조봉대부朝奉大夫 행행 내섬시봉사內贍寺奉事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신상현은 29세이던 1805년(순조 5) 증광시增廣試에서 진사 2등 8인[전체 13등/100명(1등5, 2등25, 3등70)]으로 입격한 뒤에 성균관에서 수학하였고, 광릉참봉光陵參奉, 형조좌랑刑曹佐郎, 종묘령宗廟令, 토산현감兔山縣監, 성주목사星州牧使, 청주목사淸州牧使, 오위장五衛將, 부총관 등을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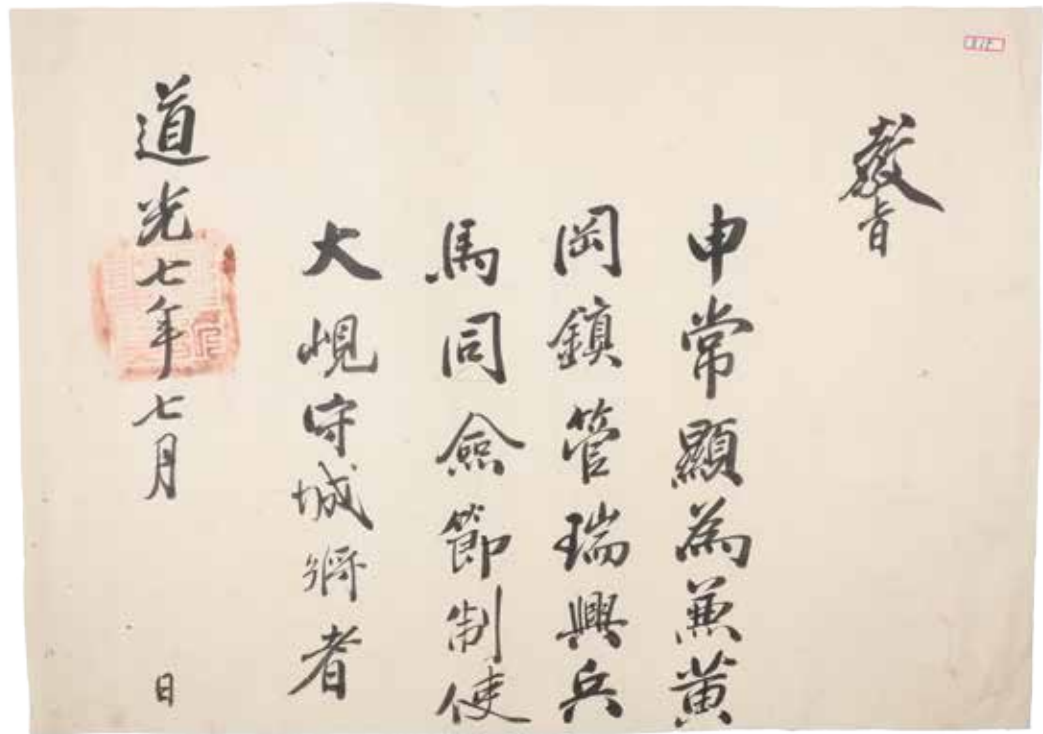


신상현 교지

申常顯 教旨

52.5×73.5cm

1827년(순조 27년) 신상현(1777~1864)을 겸 황강진관兼黃岡鎭管 서흥병마동첨절제사瑞興兵馬同僉節制使 대현수성장大峴守城將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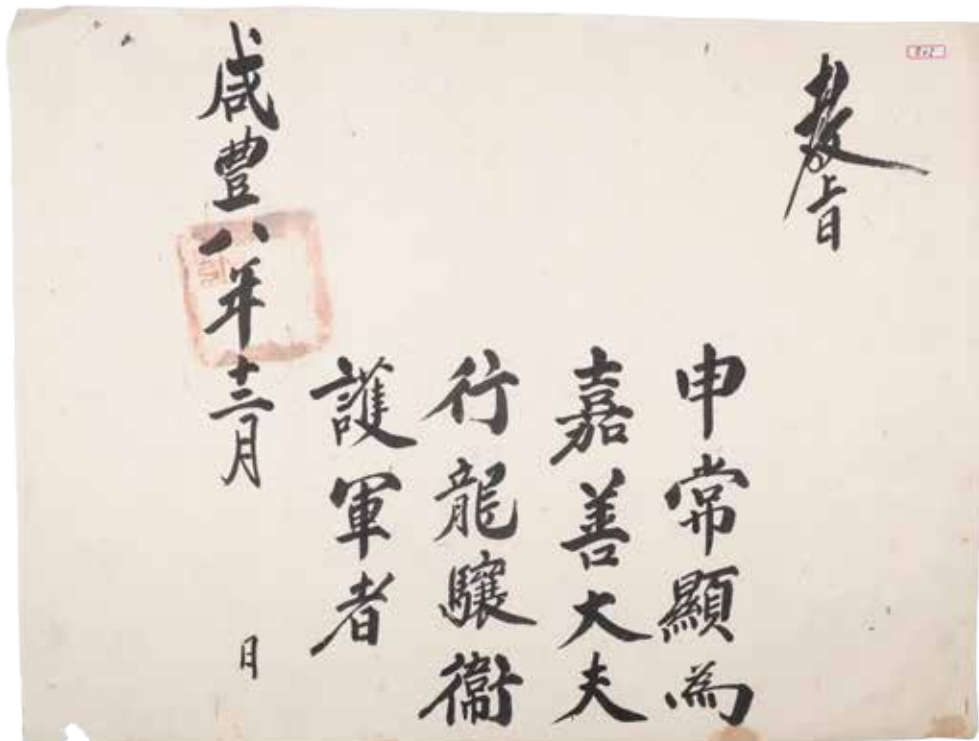


신상현 교지

申常顯 教旨

54.0×72.0cm

185년(철종 9) 12월 신상현(1777~1864)을 가선대부嘉善大夫 행행 용양위호군龍驤衛護軍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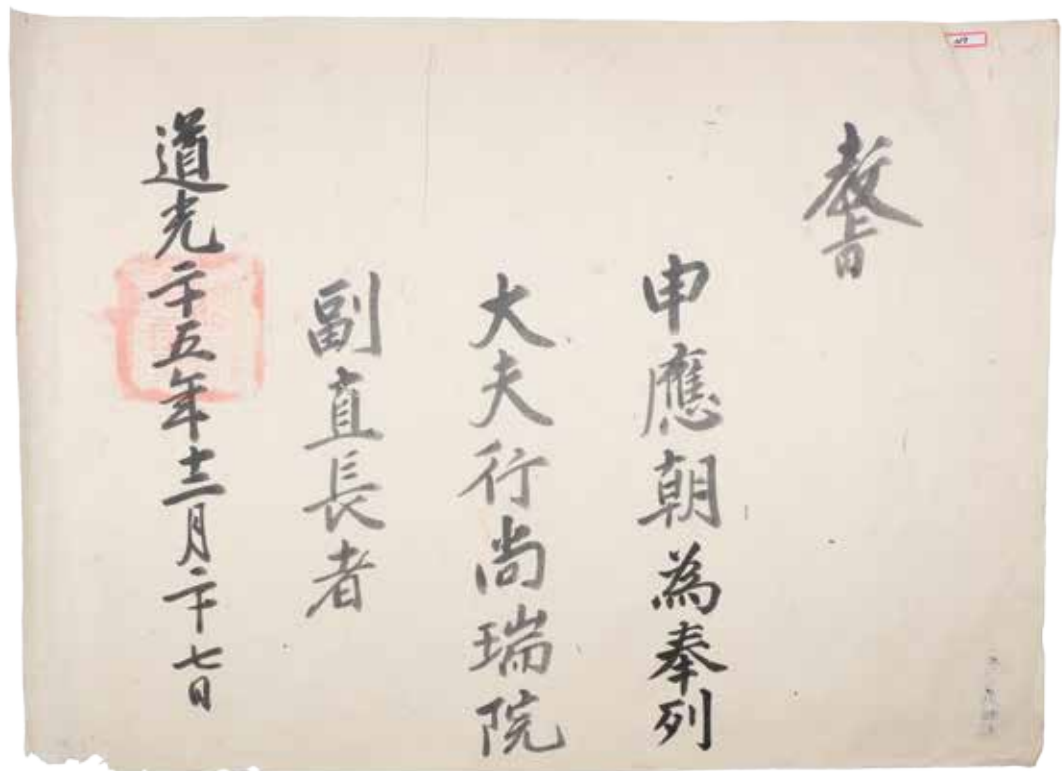


신응조 교지

申應朝 教旨

54.0×74.0cm

1845년(헌종 11) 12월 27일 신응조(1804~1899)를 봉열대부奉列大夫 행행 상서원부직장尙瑞院副直長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신응조는 자가 유안幼安, 호는 계전桂田으로, 1852(철종 3) 정시庭試 병과丙科에 급제한 후에 검열, 이조정랑, 부제학, 이조참판, 대사헌, 강원도 관찰사, 형조판서·이조판서, 예조판서, 우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척사斥邪적 입장에서 사학邪學과 양술洋術을 배격하였다. 죽은 뒤에 문경文敬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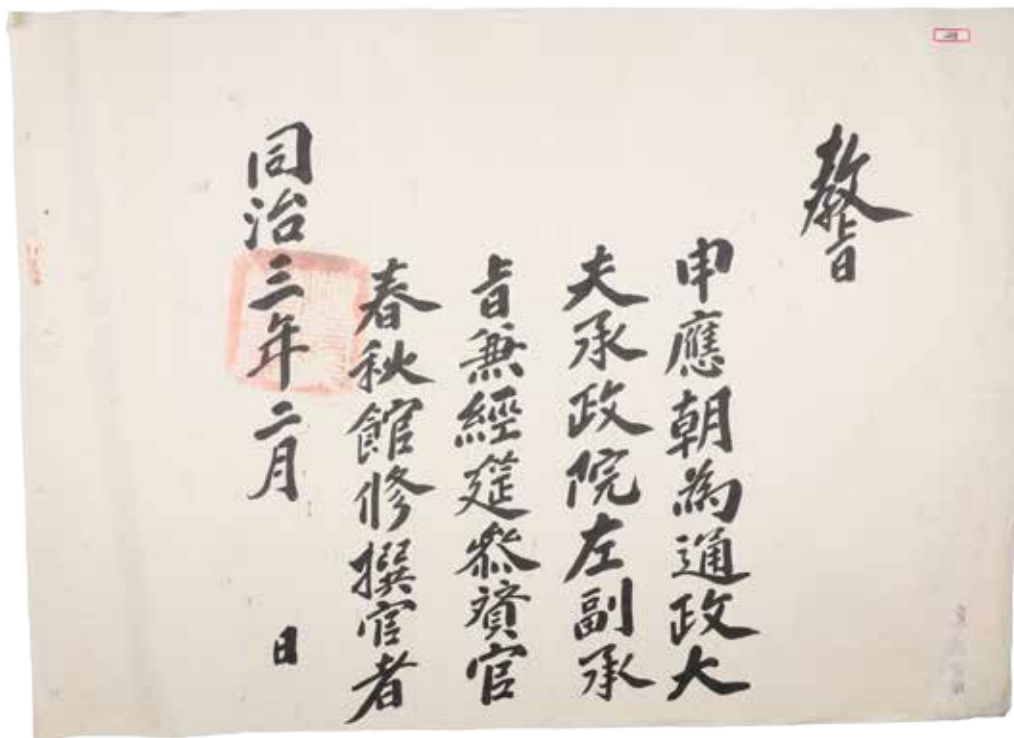


신응조 교지

申應朝 教旨

54.5×75.5cm

1864년(고종 원년) 2월 신응조(1804~1899)를 통정
대부通政大夫 승정원좌부승지承政院左副承旨 겸 경
영참찬관經筵參贊官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에 임
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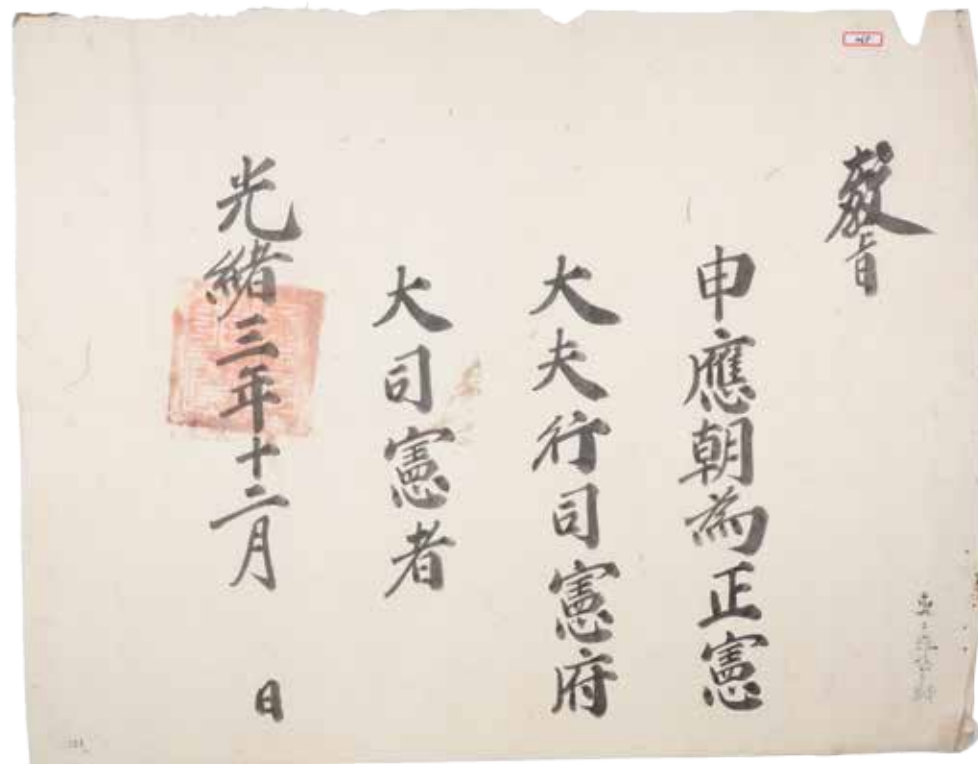


19 | 신응조 교지

申應朝 教旨

54.5×70.0cm

1877년(고종 14) 12월 신응조(1804~1899)를 정헌대부正憲大夫 행행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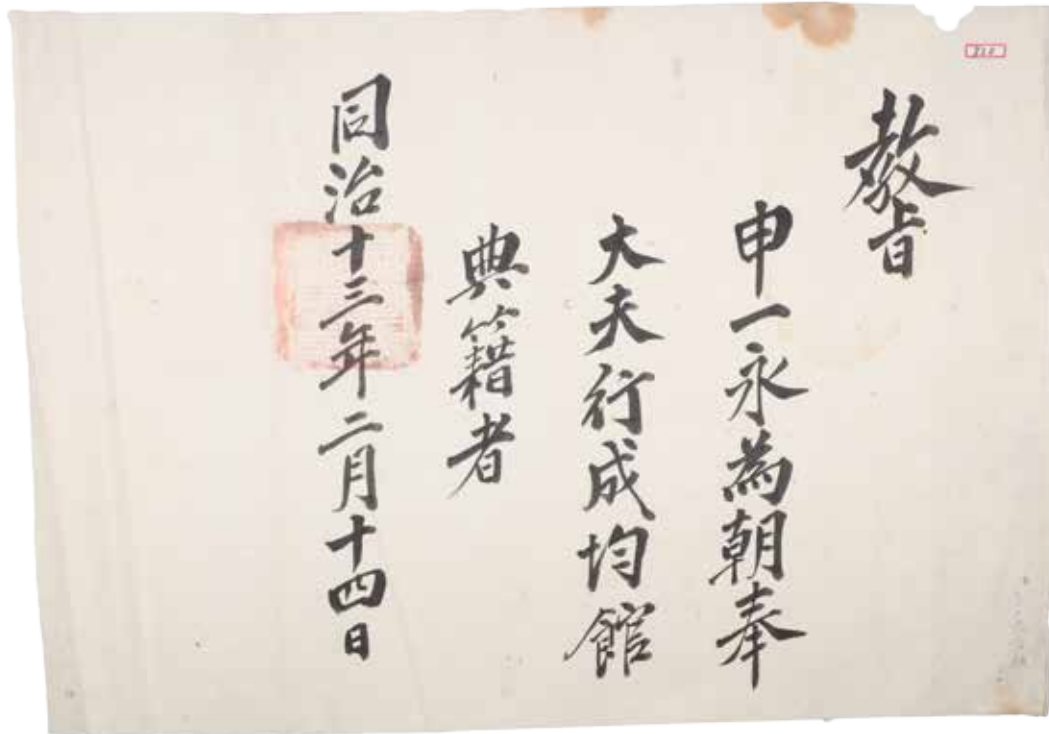


신일영 교지

申一永 教旨

51.5×74.0cm

1874년(고종 11) 2월 14일 신일영(1845~1898)을 조봉대부朝奉大夫 행行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신일영은 자자가 태경太敬으로, 1872년(고종 9) 정시庭試文科 병과丙科 8인[전체 11등/21명(갑1, 을2, 병18)]으로 급제하였고, 이후 승정원承政院 주서注書, 홍문관弘文館 부수찬副修撰, 사헌부司憲府 김의執義,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 성균관成均館 대사성大司成, 전화과電話課 주사主事 등을 역임하였다.



21 | 신일영 교지

申一永 教旨

52.5×72.0cm

1876년(고종 13) 신일영(1845~1898)을 통훈대부통훈大夫 奉行 홍문관수찬弘文館修撰 지제교지
 製教 겸 경연검토관經筵檢討官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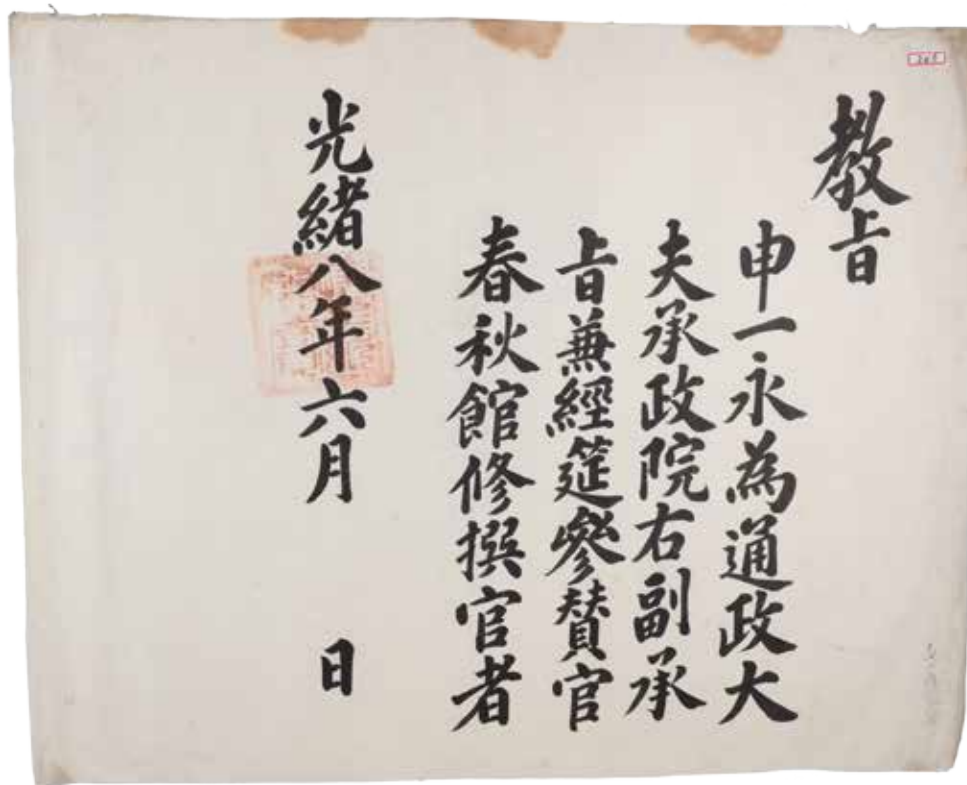


22 | 신일영 교지

申一永 教旨

58.5×74.0cm

1882년(고종 19) 6월 신일영(1845~1898)을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우부승지右副承旨 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에 임명하면서 발급한 교지.



23 강원도관찰사 신미년 6월 포폄등제

江原道觀察使 辛未年 六月 褒貶等第

26.0×122.0cm

1871년(고종 8) 강원도 관찰사가 강원도 관리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한 포폄 문서. 포폄은 조선 시대 관리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포는 포상을, 폄은 폄하(치적이 나쁜 관원을 좌천시켜 배척하는 짓을 뜻한다.

旌善郡守李根厚 ○地如桃源是向滿上
高城郡守全晴鶴 ○使民事情可見存心上
杆城郡守全祖寬 ○回標告交工役方興上
平海郡守全南鳳 ○廉以處官於聽理上
原州判官李詰淵 ○率是廉簡不論梁類上
三陟府使沈東理 ○奉赴任
平海郡守李慶九 ○奉赴任
通川郡守李種信 ○懷抱利豈不避難錯
旌善郡守李根厚 ○地如桃源是向滿上
高城郡守全晴鶴 ○使民事情可見存心上
杆城郡守全祖寬 ○回標告交工役方興上
平昌郡守全南鳳 ○廉以處官於聽理上
三陟府使沈東理 ○奉赴任
平海郡守李慶九 ○奉赴任
通川郡守李種信 ○懷抱利豈不避難錯
旌善郡守李根厚 ○地如桃源是向滿上
高城郡守全晴鶴 ○使民事情可見存心上
杆城郡守全祖寬 ○回標告交工役方興上
平昌郡守全南鳳 ○廉以處官於聽理上
三陟府使沈東理 ○奉赴任
平海郡守李慶九 ○奉赴任
通川郡守李種信 ○懷抱利豈不避難錯

辛未六月褒貶等第
都事 全昌勳 奉赴任
江陵府使 李種信 ○國家器器不保以船上
淮陽府使 全直善 ○奉赴任
春川府使 全炳基 ○吏唐之路半武此積下
鐵原府使 洪育錫 ○邑有項聲門無私揚上
三陟府使 沈東理 ○奉赴任
平海郡守 李慶九 ○奉赴任
通川郡守 李種信 ○懷抱利豈不避難錯
旌善郡守 李根厚 ○地如桃源是向滿上
高城郡守 全晴鶴 ○使民事情可見存心上
杆城郡守 全祖寬 ○回標告交工役方興上
平昌郡守 全南鳳 ○廉以處官於聽理上
三陟府使 沈東理 ○奉赴任
平海郡守 李慶九 ○奉赴任
通川郡守 李種信 ○懷抱利豈不避難錯
旌善郡守 李根厚 ○地如桃源是向滿上
高城郡守 全晴鶴 ○使民事情可見存心上
杆城郡守 全祖寬 ○回標告交工役方興上
平昌郡守 全南鳳 ○廉以處官於聽理上
三陟府使 沈東理 ○奉赴任
平海郡守 李慶九 ○奉赴任
通川郡守 李種信 ○懷抱利豈不避難錯
旌善郡守 李根厚 ○地如桃源是向滿上
高城郡守 全晴鶴 ○使民事情可見存心上
杆城郡守 全祖寬 ○回標告交工役方興上
平昌郡守 全南鳳 ○廉以處官於聽理上
三陟府使 沈東理 ○奉赴任
平海郡守 李慶九 ○奉赴任
通川郡守 李種信 ○懷抱利豈不避難錯

辛未六月褒貶等題

都事金鼎獻未赴任

江陵府使李稷鉉 ○ 周察民情不憚以躬 上

淮陽府使金直善 ○ 桑麻鋪地風謠滿路 上

襄陽府使金炳基 ○ 夷庚之路車或敗績 下

春川府使金炳陸 ○ 樓觀增飾日有游暇 上

鐵原府使洪彥錫 ○ 邑有頌聲門無私謁 上

三陟府使沈東瑾 ○ 未赴任

伊川府使朴瑄壽 ○ 金閨美彥玉壺清水 上

寧越府使李在敬 ○ 不煩聲氣示以規矩 上

平海郡守李鳳九 ○ 未赴任

通川郡守李種信 ○ 懷抱利器不遇盤錯 ■

旌善郡守李根厚 ○ 地如桃源邑是句漏 上

高城郡守金疇鎬 ○ 使民盡情可見存心 上

杆城郡守金祖憲 ○ 回祿告災工役方興 上

平昌郡守金商鳳 ○ 廉以處官公於聽理 上

原州判官李喆淵 ○ 率是廉簡不踰規矩 上

金城縣令鄭雲韶 ○ 屏囑蠲斂政簡民安 上

蔚珍縣令黃鎮奎 ○ 日淺

歙谷縣令李會淑 ○ 民社之責乃如此乎 下

平康縣監閔種洙 ○ 使士讀書知所先務 上

金化縣監韓始東 ○ 凡屬爲民如恐不及 上

狼川縣監李胤植 ○ 未赴任

洪川縣監李秉準 ○ 民亦有言我獨無官 下

橫城縣監趙基豐 ○ 何以蒙 恩善治之故 上

楊口縣監安宗九 ○ 課士勸農皆出實心 上

麟蹄縣監鄭翻朝 ○ 誠感爲民虎乃遠跡 上

安峽縣監洪承禕 ○ 守我經法以施于政 上

三陟營將韓鎮忠 ○ 好是樸實賴支殘弊 上

越松萬戶韓斗錫 ○ 海島風波無事竣役 上

三防別將韓斗錫 ○ 關陝之地職是防守 上
 銀溪察訪白鳳三 ○ 益察馬政 上
 保安察訪裴喆周 ○ 殘郵可念 上
 平陵察訪金好翼 ○ 日淺
 祥雲察訪宋希明 ○ 胡爲取怨 下
 審藥卞志遠 ○ 似是審藥 上
 檢律李元弼 ○ 詳於律例 上
 中軍鄭澤源 ○ 寬猛互濟事皆修舉 上
 中軍鄭澤源 ○ 團束多方軍校斂侵擾之習
 譏訶遠布村里無竊發之憂是白齊
 三陟營將韓鎮忠 ○ 尺籍點完郡邑之部伍有次
 桴鼓不警山海之行旅無憂是白齊

銜下名字標紙

印朱標紙

신미년1871 6월 포핍등제褒貶等題

도사 김정헌金鼎獻 ○ 아직 부임하지 않음.
 강릉부사 이직현李稷鉉 ○ 민정民情을 몸소 살피는데 거리낌이 없음. 상
 회양부사 김직선金直善 ○ 상마桑麻가 땅을 뒤덮고 풍요風謠가 길에 가득함. 상
 양양부사 김병기金炳基 ○ 평탄한 길인데 수레가 부서진 격. 하
 춘천부사 김병륙金炳陸 ○ 누대를 보수하고 날마다 여유를 즐기는 격. 상
 철원부사 홍언석洪彦錫 ○ 읍튼에는 송성頌聲이 있고 문에는 사사로운 청탁이 없음. 상
 삼척부사 심동근沈東瑾 ○ 아직 부임하지 않음.
 이천부사 박선수朴瑄壽 ○ 재주와 덕이 뛰어난 선비로 절조가 있음. 상
 영월부사 이재경李在敬 ○ 말보다 먼저 모범을 보임. 상
 평해군수 이봉구李鳳九 ○ 아직 부임하지 않음.
 통천군수 이종신李種信 ○ 뛰어난 재주를 품고 어려움 없이 일을 처리함. -결락-
 정선군수 이근후李根厚 ○ 땅은 무릉도원과 같고 읍튼은 구루句漏와 같음.⁵⁾ 상

5) 구루句漏: 신선이 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사丹砂가 생산되는 지역을 의미, 이곳에서 선단仙丹을 만들었다고 전해짐.

고성군수 김주호金疇鎬 ○ 백성을 부림에 마음을 다하니 존심存心을 살필 수 있음. 상

간성군수 김조헌金祖憲 ○ 화재가 발생하여 공역工役을 일으킴. 상

평창군수 김상봉金商鳳 ○ 청렴하게 국가의 일을 처리하고 공정하게 송사訟事: 재판틀 심리함. 상

원주관관 이철연李喆淵 ○ 청렴하고 소탈하게 인술하고 기준을 벗어나지 않음. 상

금성현령 정운소鄭雲韶 ○ 청탁을 막고 덜 거뒀드려 정사는 간결하고 백성은 안정됨. 상

울진현령 황진규黃鎭奎 ○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음[日淺].

흡곡현령 이회숙李會淑 ○ 백성을 다스릴 책임이 있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

평강현감 민종수閔種洙 ○ 관리들을 공부시켜 먼저 힘써야 할 곳을 알게 함. 상

김화현감 한시동韓始東 ○ 무릇 백성을 위하길 마치 제때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듯이 행함. 상

낭천현감 이윤식李胤植 ○ 아직 부임하지 않음.

홍천현감 이병준李秉準 ○ 백성들은 할 말이 있는데 나는 말은 관직이 없다고 여기는 격. 하

횡성현감 조기풍趙基豐 ○ 어찌 은혜를 입었던가? 잘 다스렸기 때문이라. 상

양구현감 안종구安宗九 ○ 관리들을 농사를 권하도록 지도하니 모두 진심에서 나온 것. 상

인제현감 정숙조鄭翹朝 ○ 정성으로 백성을 위하니 호환虎患⁶⁾ 사라짐. 상

안협현감 홍승위洪承禕 ○ 학문으로 자신을 수양하여 정치에 적용함. 상

삼척영장 한진충韓鎭忠 ○ 검소한 인품으로 피폐한 이들이 힘입고 의지함. 상

월송만호 한두석韓斗錫 ○ 바닷가의 풍파 속에서도 사고 없이 일을 마침. 상

삼방별장 한두석韓斗錫 ○ 변방 지방에서 방어를 직분으로 삼음. 상

은계찰방 백봉삼白鳳三 ○ 마정馬政을⁷⁾ 더욱 자세히 살핌. 상

보안찰방 배철주裴喆周 ○ 역참이 쇠잔해 가는 것을 염려함. 상

평릉찰방 김호익金好翼 ○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음.

상운찰방 송희명宋希明 ○ 어찌하여 원망받을 일을 하는가? 하

심약審藥 변지원卞志遠 ○ 심약審藥에⁸⁾ 적합함. 상

김률檢律 이원필李元弼 ○ 율례律例: 법률에 상세함. 상

중군中軍 정택원鄭澤源 ○ 너그러움과 엄함으로 구제하니 일이 모두 잘 이루어짐. 상

중군中軍 정택원鄭澤源 ○ 다방면으로 군교軍校를 단속해 민간에 피해를 입히는 악습을 거두었음. 먼마
을까지 수소문하고 염탐해 절도가 일어날 근심이 없음.

6) 호환虎患: 호랑이 등 동물에 의해 재난을 당하는 일.

7) 마정馬政: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말을 번식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구비하는 행정의 일체.

8) 심약審藥: 궁중에 바치는 약재를 감시하기 위해 팔도에 파견하던 종구품의 벼슬.

삼척영장 한진충韓鎭忠 ○ 척적尺籍: 軍籍의 점검을 마쳐 군읍郡邑 내 군진軍陣의 대오隊伍에 차례가 있음. 경고를 알리는 북이 울릴 일이 없어 산과 바다를 지나는 이들이 근심 없이 다님.

함하명자표지銜下名字標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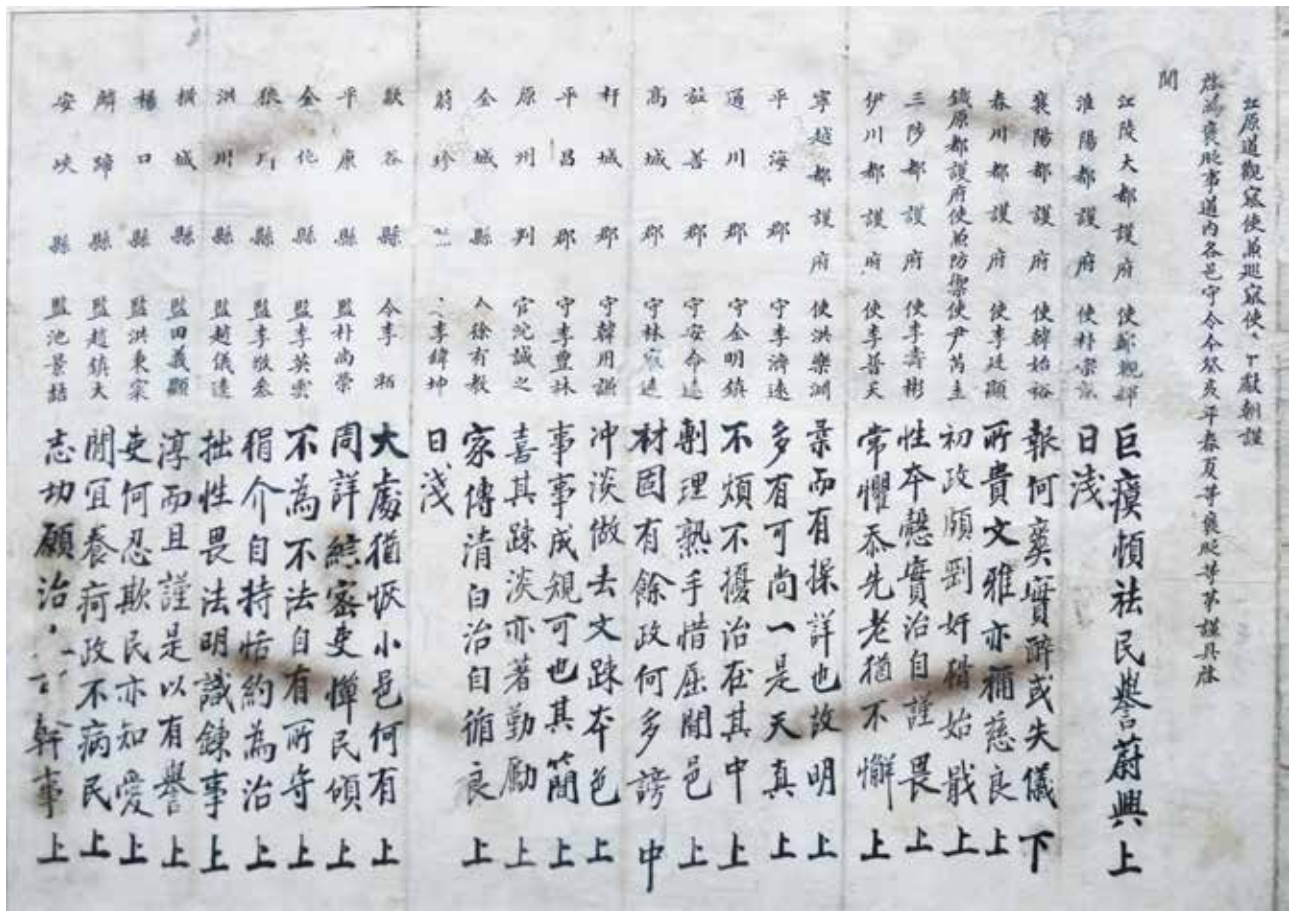
인주표지印朱標紙

24 신헌조 계해년 포폄등제

申獻朝 癸亥年 褒貶等第

44.0×63.0cm

1803년(순조 3) 신헌조申獻朝(1752~1807)가 강원도 내 군현 수령의 근무성적을 간단하게 정리한 문서. 신헌조는 자가 여가汝可, 호는 죽취당竹醉堂으로, 1789년(정조 13) 38살 때 알성시調聖試에서 갑과甲科 장원壯元[1등/6명(갑1, 을2, 병3)] 급제하였고, 이후 관직에 나아가 부교리, 교리, 수찬, 암행어사, 대사간 양주목사, 강원도 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특히 강원도 관찰사로 있던 52세 때에 민가에 불이 나서 횡성 창고의 곡식 900석이 타자 세를 탕감하고 진휼하였고, 53세 때에 강원도 내 산불로 재산과 인명 피해가 크자, 진휼미와 목재 운반의 일로 민폐와 민원을 일으켰다고 탄핵 받아 파직되고, 단선현丹城縣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24 평안도관찰사 계유년 추동 포폄등제

平安道觀察使 癸酉年 秋冬 褒貶等第

28.7×185.0cm

1873년(고종 10) 평안도 관찰사가 평안도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한 포폄 문서. 특히 관리 중에서 중군中軍[조선시대 각 군영에 속한 중2품관] 겸 토포사討捕使인 신정균申定均에 대해서 ‘아무리 얽혀있는 문제라도 중군이 잘 도와주니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라고 하여 ‘상노’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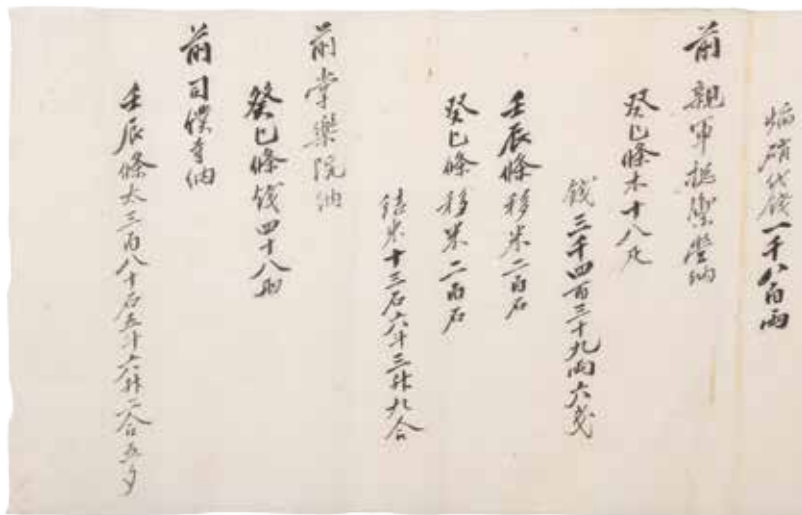


공납안

貢納案

21.7×204.0cm

고종 때에 청주에서 친군영親軍營, 호조戶曹, 선혜청宣惠廳, 균역청均役廳, 병조兵曹, 기기국機器局, 친군총어영親軍摠禦營, 장악원掌樂院, 사복시司僕寺에 공납한 내역. 공납은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 현물로 수취하여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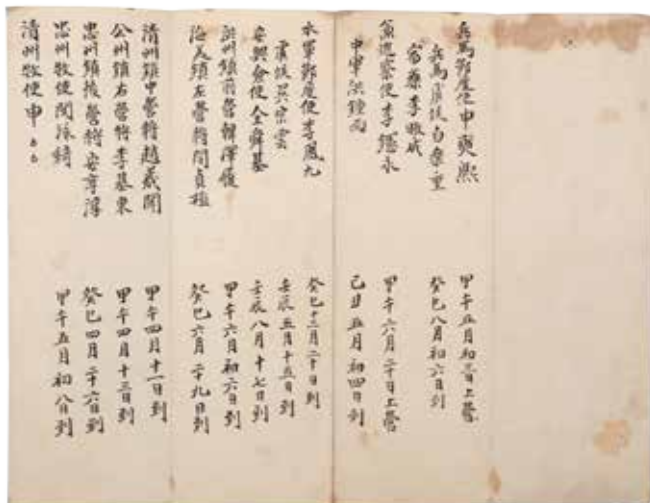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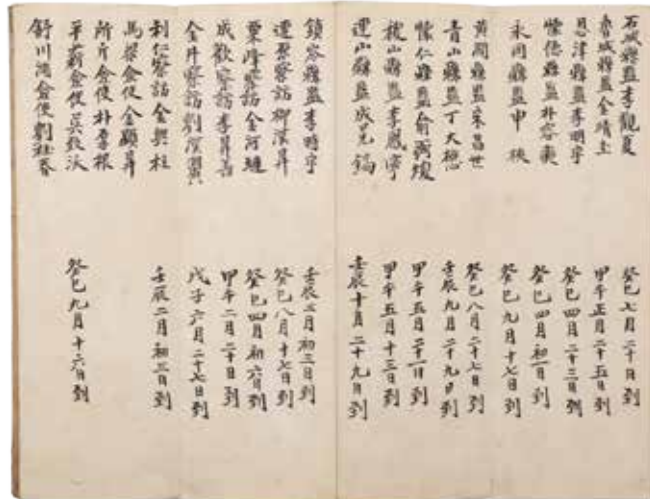


수령안

守令案

32.3×10.5cm

1893년(고종 30) 9월 16일 충청도 관내 수령안을 첩帖으로 만든 자료. 충청도 병마절도사 신석희申奭熙(?~?)가 1894년 5월 3일 부임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신석희는 조선후기 황해도병마절도사, 충청도병마절도사, 내부협판內部協辦, 중추원일등의관中樞院一等議官, 경무사警務使 등을 역임한 무신이다.



28 계전선생신공관찰관서서

桂田先生申公觀察關西敘

22.3×17.0cm

계전 신응조(1804~1899)가 관서關西 지방인 평안도와 황해도를 관찰하면서 쓴 글. 여기에는 「계전선생신공관찰관서서」 이외에도 시문 「지강릉至江陵」, 「경호鏡湖」, 「화엄사중김병수 김영제김민수華嚴寺贈金丙秀金永齊金玟洙」, 「숙열산宿烈山」*, 「강릉도중감춘江陵途中感春」 등과 해옹海翁 홍한주洪翰周(1798~1868)의 글 등이 실려있다.

* 烈山은 강원도 고성의 예 이름이다.



상소문 등

上疏文等

23.3×15.0cm

축식祝式을 모은 글인 축식수의祝式收議와 부호군 김진형金鎭衡의 상소문 등을 발취하여 수록한 문서.



정표문

旌表文

37.0×185.0cm

임진왜란 당시 순국한 문경현감 신길원申吉元(1548~1592)의 충절에 대해 정표旌表를 내리는 일과 관련한 문서. 정표는 착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내어 알리는 일이다. 신길원은 1592년(선조 25) 4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관내에 쳐들어오자 관병 수십 명을 이끌고 관아를 지키며 결사적으로 항전하다 순국하였다.



2. 학문과 사상을 교유하다

평산신씨가의 문서 가운데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시문류와 간찰류인데, 이를 통해 교유관계의 단편을 살펴볼 수 있다. 시문류는 시를 모아 두루마리 문서로 만든 시축詩軸과 단편 시문들이 있다. 시축은 「도원성到原城」, 「수안사酬按使」, 「학성잡영鶴城雜咏」 100수, 「학성고사鶴城古事」 15수 등의 주제로 읊은 시나, 날씨와 관련된 시, 친구와 주고 받은 시를 모아 엮은 문서이다. 그러나 시문 중에는 수연壽宴의 주인공에게 보내는 신상현申常顯申常顯(1777~1864)의 시와 같이 글쓴이를 알 수 있는 시문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글쓴이를 알 수 없는 시문이어서 교유관계 확인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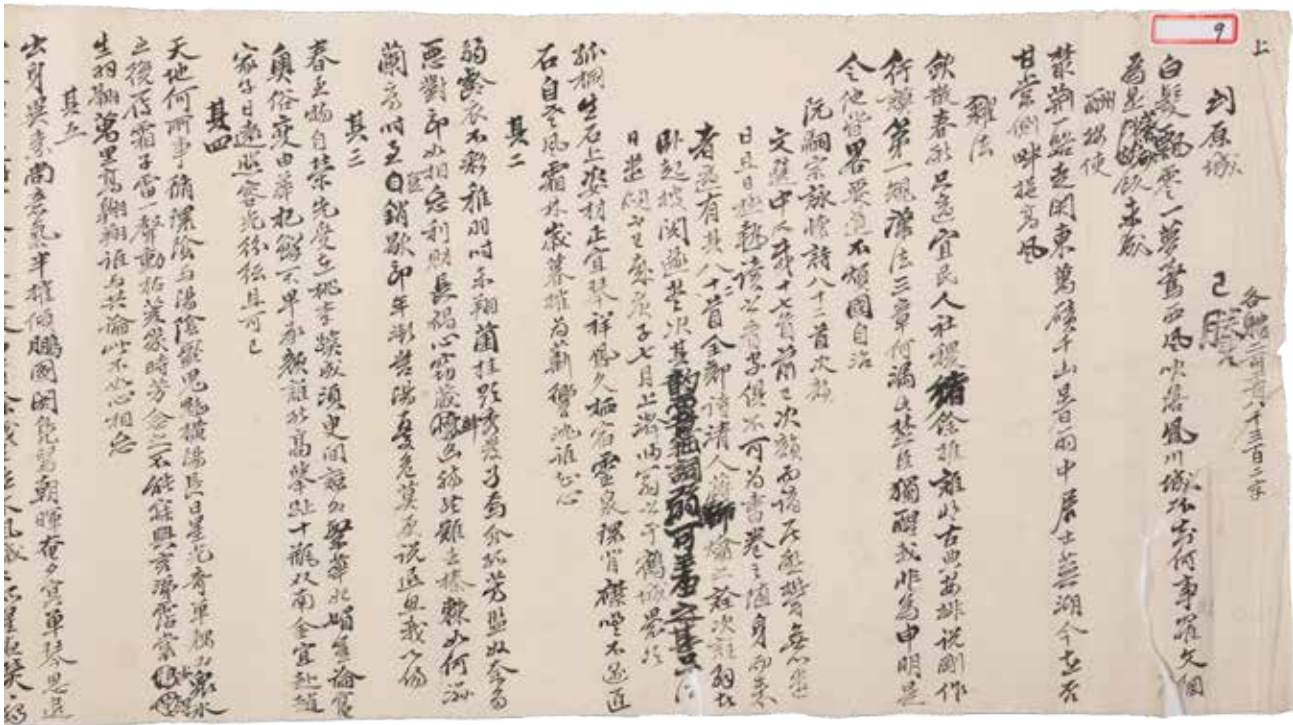
간찰류의 문서는 모두 166건으로 전체 고문서의 1/3 이상이다. 평산신씨가의 간찰은 대체적으로 가족 간에 주고받은 간찰로 조부가 손자에게 또는 부친이 아들에게, 형제간에 오고 간 간찰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간찰의 내용도 집안의 대소사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단순한 안부를 묻고 답한 간찰이 많다. 그중 글쓴이를 알 수 있는 간찰은 신경한申景翰의 간찰이 39편으로 제일 많은데, 숙부에게 보낸 간찰 1통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친인 신야申埜(1697~1759)에게 보낸 간찰이다. 내용은 주로 안부를 묻고 본인이나 가족의 근황을 전하며 학업 성취도 등도 보고하고 있다.

그 외에 학문을 논한 문서로 「기원당시起元堂詩」는 음양·풍수·팔괘 등과 관련한 내용을 필사하여 정리한 자료이고, 64괘에 대해 설명한 ‘해복설解復說’,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와 ‘삼세일운三歲一閏[매 삼년마다 한 달의 윤달이 들어옴]과 오세재운五歲再閏[매 오년에 두 번의 윤달이 들어옴]’에 대한 문답서인 「경륜經綸」이 있다. 그리고 신응조申應朝(1804~1899)가 경서와 사서 등에서 발취하여 정리한 『구암필苟菴筆』, 경서와 사서 등의 내용에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 『십구첩十帖』 등의 문서가 있고, 표목表目이나 부목과 같이 목차를 정리한 문서도 있다.

詩軸

24.3×29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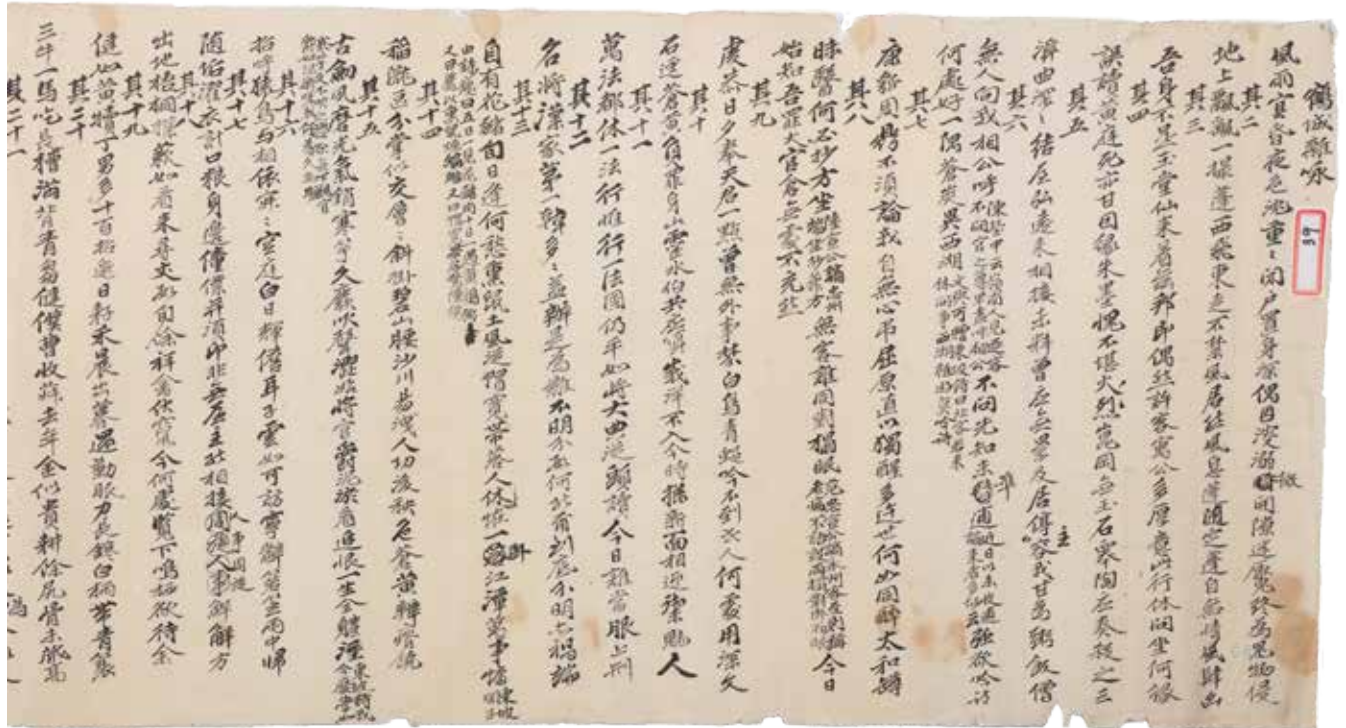
「도원성(到原城)」, 「수안사(酬按使)」, 「적법(積法)」, 「완사(完事)종영회시(阮嗣宗詠懷詩)」 82수 차운(次韻) 등의 시를 필사하여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한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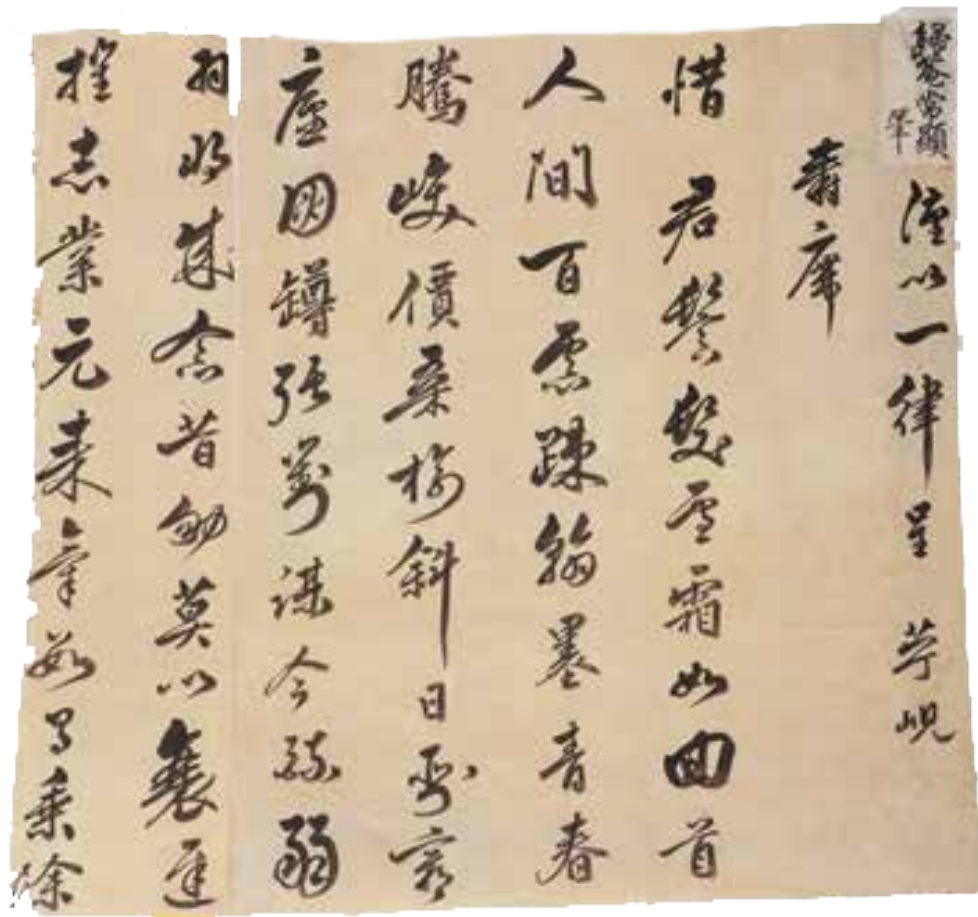
詩軸

24.5×754.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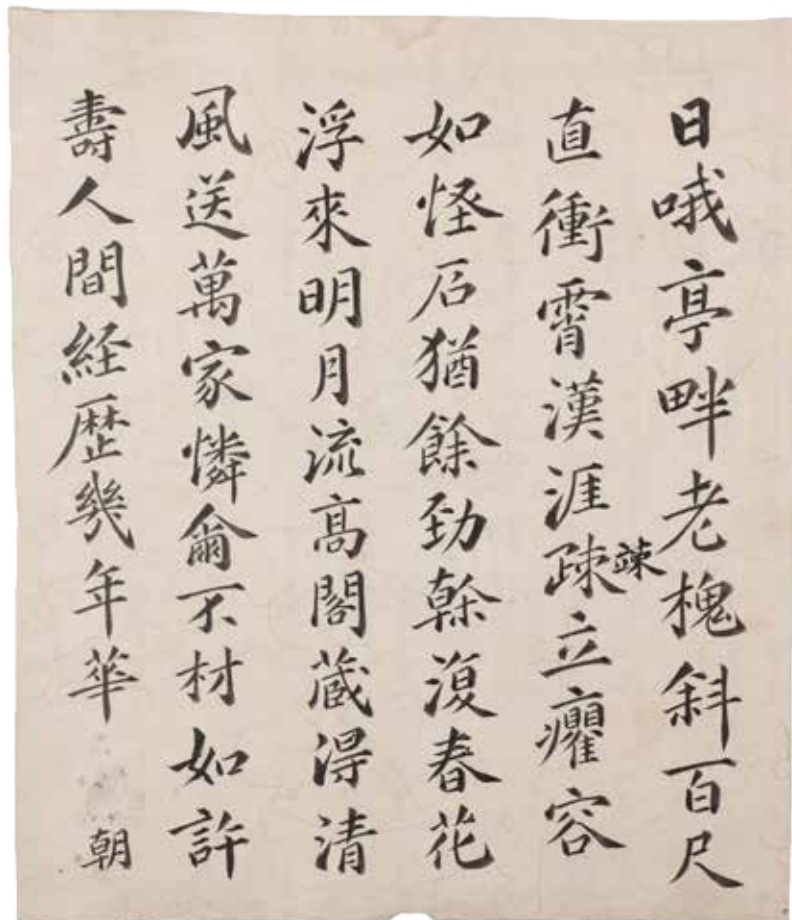
「학성잡영鶴城雜咏」 100수, 「학성고사鶴城古事」 15수, 「봉사음鵬舍吟」, 「한좌간초소間坐看楚騷」 등의 주제로 읊은 시문을 필사하여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한 문서.



귀암歸菴 신상현申常顯(1777~1864)이 수연壽宴[오래 산
것을 축하하는 잔치]의 주인공에게 보낸 시문.



인간의 수명과 경력이 보잘 것 없음을 읊은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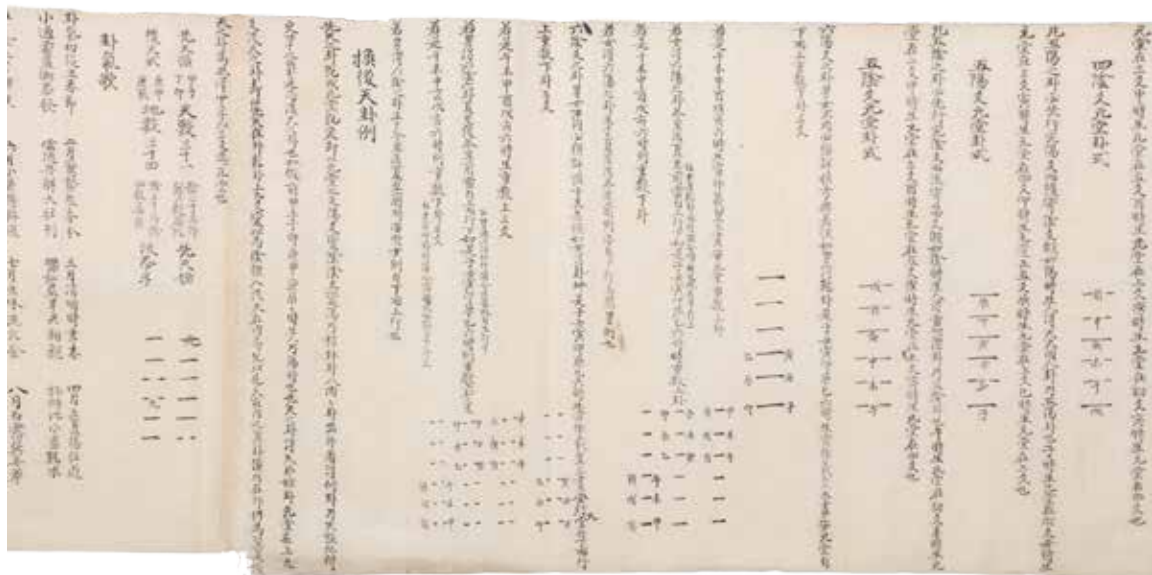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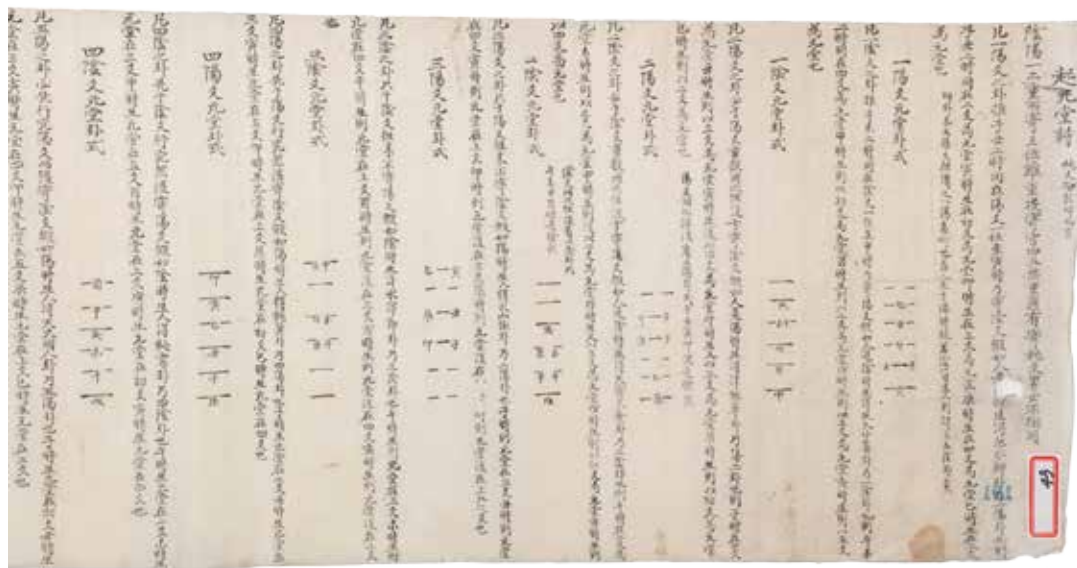


기원당시

起元堂詩

19.4×291.0cm

음양陰陽, 풍수風水, 팔괘八卦 등과 관련한 내용을 필사하여 정리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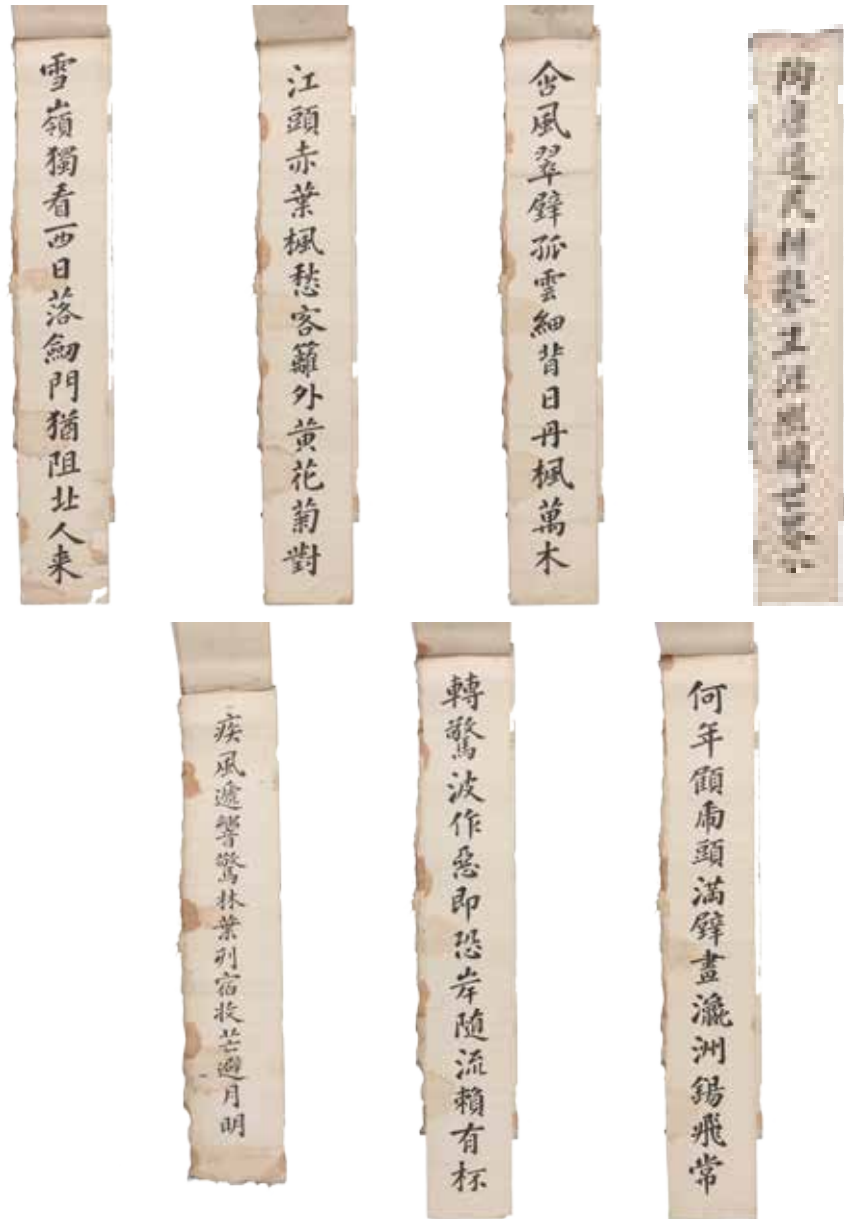


주련

柱聯

69.5×1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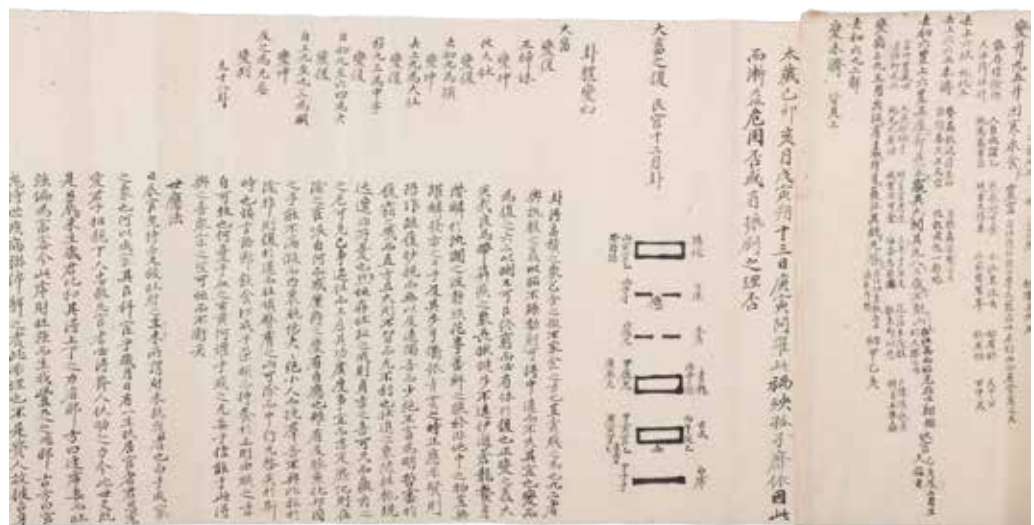
7장의 주련 필사본. 1장의 내용은 “도당의 백성들은 평생 번창하며 세상을 누렸다[陶唐遺民耕鑿生涯熙皞世界]”이다.



解復說

26.0×245.0cm

64괘를 설명한 자료로 「해복설解復說」, 「논육친생극論六親生尅」, 「합영괘용괘논괘체생극승影卦用卦論卦體生尅」, 「괘체변환卦體變幻」 등의 내용을 필사하여 정리한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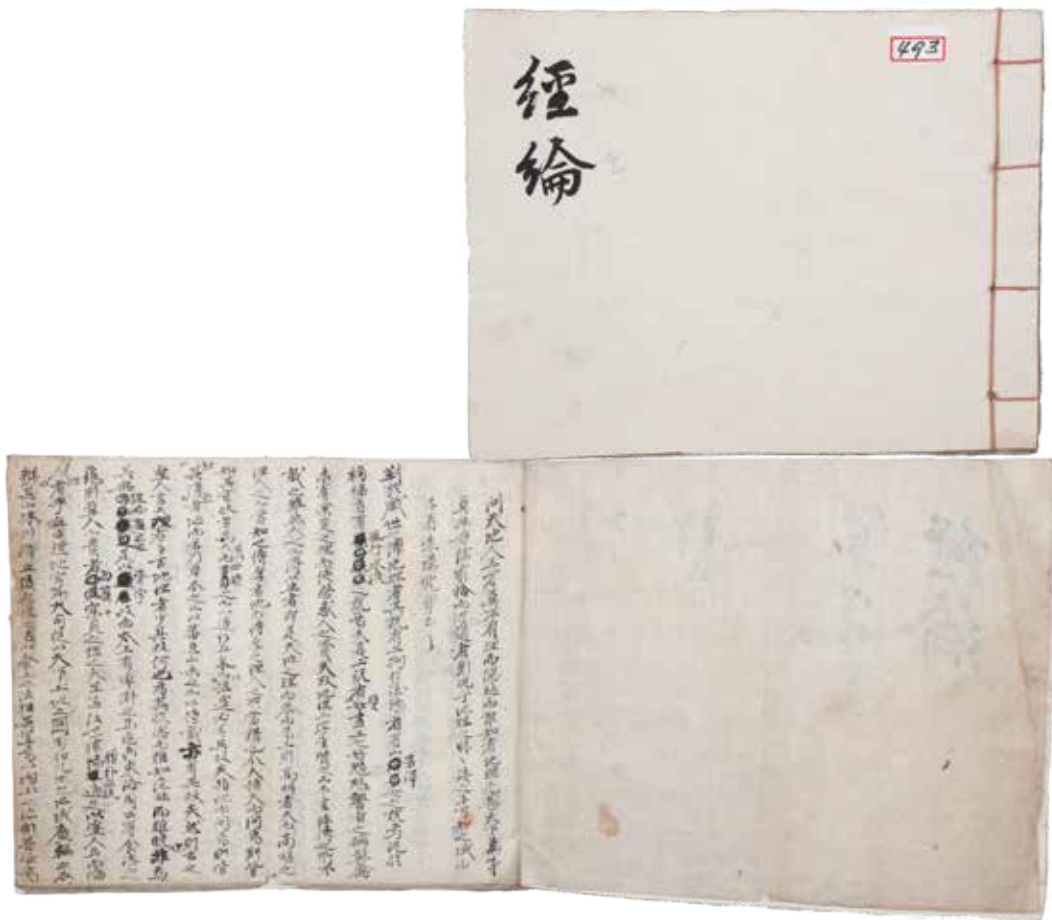


경륜

經綸

17.0×22.0cm

문답 형식으로 된 문서로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와 '매 3년마다 한 달의 윤달이 드는 것[삼세일 윤三勢一閏]'과 '매 오년마다 두 번의 윤달이 드는 것[오세재윤五歲再閏]'에 대해 묻고 답한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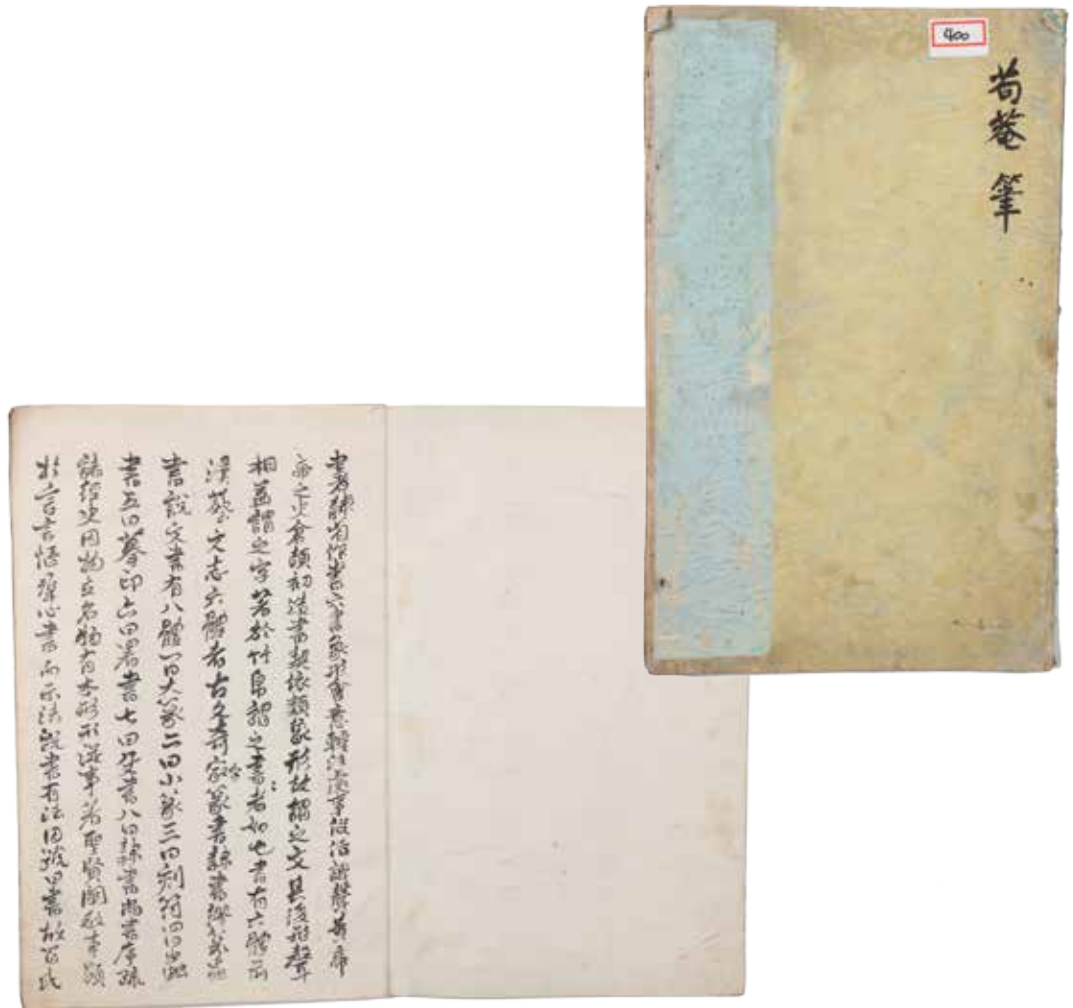


구암필

苟菴筆

26,0×16,2cm

구암 신응조申應朝(1804~1899)가 경서와 사서 등에서 발췌한 것을 정리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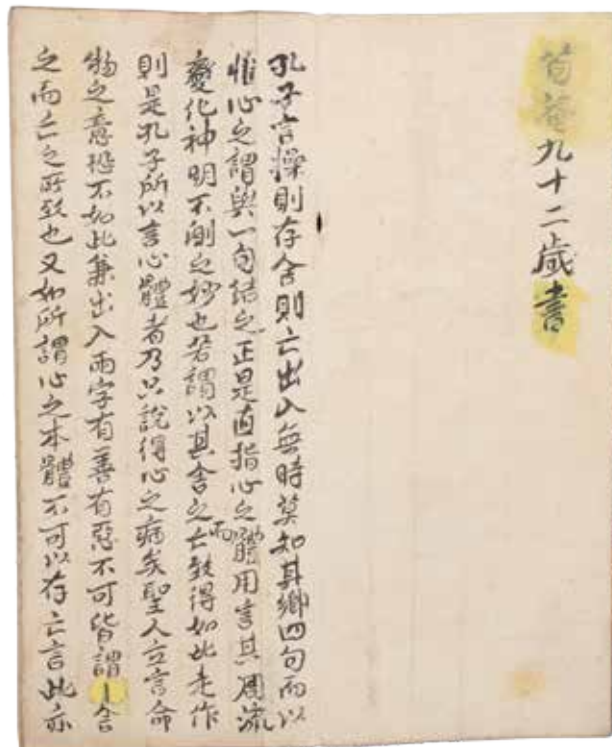


십구첩

十九帖

26.0×10.7cm

구암苟菴 신응조(1804~1899)가 92세에 작성한 것으로 경서와 사서 등의 내용에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 문서. 남계산방藍溪山房 소장 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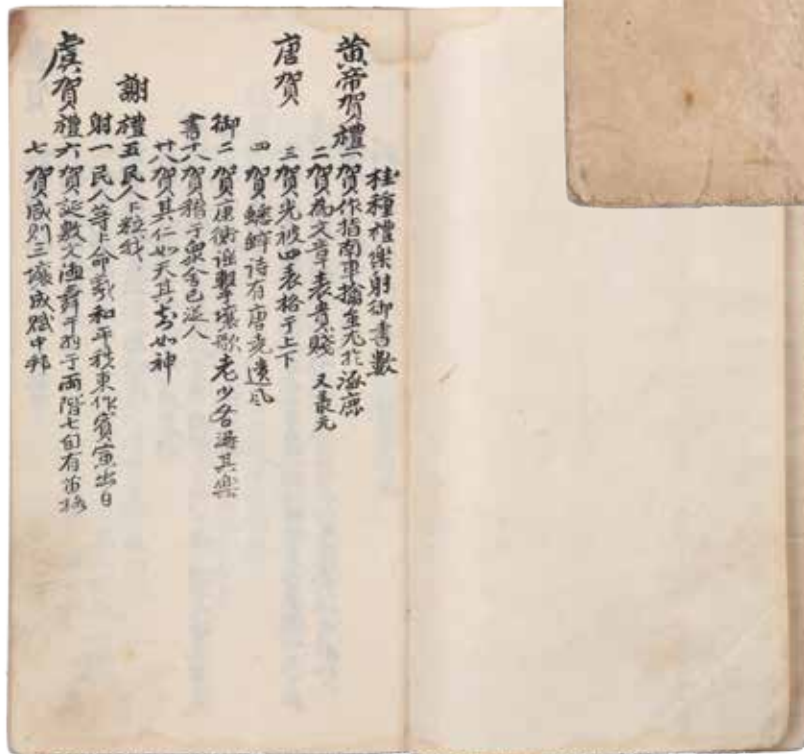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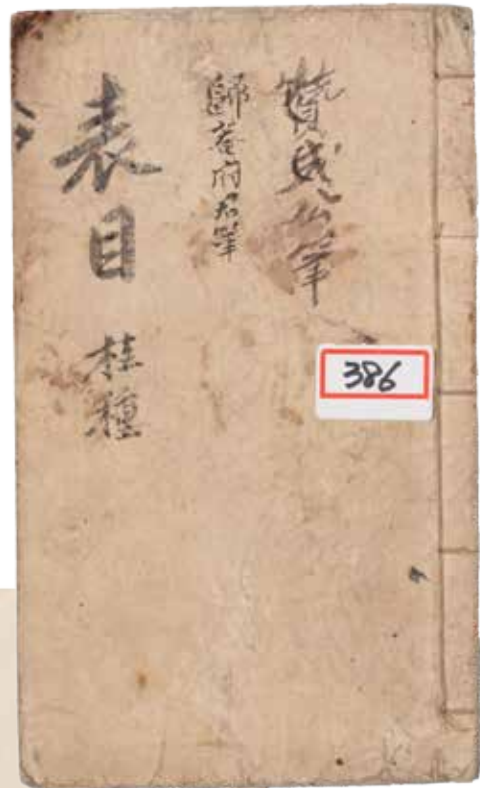


표목

表目

14.4×8.8cm

육례六禮의 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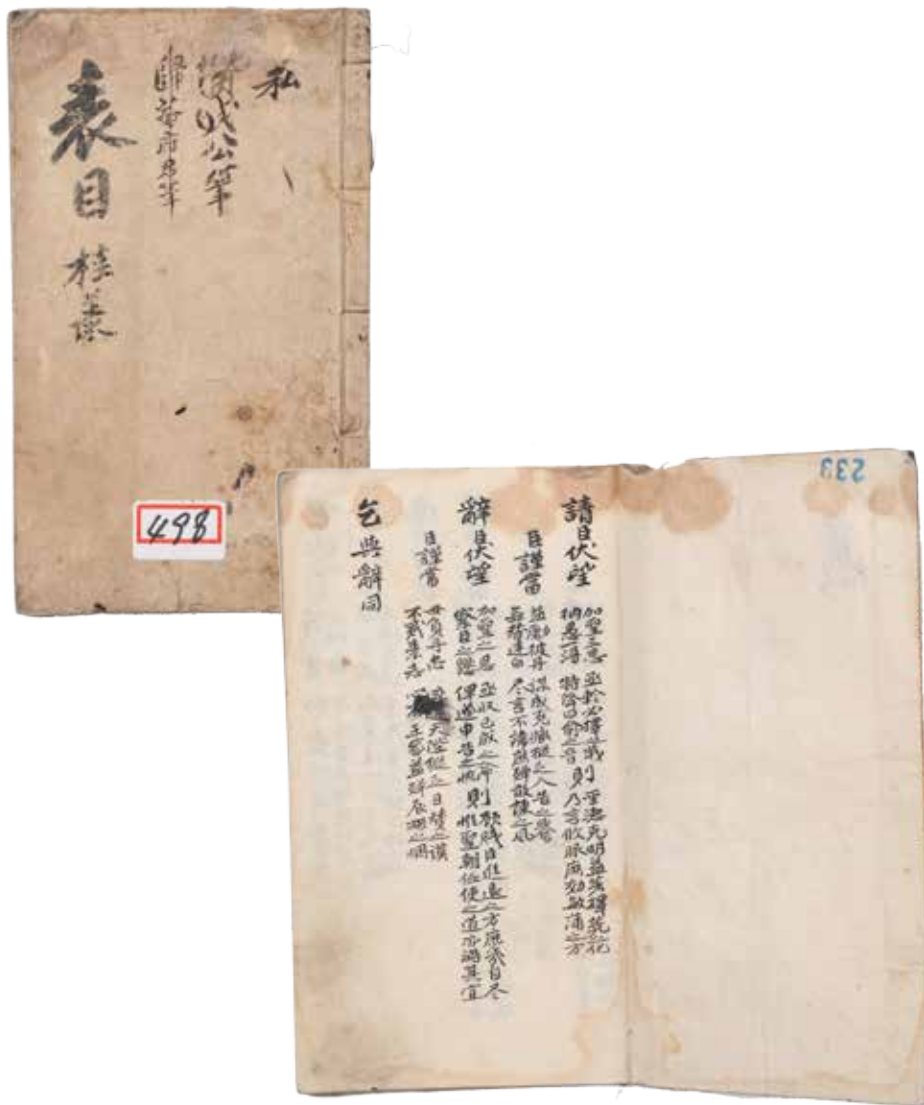


43 표목

表目

14.9×8.8cm

중국 역대 왕조의 다양한 문장의 사례를 간단히 수록한 자료.



44 부목

賦目

13.3×7.9cm

사서오경 등 주요 경전의 부賦 목차를 정리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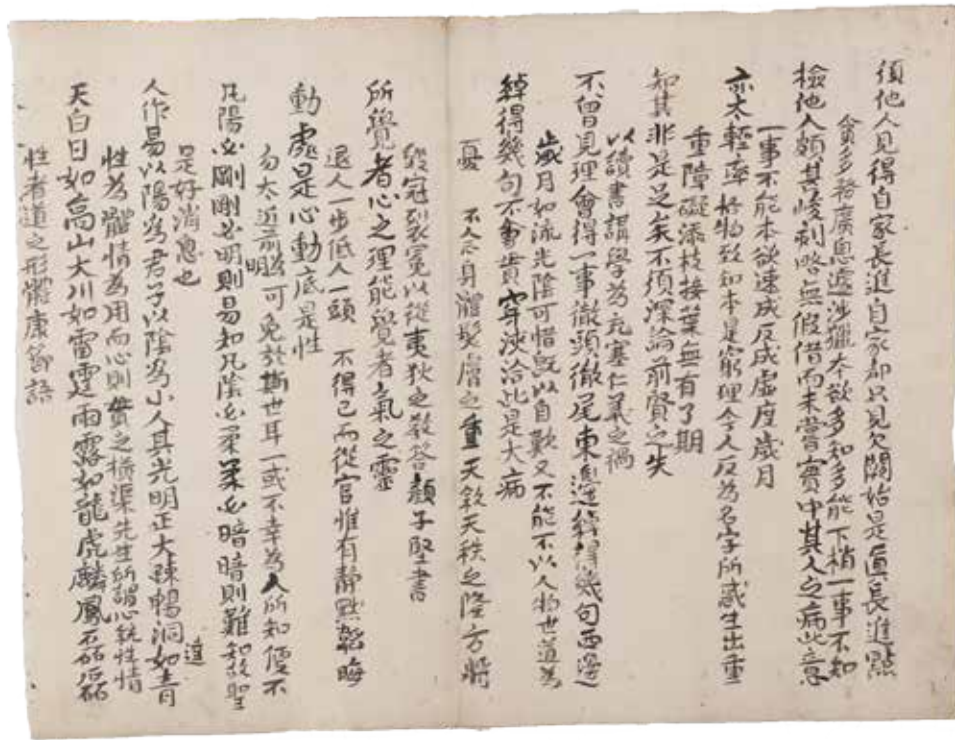


45 | 기문

記文

24.3×32.0cm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통해 자신이 발전하기도 하나, 자신 스스로 흠결을 깨달아야 비로소 진정 발전할 수 있다’ 등의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와 ‘심心’, ‘성性’에 대해 『주자어류朱子語類』 등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문서.



- ① 須他人見得自家長進自家却只見欠闕始是真長進點
- ④ 貪多務廣恩遽涉獵本欲多知多能下梢一事不知
- ② 檢他人頗甚峻刻略無假借而未嘗實中其人之病此意
- ⑤ 一事不能本欲速成反成虛度歲月
- ③ 亦太輕率格物致知本是窮理今人反爲名字所惑生出重
- ④ 重障礙添枝接葉無有了期

- ⑤知其非是足矣不須深論前賢之失
- ⑥以讀書講學爲充塞仁義之禍
- ⑦不曾見理會得一事徹頭徹尾東邊綽得幾句西邊
- ⑩歲月如流光陰可惜既以自歎又不能不以人物世道爲
- ⑧綽得幾句不會貫穿浹洽此是大病
- ⑬憂 不念身體髮膚之重天敘天秩之隆方將
- ⑭毀冠裂冕以從夷狄之教答顏子堅書
- ⑨所覺者心之理能覺者氣之靈
- ⑮退人一步低人一頭 不得已而從官惟有靜默韜晦
- ⑩動處是心動底是性
- ⑯勿太近前爲可免於斯世耳一或不幸爲人所知便不
- ⑪凡陽必剛剛必明明則易知凡陰必柔柔必暗暗則難知故聖
- ⑰是好消息也
- ⑫人作易以陽爲君子以陰爲小人其光明正大疎暢洞達如青
- ⑱性爲體情爲用而心則貫之橫渠先生所謂心統性情
- ⑬天白日如高山大川如雷霆雨露如龍虎麟鳳磊磊
- ⑲性者道之形體康節語

※ 다음 번역은 위 원문 번호순으로 번역하였다.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통해 자신이 발전하기도 하나, 자신 스스로 흠결을 깨달아야 비로소 진정 발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점검하는 것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심각하여 조금도 여지를 두지 않지만, 그것이 꼭 실제 그 사람의 병통에 적합한 것은 아님을 알았으니, 이 뜻 또한 너무나 경솔하다.

격물치지格物致知는 본래 궁리窮理하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도리어 명자名字에 미혹되어 무거운 장애가 생기거나 지엽적인 설들을 덧붙이느라 끝날 기약이 없다.

시비是非를 알면 충분하다. 전현前賢의 잘못을 깊이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독서讀書·강학講學하여 인의仁義의 도를 짚 막는 화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

깨달음을 얻어 한 가지의 일도 끝까지 이루지 못하면서 이쪽에서 몇 구절을 따 오고 저쪽에서 몇 구절을 따와 통달하지 못하니 이것이 큰 병통이다.

깨달는 것은 마음의 이렇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의 영靈이다.

동하는 곳은 심心이고, 동하게 하는 근저는 성性이다.

양陽은 반드시 강건하고 강건하면 반드시 밝으며 밝으면 보아서 알기가 쉽다. 음(陰)은 반드시 유약하고 유약하면 반드시 어두우며 어두우면 반드시 헤아려 알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성인이 『주역』을 지어 양으로써 군자를 삼고 음으로써 소인을 삼았다. 그 광명정대하고 확 뚫려 막힘이 없는 것이 푸른 하늘의 밝은 해와 같고, 높은 산·큰 내와 같으며, 천둥·번개·비·이슬과 같고, 용·호랑·기린·봉황과 같아서 크고 …이하 결락…

많이 읽기만을 탐내 서둘러 대충 넘기니, 본래 다지다능多知多能 하고자 하나 결국 한 가지의 일도 모르고, 한 가지의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본래 속성速成하고자 하면 도리어 허송세월하게 된다.

세월은 물과 같이 흐르고 시간이 가는 것은 안타까워 스스로 탄식하기는 하나, 또한 인물人物과 세도世道를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신체발부身體髮膚의 무거움과 천서천질天敍天秩의¹⁾ 두터움은 생각하지 않고, 관면冠冕을 훼손하고 찢으며 이적의 가르침을 좇고자 한다. 주자朱子が 안자견顔子堅에게 답한 편지

남보다 머리 하나를 더 숙이고, 남보다 한 걸음 더 물러나 있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벼슬을 하고 있지만, 재능을 감추고 조용히 있으면서 너무 앞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이 세상에서 화를 면할 수 있다. 혹 불행히 남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좋은 소식이 아니다.

횡거선생橫渠先生[張載(1020~1077)]은 “심이 성정을 거느린다[심통성정心統性情].”라고 하였다.

“성性是 도道の 형체이다.”라고 했으니, 강절康節[소옹邵雍(1011~1077)]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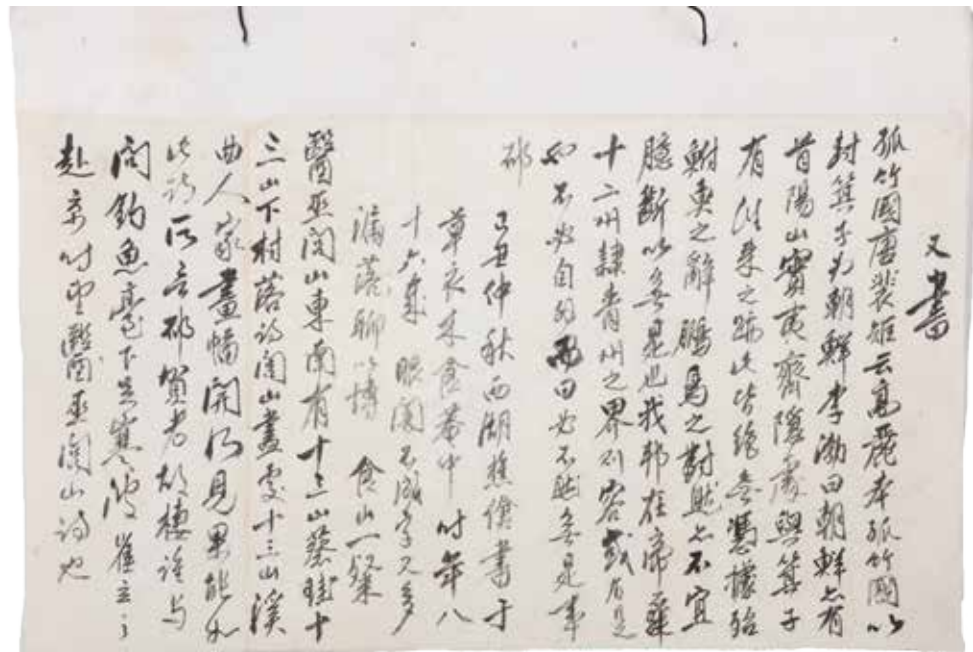
1) 천서는 군신君臣·부자父子·형제兄弟·부부夫婦·봉우朋友의 순서를 말하고, 천질은 존비尊卑·귀천貴賤의 등급을 말한다.

記文

23.8×45.0cm

『삼국유사三國遺事』 권1 「기이紀異·제1 고조선왕검조선」 기사에 ‘당의 『배구전裴矩傳』에 이르기를 “고려高麗는 본시 고죽국孤竹國*인데 주周가 기자箕子를 봉하고 조선이라 하였다[唐裴矩傳云 高麗本孤竹國]”라고 한 기사와 관련하여 쓴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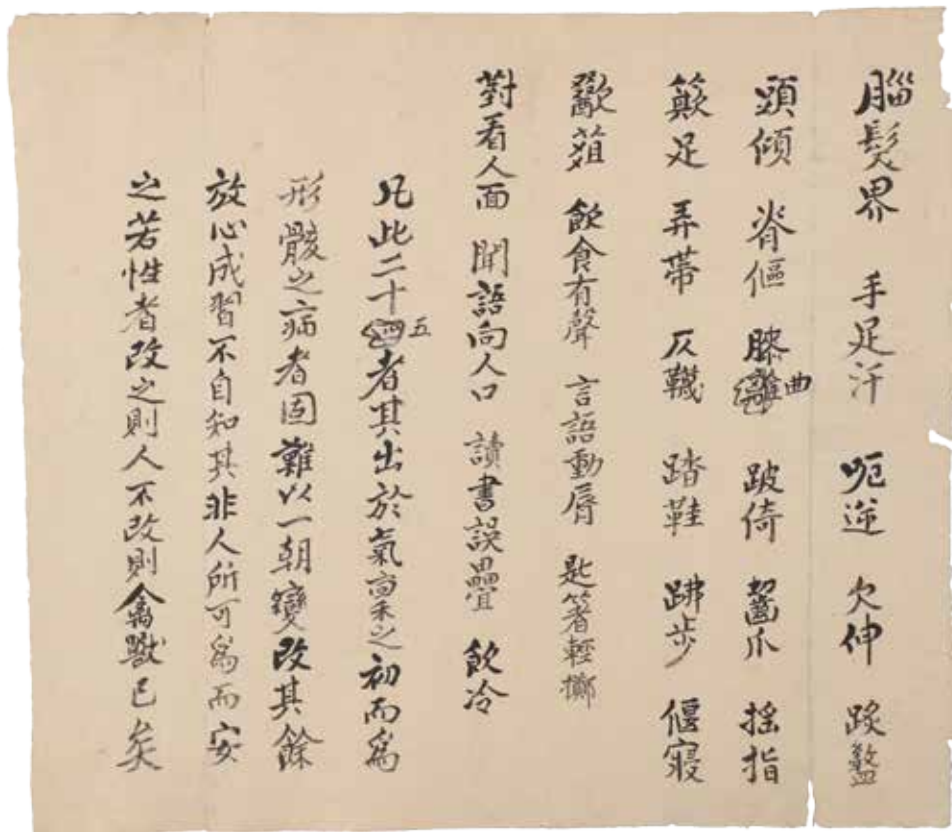
* 고죽국은 중국 고대에 발해만 북안에 있던 나라로 은殷나라 탕왕湯王 때 제후국의 하나로 책봉되었다. 백이伯夷·숙제叔齊의 고사가 있다.



處方文

25.7×34.0cm

‘뇌발계腦髮界’, ‘수족한手足汗’, ‘액역呃逆’, ‘흠신欠伸’ 등 25가지 증세는 기품의 처음이고 몸체의 병이므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 습과화되는데, 고치면 사람이 되고 고치지 못하면 짐승이 된다는 설명의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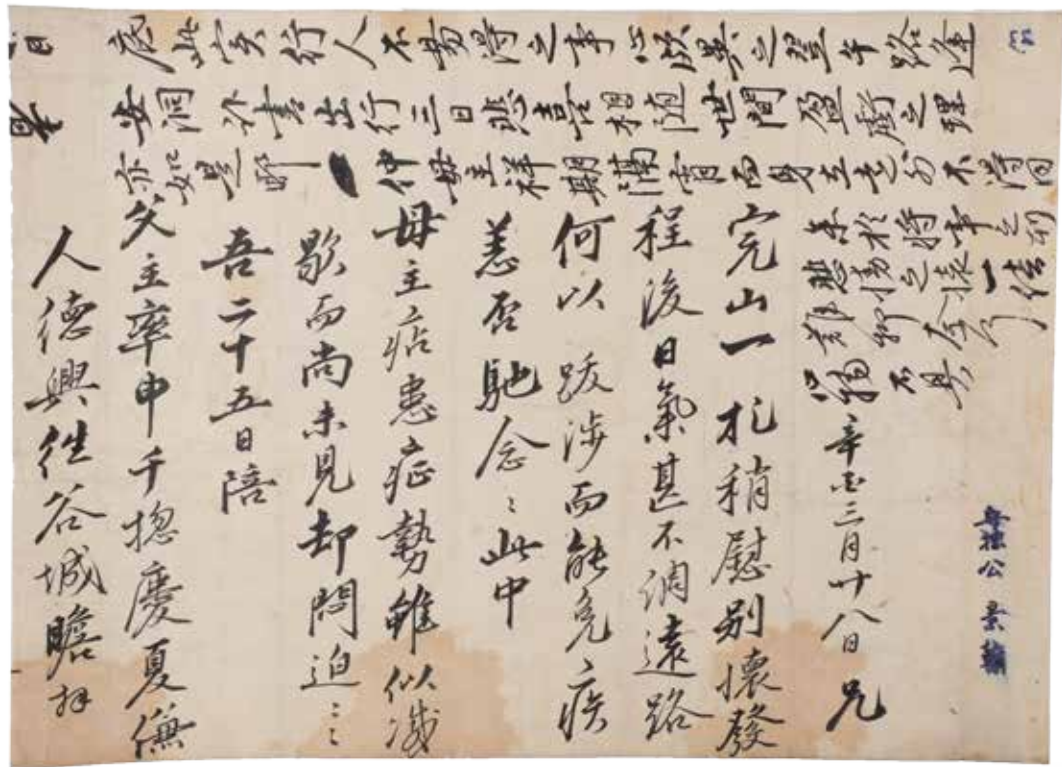


48 | 신경한 간찰

申景翰 簡札

25.0×51.5cm

신경한이 1741(영조 17) 3월 28일 보낸 간찰. 부친을 모시고 곡성곡城에 참배하러 갔다가 길에서 부고를 받아 안부를 묻고 근황을 전하는 내용이다.



完山一 札稍慰別懷發
 程後日氣甚不調遠路
 何以 跋涉而能免疾
 恙否馳念馳念此中
 母主疴患症勢雖似減

歇而尙未見却悶迫悶迫

吾二十五日陪

父主率申千摠慶夏儼

人德興往谷城瞻拜

底此室行人不易得之事心頗異之翌午路逢

安洞 訃書出行三日悲喜相隨世間盈虧之理

亦如是耶仲母主祥期隔宵而身在遠外不得同

參於將事之列

悲慟之懷一估

難抑奈何

心撓不具

辛酉三月廿八日 兄

완산完山の 편지 한 통에 이별의 회한 적게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길을 떠난 후 날씨가 매우 나뻐는데, 먼 길을 어찌 가고 계신 것이며 몸은 괜찮습니까? 매우 마음이 쓰입니다.

요사이 어머니의 병환은 비록 증세가 가벼워졌으나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으니 매우 근심입니다. 나는 25일 아버지를 모시고 천총千摠 신경하申慶夏와 겸인儼人 덕흥德興을 이끌고서 곡성谷城에 가서 참배瞻拜[선조의 묘소 및 사당에서 절함] 했습니다. 이곳에 이른 행차는 남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자못 기뻐하였는데, 다음날 오후 길에서 안동安洞의 부서訃書[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을 나선 지 3일 만에 희비가 엇갈리게 되었으니, 세간에서 말하는 차고 기운다[盈虧]는 이치가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까? 둘째 어머님[仲母主]의 상기祥期[1주기 제사]가 하루를 앞두고 있는데 이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 제사에 동참하지 못하니 비통한 마음 깊어져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마음이 소란하여 예를 다 갖추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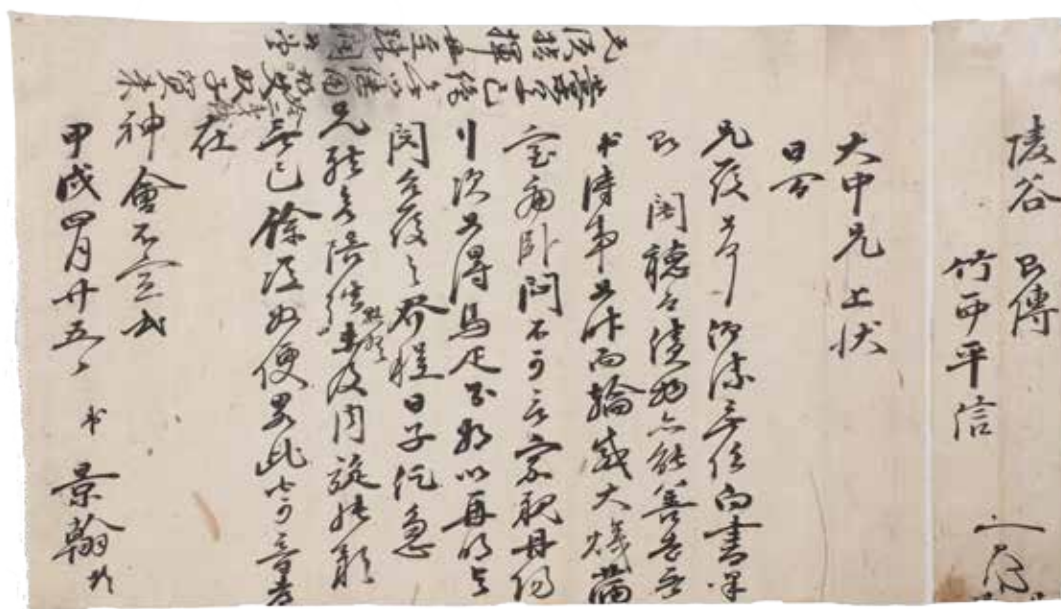
신유년(1861) 3월 28일. 형이 보내다.

49 | 신경한 간찰

申景翰 簡札

23.2×36.0cm

신경한이 1754년(영조 30) 4월 25일 대증大中 형에게 보낸 간찰. 돌림 감기가 심해 집안식구 모두 고통스러운 근황 등을 전하는 내용이다.



陵谷 卽傳

竹西平信 謹封(手決)

大中兄 上狀

日間

兄履如何仰溱無任向書果

卽 闐聽而債物亦能善志否

弟侍事如昨而輪感大熾滿

室痛臥悶不可言宗親丹陽
行次如得馬疋則將以再明與
閱台履之發程日子促急
兄體言陪往默想未及周旋悵歎
無已餘憑奴便略此寄音都
在
神會不善式
甲戌四月廿五日 弟景翰頓

藁草已絕無以繼用故給二錢錢使奴子買來
兄須指揮毋至疎闊爲望

대중大中 형께 편지 올립니다.

요사이 형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그리운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지난번 편지는 과연 읽어 보셨으며, 보낸 물품은 또한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이전처럼 지내고 있으나 돌림감기가 크게 성해 온 집안사람이 몸져누웠으니 말 할 수 없이 근심됩니다. 종친宗親께서 단양丹陽에 행차하는데 만일 마필馬疋을 구한다면 모레 민闕대감과 방문하려고 합니다만, 길을 떠날 날짜가 촉급합니다. 형께서 모시고 가라 하셨는데 들리지 못할 듯 하니 탄식이 그치지 않습니다.

끝으로 노비 편[奴便]을 통하느라 이렇듯 간략히 편지를 보내는 것이니, 모두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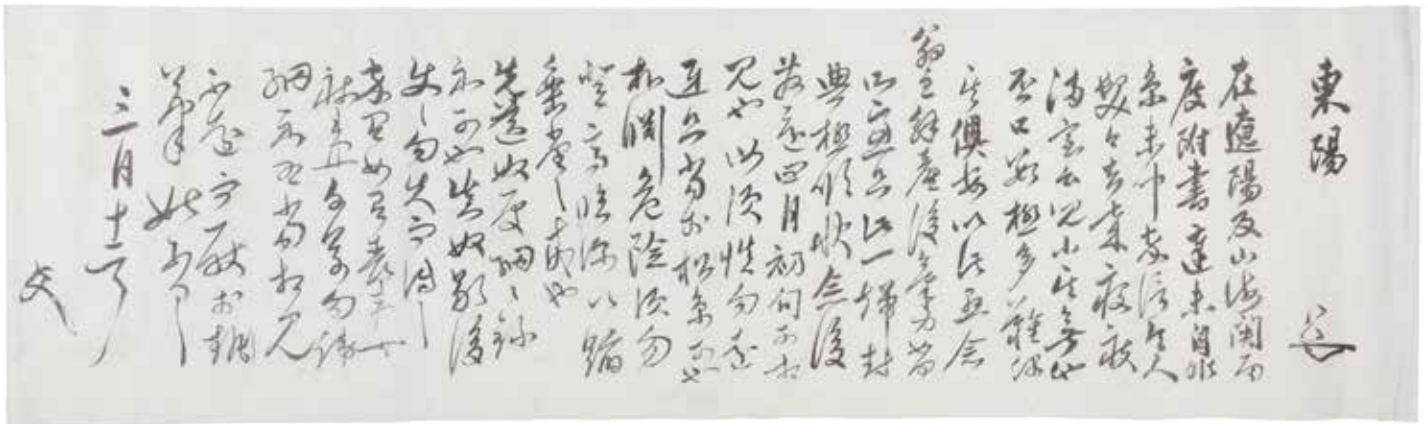
갑술년(1814) 4월 25일. 아우 경한景翰이 절 올립니다.

벗집[藁草]이 다 떨어져 계속 사용할 길이 없으므로, 2전錢을 주고 노자에게 사 오게 했습니다. 형께서는 부디 멀다 여기지 마시고 통솔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櫨 簡札

25.5×88.5cm

신헌(1810~1884)이 중국 요양遼陽에 있으면서 걱정되는 여러 일들에 대한 심경 등을 전한 편지. 신헌은 조선후기 금위대장, 훈련대장, 진무사 등을 역임한 무신이자 외교가로, 어려서 당대의 석학이며 실학자인 정약용丁若鏞(1762~1836)·김정희金正喜(1786~1856) 문하에서 다양한 실사구시적實事求是의 학문을 수학하였다. 그리하여 무관이면서도 독특한 학문적 소양을 쌓아 유장儒將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또 개화파 인물들인 강위姜瑋(1820~1884)·박규수朴珪壽(1807~1876) 등과 폭넓게 교류하여 현실에 밝은 식견을 가질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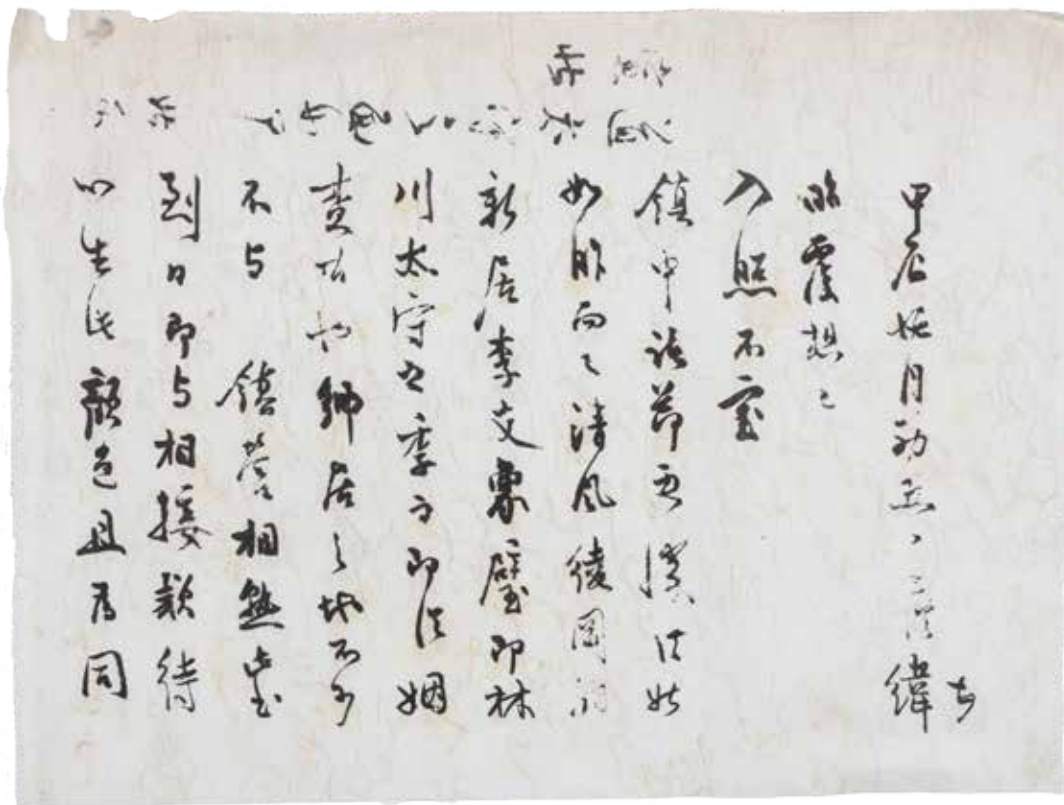


신위 간찰

申緯 簡札

33.0×41.0cm

자하紫霞 신위(1769~1845)가 진중鎭中의 일에 대해 물어보고 벗 이상벽李象璧의 근황 등을 전하는 편지. 신위는 1799년(정조 23) 알성시謁聖試에서 을과乙科 2등으로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갔는데 10여 년간 한직에 머물거나 파직과 복직을 되풀이하는 등 기복이 많았다. 그 후 이조참판·병조참관을 지냈다. 1812년 중국에 가서 옹방강翁方綱(1733~1818)을 비롯한 그곳의 학자들을 만나고 돌아온 후 그전에 쓴 자신의 시들을 다 태워버렸다. 조선후기 시, 서, 화 삼절(三絶)로 일컬어진 문신, 화가, 서예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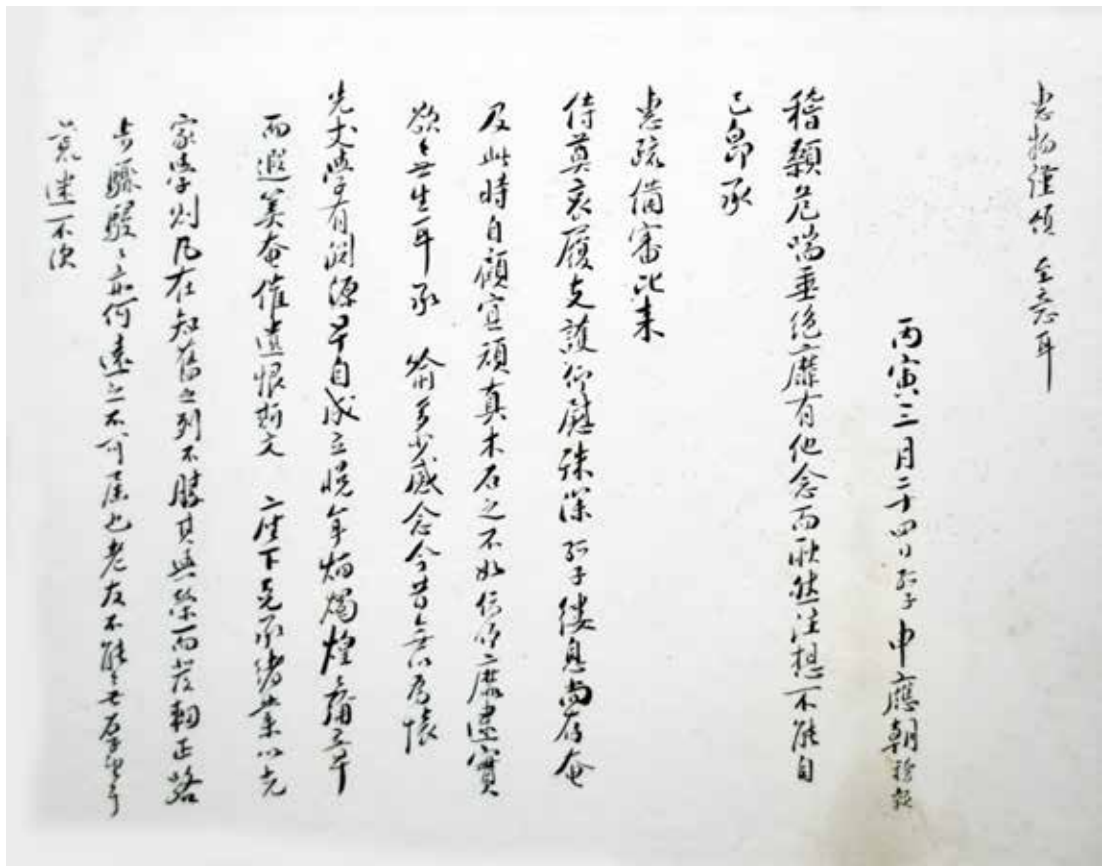


52 | 신응조 간찰

申應朝 簡札

23.8×42.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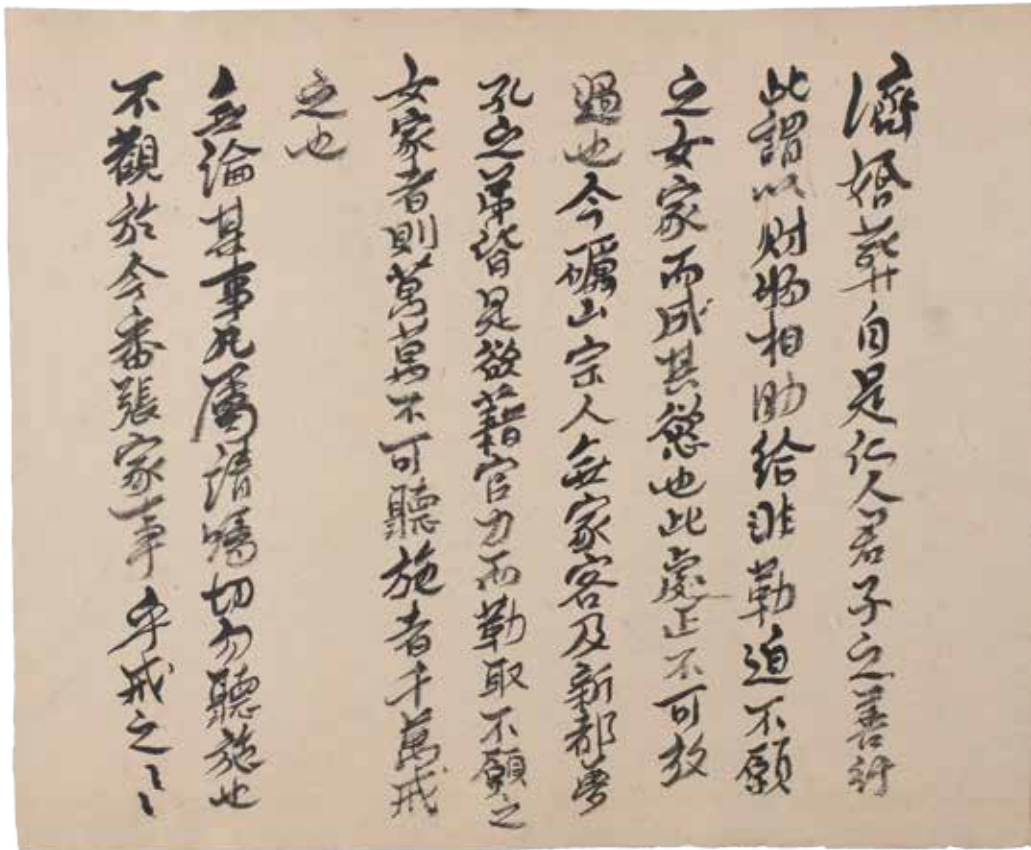
1866년(고종 3) 3월 신응조(1804~1899)가 안부를 묻고 선장先丈의 학문에 대한 이력과 내용 및 보내준 선물에 등에 대해 감사를 전하는 편지.



簡札

23.2×15.0cm

혼인과 장례에 재물로 서로 부조함을 억지로
부담하면 안된다는 의견의 편지.



簡札

15,8×41,0cm

기다리던 편지 받음에 반가움과 집안의 대소사와 조복朝報[관원이 조정에 나아가 의식을 시행할 때 입는 예복] 등에 대해 전하는 편지.



신야 간찰

申埜 簡札

23.8×38.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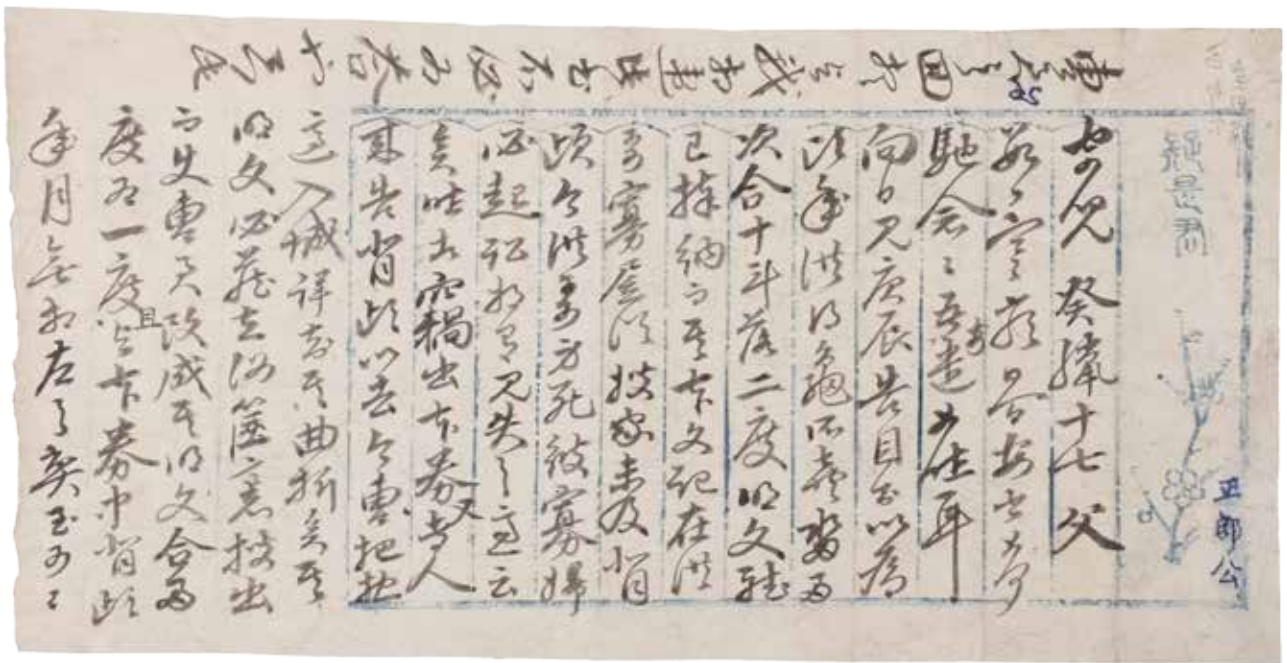
1734년(영조 10) 신야(1697~1759)가 아들 신경한(申景翰)에게 보낸 간찰. 서울에 있을 때 받은 편지에 대한 심경과 영릉의 제향 및 향후 일정에 대한 계획 등을 알리는 내용이다.



簡札

19.7×39.0cm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안의 형편을 묻고 경진년 고
목告目[조선시대 공적인 문서양식]과 홍씨 집안에
서 소송할 것에 대한 우려 등을 전하는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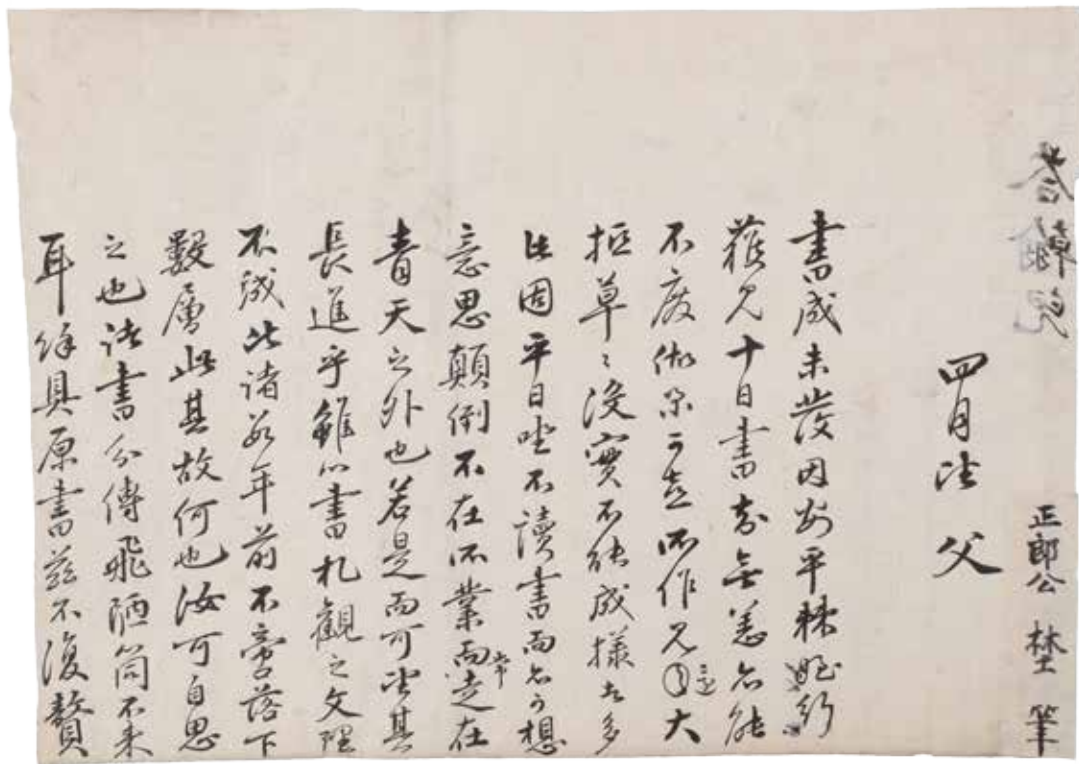


신야 간찰

申埜 簡札

27.0×38.0cm

신야(1697~1759)가 아들 신경한(申景翰)에게 보낸 간찰. 무탈하다는 소식에 기쁨과 독서에 힘쓰라고 당부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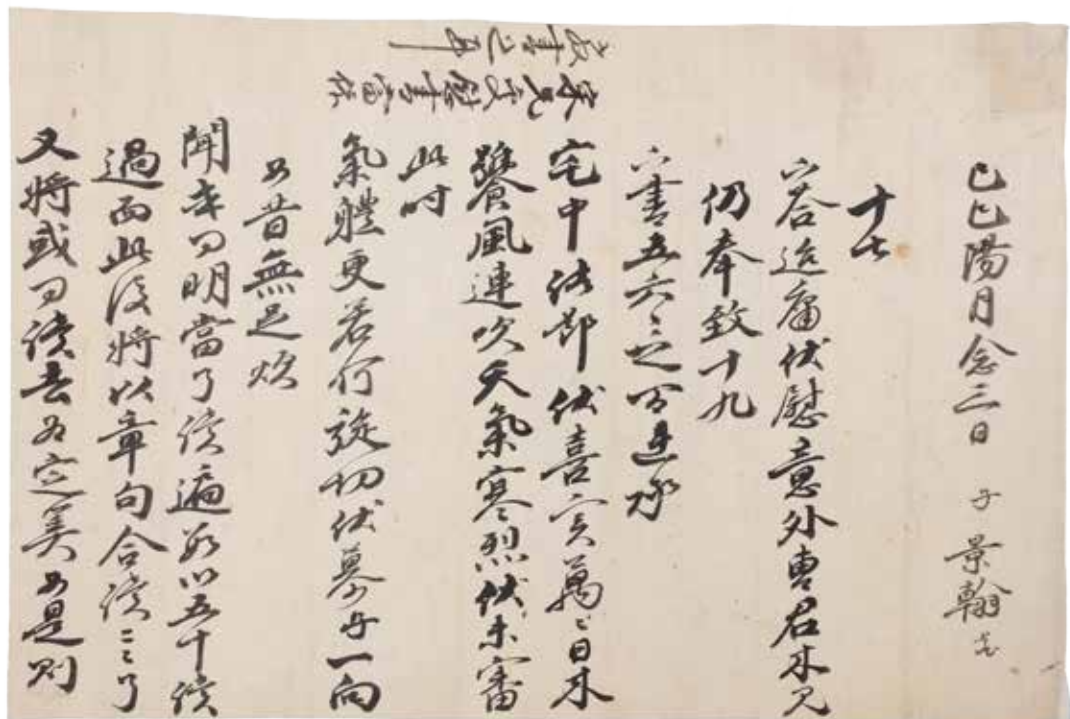


신경한 간찰

申景翰 簡札

25.4×38.4cm

1749(영조 25)년 10월 23일 신경한이 아버지 신야申埜(1697~1759)의 편지에 답한 간찰. 안부를 묻고 독서에 열중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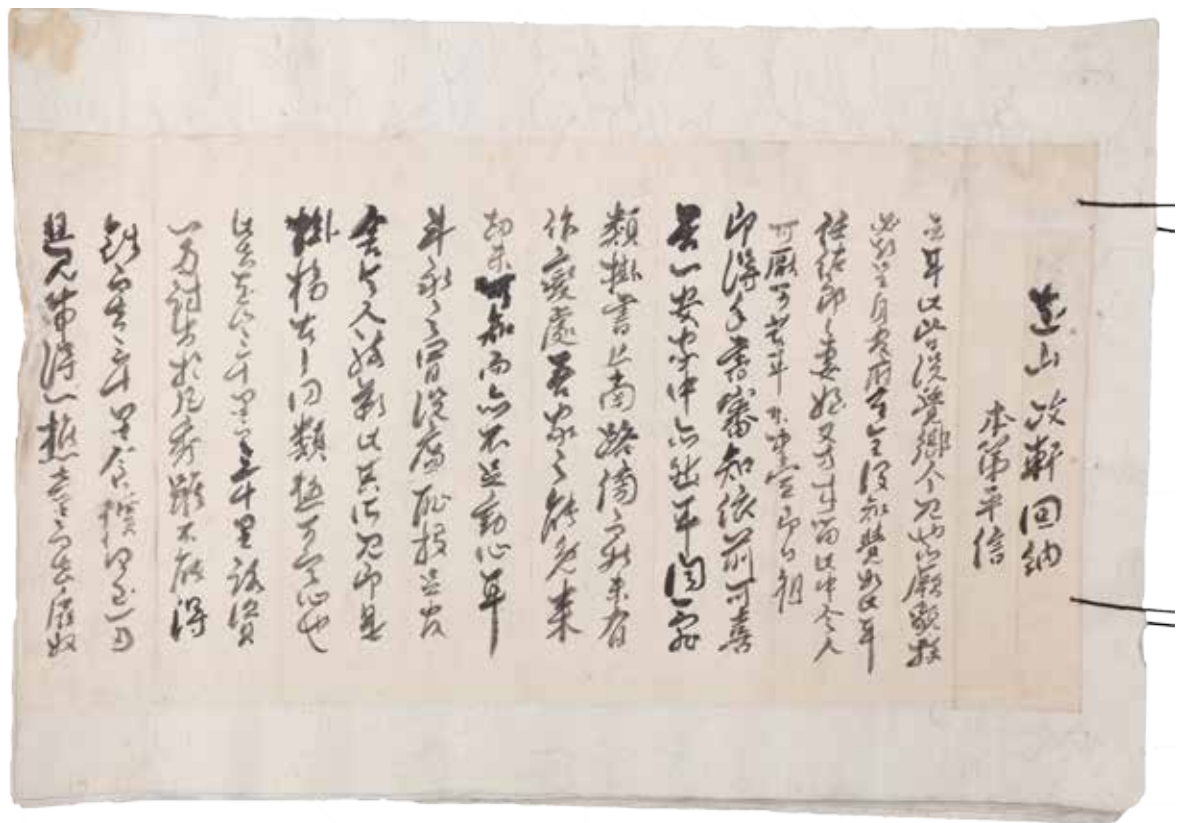


간찰

簡札

24.3×39.7cm

임좌랑任佐郎 아내의 친정조카[처질妻姪]가 도착하여 머무는 것과 난류亂類가 도로변에 꺾서掛書[이름을 들어내지 않고 내어 거는 글]를 붙인 상황 등을 알리는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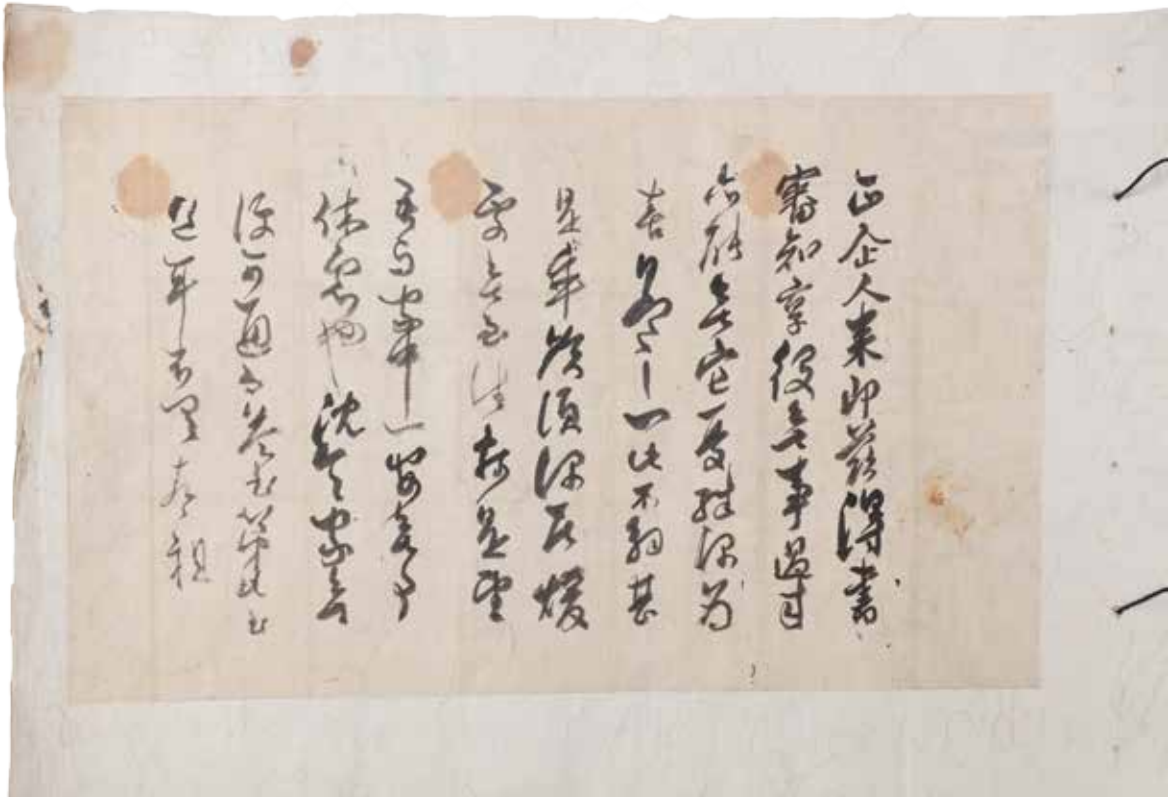


신응조 유묵

申應朝 遺墨

24.5×40.3cm

계전桂田 신응조(1804~1899)의 유묵으로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인 제향祭亭이 무사히 끝난 것과 추위에 대한 안부 인사 등을 전하는 글.



3. 가계의 경영을 기록하다

평산신씨 정언공파의 가계를 기록한 문서로는 우선 장절공 신숭겸申崇謙(?~927)부터 28세 신기선까지의 가계를 한글로 기록한 「평산신씨세계[평산신씨세계]」가 있다. 그리고 집안 조상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인 몇 편의 「가장초家狀草」 문서는 신석화申錫華(1672~1714)와 부인 민씨閔氏의 행장을 비롯하여 신경한申景翰의 행장과 부인 의령남씨의 행장을 기록한 문서이고, 『가장家狀』은 신야申埜(1697~1759)의 행장과 신응조申應朝(1804~1899)의 내력을 정리한 문서이다. 또 신길원申吉元(1548~1592)의 가계와 생애를 필사한 「행장」이 있고, 신상현申常顯(1777~1864)의 부인 민씨閔氏의 『망실민씨행록亡室閔氏行錄』, 신정申鼎의 부인 허씨許氏의 「허부인행장許夫人行狀」이 전한다. 그 외에 신경한과 그의 부인 의령남씨의 묘지명인 「수졸부군묘지守拙府君墓誌」, 신일영申一永(1845~1898)의 관직 기록인 「신일영약력申一永略歷」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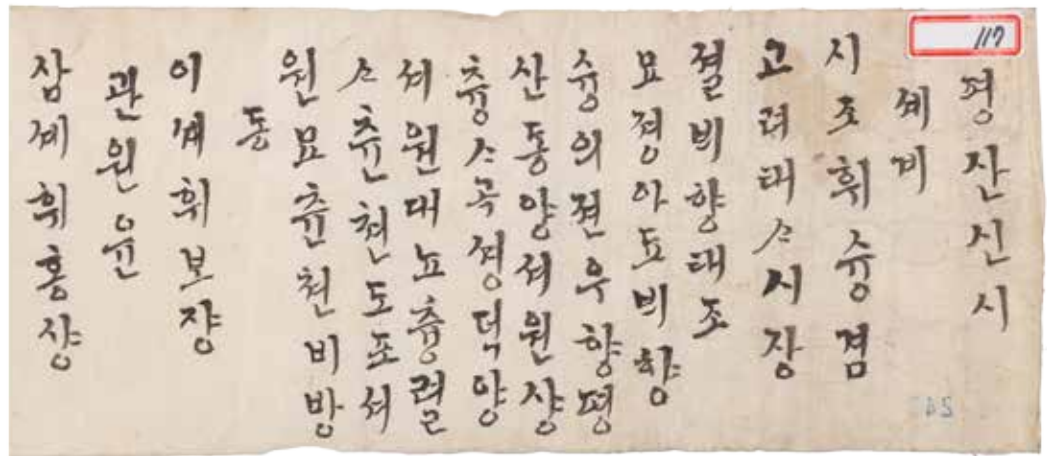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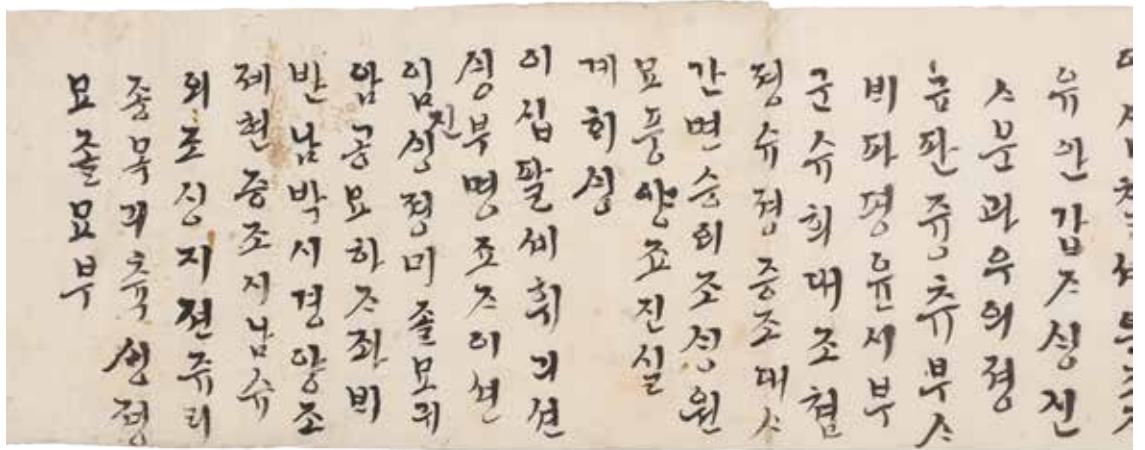
다음 평산신씨가 호구관련 문서로는 유일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신택수申澤秀(1881~?)의 「민적부民籍簿」가 있다. 그리고 신응조 묘역 등의 석물 설치와 관련한 「지출부支出簿」 문서 2건이 전하여 당시의 비석을 비롯한 석물 설치에 드는 비용 곧 운반 차량이나 거리, 석수石手의 고용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서이다. 기타 평산신씨 집안 관련 기록으로 ‘산송관련문서山訟關聯文書’와 『가보家寶』 4책(원元, 형후, 이례, 정貞)과 『복부覆甌』 1책을 합하여 5책으로 엮은 『가고목록家稿目錄』이 있고, 『송계선생실기松溪先生實記』 책판冊板의 유물소재기遺物所在記 단자單자가 있다.

평산신씨세계

平山申氏 世系

11,0×460,0cm

평산신씨 세계를 한글로 기록한 문서. 시조 장절공 신승겸(?~927)부터 28세 신기선까지의 가계를 기록하고 있다.



62 신일영 약력

申一永 略歷

21.0×14.0cm

신일영(1845~1898)의 약력을 간단하게 정리한 문서. 1871년(고종 8) 7월 7일 전시殿試에 참여한 이후 1897년까지 역임한 관직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초

家狀草

30.5×19.0cm

남천공南川公 신의申愷가 지은 부친 신경한申景翰의 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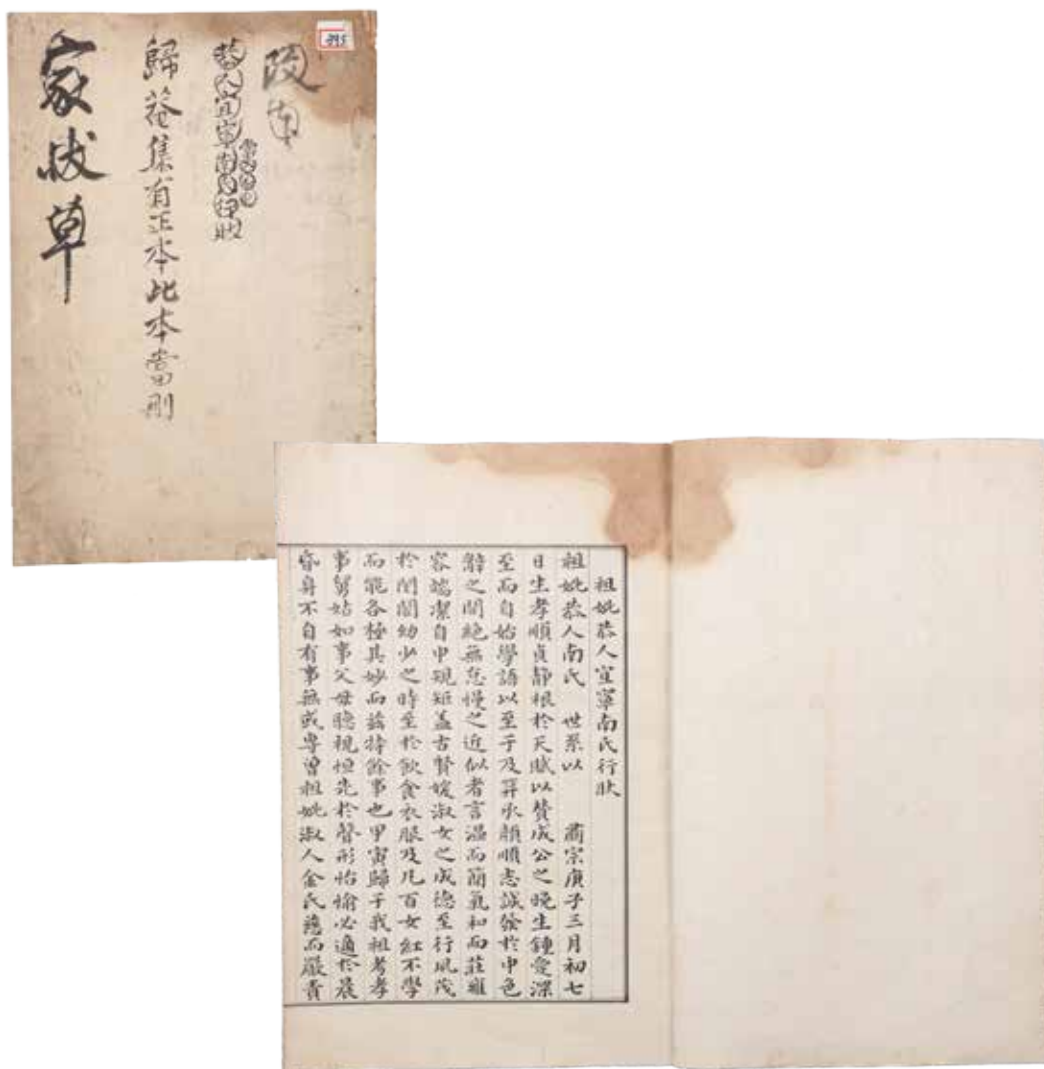


64 | 가장초

家狀草

28.5×19.0cm

손자 신상현申常顯(1777~1864)이 지은 할머니 의령남씨의 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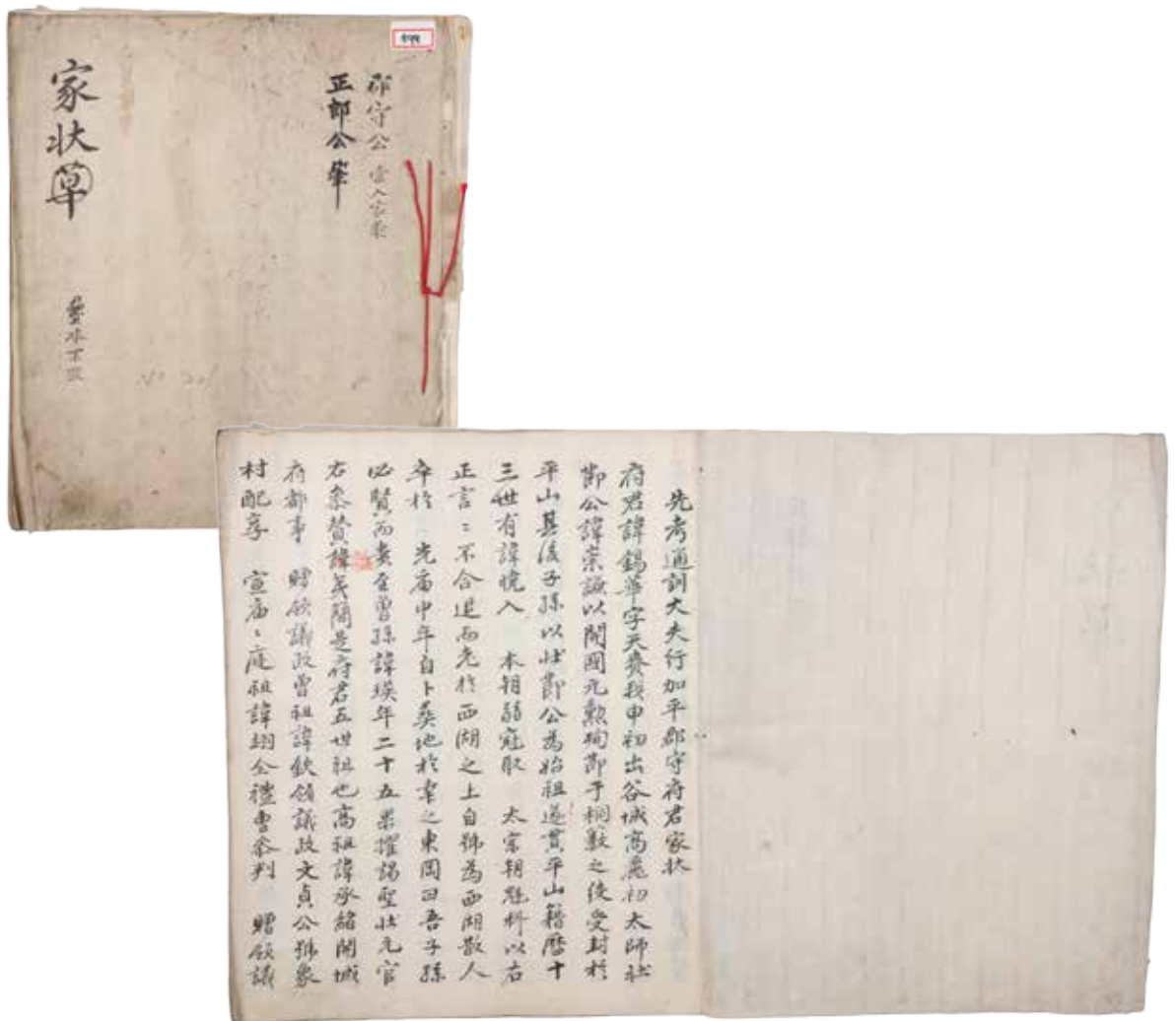
祖妣恭人宜寧南氏行狀
 祖妣恭人南氏 世系以 肅宗庚子三月初七
 日生孝順貞靜根於天賦以贊成公之晚生鍾愛深
 至而自幼學誦以至於及笄承順志誠於中色
 辭之間絕無怠慢之近似者言溫而簡氣和而莊
 容端潔自中現短蓋古賢淑淑女之成德至行風茂
 於閨閣幼少之時至於飲食衣服及凡百女紅不學
 而能各極其妙而茲特餘事也甲寅歸于我祖考孝
 事舅姑如事父母聽視惟先於聲形怡愉必適於晨
 昏身不自有事無或專曾祖妣淑人金氏德而嚴責

가장초

家狀草

26.8×23.5cm

신석화申錫華(1672~1714)의 「가장家狀」, 「유사遺事」, 「민씨행록閔氏行錄」 등을 필사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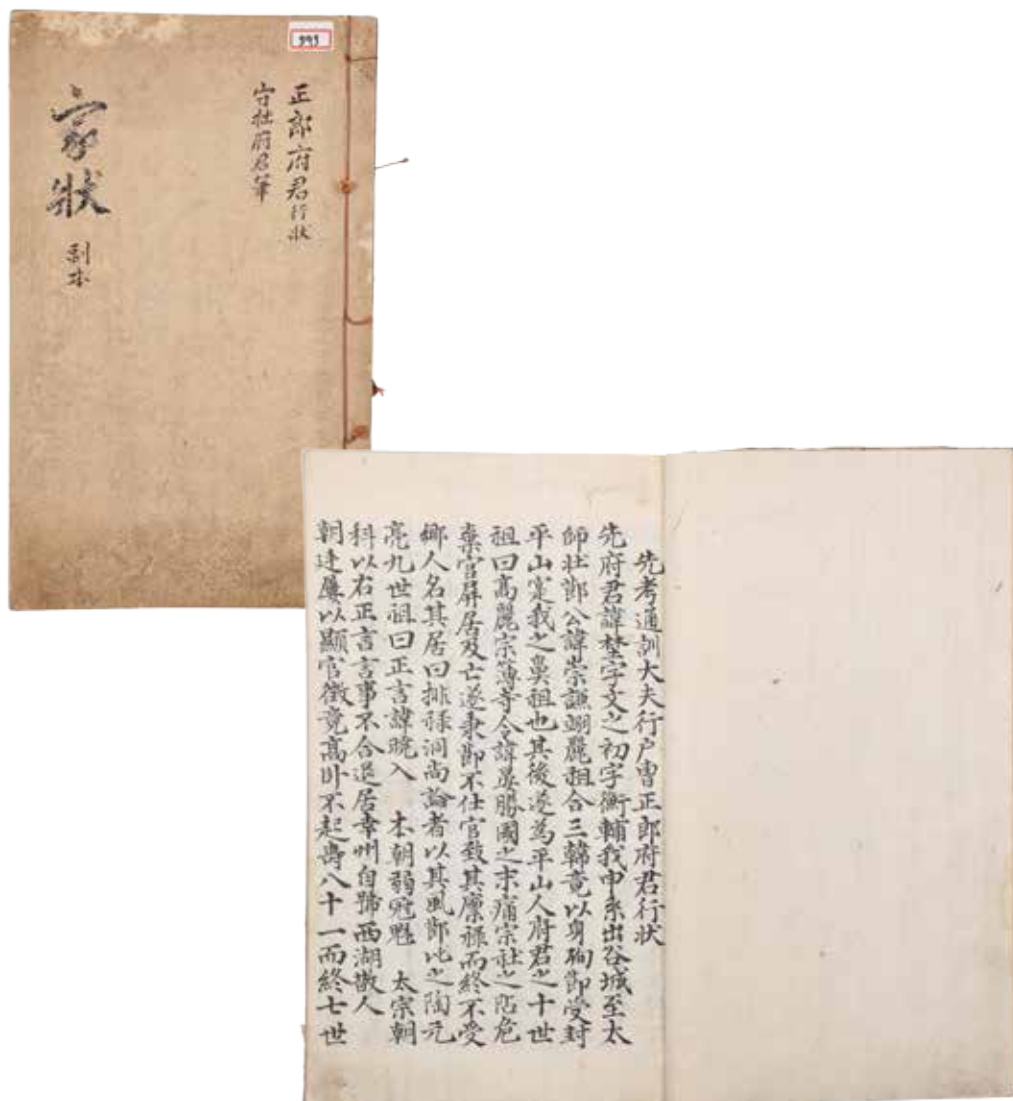


66 | 가장

家狀

29.5×17.5cm

신경한申景翰이 지은 아버지 정랑부군正郎府君 신아申埜(1697~1759)의 행장.



67 | 가장

家狀

27.8×19.5cm

신태수申澤秀가 지은 증조부 신응조申應朝(1804~1899)의 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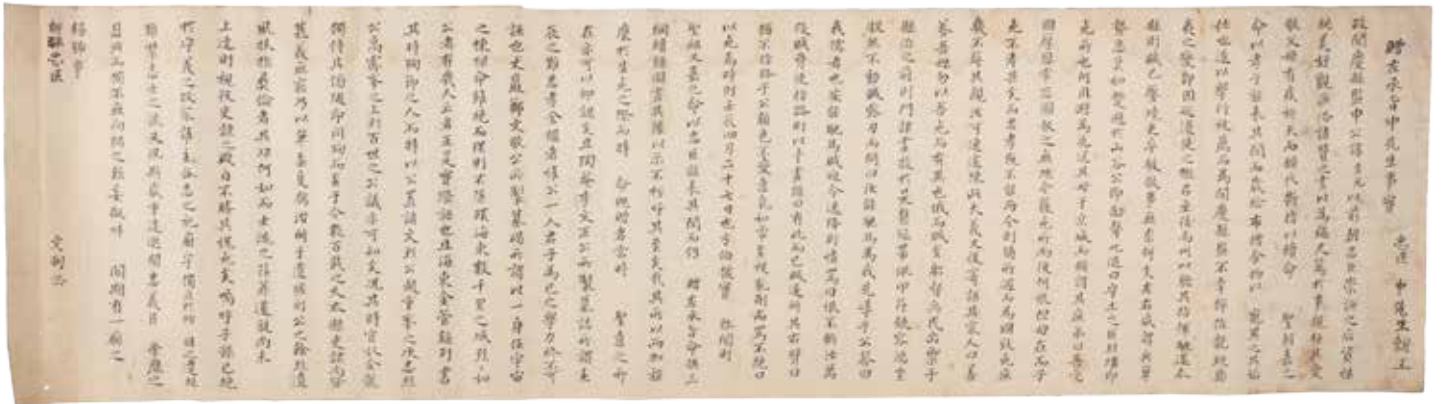
曾王考議政府君家狀
 府君諱應朝字幼安號菊菴又號桂田我牙山之申
 以高麗太師諱崇誦為鼻祖主組相承入 本朝有
 諱晚官正言言不合送去幸州自號西湖散人復五
 世諱欽頓議政文貞公龍象村事 宣仁兩朝以勳
 業文章顯生諱州全參判 贈領議政觀東江生諱
 長史曹判書文肅公 贈領議政觀正英府君六
 世已上也高祖諱楚正節 贈司僕寺正曾祖諱景
 翰 贈吏曹參議祖諱愷 贈左贊成考諱常顯同
 教宰 贈領議政純馳與閔氏 贈領議政景燾之

행장

行狀

28.3×103.0cm

증좌승지贈左承旨 신길원申吉元(1548~1592)의 가계와 생애를 필사한 자료. 신길원은 45세에 사마시에 급제하여 진사가 된 후에 태학의 추천으로 참봉을 거쳐 1590년(선조 23)에 문경현감이 되었다. 문경현감 재임 중인 1592년(선조 25) 4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관내에 쳐들어오자 관병 수십 명을 이끌고 관아를 지키며 결사적으로 항전하다 순국하였다. 선조가 좌승지로 증직하고 『삼강행실록三綱行實錄』에 그 충절을 실어 널리 선양宣揚하게 하였으며, 1706년(숙종 32)에 신길원현감충열비申吉元縣監忠烈碑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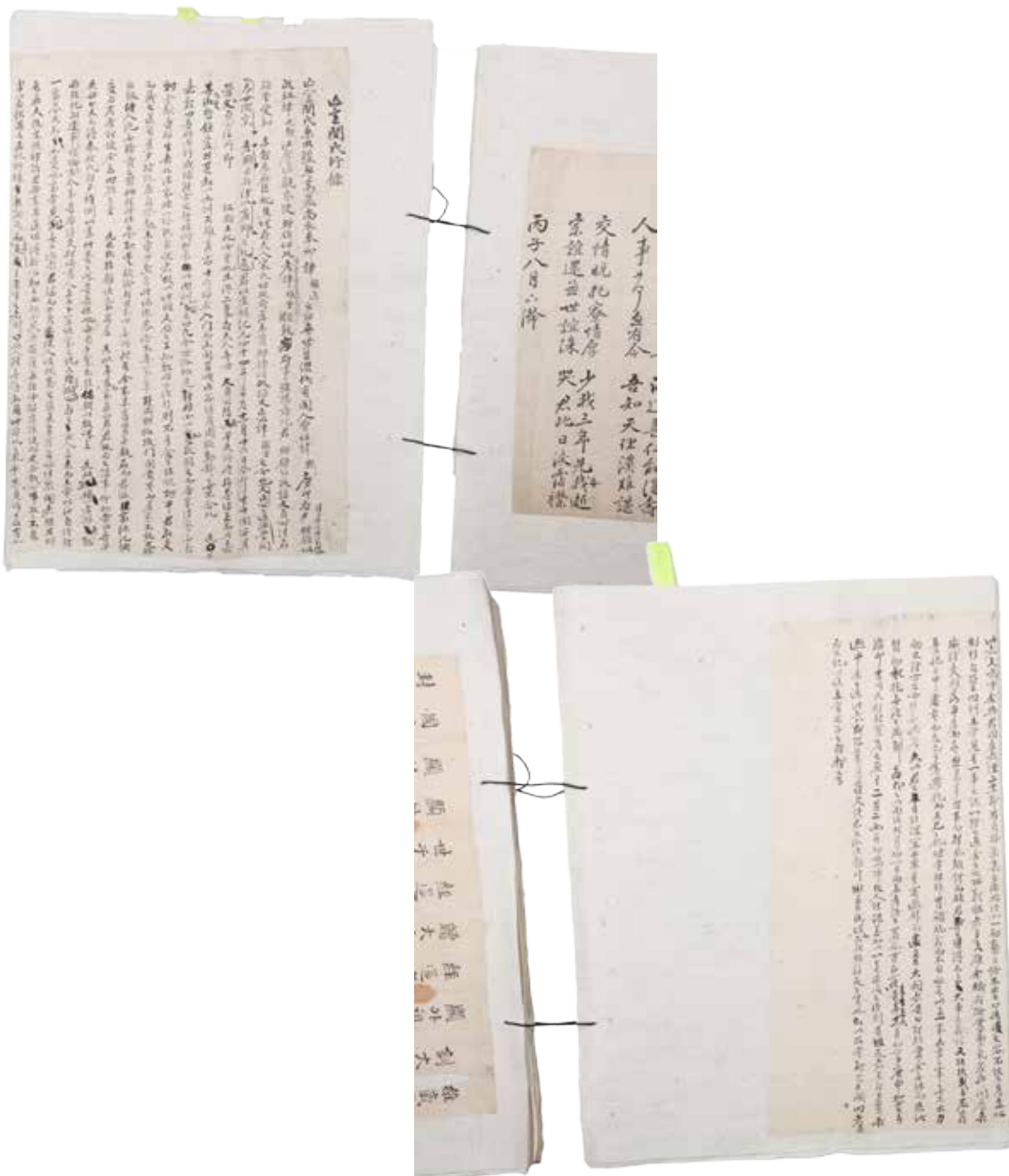


70 | 망실 민씨 행록

亡室 閔氏 行錄

42.0×27.8cm

신상현申常顯(1777~1864)이 지은 죽은 부인[亡室] 여흥민씨의 행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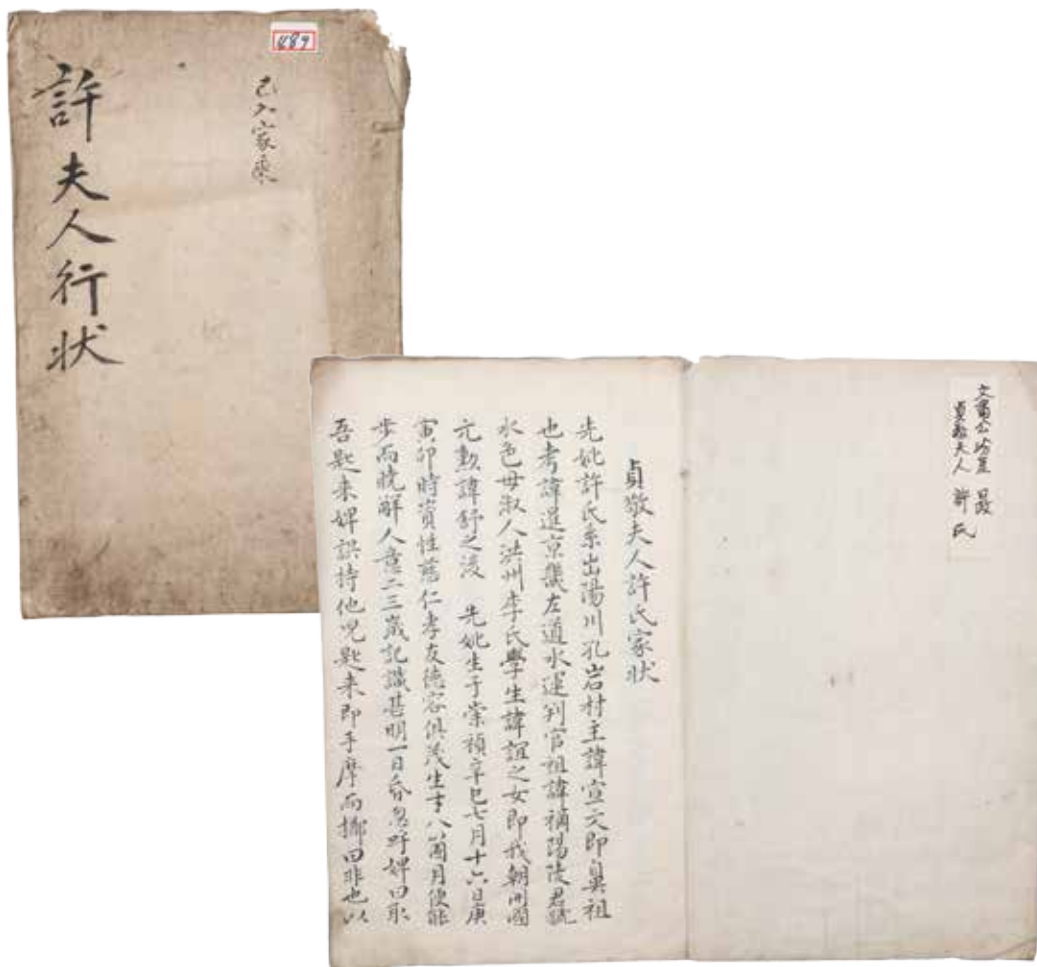


71 허부인 행장

許夫人行狀

30.0×19.5cm

신정申晷(1628~1687)의 부인인 정경부인 허씨許氏의 가行家狀. 신정은 1664년(현종 5) 춘당대 시春塘臺試에서 을과乙科 1등[亞元]으로 급제한 뒤에 예조관서, 한성관윤, 강화부유수 등을 역임하였고,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특히 그는 바른 정사로 일세의 추중推重을 받는 이름난 재상이었고, 시문과 글씨에 뛰어나 관각館閣의 전책典冊이나 국가의 금석문자를 찬술한 것이 많다. 저서로는 『분애집汾厓集』, 『분애유고汾厓遺稿』, 『임진록찰요壬辰錄撮要』 등이 있다.



72 | 가고목록

家稿目錄

15.5×9.9cm

가고목록은 가보家寶 4책(원元, 형후, 이리, 정貞)과 복부覆瓿* 1책을 합하여 5책으로 엮은 책의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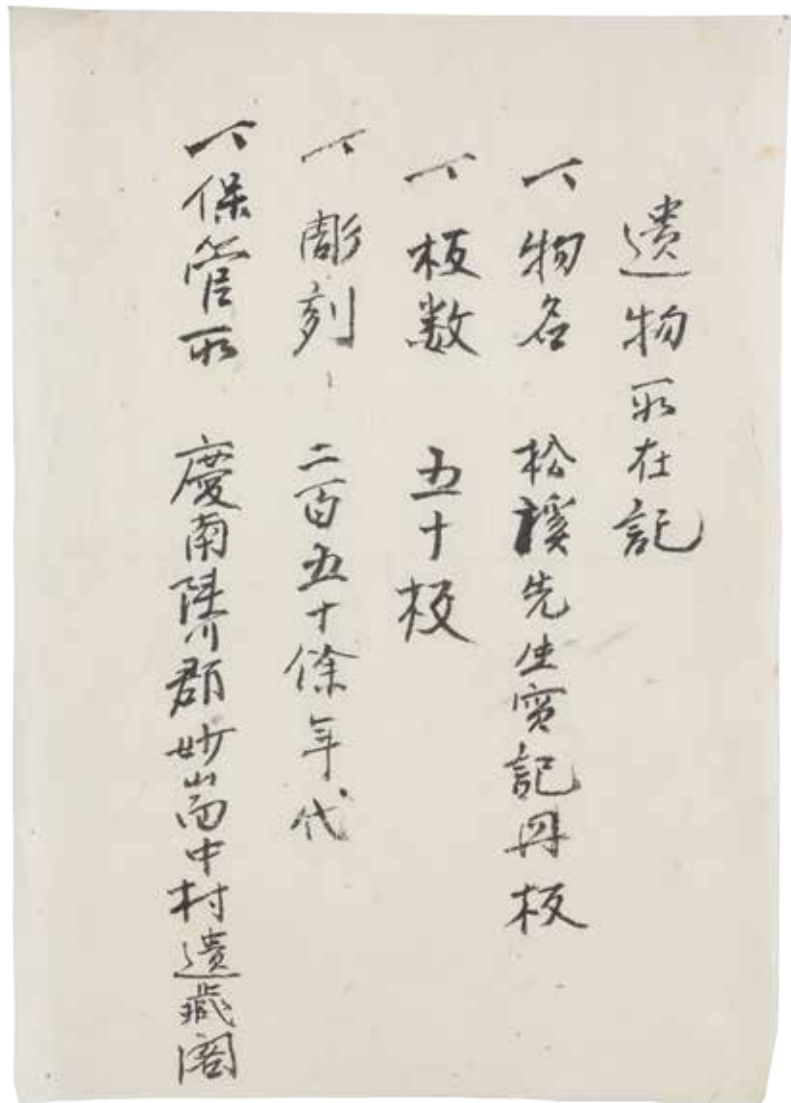
* 복부覆瓿 : 책이나 문장 등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單子

26.0×1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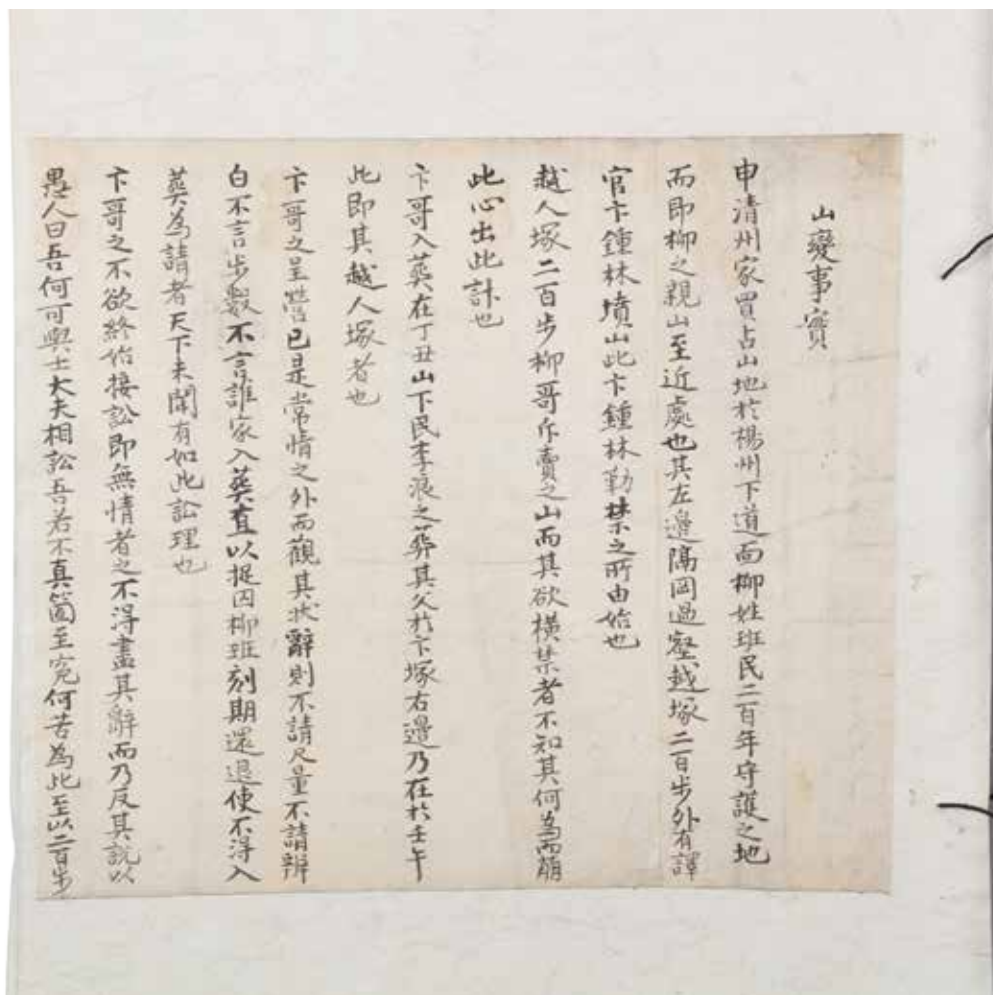
「송계선생실기松溪先生實記」 책판冊板의 유물소재기遺物所在記로 물명物名, 판수板數, 조각彫刻, 보관소保管所 등의 항목을 기록한 문서.



山訟 關聯 文書

26.7×30.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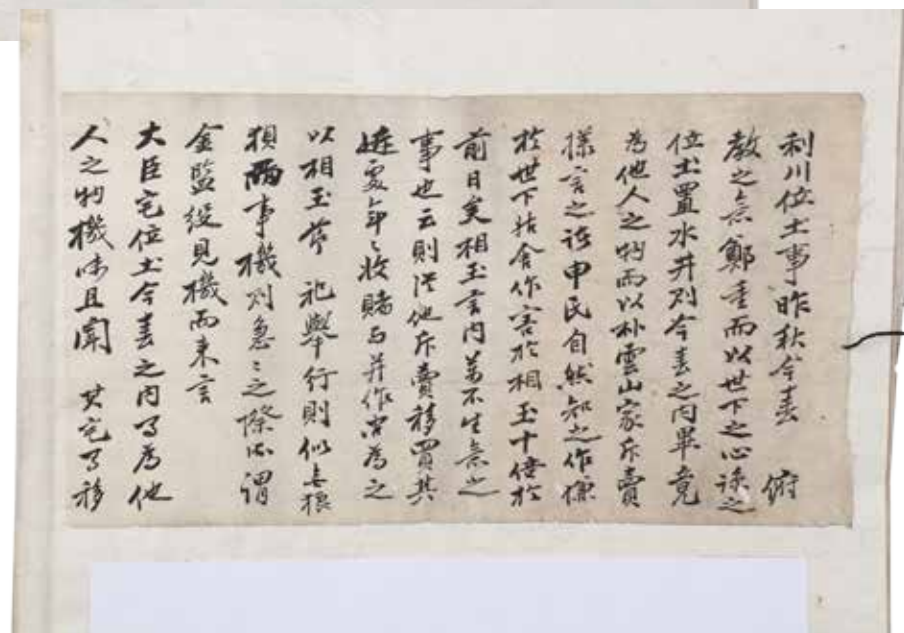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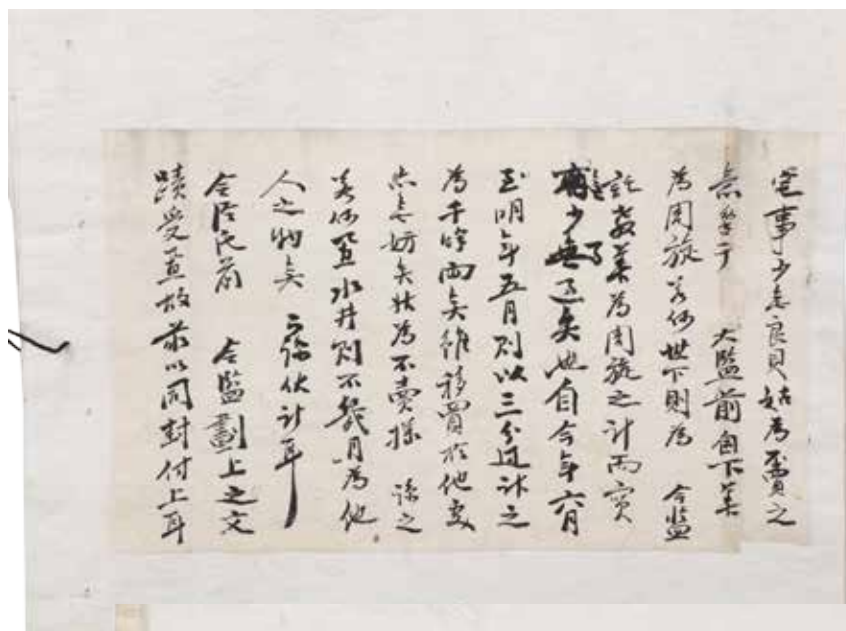
신청주申淸州 가에서 양주 하도면에 위치한 유씨 200년 수호지를 매점하였는데 그 땅 주변에 있는 묘소와 관련하여 산변山變 사실에 대해 정리한 문서.



簡札

18.0×29.0cm

이천利川의 위토位土[묘에서 지내는 제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작하던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적어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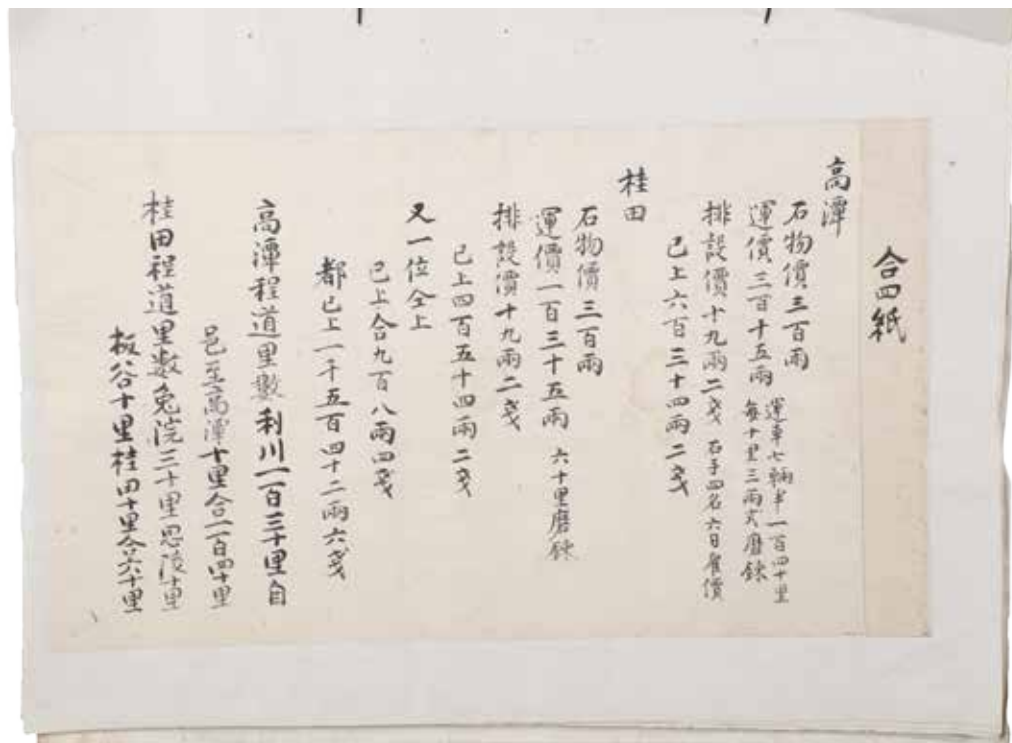


지출부

支出簿

23.8×41.0cm

고담高潭(사람 이름?)과 계전桂田 신응조申應朝 (1804~1899)의 묘역 석물 운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해 운반차량, 거리, 석수石手 고용 가격 등의 비용을 정리한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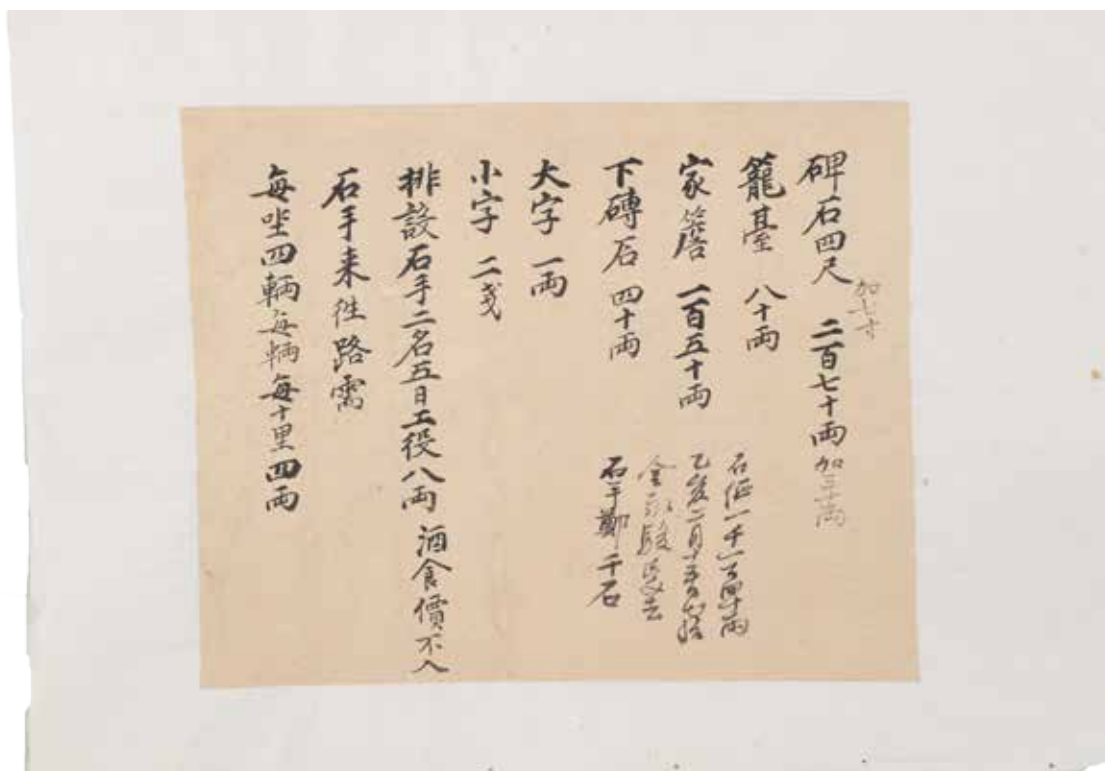


77 | 지출부

支出簿

24.0×29.5cm

묘역의 비석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문서.



78 | 민적부

民籍簿

27.7×38.5cm

조선총독부에서 1916년 5월 1일 발행한 경기도 경성부 화동 19번지에 거주한 신태수申澤秀 (1881~?)의 민적부 등본.



79 수졸부군 묘지

守拙府君 墓誌

30.5×18.8cm

신경한申景翰과 그의 부인 의령남씨의 묘지명. 부인 의령남씨의 조카인 영의정 남공철南公轍(1760~1840)이 지었다. ‘수졸’은 ‘세대에 융합하지 않고 우직함을 지키고 산다’라는 의미이다.



4. 가문의 예법을 지키다

평산신씨가의 고문서 중에서 관혼상제와 관련한 문서는 혼인문서로 납폐지納幣紙를 비롯한 몇 가지의 문서가 전하고 상장례喪葬禮와 관련한 문서는 『길제시의절吉祭時儀節』이나 『제의절목祭儀節目』, 『묘소제향홀기墓所祭享勿記』, 『을미영모록乙未永慕錄』, 「제문祭文」, 『묘알록墓謁錄』 등의 다양한 문서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예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길례吉禮·가례嘉禮·빈례殯禮·군례軍禮·흉례凶禮를 기준으로 예별로 세부 조목을 마련하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왕명으로 편찬할 만큼 중요시하였다. 이것은 유교 이념을 통치기반으로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조선왕조의 기본 통치이념으로 민간에서 준수해야 할 예禮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물론 『국조오례의』는 왕실 중심의 국가의례여서 민간에서는 주자의 『가례家禮』를 중심으로 한 예법이 준수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기본 예법에 따라 평산신씨가의 가례 문서들을 통해서 가문의 예법을 파악할 수 있다.

평산신씨가의 혼례와 관련한 문서로는 혼수와 관련한 여러 물목과 수량을 한글로 작성한 「혼슈홍정」이 있고, 이형의李亨儀가 지은 「사주운수四柱運數」와 관련하여 평생괘平生卦 내용을 풀이한 문서자료가 있다. 그리고 혼례에서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 성립의 증거로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서지와 폐백을 함에 담아 보내는 납폐의식의 문서인 납폐지가 몇 건 있다. 우선 신정申鼎의 여섯째 아들 신석화申錫華(1672~1714)의 혼사와 관련한 납폐지를 비롯하여 신야申埜(1697~1759)의 납폐지, 신경한申景翰의 납폐지, 신규현申奎顯의 납폐지, 신탉수申澤秀(1881~?)의 납폐지가 있다.

다음 상장례 관련 문서로 소렴제구小斂諸具, 대렴제구大斂諸具, 치관지구治棺之具, 치광지구治壙之具 등 관련 도구와 물품을 정리한 문서와 길제吉祭의 의식절차를 기록한 『길제시의절吉祭時儀節』, 합제합제를 거행할 때의 절차와 내용에 대해 기록한 『제의절목祭儀節目』이 있다. 또 묘소 제향과 관련한 제향 길일과 제관, 의식 순서, 제기祭器 등에 대해 기록한 『묘소제향의 식墓所祭享儀式』과 묘소 제례 의식에서 그 진행 순서를 기록한 『묘소제향 흘기墓所祭享笏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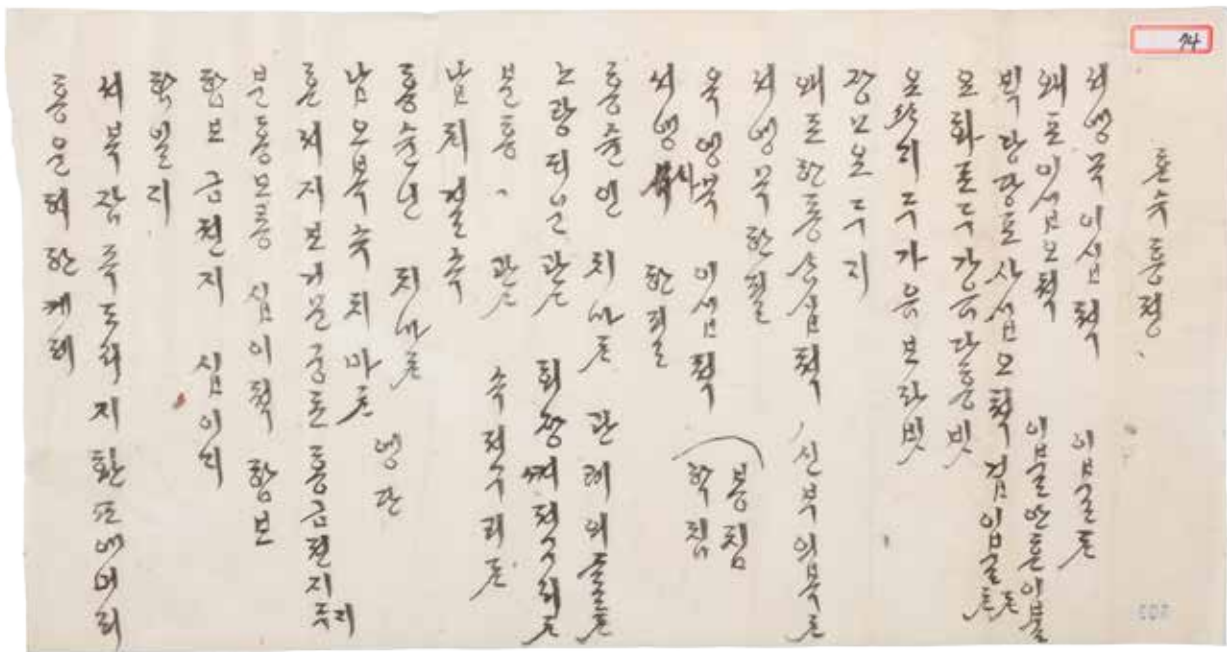
그 외 제문祭文과 장절공사당을 배알한 인물들의 기록인 『묘알록墓謁錄』, 묘소를 합사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한 『자계지부의절自啓至祔儀節』, 평산 신씨 문중 선대의 기일을 정리한 「기일궐」, 왕실의 기일을 정리한 「국기궐」가 있다.

혼수흥정

혼수흥정

23.0×42.5cm

혼수와 관련한 여러 물목과 수량을 한글로 작성한 문서.



잡기

雜記

19.5×243.0cm

이형의李亨儀가 지은 『사주운수四柱運數』와 관련하여 평생괘平生卦 내용을 풀이한 문서.

庚子三月初一日申時 初吉 清明

庚午土 胎將星 巨乘 巨友 巨財 巨壽

已卯土 死 年乘 倉神 天孤 廉貞 壽

丁卯火 死 年乘 即緩 天孤 廉貞 壽

戊申土 生 驛馬 編財 天軒 旺

入胎 乙亥

運路初庚辰 巨財 月乘

元定 一六二七 句一辛巳 編財 三身

天道一 冠一壬午 巨友 將星

清明上元四局 立一癸未 七乘 盤鞍

井一甲申 即緩 驛馬

命一乙酉 編財 三言

順一丙戌 皆 華蓋

平生卦

為一運之英正 居後悔而全時

事不書而位 滿布而之入山

順一運之身居 入不出而古閑

女失散而和主 一膝下之抄表

稀一運之言末 治海精舍為軒

子孫考不以忠 滿廣為而視

考之

壬辰有初四日新

身寓李亨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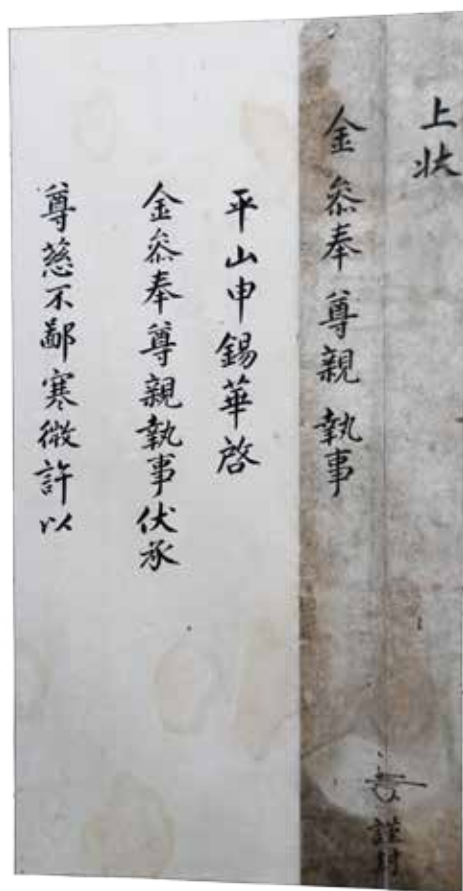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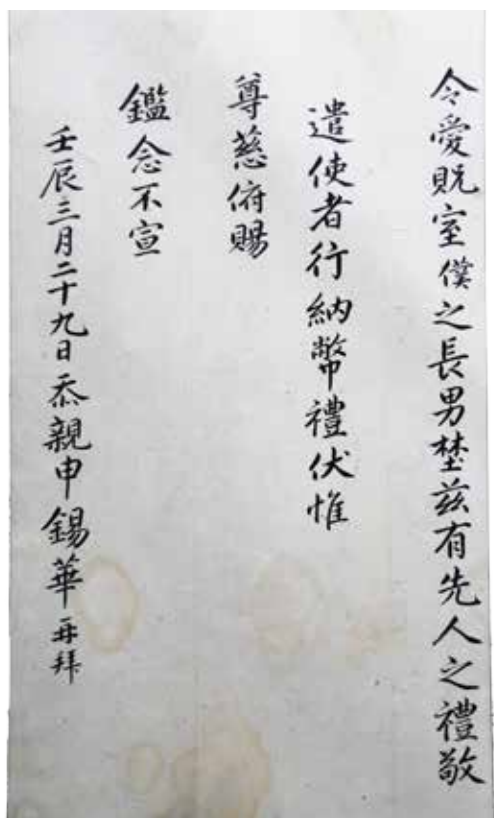
書

82 | 납폐지

納幣紙

61.5×33.0cm

신석화申錫華(1672~1714)의 장남 신야申埜(1697~1759)의 혼사와 관련하여 납폐를 보내는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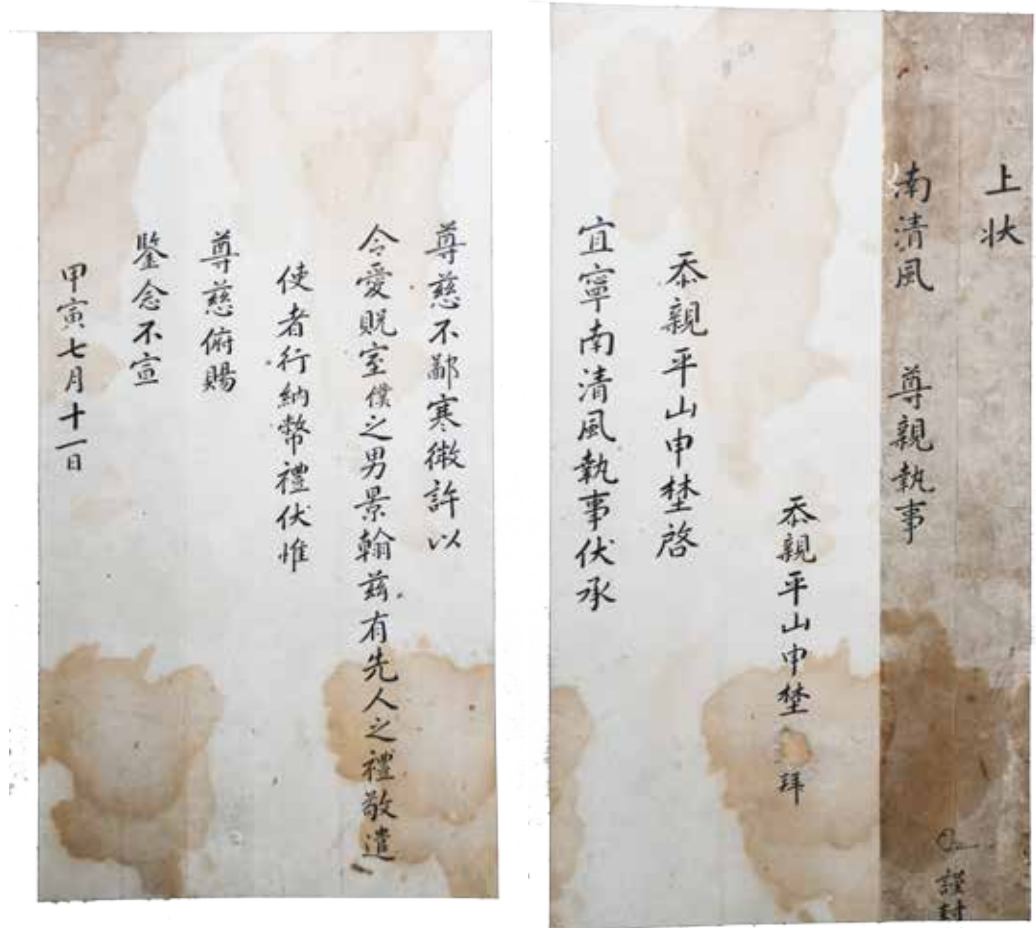


납폐지

納幣紙

61.5×33.0cm

신야申埜(1697~1759)의 아들 신경한申景翰의 혼사와 관련하여 납폐를 보내는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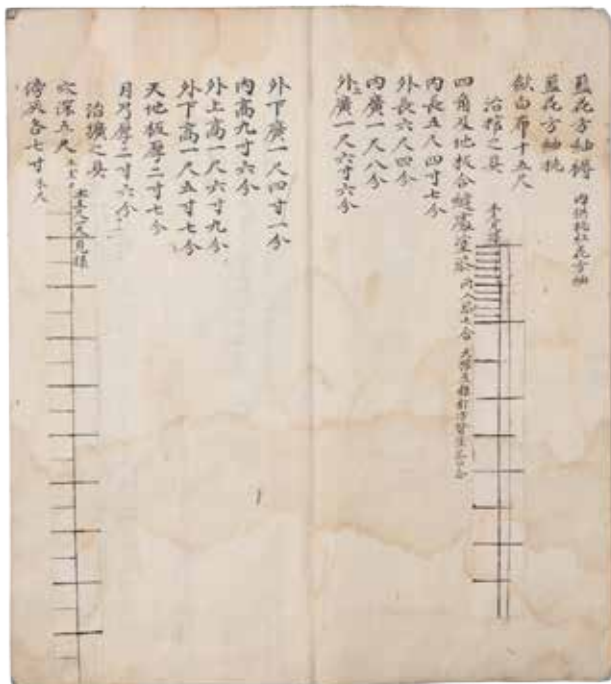


상장례

喪葬禮

27.8×14.0cm

상장례喪葬禮와 관련한 도구와 용품 등을 수록한 문서. 큰 소렴제구小斂諸具, 대렴제구大斂諸具, 치관지구治棺之具, 치광지구治壙之具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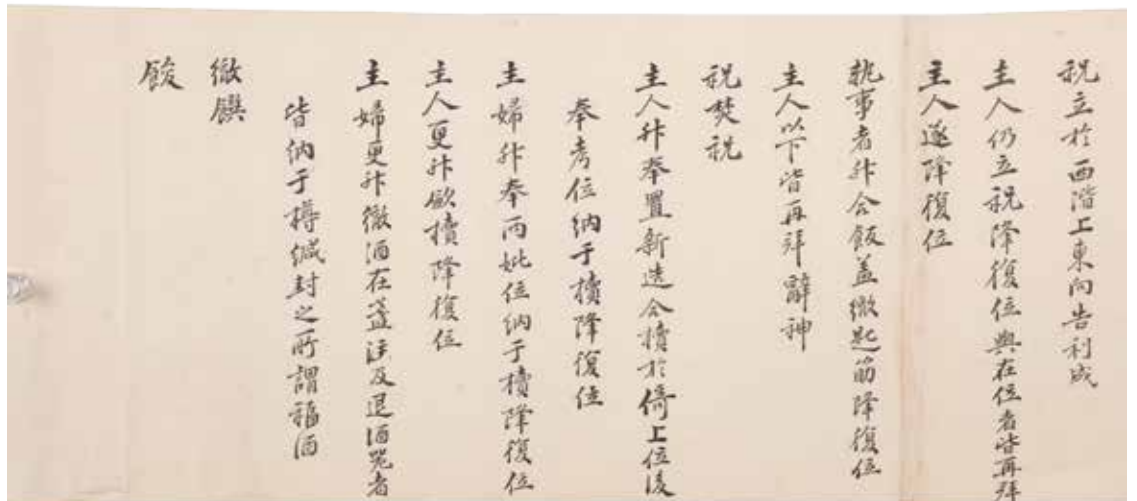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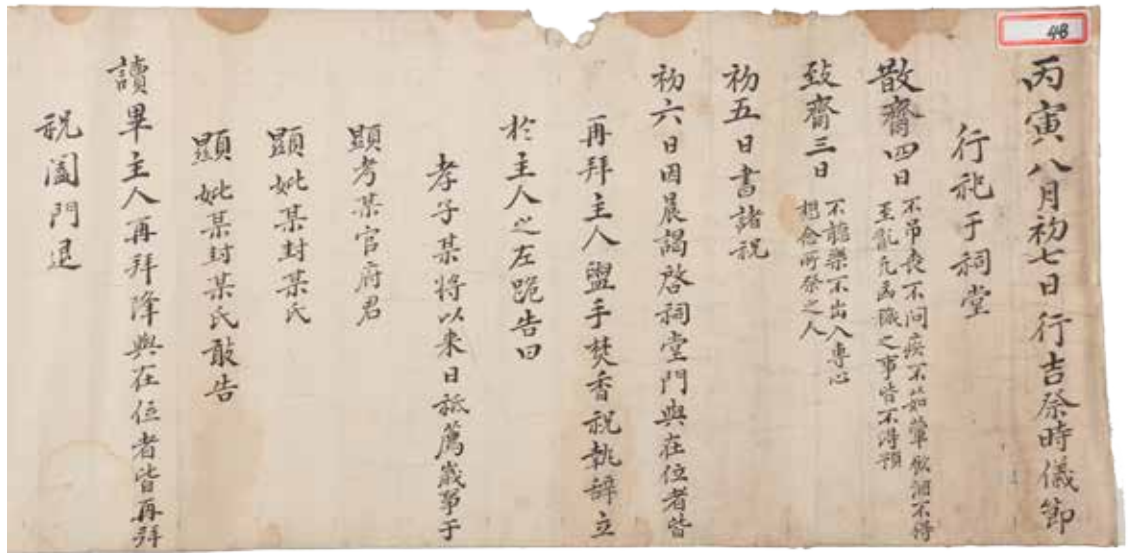


길제시의절

吉祭時儀節

18,0×460,0cm

병인년 8월 7일 사당에서 거행한 길제吉祭[3년의 상기喪期 후 상주가 일상으로 되돌아감을 알리는 제례인 담제禫祭를 지낸 다음 달에 행하는 상례의식]의 의식절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한 문서.



以清酌厚屬敬薦厥事以
先為某官府君甜食尚
贊
積單執版後位主人再拜
主人火箱 為位未前再行初獻
如前儀執事者進香飯
蓋
祝史非執版立於主人左主人上下
皆跪祝亦跪讀祝曰
維歲次辛巳十月丙寅朔初
六日丁卯子時某敬啟者子
願為某官府君天創有期建
違而及今為辰式道異禮
簡八十爾謹以清酌厚屬敬
薦厥事尚
祭
積單執版後位主人再拜降後位
執事者徹各位酒盃及香盤還
置堂蓋于故處
亞獻
主婦為之即衆婦女執
事禮如初獻進香飯拜
但不讀祝
終獻
親賓為之禮如亞獻進酒
奠次神灰
備食
主人留手升執版對各位
蓋實滿斟立於香案之
東南
主婦留手升洗爵志如
扱匙各位飯中西物正
於位立於香案之西南

扱匙各位飯中西物正
於位立於香案之西南
皆北向主人再拜主婦四
拜降後位
祝闈門主人叩東天立於門東
西向主婦即衆婦女立
於門西東向
會領祝三噫飲乃啓門
啓門主人主婦皆復位
主人主婦奉茶分進于為如前
儀義而進
執事者與子升扶檟
祝立於西階上東向告利成
執事者升合飯蓋徹各位後位
主人主婦諸執事皆辭神
祝焚祝
主人與子升奉 祖為位神主初于

主人主婦諸執事皆辭神
祝焚祝
主人與子升奉 祖為位神主初于
積降後位
主婦與子升奉 祖如各位神主以
次初于積降後位
主人更升奉 為位神主初于備仍
徹各位積祝承符祠堂
主人前導主婦于前受積
奉安神主
主婦更升微酒在案注及進酒罷
者皆初于持絨封之所稍
徹
徹
罪酒

主人主婦諸執事皆辭神
祝焚祝
主人與子升奉 祖為位神主初于
積降後位
主婦與子升奉 祖如各位神主以
次初于積降後位
主人更升奉 為位神主初于備仍
徹各位積祝承符祠堂
主人前導主婦于前受積
奉安神主
主婦更升微酒在案注及進酒罷
者皆初于持絨封之所稍
徹
徹
罪酒

辛巳十月初二日丁卯行合祭儀
節行祀于
正寢
散齋四日 不吊喪不問疾不茹葷飲酒不
得至亂凡凶穢之事皆不得預
致齋三日 不聽樂不出入專
心想念所祭之人
九月三十日乙丑書諸祝
十月初一日丙寅設一卓於香案之東
置淨水 唐粉 鹿角膠
刷子 木賊 硯 筆 墨
因朔參告遷于祠堂 卽改題告辭
降神參神主人斟酒再拜訖立於
香案之南祝執版立於主人之左
主人跪祝亦跪讀告辭曰
維歲次辛巳十月朔日丙寅孝

孫某敢昭告于
顯祖考某官府君
顯祖妣某封某氏
顯祖妣某封某氏茲以先考某
官府君喪期已盡禮當遷主
入廟

顯祖考某官府君
顯祖妣某封某氏神主今將改題
一世次迭遷不勝感愴敢因
朔參用伸虔告謹告

告畢主人再拜主人進奉所改題
祖考位神主臥置桌上執事者
洗去舊字別塗以粉俟乾命
善寫者盥手西向改題之陷中
不改

題畢主人奉主置故處次奉
兩祖妣位神主改題及還奉
皆如前禮

乃降復位與在位者皆再拜辭神
而退

陳器具饌

灑掃正寢

設 祖考妣位椅床於正寢少西
南向次設 考位椅床於正寢少
東南向設香案於兩椅床之間
當中束茅聚沙於香案前茅沙三器東階設一卓西階亦設一卓

沐浴

初二日丁卯鷄鳴而起主人盥櫛着
漆笠青袍黑帶帥諸執事
俱詣正寢

主婦華飾帥衆婦女紱立於階

下少西北向

主人以下盥手陳設分陳

兩位

果

脯

鹽

盤床

匙楪

空盞

設玄酒及酒樽酒注二酌酒盞於東

卓玄酒在酒樽之西酒注居兩樽之

間西柄酌酒盞在兩酒注之前

設退酒器於各位祭卓之左

設茅沙器於各位祭卓之下

設退炙盤於各位祭卓之右

主人以下詣祠堂紱立再拜

主人焚香跪告曰

孝孫某今以遞遷有事于

顯祖考某官府君

顯祖妣某封某氏

顯祖妣某封某氏以先考某官府君

祔食敢請

神主出就正寢恭伸奠獻

告訖俯伏興主人進奉 祖考妣位

主櫝授祝祝奉詣正寢主人前

導至西卓前祝跪奉置主櫝

于卓上俛伏興退主人次奉

考位授祝一如前儀

諸執事以次紱立於階下少東北向

主人盥手詣西卓下俛伏興啓櫝

奉出 祖考位以拭巾拭之

拭盡奉安椅上降復位

主婦盥手升詣西卓下以次奉兩 祖

妣位於椅上一如前儀降復位

主人更升啓 考位主櫝奉神

主安于椅上亦如前儀仍正

各位于椅上當中

執事升匣櫝整之

參神主人主婦帥諸執

事皆再拜

降神

主人盥手升詣香案前俯伏

興焚香再拜少退立執事者

一人開酒樽實酒于注執注

立於主人之右執事者一人取東

卓上盤盞立於主人之左

主人跪兩執事亦跪執盞者

進盞主人受之執注者斟注

于盞主人奉灌于茅束上以

盞授執事者兩執事皆退

主人俛伏興再拜降復位

進饌

先進魚肉

次麵餅

次飯羹

次湯

初獻

主人盥手升詣祖考妣位祭卓前立執

事者執注立于主人之右主人

奉 祖考位前盞來於當 位祭卓
前東向立執事者西向斟酒主
人奉奠于故處

主人次奉兩 祖妣位前盤盞亦如之
位前北向立

執事者以次各奉 祖考妣位
前盤盞立于主人之左右主
人跪兩執事亦跪主人以次
受之祭少傾于茅束上以盤盞還
授執事者反之故處主人俛伏
興少退立

執事者進肉炙乃啓飯盞

祝執版立於主人之左主人以下皆跪祝
跪讀祝曰

維歲次辛巳十月丙寅朔初

二日丁卯孝孫某敢昭告于

顯祖考某官府君

顯祖妣某封某氏

顯祖妣某封某氏某罪逆不

滅歲及免喪世次迭遷昭穆

繼序先王制禮不敢不至謹

以清酌庶羞祇薦歲事以

先考某官府君耐食尙

饗

讀畢祝降復位主人再拜降復位

執事者徹各位酒盞及炙盤還

置空盞于故處

亞獻

主婦爲之帥衆婦女執

事禮如初獻進魚炙拜

但不讀祝

終獻

親賓爲之禮如亞獻進鷄

炙或雉炙

侑食

主人盥手升執注斟各位

盞皆滿注則還置故處立於香案之

東南

主婦盥手升洗滌匙筋

扱匙各位飯中西柄正

筋立於香案之西南

皆北向主人再拜主婦四

拜降復位

祝闔門主人帥衆丈夫立於門東

西向主婦帥衆婦女立

於門西東向

食傾祝三噫歆乃啓門

啓門主人主婦皆復位

主人主婦奉茶分進于 考妣前

徹羹而退

執事者盥手升拭櫝

祝立於西階上東向告利成

執事者升合飯蓋徹匙筋降復位

主人主婦諸執事皆辭神

祝焚祝

主人盥手升奉 祖考位神主納于

櫝降復位

主婦盥手升奉 祖妣各位神主以

次納于櫝降復位

主人更升奉 考位神主納于櫝仍

斂各位櫝授祝奉詣祠堂

主人前導至椅子前受櫝

奉安椅上

主婦更升徹酒之在盞注及退酒器

者皆納于樽緘封之所謂

福酒

徹饌

餽

신사년 10월 2일 정묘에 합제승제를 행하는 의절儀節

- 제례는 정침正寢에서 행한다-

산재散齋 4일

- 조문하지 않고 문병하지 않으며 향이 강한 채소는 먹지 않고 술을 마셔도 취하는 데 이르지 않아야 한다. 무릇 흥하고 더러운 일에는 모두 참여할 수 없다.-

치재致齋 3일

- 음악을 듣지 않고 밖을 출입하지 않으며 온 마음을 다하여 제례 지낼 사람을 생각한다.-

9월 30일 을축에 축문祝文을 쓴다.

10월 1일 병인에 향안香案의 동쪽에 탁자 하나를 설치한다. 깨끗한 물[淨水], 흰색 분가루唐粉, 녹각교鹿角膠, 솔[刷子], 속새풀[木賊] 벼루[硯], 붓[筆], 먹[墨]을 둔다. 그리고 초하룻밤 아침에 사당祠堂에 고하고 신주神主를 옮긴다. -신주를 고쳐 쓸 때 고하는 말이다.-

강신降神·참신參神 주인이 술을 따라 올리고 두 번 절한 다음에 향탁香卓의 남쪽에 서면 축祝이 축판祝板을 잡고 주인의 왼쪽에 선다. 주인이 꿇어앉으면 축도 역시 꿇어앉아 고하는 말을 읽는다. “유세차維歲次 신사년 10월 초하룻날 병인에 효손孝孫 ○○가 감히 현조고顯祖考 ○○관부군官府君, 현조비顯祖妣 ○○로 봉해진 ○씨에게 고합니다. 이제 선고先考 ○○관부군의 상기喪期가 이미 끝나서 예법상 사

묘祠廟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므로 현고조 ○○관부군, 현조비 ○○에 봉해진 ○씨, 현조비 ○○에 봉해진 ○씨의 신주를 지금 장차 바꾸어 쓰고 하나의 세차世次가 번갈아 옮겨지니 슬픈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감히 초하룻날 사당에 참배하면서 경건하고 삼가 고합니다.”

고하는 말이 끝나면 주인이 두 번 절하고 주인이 나아가 고쳐 써야 할 조고위의 신주를 받들어 탁자 위에 놓는다. 집사자는 옛 글자를 씻어서 지우고 다시 분칠하여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글씨를 잘 쓰는 자에게 명하여 손을 씻고 서향으로 서서 고쳐 쓰게 한다. -함중陷中의 글자는 고치지 않는다. - 신주 쓰는 일을 마치면 주인이 신주를 받들어 예전에 있던 자리에 두기 위해 두 조비위의 신주를 받들고 신주를 고치는 것 및 다시 봉안하는 것은 모두 전의 예절과 같이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간 뒤 자리에 있는 사람과 함께 모두 두 번 절하고 그다음에 사신辭神하고 물러간다.

제기를 진설하고 음식을 준비함. 정침正寢을 청소함. 조고비위祖考妣位의 의자를 정침에서 약간 서남향쪽으로 설치한다. 그다음에 고위考位의 의자와 상을 정침에서 약간 동남향쪽으로 설치한다. 향안香案은 의자와 상의 사이에 설치한다. 향안의 앞 모사茅沙 세 그릇에는 띠풀을 묶고 모래를 모아둔다. 동쪽 계단에는 탁자 하나를 두고 서쪽 계단에도 탁자 하나를 설치한다.

목욕沐浴. 2일 정묘에 닭이 울면 일어나 주인은 세수하고 머리를 빗은 다음에 옷칠을 한 것, 푸른색의 도포, 검은색의 띠를 착용한다. 그리고 집사들을 이끌고 함께 정침으로 나아간다. 주부가 단장하고 부녀자들을 이끌고 계단 아래 약간 서북향쪽으로 늘어선다. 주인 이하가 손을 씻고 -양위兩位로 나누어 진설한다. - 과일[果], 포脯, 소금[鹽], 반상盤床, 놋대접[匙櫛], 빈 잔[空盞]을 진설한다. 현주玄酒 및 술단지[酒樽], 술주전자酒注 2개, 뇌주잔酌酒盞은 동쪽 탁자에 설치한다. -현주는 술단지의 서쪽에 있고 술주전자는 양쪽 술단지 사이에 두며 서쪽 자루의 뇌주잔은 양쪽 술주전자 앞에 둔다. - 퇴주기退酒器는 각 위 제탁祭卓의 왼쪽에 설치한다. 모사기茅沙器는 각 위 제탁의 아래에 설치한다. 퇴자반退炙盤은 각 위 제탁의 오른쪽에 설치한다.

주인 이하가 사당에 나아가 차례대로 서서 두 번 절한다. 주인이 향을 태우고 무릎 꿇고서 고하기를 “효손 ○○는 지금 현고조 ○○관부군, 현조비 ○○로 봉해진 ○씨, 현조비 ○○로 봉해진 ○씨를 체천遷하는 일이 있어 ○○관부군을 부식耐食하려 하므로 감히 신주를 정침으로 모셔낼 것을 청하오며 공손히 정성을 다하는 바입니다.”라고 한다. 고를 마치면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주인이 조고비위의 주독主櫃에 나아가 받들어 축祀에게 주면 축이 받들고 정침으로 나아간다. 주인은 앞에서 인도하고 서쪽 탁자 앞에 이르면 축祀이 무릎을 꿇고 탁자 위에 주독을 받들어 두며 엎드렸다가 일어나 물러난다. 주인이 다음 고위를 받들고 축祀에게 주면 그전의 의례를 똑같이 행한다. 집사들이 다음으로 계단 아래 약간 동북쪽으로 향해 서면 주인이 손을 씻고 서쪽 탁자의 아래로 나아가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독櫃을 열고 조고위를 꺼내어 받들고 식건拭巾으로 닦는다. 닦는 일을 마치면 의椅 위에 봉

안하고 내려와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주부가 손을 씻고 서쪽 탁자 아래로 올라간 다음에 두 조비위(祖妣位)를 의(椅) 위에 받들고 그전의 의(禮)와 똑같이 행한 다음 자리로 돌아간다. 주인이 다시 올라가 고위의 주(楮)를 열고 신(神)주를 의(椅) 위에 봉(奉)인하고 또한 그전의 의(禮)를 똑같이 행한다. 아울러 각 위(位)를 의(椅) 위의 중간에 바로 두면 집사가 올라가 갑(甲)독(匣)을 정리한다.

참(參)신(神). -주인과 주부가 집사들을 이끌고 모두 두 번 절한다.-

강(降)신(神). 주인이 손을 씻고 향(香)안(案) 앞으로 올라가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향(香)을 피운 뒤 두 번 절하고 조금 물러나 선다. 집사 한 사람이 술(酒)단(壇)자를 열어 술(酒)을 채우고 술(酒)을 든 사람이 주인의 오른쪽에 선다. 집사 한 사람이 동(東)쪽 탁자 위의 반(飯)잔(盞)을 가져와 주인의 왼쪽에 선다. 주인이 무릎 꿇으면 두 집사도 무릎 꿇는다. 잔(盞)을 잡은 자가 잔(盞)을 주면 주인이 받고 술(酒)을 든 사람이 잔(盞)에 술(酒)을 따른다. 주인이 띠(帶)풀을 묶은 것 위에 술(酒)을 붓고 잔(盞)을 집사에게 준다. 두 집사가 모두 물러가면 주인이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두 번 절한 뒤 내려와 자리로 돌아간다.

진(進)찬(饌). 먼저 어(魚)육(肉)을 내고 차(茶)례(禮)로 면(麵)병(餅), 반(飯)갱(羹), 탕(湯)을 낸다.

초(初)헌(獻). 주인이 손을 씻고 조(祖)고(高)비(比)위의 제(祭)탁(卓)으로 올라가 선다. 집사가 잔(盞)을 잡고 주인의 오른쪽에 선다. 주인이 조(祖)고(高)위(位) 앞에 잔(盞)을 올리고 해당 위(位)의 제(祭)탁(卓) 앞으로 가서 동(東)쪽을 향해 선다. 집사가 서(西)쪽을 향해 술(酒)을 따르면 주인이 이를 제(祭)자(座)리에 올린다. 주인이 다음으로 두 조(祖)고(高)위(位) 앞에 반(飯)잔(盞)을 올리고 또한 위(位) 앞에서 북(北)쪽을 향해 선다. 집사가 다음으로 조(祖)고(高)비(比)위(位) 앞에 반(飯)잔(盞)을 올리고 주인의 좌(左)우(右)에 선다. 주인이 무릎 꿇어앉으면 두 집사도 역시 무릎을 꿇는다. 주인이 그다음에 제(祭)사를 지내고 -잠간 시간을 둔다.- 띠(帶)풀을 묶은 것에 반(飯)잔(盞)을 올렸다가 다시 집사에게 제(祭)자(座)리로 돌아간다. 주인이 엎드렸다가 일어난 뒤 조금 물러나 선다.

집사가 육(肉)적(炙)을 올리고 곧바로 밥(飯)뚜껑(蓋)을 연다. 축(祝)이 판(版)을 잡고 주인의 왼쪽에 서면 주인 이하가 모두 무릎 꿇는다. 축(祝)이 무릎 꿇고 축(祝)문을 읽기를, “유(有)세(世)차(茶) 신(新)사(歲)년(年) 10월(月) 병(丙)인(寅) 삭(朔) 2일(日)에 호(好)손(孫) ○○가 현(顯)조(祖)고(高) ○○관(官)부(府)군(君), 현(顯)조(祖)비(比) ○○로(로) 봉(奉)해(海)진(進) ○씨(씨), 현(顯)조(祖)비(比) ○○로(로) 봉(奉)해(海)진(進) ○씨(씨)께 감(感)히 분(分)명(明)히 아(哀)웁(辱)니다. 죄(罪)인(人)의 몸(身)으로 죽(死)지 못하고 세(世)월(月)이 흘러 상(喪)을 끝(末)낼 때가 되었(到)습(失)니다. 세(世)차(茶)가 번(變)갈(來)아 옮겨(去)지고 소(素)목(木)昭(昭)穆(穆)이 차(茶)례(禮)를 이(以)으니 선(先)왕(王)께(서) 제(祭)정(定)한 의(禮)에 감(感)히 맞(對)추(追)지 않(不)을 수 없(不)습(失)니다. 삼(三)가 청(淸)작(酌). 맑(淸)은 술(酒)과 서(西)수(庶)羞(羞): 음식(食)로 공(恭)경(敬)히 세(世)사(歲)事(事)를 올(上)리니 선(先)고(高) ○○관(官)부(府)군(君)에게 부(不)식(食)耐(耐)하(하)여 흠(愆)향(向)하(하)소서.”라 하였다. 축(祝)문 읽기를 마치면 축(祝)이 내려와 자리로 돌아가고 주인도 두 번 절한 뒤 내려와 자리로 돌아간다. 집사가 각 위(位)의 술(酒)잔(盞) 및 적(炙)반(飯)盞을 치(撤)우고 다시 빈 잔(盞)을 제(祭)자(座)리에 둔다.

아(亞)헌(獻). 주부가 부(婦)녀(女)자(子)들(들)을 이끌고 집사가 의(禮)를 초(初)헌(獻) 때(時)와 같(同)이 한다. 어(魚)적(炙)을 올리나 축(祝)문을 읽지 않는다.

종(終)헌(獻). 친(親)빈(賓)이 의(禮)를 아(亞)헌(獻)과 같(同)이 한다. 계(鷄)적(炙) 혹은 치(雉)적(炙)을 올린다.

유식脩食. 주인이 손을 씻고 올라가 주전자를 잡고 각 위의 술잔마다 가득 따른다. 술을 따르고 다시 제 자리에 둔다. 향안香案의 동남쪽으로 선다. 주부가 손을 씻고 올라가 손가락과 젓가락을 세척하고 각 위의 밥 가운데 손가락을 꿰뚫어 자루를 서쪽으로 하며 젓가락을 바르게 하고 향안의 서남쪽에 선다. 모두 북쪽을 향하여 두 번 절하고 주부는 네 번 절하고 내려와 자리로 돌아간다. 축적이 문을 닫고 주인이 장부들을 이끌고 문의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선다. 주부가 부녀자들을 이끌고 문의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선다.

얼마 후 축적이 세 번 소리를 내면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리면 주인과 주부가 모두 자리로 돌아간다. 주인과 주부가 차를 나누어 올리고 고비 앞에 올린 다음 국羹을 치우고 물러난다. 집사가 손을 씻고 올라가 독櫃를 닦고 축적은 서쪽 계단 위에 동쪽 방향으로 서서 이성利成을¹⁾ 고한다. 집사가 올라가 밥뚜껑을 덮고 손가락과 젓가락을 거둔 뒤 물러가 자리로 돌아간다.

주인과 주부, 집사들이 모두 신을 보내고 축문을 태운다. 축적과 주인이 손을 씻고 올라가 조고위를 받들고 신주를 독櫃에 들여 넣은 뒤 내려와 자리로 돌아간다. 주부가 손을 씻고 올라가 조비를 받들고 각 위位的 신주를 차례로 독櫃에 들여 넣은 뒤 내려와 자리로 돌아간다. 주인이 다시 올라가 고위를 받들고 신주를 독櫃에 들여 넣은 뒤 축적에게 주면 받들고 축적이 사당祠堂으로 나아간다. 주인이 앞에서 이끌어 의자 앞에 이르면 독櫃를 받아 의자 위에 봉안한다. 주부가 다시 올라가 술잔 및 퇴주기에 있는 술을 거두어 모두 주전자에 붓고 봉하는 데 이를 이른 바 복주福酒라 한다. 철찬徹饌, 준餼.

1) 이성利成: 신위에 음식을 올리는 일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87 묘소제향홀기

墓所祭享笏記

31.0×9.0cm

제례 의식에서 그 진행 순서를 적어 낭독하게 하는 의례문서.



88 묘소제향의식

墓所祭享儀式

39.8×14.0cm

묘소 제향과 관련한 제향 길일과 제관, 의식 순서, 제기祭器 등에 대해 기록한 문서.



1837년(헌종 3)에 신상현申常顯(1777~1864)의 죽은 아내
숙인민씨淑人閔氏의 기일에 지은 제문.

維歲次丁酉五月丁丑朔七日癸未東陽申常顯以
 亡室淑人閔氏祥期只隔數日行將撒 靈運而附
 主于 廟矣徊徨悵靡不忍無一言以告訣茲設清酌庶羞之
 奠循之以文曰自 君之逝星已一周矣以五十年不曾一日離也
 而忽焉長往聲沈影滅茫然千古是曷故焉 君之事 吾親既
 無憾於養生喪事而猶復念 親側無人急於往從使吾獨練衣
 裳而不之恤子女之啼呼靡依亦未暇於顧戀耶人無有生而不死
 者則死之有先後亦理也後死之悲惟苦其日無幾歸而同穴至于天
 傾地顛而無窮期矣其長短較然明甚矣則擬其長而畧其短差
 可少安雖無壯生之道觀宜必吞聲吸泣長為窮苦可憐之色
 於無幾之餘日乎然其自顧踴涼欲忘而未忘自有不期然而然者
 昔梅聖俞悼其謝氏有歸來仍寂寞欲語向誰何之句此千古
 斷人腸之語也每見此詩睨而不視不忍念其情界白首垂死忽復
 遭此嗚呼痛哉不如死之久矣喪禮雖具三年之體下室之饋至暮
 而止 遂几垂撤音容永闕已矣此生獨存何為畧縱短語陳此苦衷
 今日以後此亦無所施矣
 靈如有知其必憐余情而歆余酌也嗚呼哀哉尚

維歲次丁酉五月丁丑朔七日癸未東陽申常顯以
 亡室淑人閔氏祥期只隔數日行將撤 靈筵而祔
 主于 廟矣徊徨愴廓不忍無一言以告訣茲設清酌庶羞之
 奠侑之以文曰自 君之逝星已一周矣以五十年不曾一日離也
 而忽焉長往聲沈影滅茫然千古是曷故焉 君之事 吾親既
 無憾於養生喪事而猶復念 親側無人急於往從使吾獨練衰
 裳而不之恤子女之號呼靡依亦未暇於顧戀耶人無有生而不死
 者則死之有先後亦理也後死之悲雖苦其日無幾歸而同穴至于天
 傾地頽而無窮期矣其長短較然明甚矣則擬其長而略其短差
 可少安雖無莊生之達觀豈必吞聲啜泣長爲窮苦可憐之色
 於無幾之餘日乎然其自顧踽涼欲忘而未忘自有不期然而然者
 昔梅聖俞悼其謝氏有歸來仍寂寞欲語向誰何之句此千古
 斷人腸之語也每見此詩睨而不視不忍念其情界白首垂死忽復
 遭此嗚呼痛哉不如死之久矣喪禮雖具三年之體下室之饋至期
 而止 筵几垂撤音容永闕已矣此生獨存何爲略綴短語陳此苦衷
 今日以後此亦無所施矣
 靈如有知其必憐余情而歆余酌也嗚呼哀哉尙
 饗

유세차維歲次 정유년1837 5월 정축삭 7일 계미, 동양(東陽 신상현(申常顯은 부인 숙인 민씨의 상기(祥
 期가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기에 장차 영연靈筵을²⁾ 철거하고 묘廟에 부주祔主하게³⁾ 되었습니다. 마음
 갈 곳 없고 매우 슬프지만 차마 한마디 말도 없이 작별을 고할 수 없어, 이에 삼가 술과 제수祭需를 갖추
 고 제문을 지어 흠향하길 권합니다.

그대가 세상을 떠나고 세월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50년간 하루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멀리 가버려 소리도 그림자도 사라져 영원토록 아득히 멀어졌으니 이것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그대
 가 나의 아버이를 섬김에 이미 살아서 봉양하고 죽어서 장송하는 일을 유감이 없게 했거늘, 오히려 어
 버이 곁에 모실 사람이 없음을 생각해 급히 따라갔으니, 나로 하여금 홀로 상복을 입게 하는 것이 불쌍
 하지 않은 것이며, 자녀가 의지할 곳이 없음을 슬퍼하는 것 역시 가련히 여길 틈도 없었던 것입니까?

2) 영연靈筵 : 신주神主나 혼백魂帛을 모셔 놓는 자리로, 궤연几筵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3) 부주祔主 : 부제祭를 지내고 조상의 신주 곁에 새 신주를 모시는 것을 말한다.

태어나서 죽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으즉, 죽음에 선후가 있는 것 역시 이치입니다. 남은 사람의 슬픔이 비록 괴로우나 그날은 얼마 되지 않으니, 죽어 함께 묻히면 세상 끝나는 날에 이르기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그 길고 짧은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으니, 함께 할 긴긴날을 헤아리고 세상에 있을 짧은 날을 대략 보낸다면 그런대로 조금 편해지기는 할 것입니다. 비록 장자莊子의 달관達觀은 없으나 어찌 울음을 머금고 오래도록 괴로워하며 얼마 남지 않은 날에 가련한 안색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돌아보건대 외롭고 쓸쓸하여 잊으려 하나 잊히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있는 법입니다. 옛날 매성유梅聖俞가 그 부인 사씨謝氏를 애도하며 ‘돌아와 보니 적막할 뿐,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 가’라는 구절을 지었는데, 이는 애끓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기에 가장 알맞은 말입니다. 이 시를 볼 적마다 결눈질하고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한 것은 차마 그 정경을 떠올릴 수 없었기 때문인데, 다 죽어가는 백발의 신세에 갑자기 이러한 일을 만나니 아, 애통합니다. 죽는 것만 못한 신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 상례喪禮는 비록 삼년상의 체제를 갖추었으나 궤연에 올리는 상식上食은⁴⁾ 기년葬年에 이르러 그치고 궤연을 거두게 되었으니, 음성과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홀로 남아 무엇하겠습니까. 간략히 짧은 글을 지어 이 애통한 마음을 적었는데, 오늘 이후로는 이 역시 털어놓을 곳이 없을 듯합니다. 영령이여 지각이 있거든 꼭 이내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올리는 잔을 흠향하십시오. 오호! 슬프도다. 흠향하소서.

4) 상식上食: 상가에서 조석으로 궤연 앞에 차려놓는 음식을 말한다.

祭文

31.2×31.0cm

조선후기 예조판서, 한성판윤, 강화부유수 등을 역임한 분애汾厓 신정申鼎(1628~1687)의 죽음에 대해 민우수閔遇洙(1694~1756)가 지은 제문.

維茲利川之東水井里負土之原即故禮曹判書汾厓
 屋中云衣履之歲又其稍東而負土者即汾厓之
 子加平郡守諱○○之墓蓋其岡麓演迤松檜掩
 映為中氏世墓之地也汾厓公諱○○有丈夫子而
 公居第六幼而端序已見溫雅精詳汾厓公暨全
 識素明愛而期之心為必當貴者公公既長而念
 緒父兄多蚤世家聲稍不振意在立揚自力為
 程文未嘗頃刻休息屢發解終不得志於有司由
 蔭路水庫別檢長興庫吏溥司憲存監察戶
 曹佐郎士為順安縣令五載棄歸翼年以綱
 衛司綱贊除加平郡守在郡一年卒實甲午

汾厓公諱○○之墓蓋其岡麓演迤松檜掩映為中氏世墓之地也汾厓公暨全識素明愛而期之心為必當貴者公公既長而念緒父兄多蚤世家聲稍不振意在立揚自力為程文未嘗頃刻休息屢發解終不得志於有司由蔭路水庫別檢長興庫吏溥司憲存監察戶曹佐郎士為順安縣令五載棄歸翼年以綱衛司綱贊除加平郡守在郡一年卒實甲午

92 제문

祭文

32.4×13.1cm

신석화申錫華(1672~1714)가 1714년(숙종 40) 3월 16일 장절공의 묘소에 제사하며 지은 제문.

饗
 維歲次甲午三月壬寅朔十六日丁巳二十二代孫道訓大夫行加平郡守錫華敬
 昭告于
 始祖高麗太師壯節公之墓公之墓惟我 鼻祖統合神功殉身大節環東一域寔賴
 威烈名流萬古澤及後屬雲仍蕃昌簪紱輝赫顧予小子忝守嘉陵幸近春
 州時維暮春來省 松楸碩瞻興感仰承 遺休聊摠微誠莫此庶羞尚

皇上今遇洙記其陰遇洙幼被公撫愛又嘗悅
 以行誼之美略述其際如此云 崇禎後百有九
 年壬申四月 日 通政大夫前工曹參議
 遇洙述並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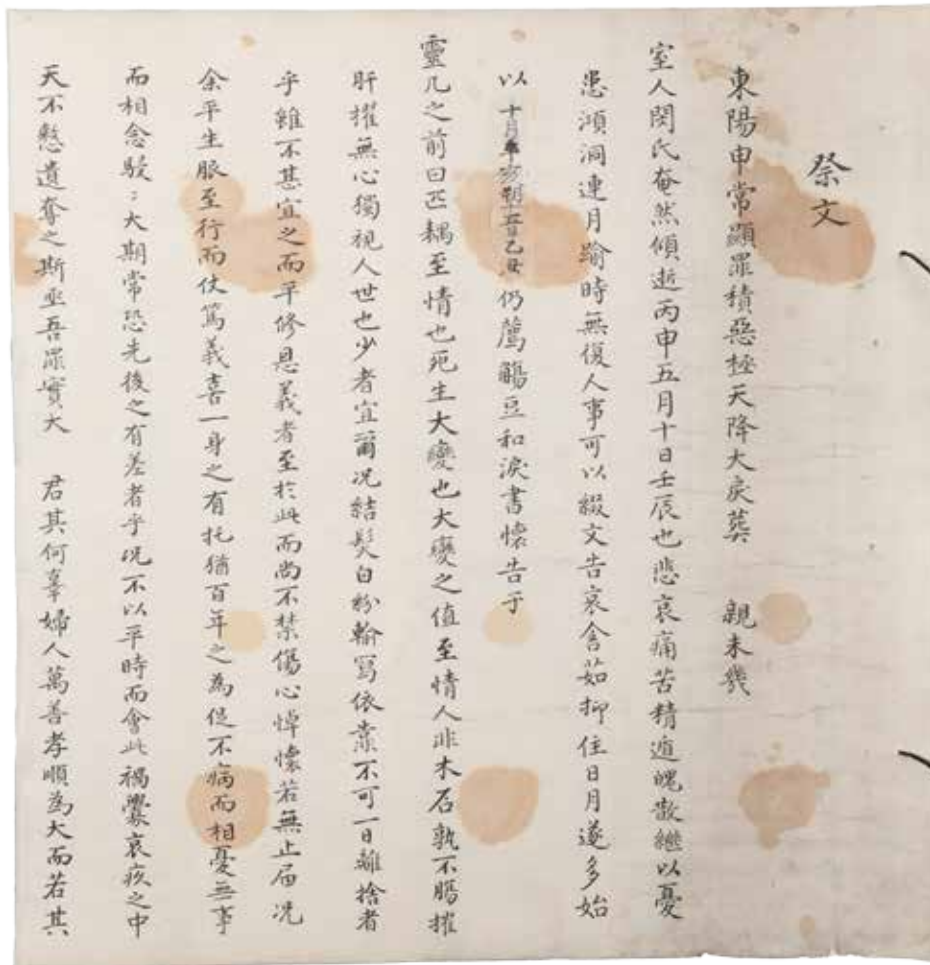
祭文

30.5×35.3cm

정사년丁巳年 윤9월 15일 신야(1697~1759)가 외조부 문정공文貞公에 대해 지은 제문.

維歲久丁巳閏九月丙辰朔十五日庚午外孫通
 訓大夫行任實縣監申埜敬昭告于
 顯外祖考輔國崇祿大夫領敦寧府事兼知
 經筵事五衛都摠府都摠管驪陽府院君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
 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觀象監事
 世子師謚文貞公府君
 顯外祖妣 贈海豐府夫人李氏
 顯外祖妣 贈恩城府夫人宋氏埜隈蒙
 國恩出宰湖邑 餘麻所及不勝感慕未掃
 封塋薦以酒果謹告

신상현申常顯(1777~1864)이 부인 여흥민씨의 죽음에 대해 지은 제문.



96 제문

祭文

23.6×38.3cm

임헌형(任憲珩)이 1900(광무 4)년 1월 22일 계전(桂田) 신응조(申應朝)(1804~1899)의 죽음에 대해 지은 제문.

祭文

歲次庚子正月甲辰朔二十日乙丑侍教生任憲珩
 略具酒果之奠哭于

近故桂田先生申公 靈凡之前文以告之曰嗚呼
 先生闡才博學清德高風蔚然爲一代師表望
 重山斗信如蒼龜矣小子竊欲得聞其緒餘安
 引素絲朱藍之喻擬古書贊然資非素絲何敢
 望附近朱藍乎幸蒙引接朝夕趨侍文辭疑難必
 請曾問日用動靜嘗而觀記小子之素所仰望而尊
 信者獨先生而已先生之春秋雖已老耄氣象端
 巖神思精明如水壺瑩澈松筠特秀人皆灑然起
 敬邈焉難攀也胡敬齋有言曰古人老而德逾進
 者是持守得定不與血氣同衰惟先生學問之

輓詞

31.7×29.8cm

신백천申白川이 지은 만사輓詞.

挽申白川 贈

兩家先誼世言倫
况我君晚更親
俗競奔馳能守靜
人爭虛偽獨全真

何論一宦曾綬綬
自有諸孤摠席珍
托契百年今已矣
屋樑殘月倍傷神

又

通來衰病倦如尋
人事少了自有今
誰道善仁能得壽
吾知天理漢難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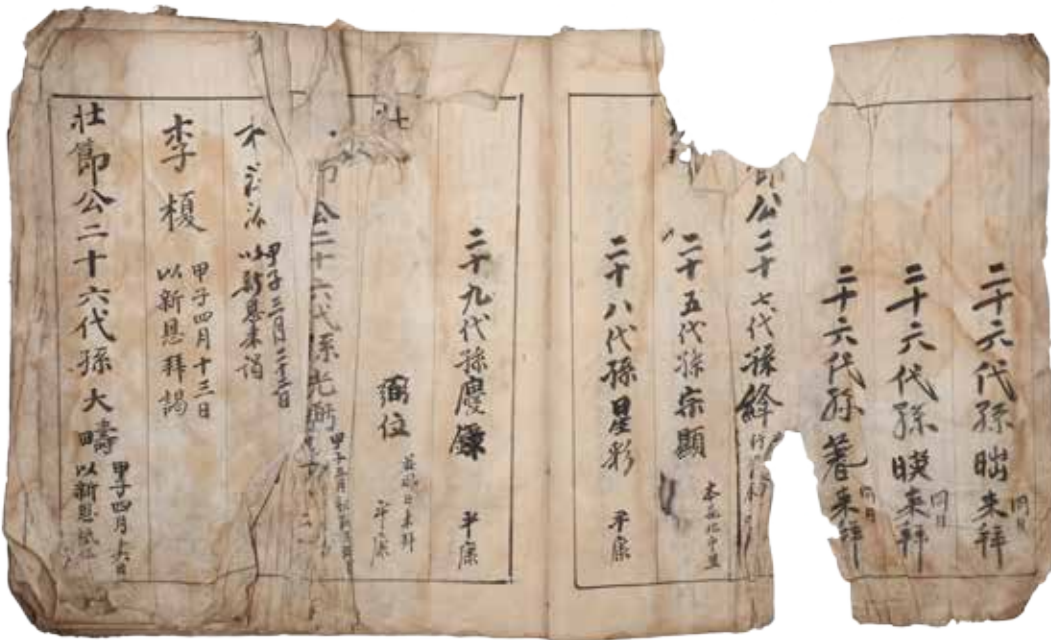
交情晚托察情厚
宗誼還至世誼深
少我三年先我逝
哭君此日淚霑襟

丙子八月二日濟

墓謁錄

34.2×30.5cm

장절공사당을 배알한 인물에 대해 기록한 문서.
배알한 중요한 인물에 대한 기본 정보 서술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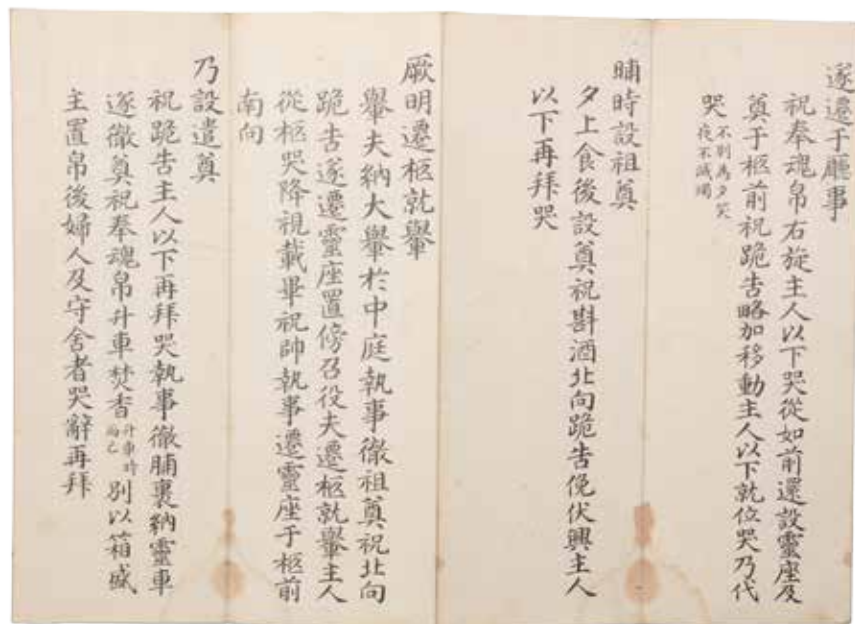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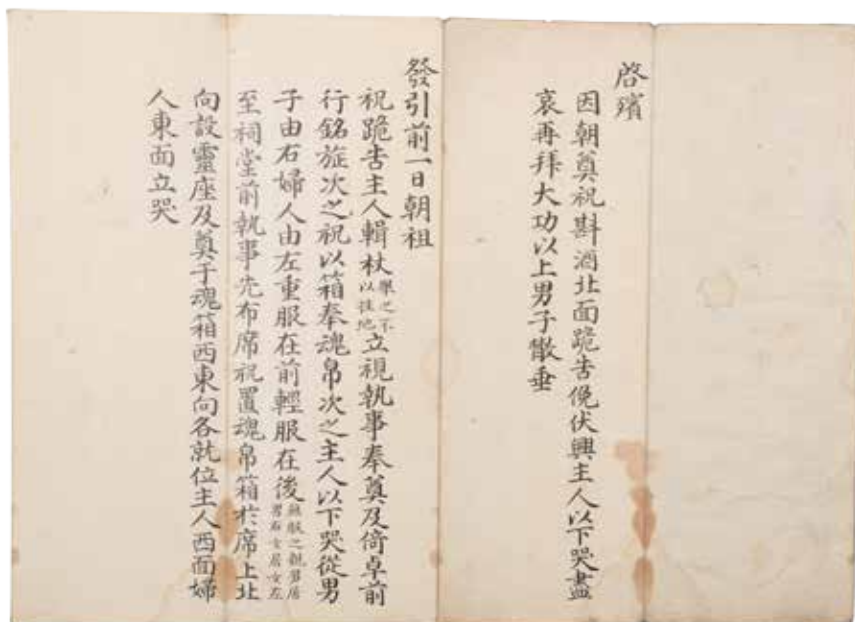


99 | 자계지부의절

自啓至耐儀節

26.0×9.2cm

묘소를 합사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한 절목.



100 | 기일

忌日

19.8×7.8cm

평산신씨 문중 선대의 기일과 생신을 월별로 기록하고 평산신씨 세계에 대해 한글로 기록한 문서.



國忌

26.8×43.4cm

국기國忌[임금이나 왕후의 기일]에 대한 내용을 1월부터 12월까지 정리한 문서.

國忌

正月
 仁順王后沈氏 初三日 康陵 楊州
 貞純王后金氏 十三日 元陵 楊州
 仁獻王后具氏 十四日 章陵 全浦

二月
 宣祖顯敬大王 初一日 穆陵 楊州
 煬德王后沈氏 初七日 忠陵 楊州
 貞聖王后徐氏 十五日 少陵 高陽
 世宗顯睿大王 十七日 英陵 繼州
 仁宣王后欽氏 二十三日 寧陵 繼州

三月
 章敬王后尹氏 初二日 穆陵 高陽
 英宗顯孝大王 初五日 元陵 楊州
 孝懿王后金氏 初九日 健陵 水原
 昭憲王后沈氏 二十日 英陵 繼州
 仁元王后金氏 二十六日 明陵 高陽
 貞貞王后尹氏 三十日 光陵 楊州

四月
 文定王后尹氏 初七日 泰陵 楊州

五月
 孝宗顯仁大王 初四日 寧陵 繼州
 仁祖純孝大王 初八日 忠陵 慶州
 太宗懿定大王 初十日 徽陵 慶州
 文宗恭順大王 十四日 顯陵 楊州
 莊獻恭王 二十日 顯慶園 水原
 太祖康獻大王 二十四日 健元陵 楊州
 高宗孝昭大王 初七日 穆陵 楊州

六月
 宣宗顯正王后金氏 初四日 忠陵 楊州
 憲宗 大王 初六日 景陵 楊州
 肅宗純孝大王 初八日 明陵 高陽
 世宗定安王后金氏 二十三日 厚陵 堂邑
 仁元王后徐氏 二十七日 穆陵 楊州
 明宗恭憲大王 二十日 康陵
 仁穆王后金氏 二十日 穆陵
 高宗純孝大王 二十日 健陵
 宣宗顯正王后金氏 二十九日 穆陵 楊州

國忌

七月
 仁宗睿贊大王 初一日 孝陵 高陽
 元敬王后閔氏 初十日 徽陵 楊州
 顯宗德正王后崔氏 二十三日 顯陵 楊州

八月
 神德王后康氏 二十日 貞陵 楊州
 仁顯王后閔氏 二十日 明陵
 肅宗純孝大王 二十日 康陵 楊州
 貞顯王后尹氏 二十三日 宣陵 廣州
 景宗宣考大王 二十日 忠陵
 孝顯王后金氏 二十日 景陵
 莊敬王后趙氏 二十日 徽陵 楊州

九月
 德宗懷簡大王 初一日 敬陵
 世祖惠莊大王 初八日 光陵
 神德王后閔氏 二十日 齊陵 堂邑
 宣宗恭贊大王 二十日 厚陵

十月
 宣宗恭贊大王 二十日 莊陵 堂邑
 仁敬王后金氏 二十日 景陵 高陽

國忌

十一月
 懿宗睿考大王 二十日 仁陵 文河
 孝純王后趙氏 二十日 水陵 慶州
 中宗恭傳大王 二十日 穆陵 慶州
 敬順洪氏 二十日 顯慶園
 真宗孝章大王 二十日 水陵
 睿宗英神大王 二十日 景陵 高陽
 仁宣王后徐氏 二十日 孝陵

十二月
 章顯王后鄭氏 初十日 恭陵 慶州
 明宗王后金氏 初十日 景陵
 顯宗王后康氏 初十日 穆陵
 仁烈王后鄭氏 初十日 長陵
 安順王后鄭氏 二十日 景陵
 成宗康靖大王 二十日 宣陵
 顯宗朴氏 二十日 顯慶園 楊州

國忌

七月
 仁宗睿贊大王 初一日 孝陵 高陽
 元敬王后閔氏 初十日 徽陵 楊州
 顯宗德正王后崔氏 二十三日 顯陵 楊州

八月
 神德王后康氏 二十日 貞陵 楊州
 仁顯王后閔氏 二十日 明陵
 肅宗純孝大王 二十日 康陵 楊州
 貞顯王后尹氏 二十三日 宣陵 廣州
 景宗宣考大王 二十日 忠陵
 孝顯王后金氏 二十日 景陵
 莊敬王后趙氏 二十日 徽陵 楊州

九月
 德宗懷簡大王 初一日 敬陵
 世祖惠莊大王 初八日 光陵
 神德王后閔氏 二十日 齊陵 堂邑
 宣宗恭贊大王 二十日 厚陵

十月
 宣宗恭贊大王 二十日 莊陵 堂邑
 仁敬王后金氏 二十日 景陵 高陽

本派

申欽

字敬叔

子翊聖

字揚烈

子冕

字宗華

子轍

字致遠

子倜

字師顯

子高顯

字應顯

子光顯

字洗女

字連顯

字李亮性

部事公長子官
至領說此益又
宣親王王牙四女

配全我李氏
父文衡度夜贈
領說政清良
祖即度使贈
兵曹參判文誠
曾祖楊州牧使
公達外祖官務
印木川高職南
外曾祖領說政

生社文科判後
學參判學早
尹隨女
一子宗華
二子拱華
女成益重

依新慶正贈領
政政高天中
與文科吳川君應
後世清風
女王輔怡

生貞慶李生
晚女
子致遠
一子倜
二子懌
一女子昂三
二女韓泰伯

文社殿伯母孫
監意文孫女

字洪唇人女

字應顯
字洗女
字連顯
字李亮性

一子翊聖
二子翊全
一女子李旭

一女子冕
二子宗華
一子轍
二子致遠
一子倜
一子高顯
一子應顯
一子光顯
一子洗女
一子連顯
一子李亮性

一女子李旭

一女子李旭

一女子李旭

一女子李旭

一女子李旭

一女子李旭

一女子李旭

一女子李旭

一女子李旭

一女子李旭

一女子李旭

一女子李旭

一女子李旭

一女子李旭

평산신씨의
고서

1. 장절공의 가계를 이어가다

평산신씨의 가계 계승관 관련된 자료는 『족보』와 『가승』, 『중계안』, 『동양세가년표東陽世家年表』, 『동양세보東陽世譜』, 『영풍세전永豐世傳』 등이 있다. 평산신씨의 고서 가운데 족보류의 문서는 39건으로 문집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면 신승겸申崇謙(?~927)부터 시작하여 대대로 이어지는 평산신씨의 연표로 세가사요世家事要和 국사개요國事概要, 세계개황世界概況을 담고 있는 『동양세가년표東陽世家年表』가 있고, 각 파조의 세덕世德을 기록한 『영풍세전永豐世傳』이 있다. 그리고 시조 신승겸申崇謙부터 20세 신익전申翊全까지의世系와 약전을 모아 정리한 『가승家乘』을 비롯하여 24세 신경한申景翰과 부인 의령남씨, 그리고 25세 신의申憶와 의령남씨의 가승, 26세 신상현申常顯(1777~1864)과 그의 부인 여흥 민씨의 가승, 27세 신응조申應朝(1804~1899)와 과평 윤씨, 28세 신기선申幾善과 반남 박씨의 가승, 29세 신일영申一永(1845~1898)의 가승 등 평산신씨 정언공파의 24세부터 29세까지의 가승이 전하고 『평산신씨강진파가승平山申氏康津派家乘』이 있다.

또 평산신씨 계보의 합보合譜인 『평산신씨계보平山申氏系譜』가 있고, 『평산신씨계보기유합보平山申氏系譜己酉合譜』, 평산신씨의 가계를 간략하게 정리한 『평산신씨보략平山申氏譜略』, 평산신씨의 소보小譜인 『동양세보東陽世譜』가 있다. 다음 파보로는 정언공파正言公派 계보인 『평산신씨보平山申氏譜』, 사간공파의 세보인 『평산신씨사간공파세보平山申氏思簡公派世譜』, 문희공파文僖公派 자손록子孫錄인 『평산신씨문희공파계보갑편平山申氏文僖公派系譜甲編』과 평산신씨 본파本派의 족보로 신흙申欽부터 오세를 기록한 『오세보五世譜』가 있다.

그 외에 평산신씨대종중계平山申氏大宗中禊 서문과 계원열록契員列錄으로 구성된 『평산신씨중계안平山申氏宗契案』이 있다. 중계안은 1923년 평산신씨를 중심으로 결성된 중계의 설립 및 운영 등의 제반 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1923년부터 1948년까지 25년간 장절공 신승겸 묘소를 구심으로 하여 전국 각지의 평산신씨가 모여 동족간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평산신씨의 동족 활동을 고찰에 의미있는 자료이다.

102 | 동양세가년표

東陽世家年表

1962년 | 28.3×19.0cm | 신연활자본

신승겸부터 시작하여 대대로 이어지는 평산신씨의 연표. 로 세가사요世家事要和 국사개요國事概要, 세계개황世界概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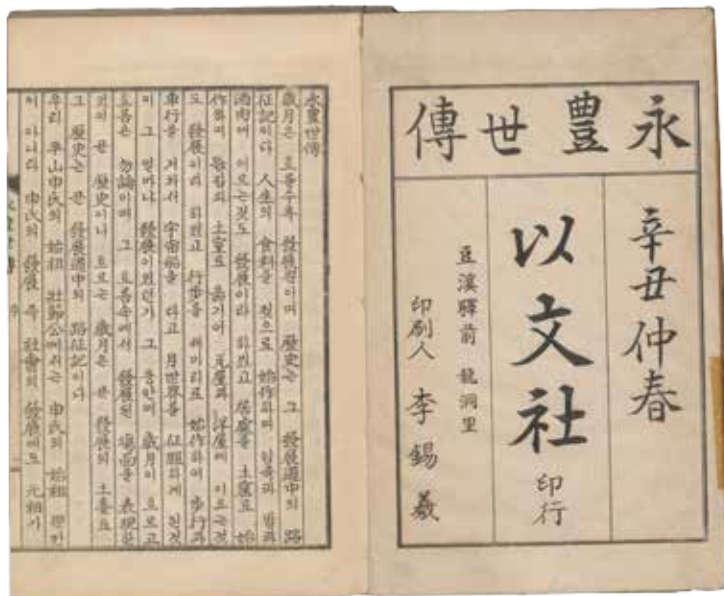


영풍세전

永豊世傳

1961년 | 25.5×17.2cm | 석인본

평산신씨의 시조 장절공 신승겸申崇謙(?~927)부터 각 파조派祖의 세덕世德[여러 대에 걸쳐 쌓아 온 아름다운 덕]을 기록한 자료.



家乘

27.7×16.0cm | 필사본

평산신씨의 시조 신승겸申崇謙(?~927)부터 20세 신익전申翊全까지의 세계世系와 약전을 모아 정리한 가승기략家乘紀略.



105 | 가승

家乘

29.7×19.0cm | 필사본

신응조申應朝(1804~1899)가 지은 평산신씨 24세 신경한申景翰과 부인 의령남씨의 약전과 행장, 묘지 및 25세 신의申愷와 의령남씨의 약전, 행장, 묘표, 유사를 기록한 가승기략家乘紀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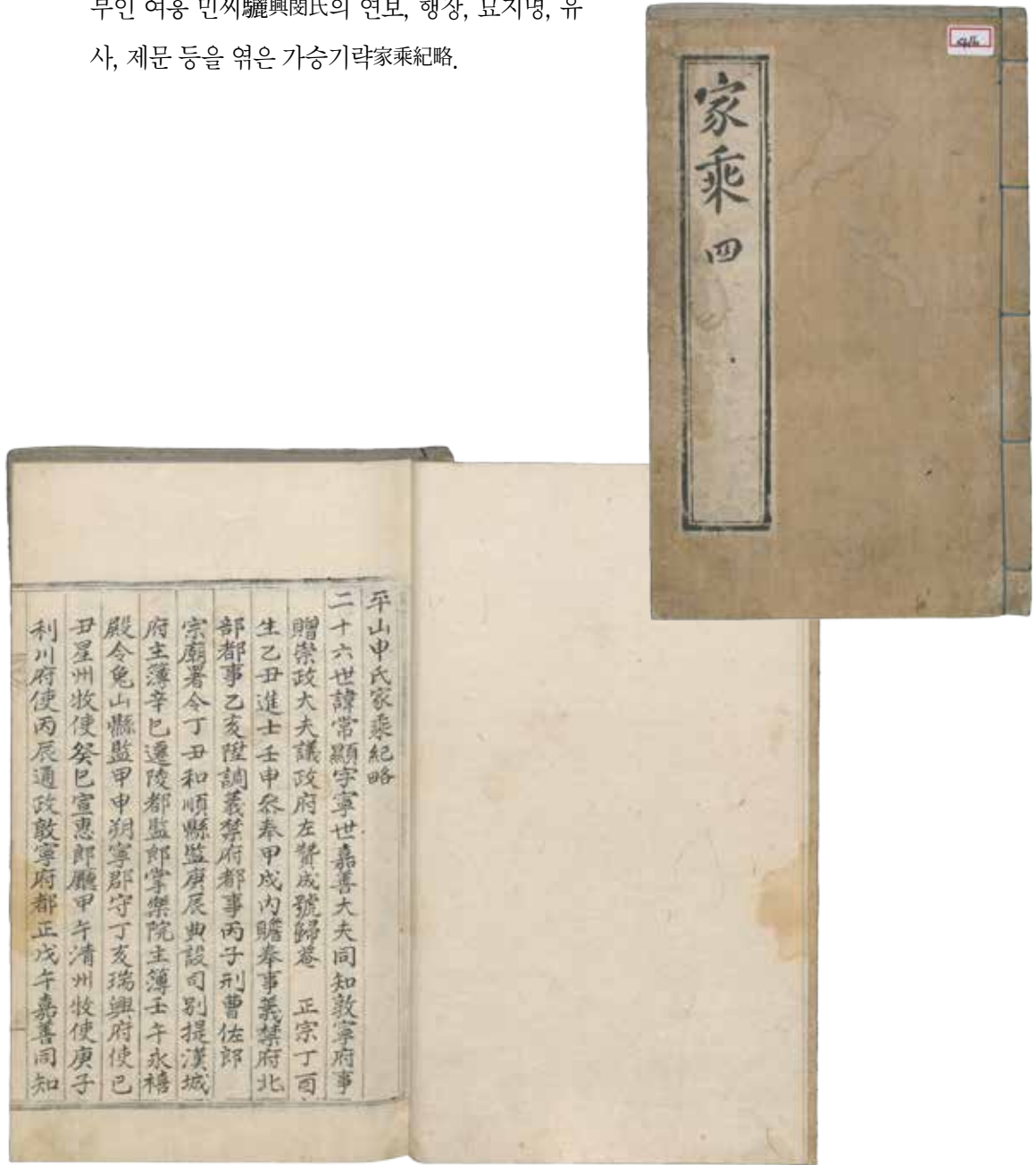


106 | 가승

家乘

29.5×19.0cm | 필사본

평산신씨 26세 신상현申常顯(1777~1864)과 그의 부인 여흥 민씨驪興閔氏의 연보, 행장, 묘지명, 유사, 제문 등을 엮은 가승기략家乘紀略.



107 | 가승

家乘

29.5×19.0cm | 필사본

평산신씨 27세 신응조申應朝(1804~1899)와 과평 윤씨, 28세 신기선申幾善과 반남 박씨의 연보, 묘지, 제문 등을 엮은 가승기략家乘紀略.



108 | 가승

家乘

29.5×19.0cm | 필사본

평산신씨 29세 신일영申一永(1845~1898)의 약전과 그의 저술을 모아 엮은 가승기략家乘紀略. 엮재십영念齋拾零, 엮재습고念齋習藁, 엮재문여念齋文餘, 엮재항기念齋恒記, 엮재환적念齋宦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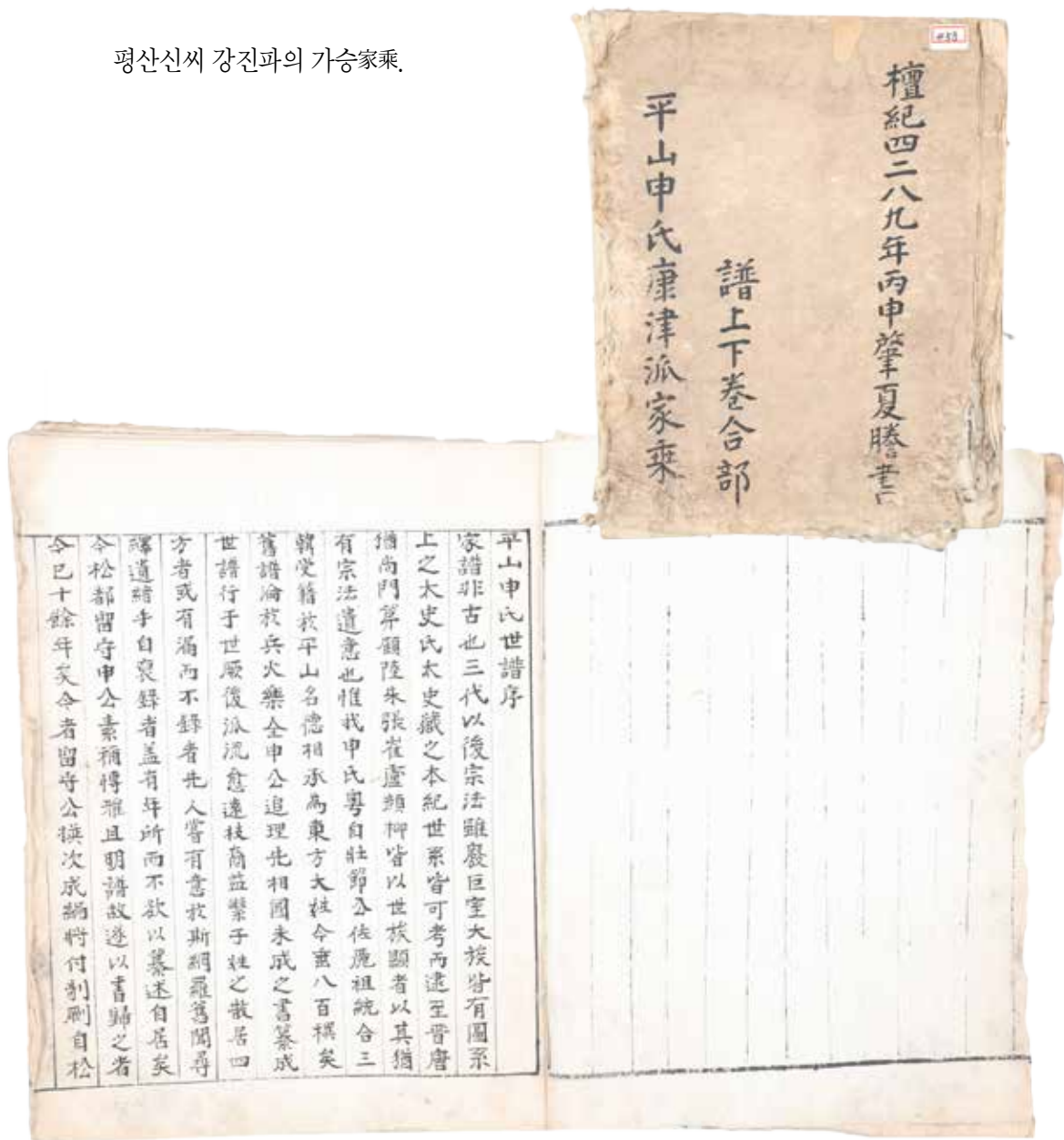


109 | 평산신씨강진파 가승

平山申氏康津派家乘

1956년 | 31.8×25.0cm | 필사본

평산신씨 강진파의 가승家乘.



平山申氏世譜序

家譜非古也三代以後宗法雖廢巨室大族皆有圖系
 上之太史氏太史藏之本紀世系皆可考而逮至晉唐
 猶尚門第顯陞朱張崔盧類柳皆以世族顯者以其猶
 有宗法遺意也惟我申氏粵自壯節公佐麗祖統合三
 韓愛籍於平山名德相承為東方大姓今垂八百禩矣
 舊譜論於兵火樂全申公追理先相國未成之書纂成
 世譜行于世厥後派流愈遠枝裔益繁子姓之散居四
 方者或有漏而不錄者先人嘗有意於斯網羅舊聞尋
 譯道緒乎白雲錄者蓋有年所而不欲以纂述自居矣
 今松都留守申公素稱博雅且明譜故遂以書歸之者
 今已十餘年矣今者留守公換次成編特付剞劂自松

110 | 오세보

五世譜

26.2×16.9cm | 필사본

평산신씨 본파本派의 족보로 조선시대 예조참판, 자헌대부, 예조판서 등을 역임한 신흠申欽 (1566~1628)부터 기록하고 있는 파보派譜[같은 종파에서 한 분파만을 분류하여 만든 족보].



평산신씨 계보

平山申氏系譜

28.0×19.0cm | 신연활자본

평산신씨의 계보로 합보합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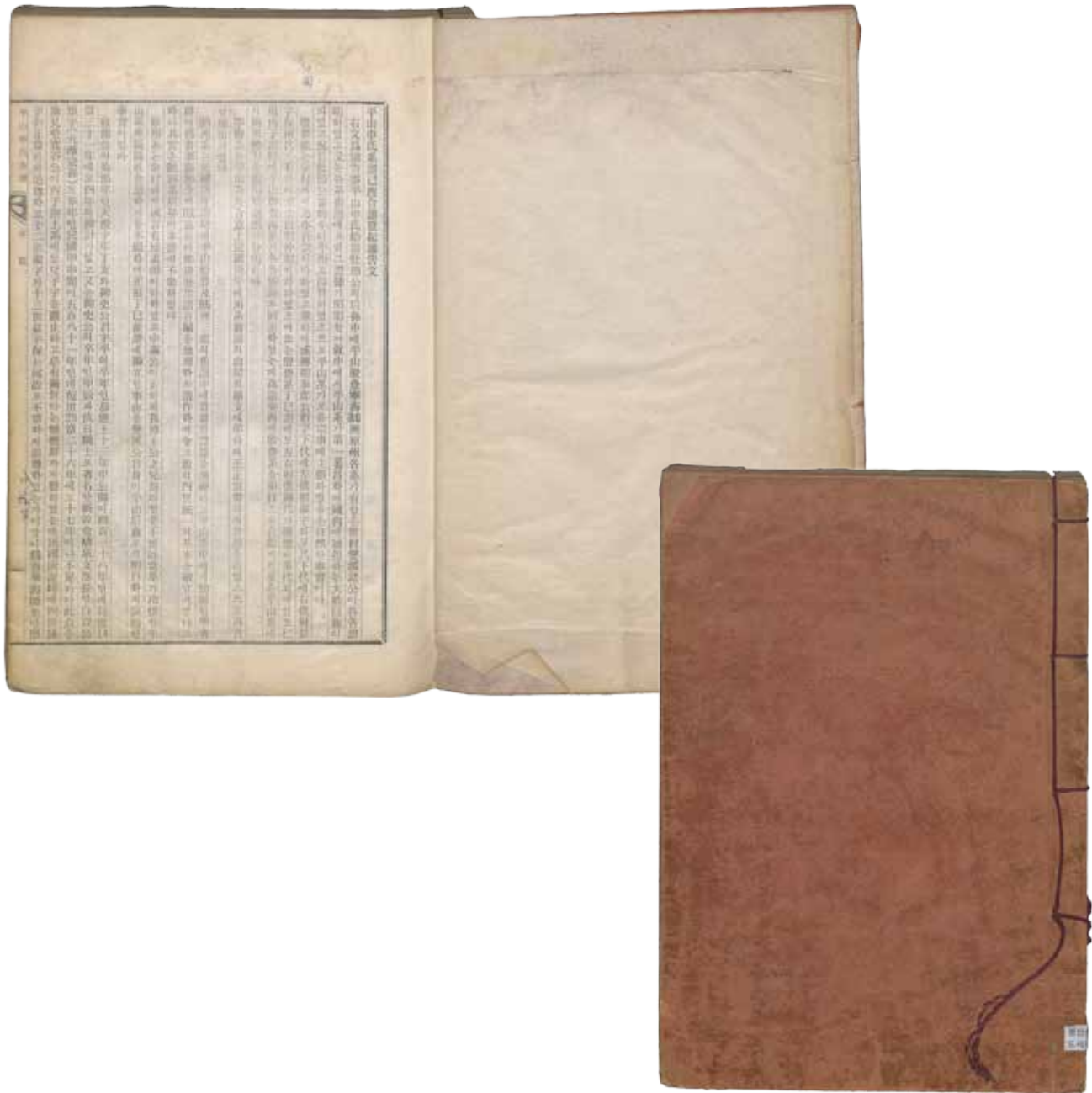


112 | 평산신씨계보기유합보

平山申氏系譜己酉合譜

29.0×20.0cm | 신연활자본

평산신씨의 계보 기유합보로 사적事蹟, 부록附錄, 산도山圖 등이 실려있는 족보.



평산신씨문희공파계보갑편

平山申氏文僖公派系譜甲編

34.3×22.5cm | 목활자본

평산신씨계보 문희공파文僖公派 자손록子孫錄. 문희공파의 파조는 신개申槩(1374~1446)로 조선전기에 우참찬, 우의정, 좌의정을 역임한 문신이고 시호가 문희文僖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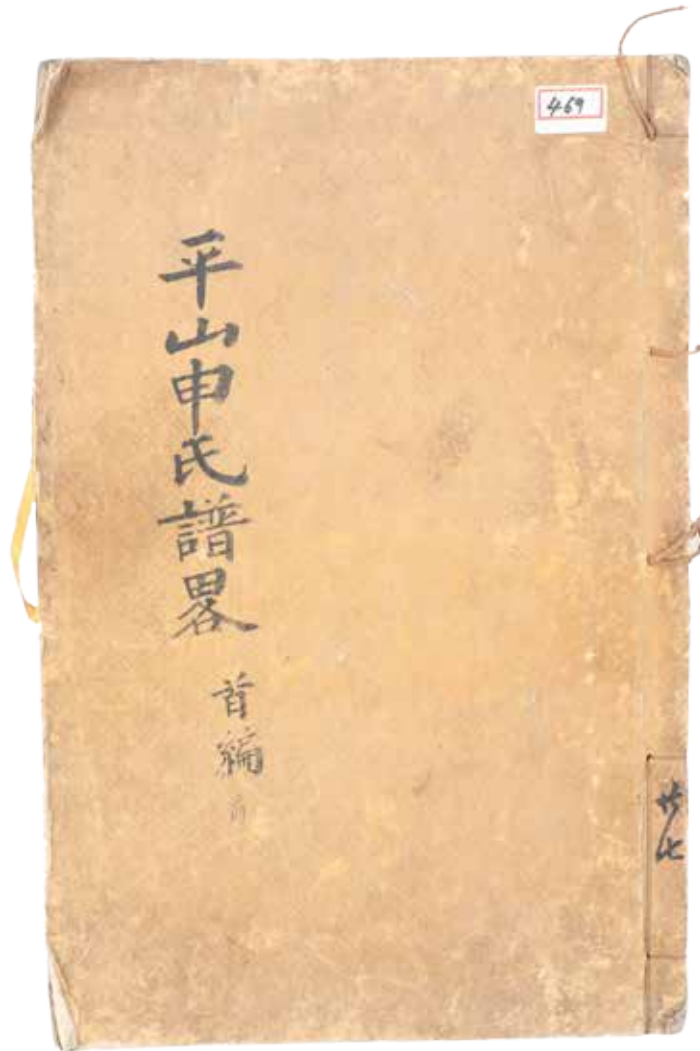


평산신씨보략

平山申氏譜略

1873년 | 31.5×20.8cm | 목활자본

평산신씨의 가계를 간략하게 정리한 족보로 1873년 신현申櫛(1810~1884)이 서문을 썼다. 신현은 조선후기 금위대장, 훈련대장, 진무사 등을 역임한 무신이자 외교가로, 어려서 당대의 석학이며 실학자인 정약용丁若鏞(1762~1836)·김정희金正喜(1786~1856) 문하에서 다양한 실사구시적實事求是의인 학문을 수학하였다. 그리하여 무관이면서도 독특한 학문적 소양을 쌓아 유장儒將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또 개화와 인물들인 강위姜瑋(1820~1884)·박규수朴珪壽(1807~1876) 등과 폭넓게 교류하여 현실에 밝은 식견을 가질 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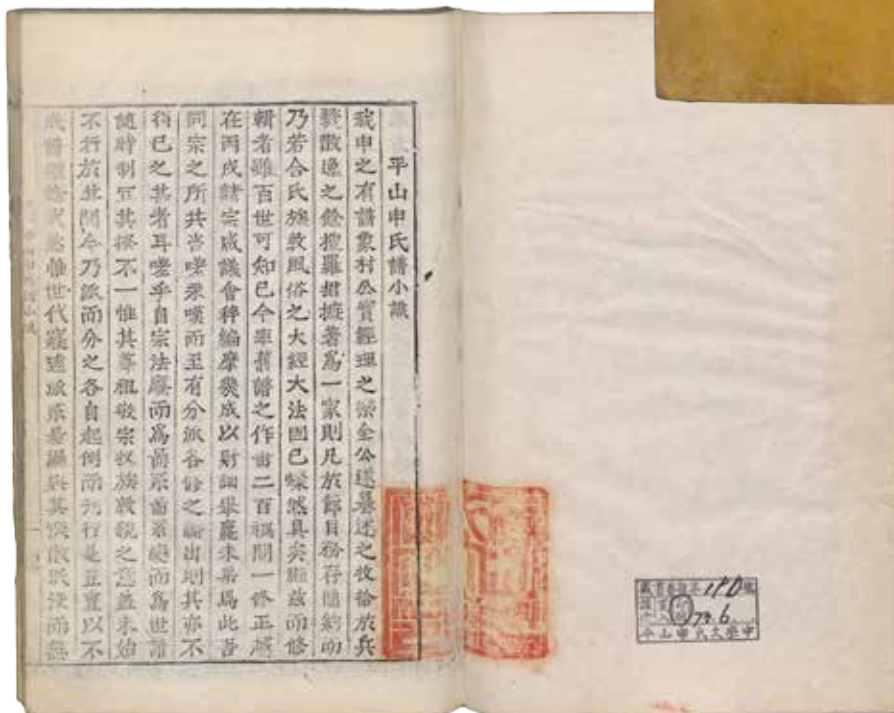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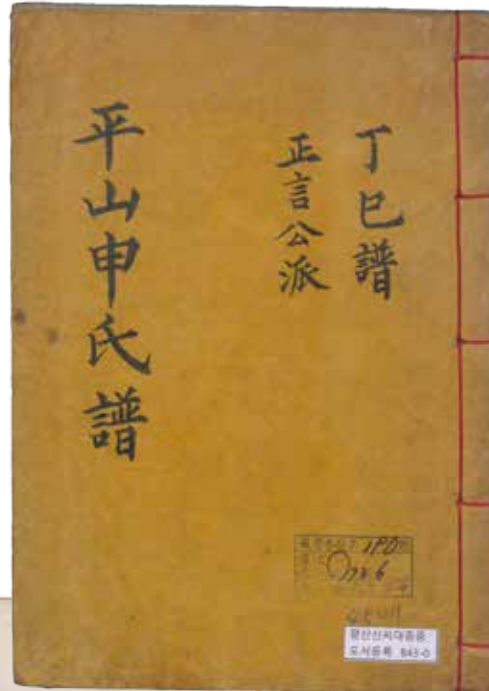


평산신씨보

平山申氏譜

1973년 | 24.3×17.3cm | 활자본

평산신씨보 정언공과正言公派 계보. 정언공과
 는 15세 신호申暎(?~?)가 파조로, 그는 1402
 년(태종 2) 식년시 문과에서 을과乙科 장원[1
 등/33명을3·병7·동진同進23] 급제하여 1404년
 사간원우정언司諫院右正言을 역임하였다.



평산신씨사간공파세보

平山申氏思簡公派世譜

28.7×20.3cm | 필사본

평산신씨 사간공파의 세보. 사간공파는 장절공 15세손 신호申浩가 과조로, 그는 공양왕 때 지신사知申事[고려후기 밀직사의 정3품 관직]로 왕명의 출납을 맡아 보았다. 이성계李成桂(1335~1408)가 조선을 개국한 뒤 신호를 전리판서에 임명하였으나 불사不仕의 뜻을 밝히고 고향인 평산으로 돌아가 자손들에게 과거에 나가지 말고 좋은 벼슬을 취하지 말라고 하였다. 훗날 부음을 전해 들은 태조가 슬퍼하며 호조판서를 추증하고 시호로 사간思簡을 내렸다.



평산신씨종계안

平山申氏宗契案

37.8×27.0cm | 필사본

평산신씨 장절공 묘소 종계안. 평산신씨대종중계平山申氏大宗中禊 서문과 계원열록契員列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종계안은 1923년부터 1948년까지 25년간 장절공 신승겸 묘소를 구심으로 하여 전국 각지의 평산신씨가 모여 동족간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면서 宗禊의 설립 및 운영 등의 제반 사항을 기록한 것이다.



東陽世譜

28.0×19.7cm | 석인본

신현범申鉉範이 서문을 쓴 평산신씨의 소보小譜.



2.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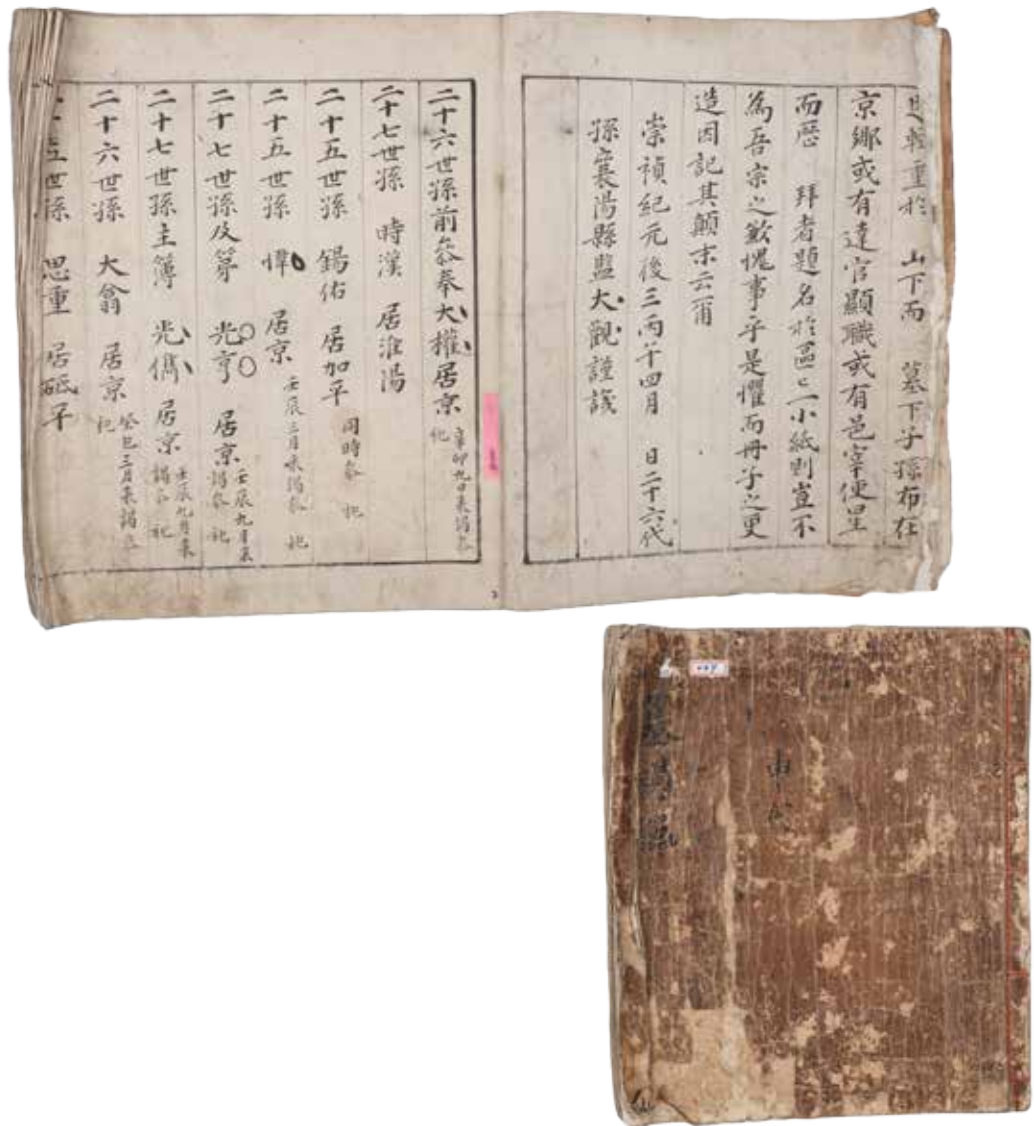
평산신씨의 고서 중에서 신승겸 장군에 대한 제향 관련 자료로는 『장절공묘소정식절목壯節公墓所定式節目』과 『장절공묘소수호절목壯節公墓所守護節目』 그리고 『묘알록墓調錄』이 있다. 『장절공묘소정식절목』은 1803년에 정리된 자료로 장절공 신승겸 장군 묘소를 관리하기 위한 경비 마련 및 묘소 관리를 위한 인원의 배치와 운용, 제향 준비 절차, 제수 진설, 제향 거행 순서 등 장절공 묘소의 관리 및 제향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장절공묘소수호절목』은 정식절목을 기반으로 제사 음식을 차리는 방식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주자가례朱子家禮』를 기반으로 하여 『격몽요결擊蒙要訣』의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훨씬 확대된 방식의 제사 음식이 차려진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강원도 내의 다른 가문과도 차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산신씨 가문만의 제향의식을 보여준다.

그 외 장절공 묘역에 참배하는 후손이나 기타 내방객의 『묘알록』 4책이 남아있다. 또 신의경申義慶이 찬술한 상례喪禮 관계의 초보적인 지침서인 『상례비요喪禮備要』와 개장改葬에 관한 의절儀節과 도구를 설명한 『면의緘儀』가 있다.

墓謁錄

1786년 | 31.4×26.8cm | 필사본

장절공 신승겸 묘소를 배알한 인물 등을 정리한 자료이다. 언제부터 『묘알록』이 작성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1786(정조 10)년에 양양현감 신대관申大觀이 묘를 참배하고 墓隸를 불러 『묘알록』을 물으니 ‘고록古錄은 모두 망일亡逸하였다’고 대답한 것으로 볼 때 이 고록은 적어도 임진왜란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소장본의 『묘알록』 첫머리에는 신대관이 1786년에 작성한 글이 실려있지만 신대관이 처음 참배한 것은 1771년이였다.



墓謁錄

余以襄陽守來省 山下而酒果展敬
後招 墓隸尋其 墓謁錄則古錄
冊子既爲亡逸云而投進一小冊番番之
薄制造之樸令人慙驚顧謂諸宗氏
而道及慨然之懷歷謁 道浦書院而
歸于本邑更成一冊而粧纒之凡六十張
也以備日後題名資焉噫冊之有無不
足輕重於 山下而 墓下子孫布在
京鄉或有達官顯職或有邑宰使星
而歷 拜者題名於區區一小紙則豈不
爲吾宗之歉愧事乎是懼而冊子之更
造因記其顛末云爾

崇禎紀元後三丙午四月 日二十六代

孫襄陽縣監大觀謹識

내가 양양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와서 묘소를 살피고 약소한 제물을 올려 공경을 표하였다. 그 후에 묘소를 관리하는 노비를 불러 『묘알록墓謁錄』을 찾으니 ‘옛날에 기록한 책자는 이미 사라졌습니다’라고 하며 소책小冊 하나를 주었다. 그런데 책자의 날장이 얇고 만듦새가 조잡해서, 사람을 부끄럽게 하였으므로, 종씨宗氏들을 돌아보며 말하다가 탄식하는 마음을 토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도포서원道浦書院을 두루 배알하고 본읍으로 돌아와, 다시 책자 하나를 만들고 장황粧纒하니 모두 60장인데, 이로써 후일에 이름을 기록하는 기본을 갖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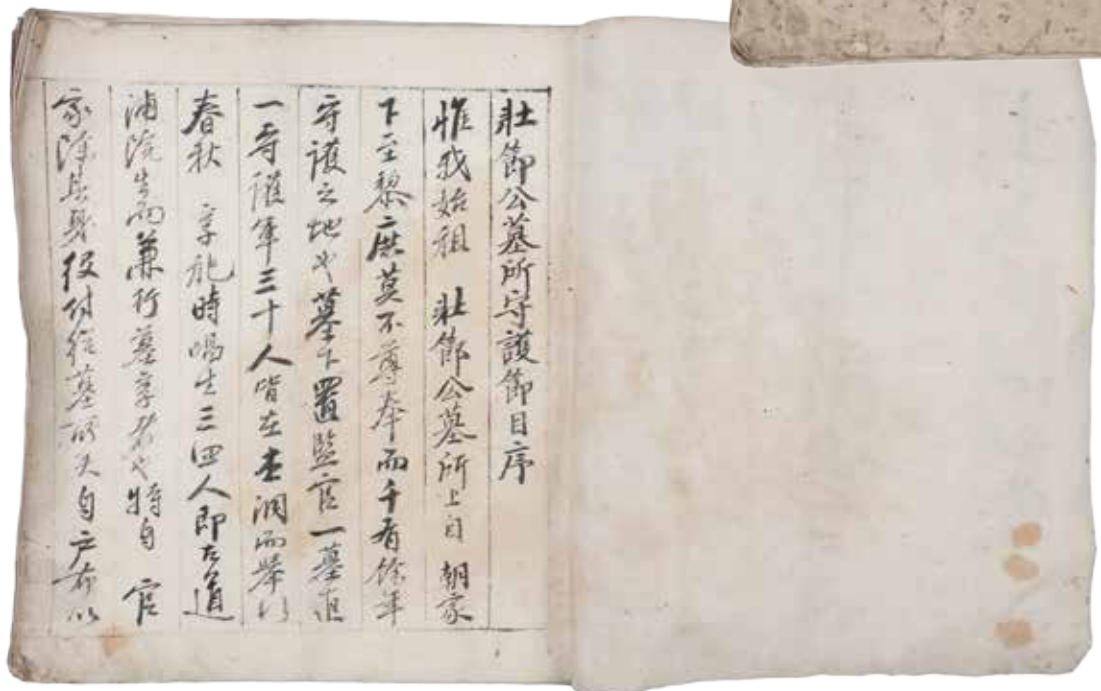
아! 『묘알록』의 유무가 묘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묘하墓下의 자손들이 서울과 지방에 퍼져 있어, 현달한 관직을 지내기도 하고, 수령과 사신을 맡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지나가다 묘소를 배알하고 조그맣고 자질구레한 종이에 이름을 쓰게 된다면 어찌 우리 종중의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두려워 책자를 다시 만들고서 전말을 기록할 따름이다.

승정 기원후 3번째 병오년(1786년, 정조 10) 4월 일. 26대손 양양현감 신대관申大觀이 삼가 쓰다.

壯節公墓所守護節目

32.0×29.5 | 필사본

장절공 신승겸申崇謙(?~927) 묘소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이다. 이 절목을 보면 감관監官 1명, 묘직墓直 1명, 수호군守護軍 30인을 정하되 수호군은 당초 관에서 역으로 배정하였으나 호포제 실시 이후 수호군들이 일신양역一身兩役이라 하여 즐겨하지 않자 종종에서 호포가액을 마련하여 대납하였다. 그리고 수호군은 춘추제향 때 의무적으로 2일씩 입번하고, 일이 있을 때는 지시에 따라 거행하며, 기타 묘역의 소제와 묘역내 나무의 금양禁養 등을 각별히 이행하되 혹 범작자犯斫者가 있으면 수호군은 즉시 감관에게 알리고 감관은 도유사에게 알려 조치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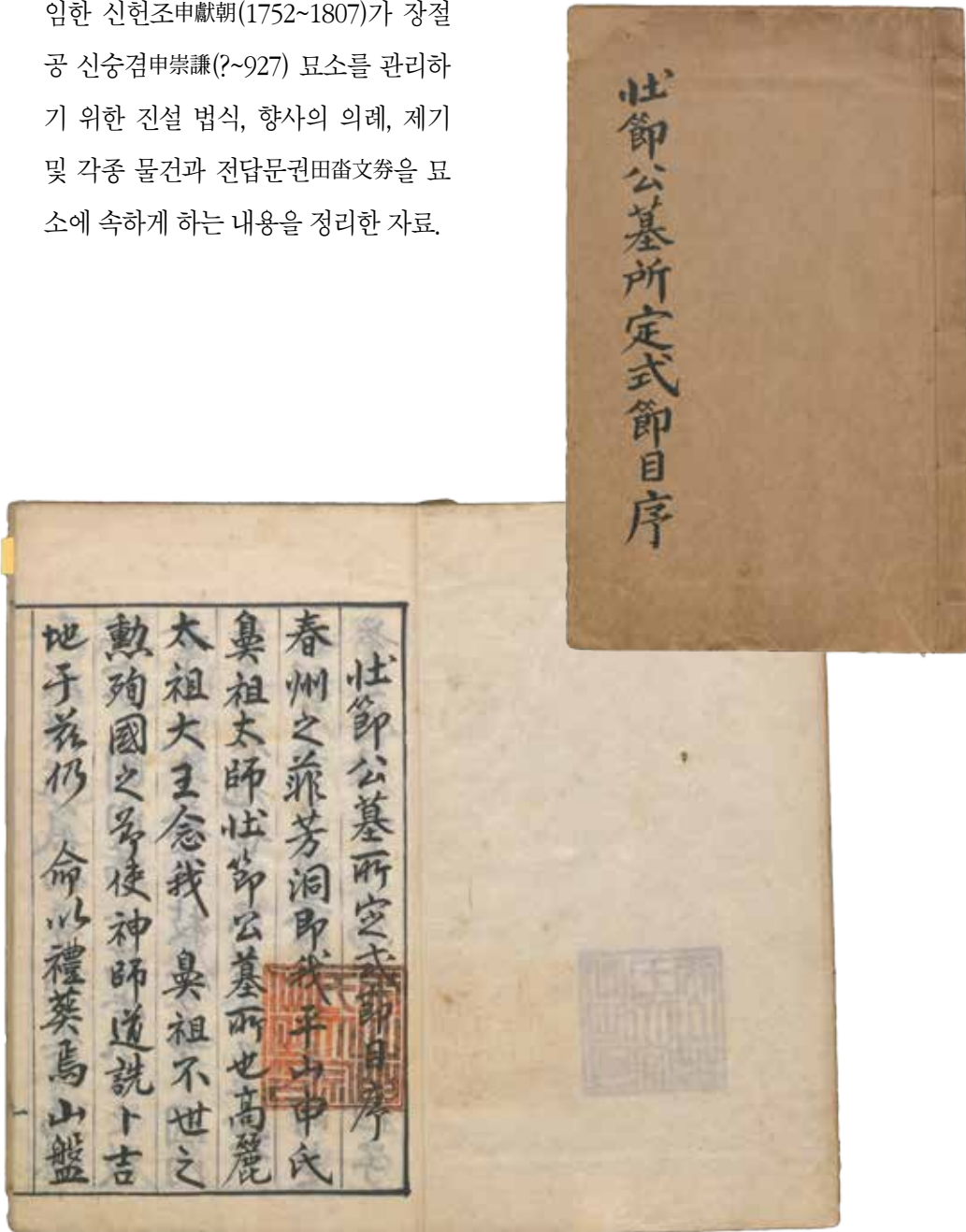


장절공묘소정식절목

壯節公墓所定式節目

30×19cm | 1803 | 필사본

1803년(순조 3)에 강원도관찰사로 부임한 신헌조申獻朝(1752~1807)가 장절공 신승겸申崇謙(?~927) 묘소를 관리하기 위한 진설 법식, 향사의 의례, 제기 및 각종 물건과 전답문권田畵文券을 묘소에 속하게 하는 내용을 정리한 자료.



壯節公墓所定式節目序
春州之菲芳洞卽我平山申氏
鼻祖太師壯節公墓所也高麗
太祖大王念我鼻祖不世之
勳殉國之節使神師道誥卜吉
地于茲仍命以禮葬焉山盤
而水襟毓氣而孕精者實爲堪
輿家國內第一福堂以此之故
吾申氏千幹萬枝旁布國內
簪笏衣冠世世不替此蓋我
始祖不盡之遺蔭亦墓所無
量之餘休也凡爲我始祖子
孫者視茲墓所豈可以代遠而
忽之哉昔高麗太祖賜墓所四
方九千步以爲世世香火之資
蓋酬功獎節之盛典也暨于我
朝遵而勿失殆上千年猶不泯
焉夫何挽近以來歲月浸邈折
受四標之內或經界不定或中間
闕失目今收稅極其零星春秋
祭享猶難措備後孫之慨歎孰
甚於此不肖幸蒙國恩亦藉
先休來按東藩于今二載爲
墓所一念夙宵孜孜每欲推尋
其見失之田而且念厥土之入於民
亦不知幾許載則到今推刷不
無招寃之慮以寧失於民之意一
不加執只以前所執之結數使本邑
吏廳執卜去年所執之結數不
用而殖利焉今年所執之結數又

不用而留置焉兩年 祭需營門
分定於道內守令之爲我 始祖
外裔之若春川府使李令廷顯洪川
縣監趙侯儀達平康縣監朴侯尙榮
旌善郡守安侯命遠矣皆不欲報
減自願措辦亦美事也其籩豆
之靜嘉酒醴之清旨比向日 墓直
之所備略有勝焉仍念明春不肖
遞歸則 祭物之不腆猶復如舊
矣慨然興念詢問于本邑吏廳
以年年所收之稅付之吏廳每
祭享三十兩式一年所用六十
兩以一年所收之稅自官精備設
行以爲永久無替之地而明年
春秋二享營門又自備六十兩送
于本邑而行之收稅既付吏廳則
墓直之資生亦不可念以昨今年
殖利留置之一百四十餘兩自營門
又添補四十餘兩合一百九十五兩今年
冬買給田土使 墓直耕食而春秋
祭享時 祭官供饋使之當之今
則春秋 祭享可以無不足患矣
墓直生涯亦庶有支過之道此蓋
不肖費心積慮區劃措置者凡爲
春州本倅之人溯本窮源則其非我
始祖後裔者幾希矣孰不飭勵邑
吏以爲虔奉享祀之道也雖 墓
下之孫亦當有 享先之誠孰不欲恪
於墓所事也若邑中之吏 墓直
守護軍輩皆當知 墓所事

面之異於他 墓則亦孰不至誠
供奉以爲永久遵行之道哉序
其顛末以勉後人略具合行條件
列于左凡陳設之式享祀之儀祭
器及各樣物件與田畝文券屬於
墓所而新備留置者竝載錄于
後以備後日憑考之資

崇禎紀元後三癸亥之季冬 日
壯節公二十七代孫本道觀察使獻朝
謹識

장절공묘소정식절목壯節公墓所定式節目의 서문

춘천의 비방동菲芳洞은 바로 우리 평산신씨의 비조鼻祖 태사太師 장절공壯節公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고려 태조대왕께서 세상에 없는 공훈과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절개를 유념하시고 신사神師 도선道詵으로 하여금 길지吉地를 점치게 하고 이곳에 아울러 예장禮葬을 명하셨다. 이곳은 산수山水로 둘러싸여 있고 정기精氣를 가득 품은 곳이니 실로 풍수가들이 국내의 제일가는 명단으로 여겼다. 이 때문에 우리 신씨들이 여기저기로 뻗어나가 국내에 퍼져 있고 벼슬하는 자가 대대로 쇠하지 않으니, 이것은 아마도 우리 시조가 남겨주신 끝없는 음덕이고 또한 묘소에 남겨진 끝없는 아름다움이리라.

무릇 우리 시조의 자손이 된 자가 이 묘소를 보고 어찌 대수代數가 멀다고 하여 소홀히 여길 수 있겠는가? 옛날 고려 태조가 묘소의 사방 9천보에 이르는 땅을 하사하여 대대로 향화香火하는 밀천으로 삼게 한 것은 공적에 보답하고 충절을 장려하는 성대한 법이다. 우리 조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준수하여 잃지 않게 한 것 거의 천년이니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다. 대저 근래 들어 세월이 점점 멀어져 절수받은 사방의 안쪽이 혹은 경계가 바르지 않고 혹은 중간에 서실闕失되어 지금 수세收稅하는 것을 보니 매우 영성靈星하여 춘추제향春秋祭享을 오히려 준비하기 어려워져 자손들이 탄식하니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는가?

불초한 내가 다행히도 국가의 은혜를 입고 또한 선조의 은혜를 받아 동쪽의 변방강원도에 부임하여 안

무한 것이 지금 2년째이고, 묘소를 위한 일념一念에 밤낮으로 부지런히 매번 그 잃어버린 땅을 추심하고자 했으나, 또한 그 땅이 백성에게 들어간 것이 또한 몇 해나 되는지도 모르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추쇄함에 원통함을 불러올 염려가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민심을 잃을 뜻으로써 한결같이 세금을 가중시키지 말고, 단지 전에 거두던 결수結數를 본읍本邑의 이청吏廳이 거두게 하며, 작년에 거두었던 결수 중에서 쓰지 않은 것은 식리殖利하게 하고, 올해 거둔 결수 중에서도 또 쓰지 않은 것은 그대로 두게 한다.

2년간의 제수祭需는 영문營門에서 도내의 수령 중에 우리 시조의 외손이 되는 춘천부사春川府使 이령李令 정현廷顯, 홍천현감洪川縣監 조후趙侯 의규儀達, 평강현감平康縣監 박후朴侯 상영尙榮, 정선군수旌善郡守 안명원에게 분정分定하면 모두 싫어하지 않고 자원해서 마련할 것이니 또한 아름다운 일이다.

그 변두籩豆; 祭器의 정결함과 주례酒醴; 祭酒의 깨끗한 맛은 지난날 묘지기가 갖춘 것에 비하면 더 나은데 있고, 아울러 내년 봄에 불초한 내가 체직되면 제물祭物이 많지 않아 오히려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되어 걱정이 앞선다. 이에 다시 생각하고 본읍의 이청에 두루 물어보니 해마다 수세한 세금을 이청에 주고 매번 제향 때 30냥씩 1년에 소용되는 60냥을, 일년에 거두는 세금으로 관아에서 정밀하게 갖추어 실행하여 영구히 바꾸지 않게 할 것이다. 내년 봄·가을의 두 차례 제향에는 영문이 또 60냥을 스스로 갖추어 본읍에 보내 행하게 할 것이고 수세는 이미 이청에 주었으니 묘지기의 생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과 올해에 식리한 것과 남겨둔 것 중의 140냥 및 영문에서 보태준 40여 냥을 합한 195냥으로 올해 겨울에 토지를 매득하여, 묘지기에게 주어 갈아먹게 하고, 봄·가을로 제향할 때 제관祭官을 공궤供饋토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지금은 봄·가을의 제향에 부족할 근심이 없고, 묘지기의 생계 역시 거의 타당될 방법이 있으니, 이것이 대개 불초한 내가 마음을 쓰고 생각하여 구획한 조처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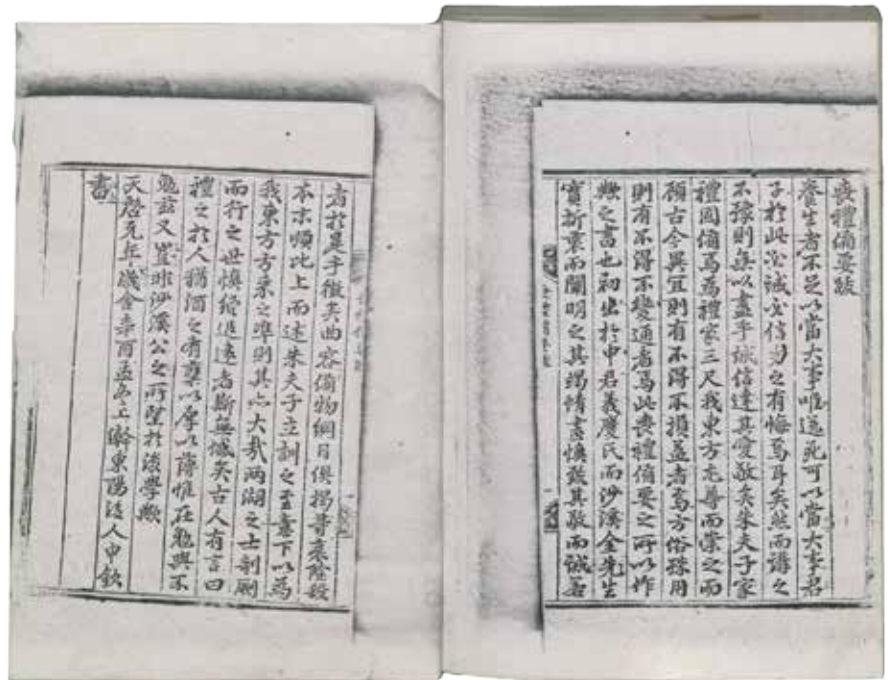
무릇 춘천의 수령이 된 자들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시조의 후예가 아닌 자가 드물 것이니 누가 읍리를 신칙하여 향사享祀를 정성스럽게 봉행하는 도리가 없겠는가? 비록 묘하墓下의 후손들이 또한 마땅히 선조를 흠향하는 정성이 있어야 하거늘 누가 묘소의 일을 정성스럽게 하지 않겠는가? 만약 읍중의 읍리와 묘지기, 수호군들이 모두 이 묘소가 다른 묘소와 다른 것을 알고 있으면 또한 누가 정성스럽게 봉행하며 영구히 준행하는 도리에 이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전말을 기록하여 후인後人에게 알게 하며 대략 갖추어야 할 조건을 아래에 열거하고 진설해야 하는 법식과 향사의 의례, 제기 및 각종 물건과 전답문권田畠文券을 묘소에 속하게 하며 새로 갖추어 둔 것을 아래에 기록하니 후일에 빙고憑考할 전거로 삼을 것이다.

승정 기원후 세 번째 계해(1803년 12월)에, 장절공 27대손 본도관찰사本道觀察使 신헌조申獻朝가 삼가 쓰다.

喪禮備要

24.6×16.8cm | 1648 | 복사본

조선 중기의 학자 신의경申義慶(1557~1648)이 『가례』를 중심으로 학자들의 예설을 참고하여 상례의식을 알기 쉽게 기술한 예서로서 본래 『가례(家禮)』의 내용 중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편찬한 책. 신의경의 『상례비요』 초본은 현재 남아있지는 않고, 이 책은 친구인 김장생金長生(1548~1631)이 1620년에 신의경의 원본을 증보하고 시속의 예제를 첨부하여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었고, 그 뒤 김집金集(1574~1656)이 다시 교정을 가하여 1648년(인조 26)에 간행하였다. 특히 다른 예설을 보충한 내용은 쌍행(雙行)으로 기록하였으며, 저자의 견해를 기록한 경우에는 ‘우(愚)’자나 ‘안(按)’자를 써서 구별하였다. 권두에 1620년에 쓴 김장생의 서문과 1648년에 쓴 김집의 서문이 있고, 책 끝에는 1621년에 쓴 신희申欽의 발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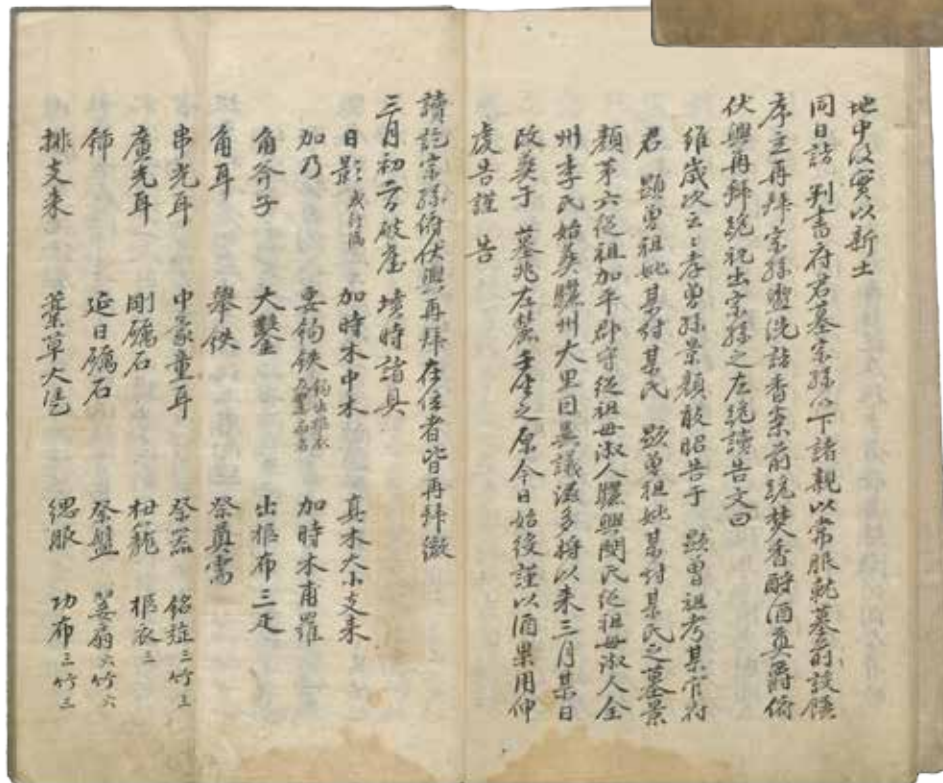


면의

緬儀

25.4×16.4cm | 필사본

개장改葬에 관한 의절儀節과 도구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여러 예학자들의 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자료.



3. 선대의 충효를 본받다

장절공 신숭겸장군에 대한 추숭사업은 조선전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러 더욱 확대되어 신숭겸장군과 관련이 있는 지역에 사당이나 서원이 건축되면서 그의 충성심과 관련된 내용들이 재부각되었다. 그의 출생지인 곡성에는 1589년 덕양서원德陽書院이 창건되었고, 1897년 용산단龍山壇이 축조되었다. 신숭겸장군의 관향인 평산에는 1650년 동양서원東陽書院이 창건되었고, 묘소가 있는 춘천에는 1650년 도포서원道浦書院이 창건되었다. 그리고 충청남도 서천에도 신숭겸장군과 평산신씨 7인을 배향하는 율리사栗里祠가 1851년 창건되었고, 신숭겸장군이 순절한 대구 팔공산에는 1607년 표충사表忠祠와 표충단表忠壇을 세워 추숭사업을 전개하였다.

평산신씨가 장절공기념관에는 이들 서원·사우와 관련한 자료가 전해지는데, 우선 신숭겸장군이 순절한 곳에 세운 표충단의 사적, 문헌 등을 모아 엮은 『표충단지表忠壇誌』가 있고, 신숭겸장군을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신현申賢·신혼申璵·신연申演·신기申淇와 조선시대의 신철申澈·신오申澳 등 7인을 배향한 사우의 창건과 행장 등을 기록한 『율리사창건지栗里祠勸建誌』가 있다. 그리고 덕양서원의 용산단 등에 관련한 내용을 담은 『용산단지龍山壇誌』와 『덕양서원지德陽書院誌』가 있는데, 『덕양서원지』는 복사본 자료이다.

또 신숭겸申崇謙의 충의를 추모하는 조선 역대 왕의 교령문敎令文을 모은 『열성수교列聖受敎』가 남아있어 유교이념 통치하의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개국공신 신숭겸장군에 대한 추숭사업은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신준미申遵美의 유지遺趾에 1964년 평산신씨 문중에서 한림정을 건축하였는데, 이때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한림정지翰林亭誌』, 조선 후기 신잡申礪의 영정을 봉안한 사당인 노은영당老隱影堂을 1966년에 중수하며 기록한 자료인 『노은영당지老隱影堂誌』, 임진왜란 당시 순국한 문경현감 신길원申吉元을 봉향하기 위해 창건한 충렬사를 1981년 복원하면서 관련내용을 기록한 『충열사지忠烈祠誌』가 있어 선대의 충절을 이어주고 있다.

열성수교

列聖受教

30.0×20.0cm | 목활자본

고려의 개국공신 신승겸申崇謙(?~927)의 충의를 추모하는 조선 역대 왕의 교령문敎令文을 모은 책. 병조수교문兵曹受敎文, 예조수교문禮曹受敎文과 아울러 문종·성종·선조·숙종·영조 등이 신승겸의 후손들에게 군보납米軍保納米 등의 잡역을 면제해 준 전교傳敎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 부분에 부행장말단附行狀末段에는 신승겸의 행장 일부분만을 편집 수록하였고, 칠휴거사七休居士 손순효孫舜孝의 제장절공유사후題壯節公遺事後, 이어서 증봉重峯 조헌趙憲의 시 제장절공행장후題壯節公行狀後 등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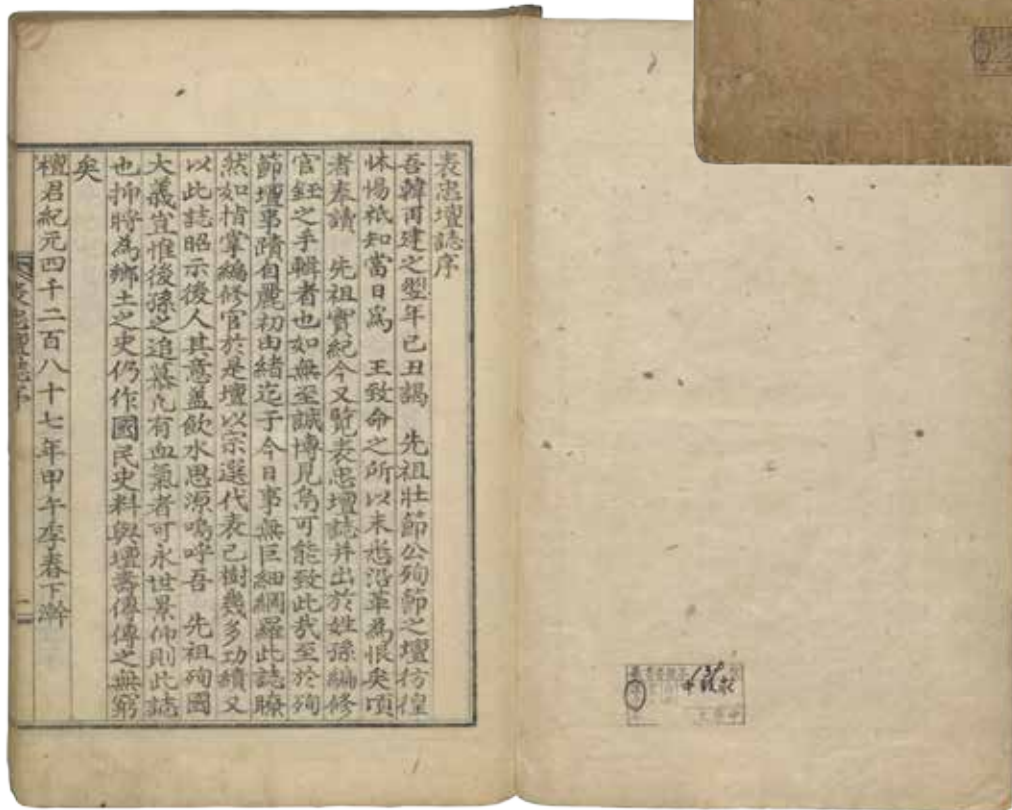


125 표충단지

表忠壇誌

1955년 | 28.2×19.6cm | 석인본

신승겸申崇謙(?~927) 장군이 전사한 곳에 세운 표충단의 사적, 문헌 등을 모아 신옥申錫이 엮은 책. 표충단은 대구시 동구 신승겸길 17의 신승겸장군유적지에 있다.



表忠壇誌序
 吾韓再建之翌年己丑謁 先祖壯節公殉節之壇彷徨
 休惕祇知當日為 王致命之所以未愆沿革為恨矣頃
 者奉讀 先祖實紀今又覽表忠壇誌并出於姓孫編修
 官鈺之手輯者也如無至誠博見烏可能致此哉至於殉
 節壇事蹟自麗初由緒迄于今日事無巨細網羅此誌瞭
 然如指掌編修官於是壇以宗選代表已樹幾多功績又
 以此誌昭示後人其意蓋飲水思源嗚呼吾 先祖殉國
 大義宜惟後孫之追慕凡有血氣者可永世界仰則此誌
 也抑將為鄉土之史仍作國民史料與壇善俾傳之無窮
 矣
 檀君紀元四千二百八十七年甲午春春下泮

용산단지

龍山壇誌

1962년 | 26.3×19.0cm | 신연활자본

신승겸申崇謙(?~927) 장군의 유적지인 곡성 구룡리의 용산재龍山齋와 구룡문九龍門을 1960년에 세우면서 1961년 덕양서원德陽書院 용산단龍山壇등에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 신승겸 장군의 유허지의 역사와 사적에 관련한 내용, 유사·사적·유묵·문헌·제영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사간공과思簡公派 세보, 임원, 방명록 등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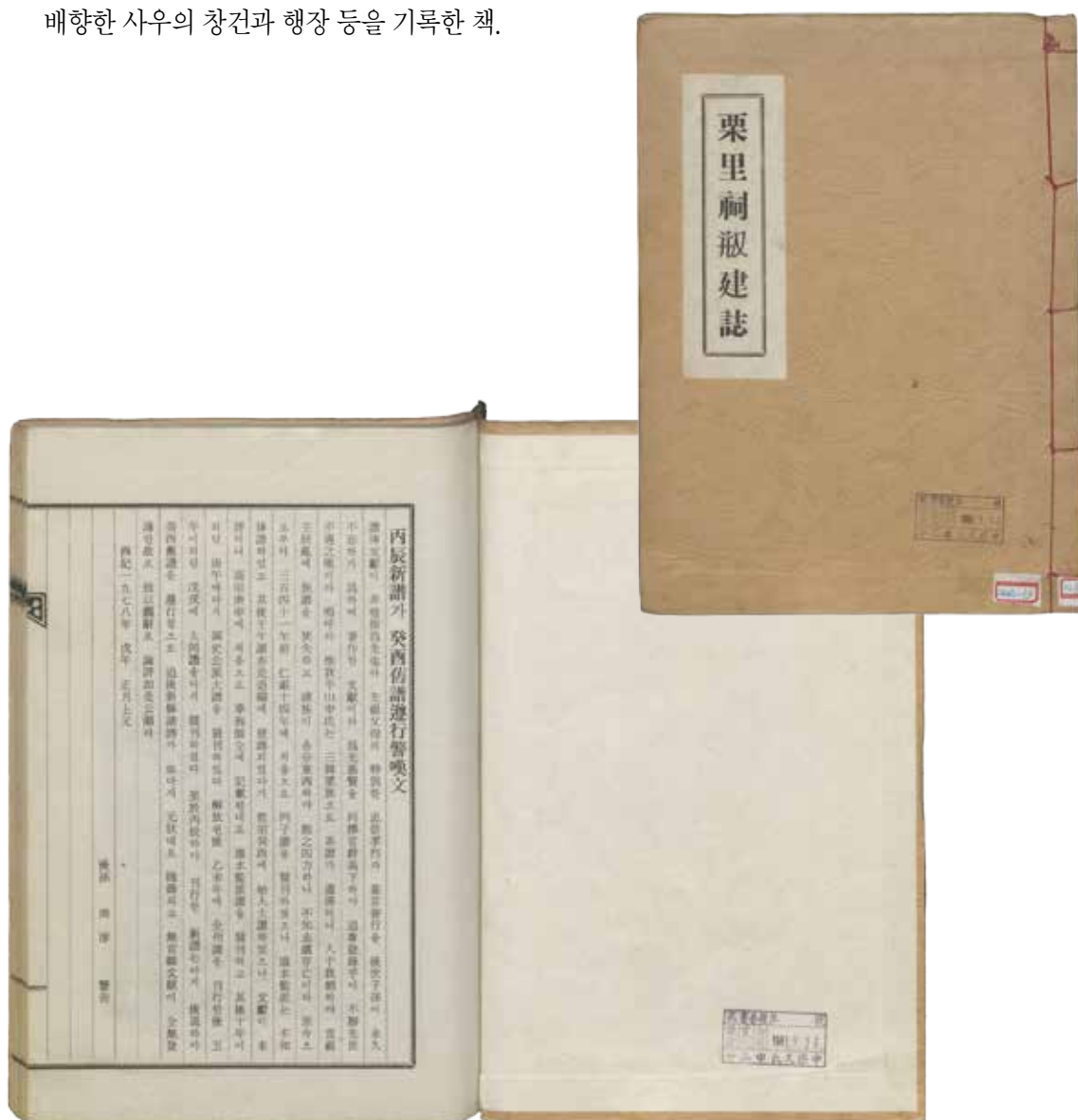


127 | 율리사창건지

栗里祠勸建誌

1978년 | 28.0×20.8cm | 활자본

평산신씨의 시조인 신숭겸(申崇謙, ?~927)을 비롯하여 고려시대의 신현(申賢)·신흠(申璿)·신연(申演)·신기(申淇)와 조선시대의 신철(申澈)·신오(申澳) 등 7인을 배향한 사우의 창건과 행장 등을 기록한 책.



128 한림정지

翰林亭誌

1965년 | 28, 4×18, 5cm | 석인본

조선 중종 때의 문신 신준미申遵美(1491~1562)의 유지遺趾에 1964년 평산신씨 문중에서 한림 정을 건축하였는데, 이때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자료. 신준미는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으로 현량 과賢良科에 3등으로 급제하였으나,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취소된 후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 하였다.



129 노은영당지

老隱影堂誌

1967년 | 25.7×18.5cm | 석인본

조선 후기 독송獨松 신잡申礮(1541년~1609년)의 영정을 봉안한 사당인 노은영당老隱影堂이 1818년(순조 18) 화재로 소실되었던 것을 1966년에 중수하며 기록한 자료. 신잡은 1583년(선조 16)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정언正言·지평持平·우부승지右副承旨를 거쳐 밀양부사, 형조판서, 호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고,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忠烈祠誌

1982년 | 29.0×19.8cm | 석인본

임진왜란 당시 순국한 문경현감 신길원申吉元(1548~1592)을 봉향하기 위해 창건한 충렬사를 1981년 복원하면서 관련 내용을 기록한 자료. 신길원은 1592년(선조 25) 4월 임진왜란 당시 문경현감으로 왜군이 관내에 쳐들어오자 관병 수십 명을 이끌고 관아를 지키며 결사적으로 항전하다 순국하였다.



4. 선현의 지혜를 배우다

평산신씨가 장절공 신승겸장군 기념관에 소장되어 있는 문집류는 모두 48건으로 고서중 가장 많은 자료이다. 이 문집 중 상당 부분은 복사본이고 복사본이 아닌 문집은 대체적으로 일제강점기 이후 현대에 석인본이나 활자본으로 인쇄된 문집이다. 또 문집 대다수는 평산신씨 집안 인사들의 문집이고 복사본 중 정운경鄭雲慶의 『송운집松雲集』과 오완근吳浣根의 『민재존고敏齋存稿』만이 집안 외 인사의 문집이다.

복사본이 아닌 문집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집은 1924년에 간행된 조선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신완申完의 『구계집鷗溪集』이다. 그리고 신맹경申孟慶의 『운계유사雲溪遺事』, 신후재申厚載의 시문집인 『규정집葵亭集』, 신규申奎의 시문집인 『취은집醉隱集』, 신현중申鉉中의 시문집인 『율봉집栗峯集』, 신익균申翊均의 시문집인 『동화선생문집東華先生文集』, 신욱균申郁均의 시문집인 『소담유고小潭遺稿』, 신상수申相秀의 『운와유고雲窩遺稿』, 신현국申鉉國의 시문집인 『직당집直堂集』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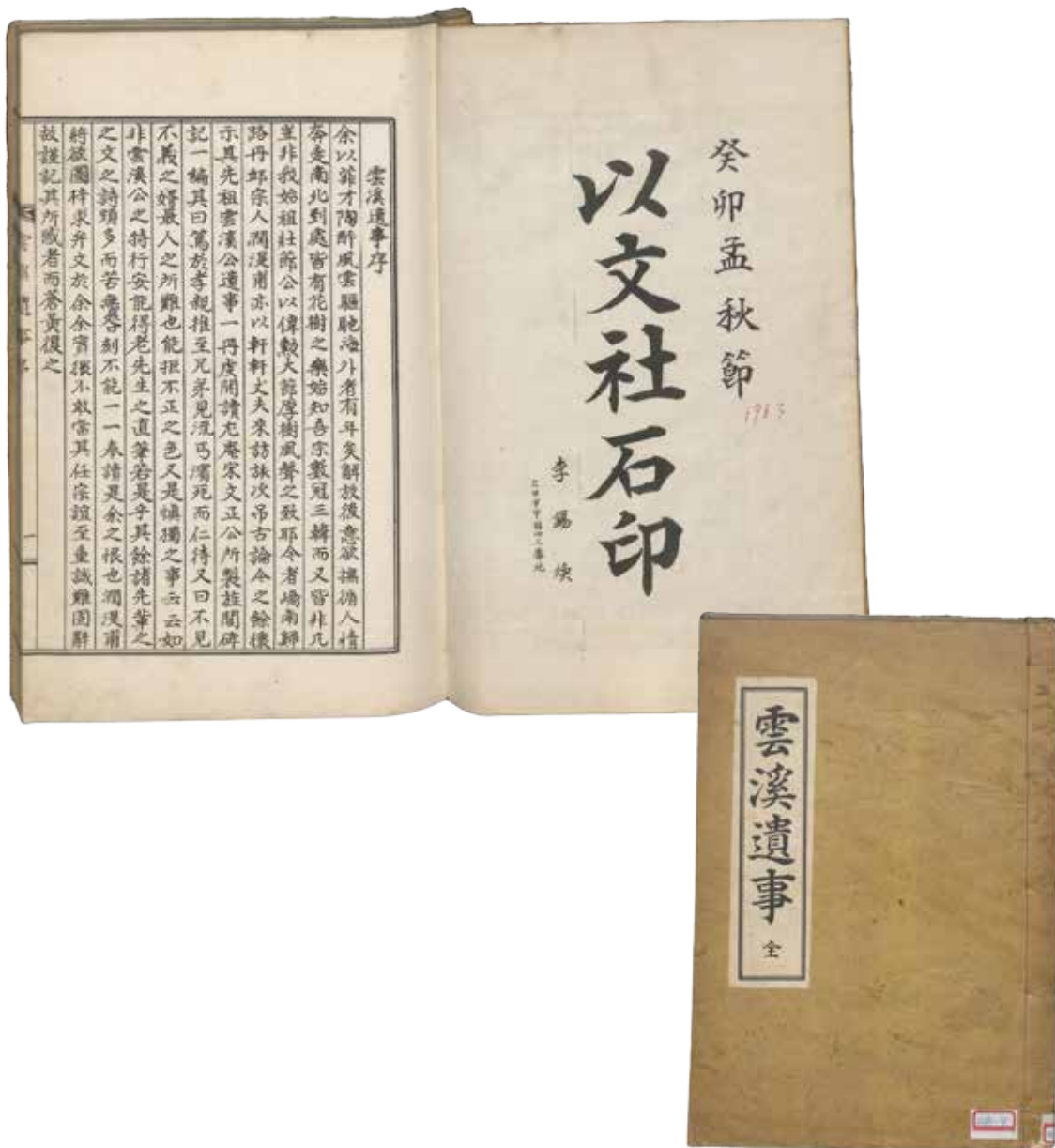
그 외 신하희申夏熙의 강학처인 학고당의 제영題詠을 모아 엮은 시문집 『학고당제영집學古堂題詠集』과 평산신씨의 시조부터 가자家狀, 묘지명墓誌銘, 행장行狀, 학고당중수기學古堂重修記 등을 모아 엮은 『직장록誌狀錄』, 남천공이 갑진년 1월부터 을사년 1월까지의 기록한 『남천공일록南川公日錄』, 신언구申彦九의 부인인 석담 이부인의 행적을 기록한 『석담이부인전石潭李夫人傳』, 진하문陳賀文·전문箋文·간찰 등을 모아 정리한 『수죽거사 진하문등산집瘦竹居士陳賀文等散集』, ‘강루대우부지江樓待友不至’ 등의 시문을 모아놓은 시문집인 『강자薑蔗』 등의 문집류 자료가 있다.

운계유사

雲溪遺事

1963년 | 25.0×17.4cm | 석인본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제천현감을 지내고 1593(선조 26)년 효자로 정려旌閭를 받은 운계雲溪신맹경申孟慶(1550~1621)의 유사遺事. 1650년(효종 1)에 정려비(旌閭碑)가 세워진 신맹경을 존향하게 위해 단계사(丹溪祠)를 창건하였다.



132 | 규정집

葵亭集

1981년 | 28.7×17.7cm | 목활자본

조선후기 동부승지, 강원도관찰사, 한성판윤 등을 역임한 규정葵亭 신후재申厚載(1636~1699)의 시문을 모아 간행한 시문집. 그의 외증손인 정범조丁範祖가 산정刪定하고 손자 신사석申思奭이 1778년(정조 2)에 간행한 것을 1981년 복간한 책이다. 7권 3책으로 권1~6까지 시, 권7에 잡저·서序·기記·사辭·찬贊·잡箴·송頌·제문·교서·표表·전箋·소疏·차箚·갈명碣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신후재는 1660년(현종 1) 사마시를 거쳐 같은 해 식년시式年試 문과에 을과乙科로 급제하고 동부승지, 강원도관찰사, 한성판윤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취은집

醉隱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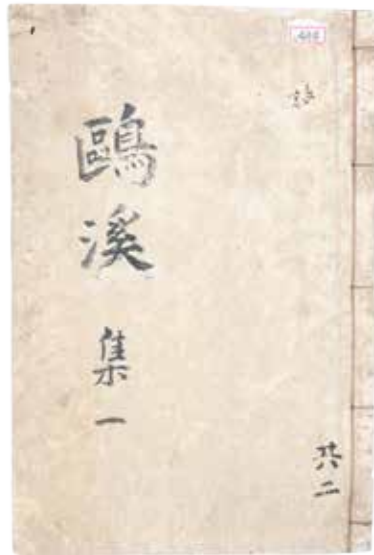
1909년 | 30.2×19.8cm | 목활자본

조선후기 함양군수, 영해부사, 진주목사 등을 역임한 취은醉隱 신규申奎(1659~1708)의 시가와 산문을 엮어 1909년에 간행한 시문집. 6대손 신석기申錫璣·신석룡申錫龍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4권 2책으로 권1·2에 부賦·시, 권3에 서書·소疏·서序·문文·잡저, 권4에 부록으로 어제시御製詩·묘갈명·연보·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신규는 1684년(숙종 10) 증광시增廣試 문과에서 병과丙科로 급제한 뒤에 함양군수, 영해부사, 진주목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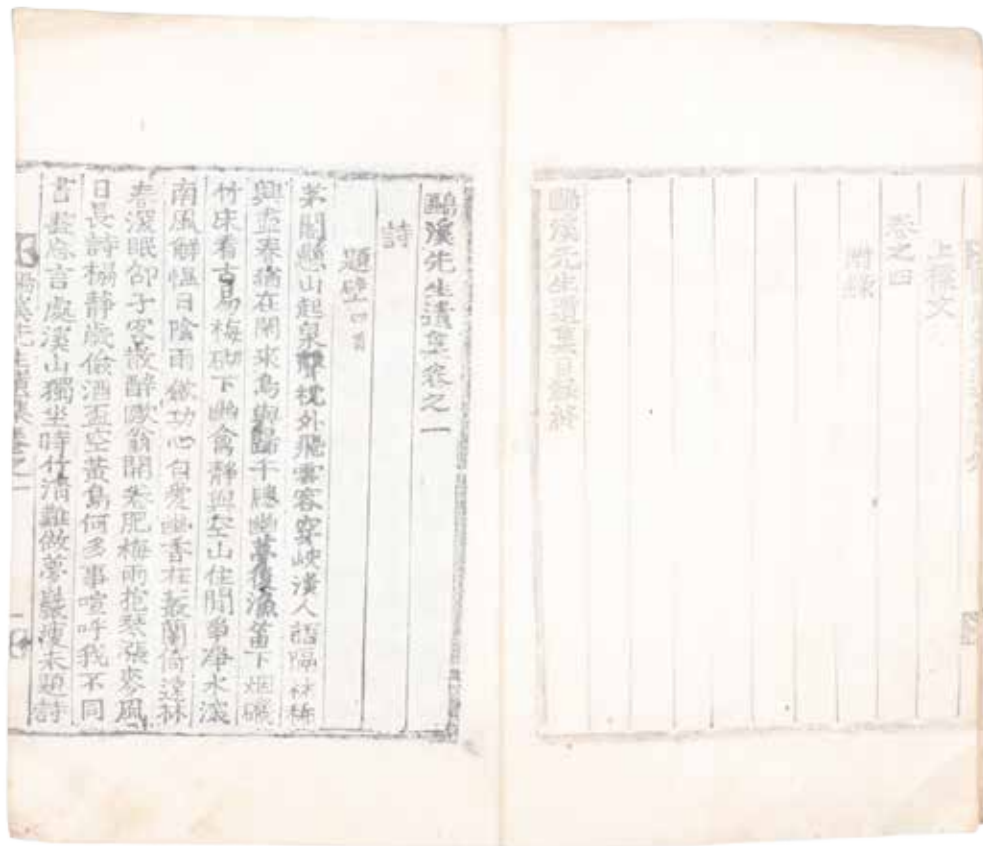


鷗溪集

1924년 | 32.0×21.2cm | 목활자본



조선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신완申完(1738~?)의 시문집으로 그의 현손 신대희申大熙에 의해 1924년 편집, 간행되었다. 4권 2책으로 시 28수, 권3에 시 83수, 서書 6편, 서序 1편, 제문 2편, 상량문 5편, 권4는 부록으로 만장輓章 42편, 뇌사諒辭 1편, 제문 11편, 묘갈명·행장·발 각 1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친구 간에 주고받은 것들이 많으며, 또한 명승고적이나 대자연을 찾아 읊은 시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書는 경리經理나 훈고訓誥에 관한 것이 많다. 이 밖에도 서序, 제문, 상량문 등은 비록 편수는 많지 않지만 끝은 주관과 짜임새 있는 문장으로 이루어졌다.



율봉집

栗峯集

1946년 | 29.8×19.4cm | 석인본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고창 출신의 유학자 신현중申鉉中(1877~1942)의 시문집. 봉산정사鳳山精舍에서 간행하였다. 봉산정사는 현와玄窩 고헌선高光善(1855~1934)이 지어서 은거했던 곳인데, 그는 이곳에서 강학하면서 후인들에게 정신력을 함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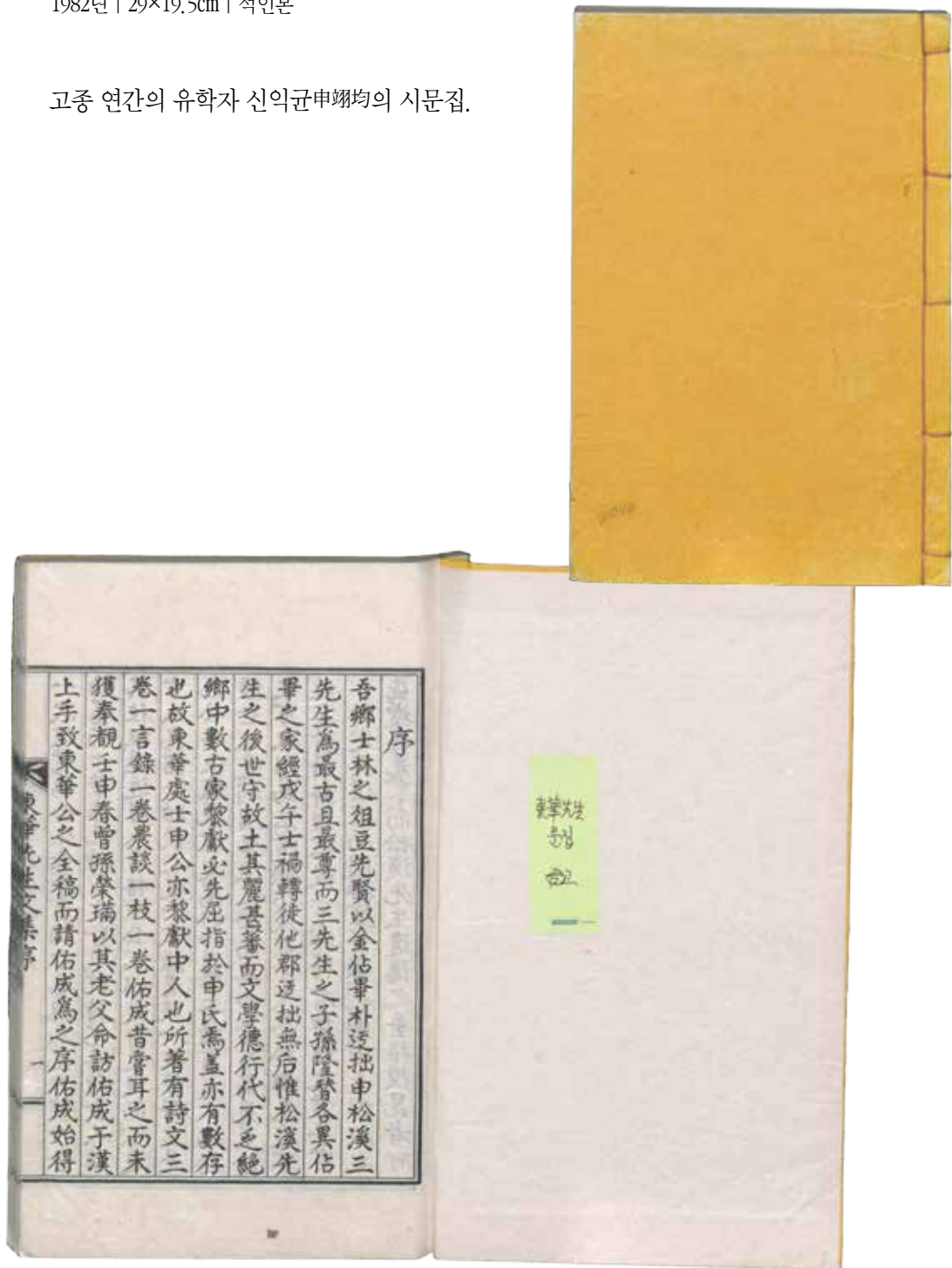


136 동화선생문집

東華先生文集

1982년 | 29×19.5cm | 석인본

고종 연간의 유학자 신익균申翊均의 시문집.



137 | 소담유고

小潭遺稿

29.7×19.7cm | 석인본

아들 신현구申鉉求(1886~?)가 발문을 쓴 평산신씨 신욱균申郁均의 시문집. 신현구는 일제 강점기의 관료이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도 지냈다.



138 | 운와유고

雲窩遺稿

1969년 | 25.3×18.4cm | 석인본

아들 신혁균申赫均이 발문을 쓴 신상수申相秀의 유고집.



139 직당집

直堂集

1963년 | 29.4×19.5cm | 석인본

조선말기의 학자 신현국申鉉國(1869~1949)의 시문집. 6권 3책으로 1963년 신현국의 손자 신동호申東虎와 신동희申東熙 등이 편집·간행하였다. 권1에 시, 권2·3에 서책, 권4에 잡저·설說·서序·기記, 권5에 발跋·명銘·찬贊·사辭·상량문·제문·행장·묘갈명·묘지명·묘표·유사, 권6에 부록으로 연보·가장·행장·제문·만사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신현국은 일제강점기 여주에서 경전과 이기설理氣說에 정진한 유학자이자 항일운동가이다. 특히 그는 량치차오梁啓超의 논설이 유교정신에 위배된다고 하여 통렬히 비판하였으며, 예문에 조예가 깊어 『학례유범學禮遺範』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140 | **학고당 제영집**

學古堂 題詠集

1992년 | 28.9×19.3cm | 신연활자본

균석筠石 신하희申夏熙(1854~1935)의 강학처인 학고당의 제영題詠을 모아 엮은 시문집이다. 학고당은 신하희가 후학을 가르치던 서당으로 곡성군 입면 입석리에 있다. 신하희의 후손이 학고당을 중수하였는데 사방의 선비들이 그 뜻을 칭송하고 기리기 위해서 보낸 시가 수백편이 넘었다. 이들 시를 합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141 남천공 일록

南川公日錄

18.5×11.8cm | 필사본

남천공 신의申愷의 일기로 갑진甲辰년 1월부터 을사년乙巳年 1월까지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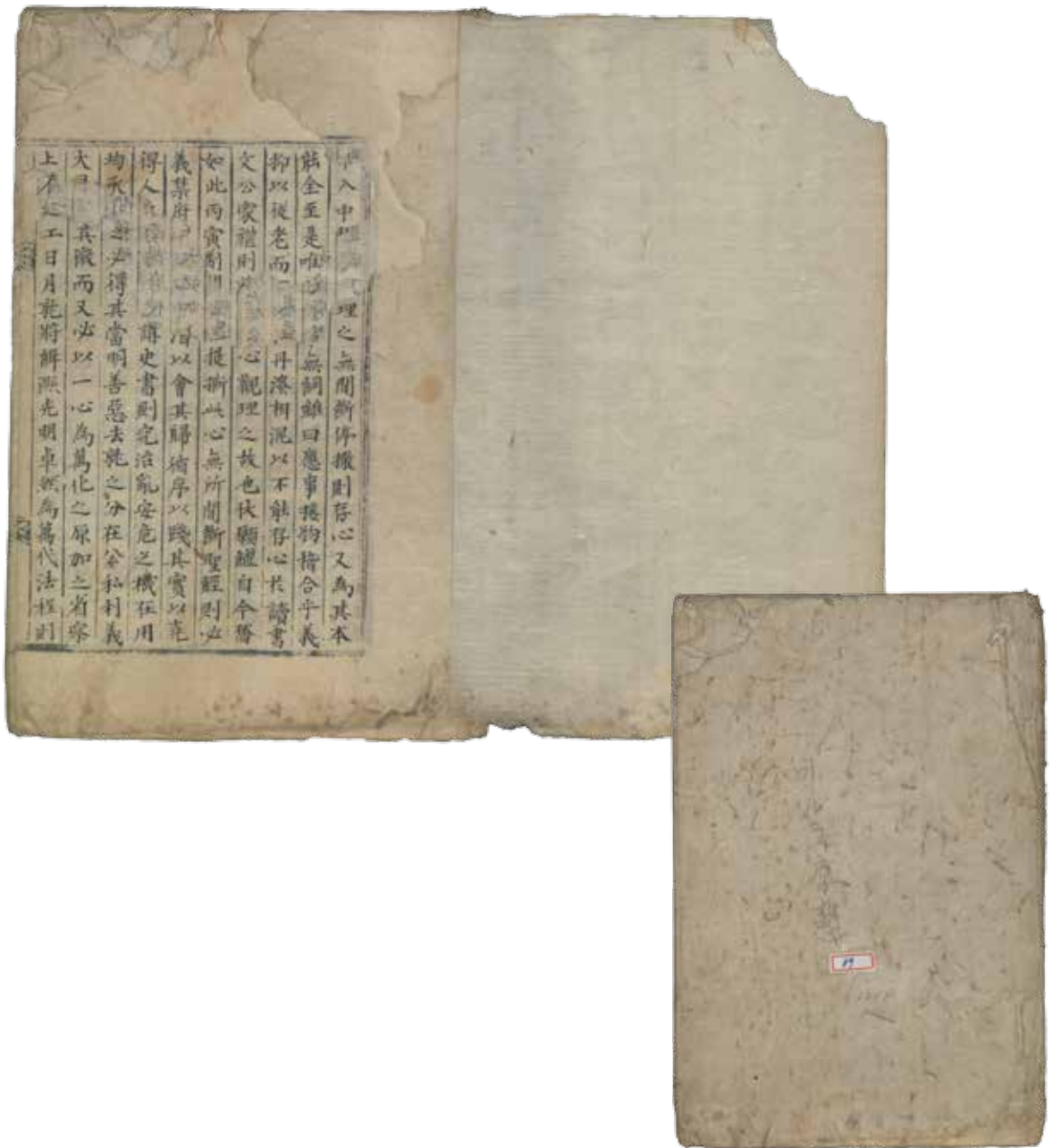


142 무제

無題

29.0×19.7cm | 필사본

신태수申澤秀(1881~?)가 증조부 신응조申應朝(1804~1899)의 행장을 기록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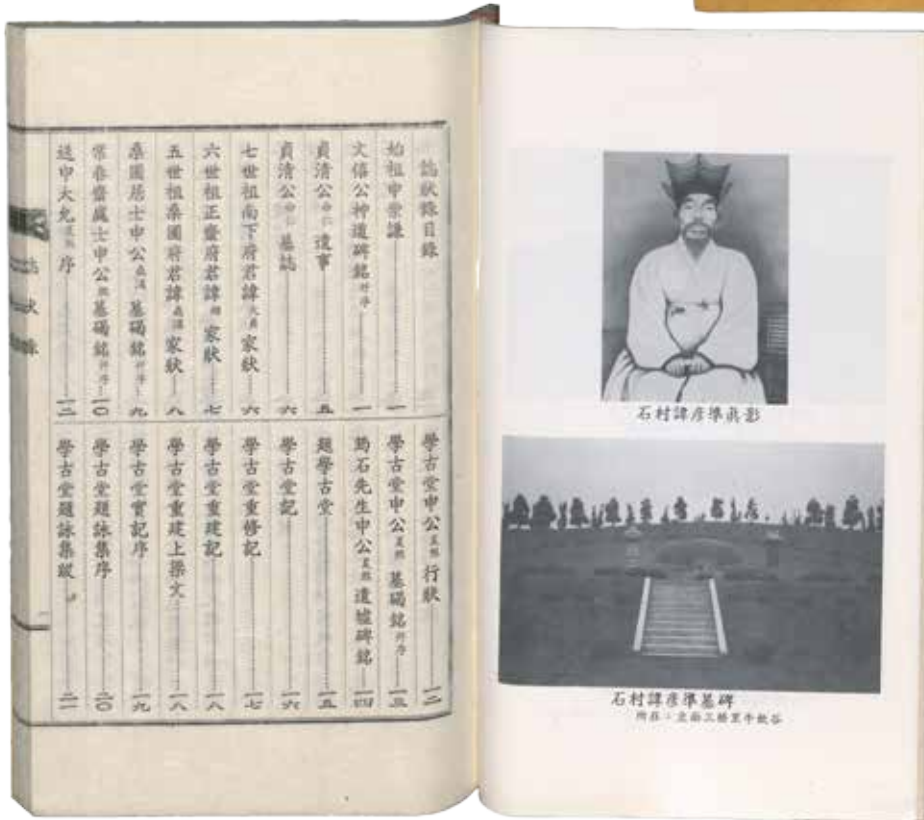


지장록

誌狀錄

1992년 | 28.8×19.5cm | 활자본

평산신씨의 시조부터 「가장家狀」, 「묘지명墓誌銘」, 「행장行狀」, 「학고당중수기學古堂重修記」 등을 모아 엮은 자료.



보첩

寶帖

28.3×23.8cm | 첩장본

평산신씨 선조들의 간찰을 모아 엮은 간찰첩.

중요한 간찰 하나 탈초하여 번역



146 수죽거사 진하문등산집

瘦竹居士 陳賀文等散集

28.5×19.5cm | 필사본

수죽거사瘦竹居士의 진하문陳賀文, 전문箋文, 간찰 등을 모아 정리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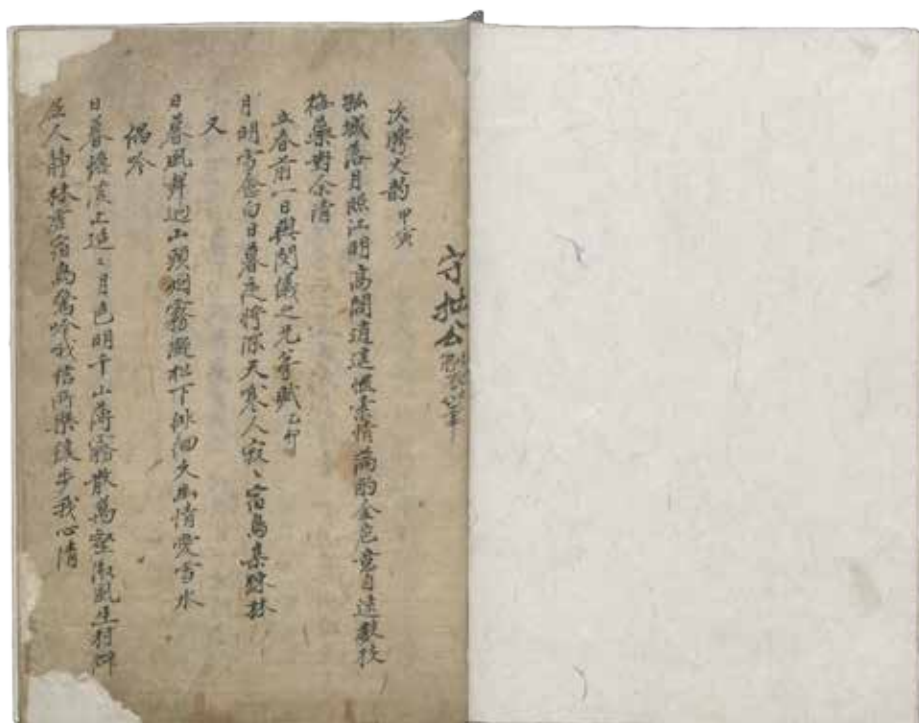


147 | 시집

詩集

23.8×17.0cm | 필사본

수졸공守拙公 신경한申景翰의 시문을 모아 정리한 시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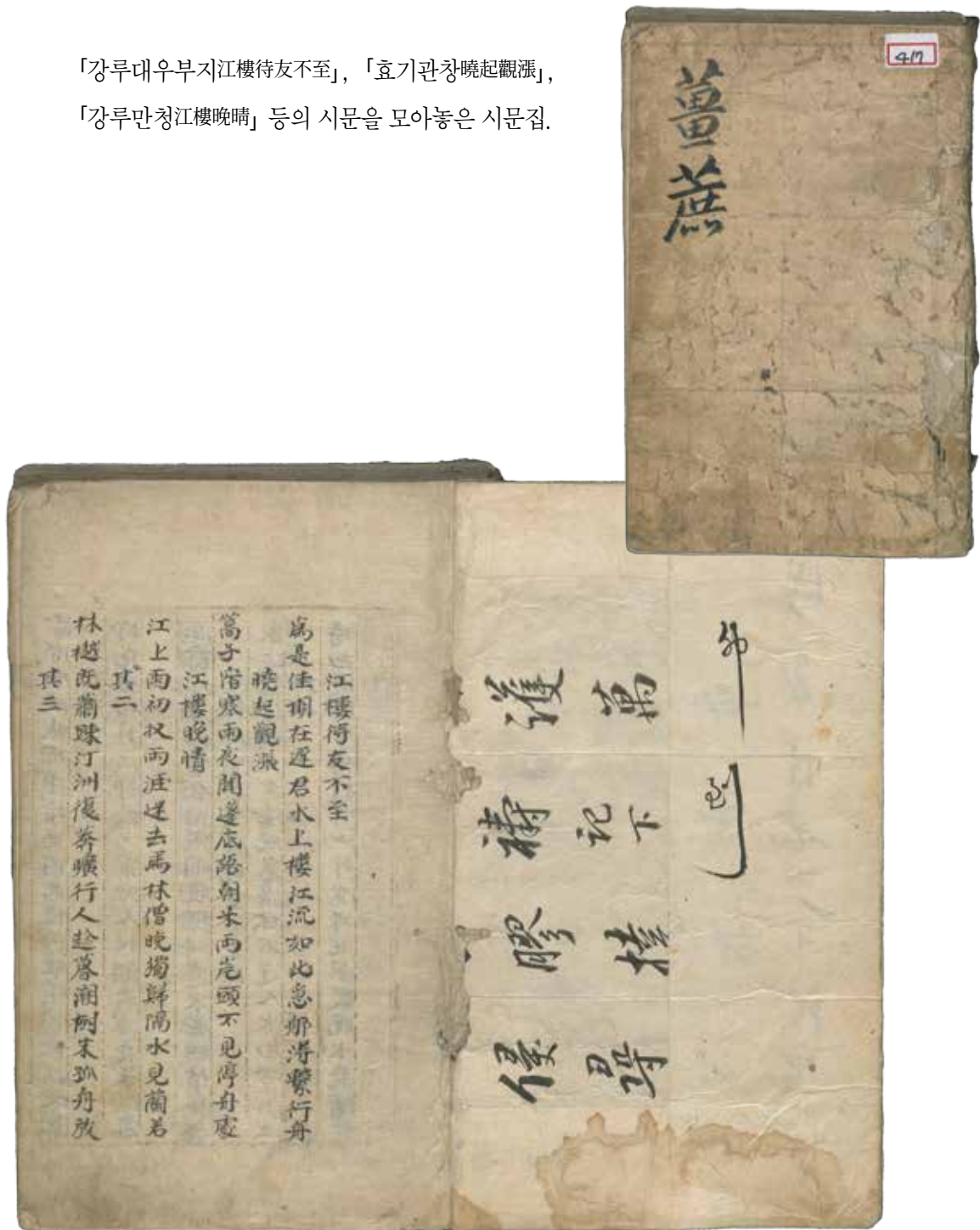


148 강자

薑蔗

22.5×14.7cm | 필사본

「강루대우부지江樓待友不至」, 「효기관창曉起觀漲」,
「강루만청江樓晚晴」 등의 시문을 모아놓은 시문집.



5. 경사 학문을 탐구하다

평산신씨가의 고서중 경서류 자료로는 신용조가 주자 학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고사집古辭集』이 있고, 『주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연계蓮桂』, 정조正祖가 삼경三經과 사서四書의 본문만을 편집해 간행한 ‘삼경사서정문三經四書正文’이라고 하는 『경서정문經書正文』이 있다.

다음 예학서로는 한말 의병항쟁에도 참여한 바 있는 직당直堂 신현국申鉉國이 예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삼강오륜을 강조하여 편찬한 『학례유범學禮遺範』이 있다. 또 총서류로는 춘추시대부터 명나라 때까지 편찬된 제자백가의 책을 유가儒家, 병가兵家, 법가法家, 도가道家, 소설가小說家로 분류하여 수록한 『백자전서百子全書』가 있다.

그리고 역사류의 자료로는 중국의 요나라에서 명나라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단군서부터 조선까지의 역사를 연표 형식으로 정리한 『동국역대편고東國歷代便考』와 백당白堂 신태운申泰允이 아동을 위해 지은 우리나라 역사서인 『배달조선정사倍達朝鮮正史』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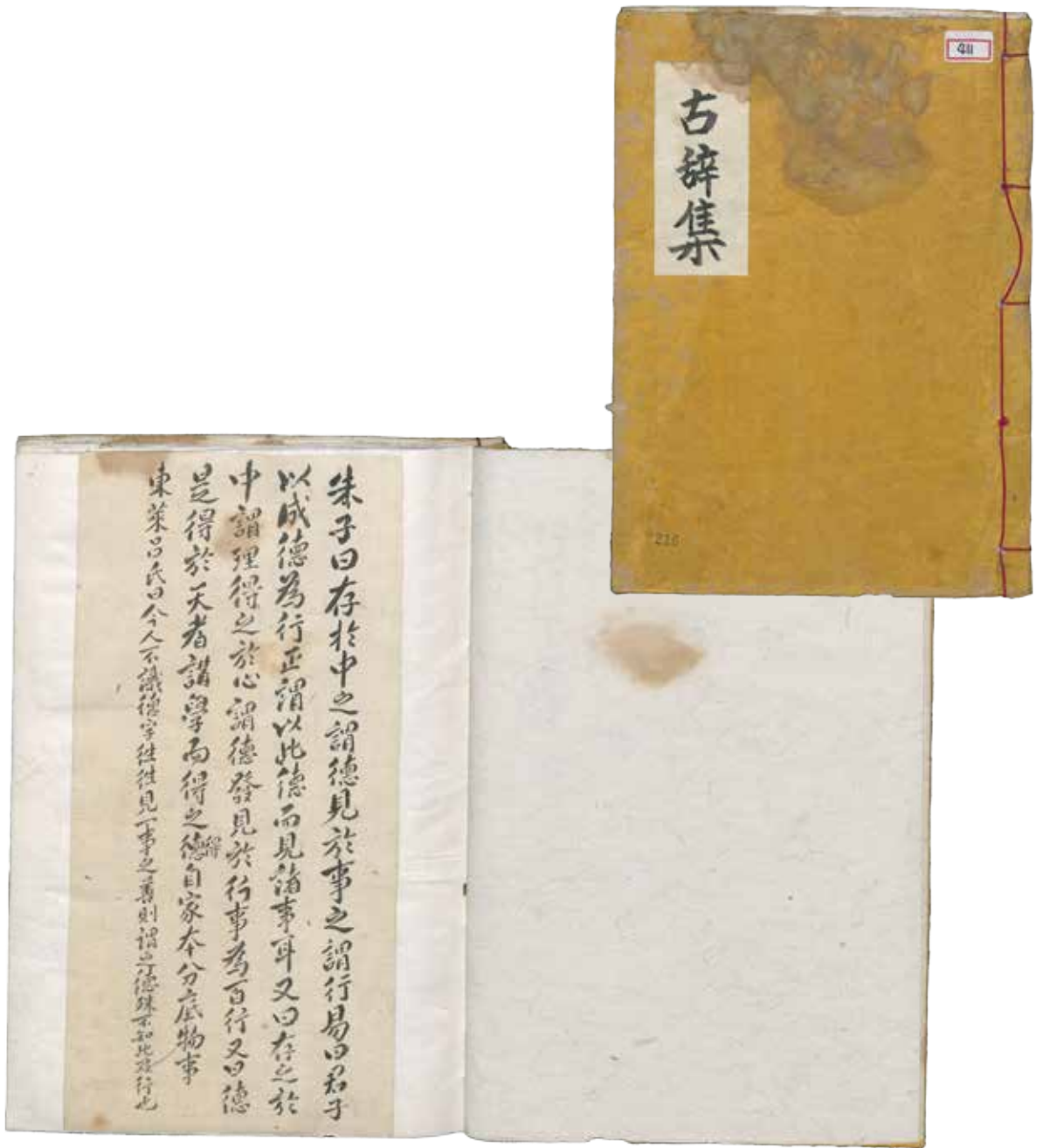
그 외 신용조가 84세에 여지승람輿地勝覽을 보고 글을 모아 88세에 충청도편을 엮은 『여지승람초輿地勝覽抄』와 조선의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 사이에 재직하였던 관료 중에서 음직陰職 출신을 각 성관별로 기록한 명부인 『진신보문하縉紳譜文下』를 통하여 단편적이거나 평산신씨가의 학문세계를 살펴볼 수 있다.

149 | 고사집

古辭集

27.0×19.5cm | 필사본

주자朱子(1130~1200) 학설의 주요 내용을 신응조申應朝(1804~1899)가 정리한 것을 엮은 책.



蓮桂

13.2×8.0cm | 필사본

찬성공贊成公이 주역周易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을 귀암歸菴 신상현申常顯(1777~1864)이 제작한 책.



151 | 경서정문

經書正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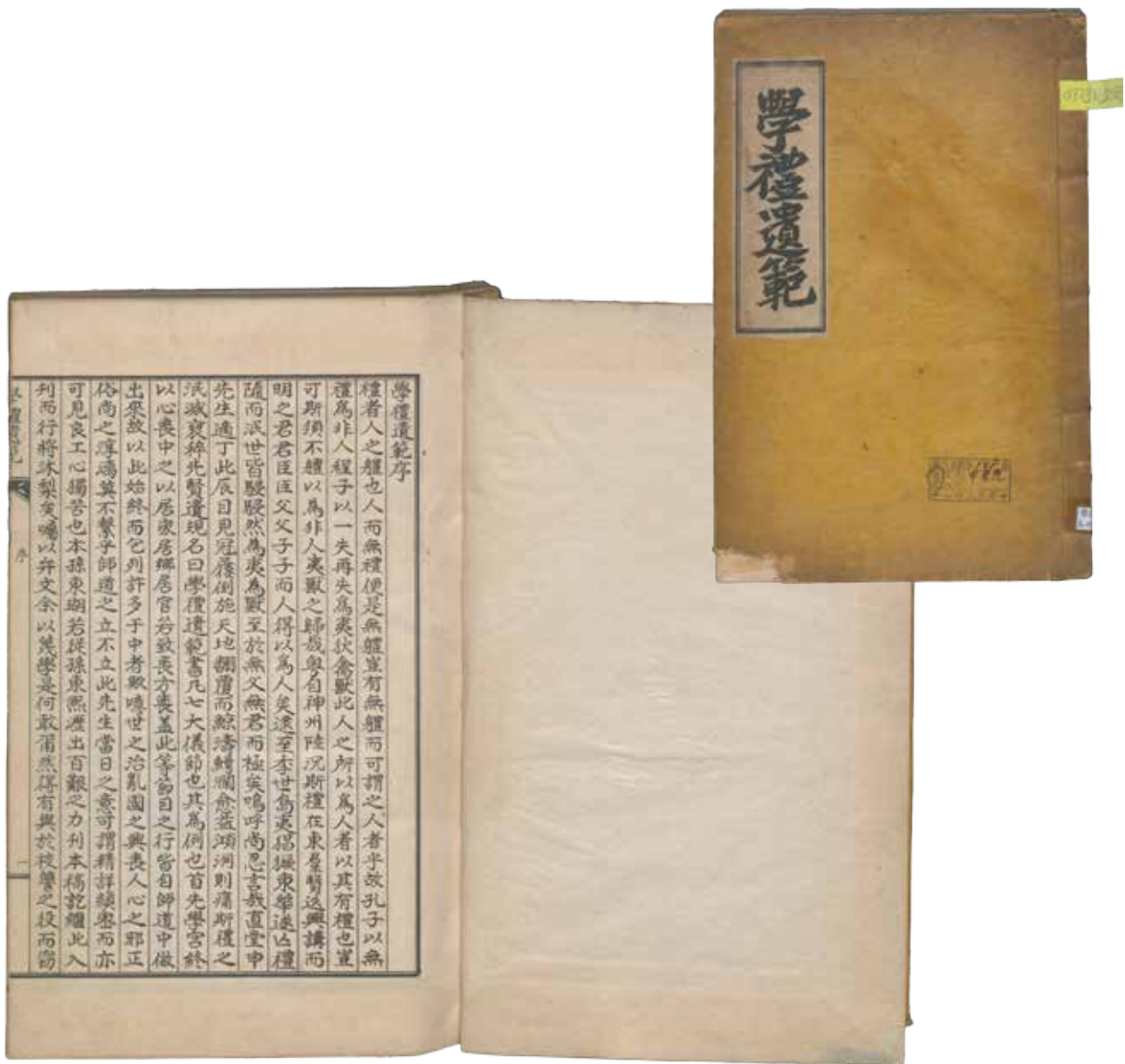
37.3×23.8cm | 금속활자본(임진자)

경서정문은 삼경사서정문三經四書正文이라고 하는데, 정조正祖가 삼경三經과 사서四書의 본문만을 편집해 간행한 책. 평산신씨가의 경서정문은 1·2·4·5권이 전하는데, 1권은 『주역周易』, 2권은 『서전書傳』, 4권은 『대학大學』, 『중용中庸』, 『논어論語』, 5권은 『맹자孟子』가 실려있다.

<표지는 하나만 싣고 본문 사진을 싣을 것>



학례유범은 예문에 조예가 깊은 직당直堂 신현국申鉉國(1869~1949)이 삼강오륜을 강조한 예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편찬한 책. 신현국은 일제강점기 여주에서 경전과 이기설理氣說에 정진한 유학자이자 항일운동가이고, 문집으로 『직당집直堂集』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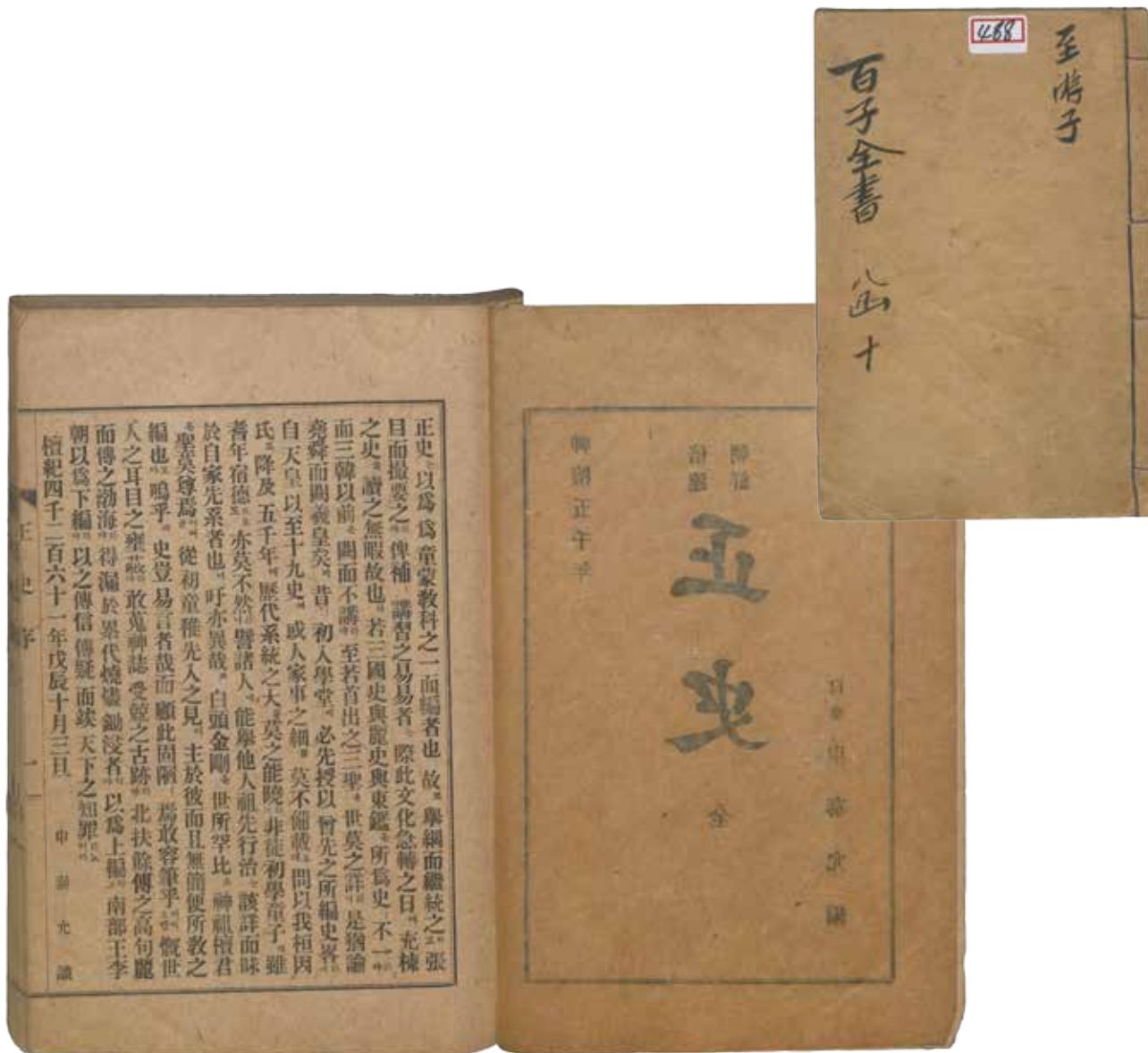


153 백자전서

百子全書

1875년 | 19.8×13.3cm | 석인본(중국)

춘추시대부터 명나라 때까지 편찬된 제자백가의 책을 유가儒家, 병가兵家, 법가法家, 도가道家, 소설가小說家로 분류하여 수록한 총서叢書.



正史。以爲爲童蒙教科之一而編者也。故。舉綱而繼統之。張目而撮要之。俾補。講習之易易者。際此文化急轉之日。充棟之史。讀之無暇故也。若三國史與東鑑。所爲史。不一。而三韓以前。闕而不講。至若首出之三聖。世莫之詳。是猶論堯舜而闕堯皇矣。昔。初入學堂。必先授以曾先之所編史者。自天皇以至十九史。或人家事之細。莫不備載。問以我桓因氏。降及五千年。歷代系統之大。莫之能曉。非徒初學童子。雖善年宿德。亦莫不於營諸人。能舉他人祖先行治。談詳而味於自家先系者也。吁亦異哉。白頭金剛。世所罕比。神祖懷君。聖矣尊焉。從初童稚先人之見。主於彼而且無簡便所教之編也。嗚乎。史豈易言者哉。而顧此固陋。務敢容筆乎。慨世人之耳目之塞。敢蒐神誌。受靈之古跡。北扶餘傳之高句麗。而傳之渤海。得漏於累代燒燬鋤沒者。以爲上編。南部王李朝以爲下編。以之傳信傳疑。而談天下之知罪。

檀紀四千二百六十一年戊辰十月三日

154 동국역대편고?---제목 확인(목록에는 역대 제왕으로 됨)

東國歷代便考

36.8×23.8cm | 필사본

중국의 요나라에서 명나라까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단군서부터 조선까지의 역사를 연표 형식으로 정리한 역사서.



155 배달조선 정사

倍達朝鮮 正史

26×18.3cm | 1945 | 신연활자본

백당白堂 신태윤申泰允(1884~1961)이 아동을 위해 지은 우리나라 역사서이다. 신태윤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였다. 그는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한 이후 곡성중앙학교·광주사범학교·조선대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고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가르치며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일깨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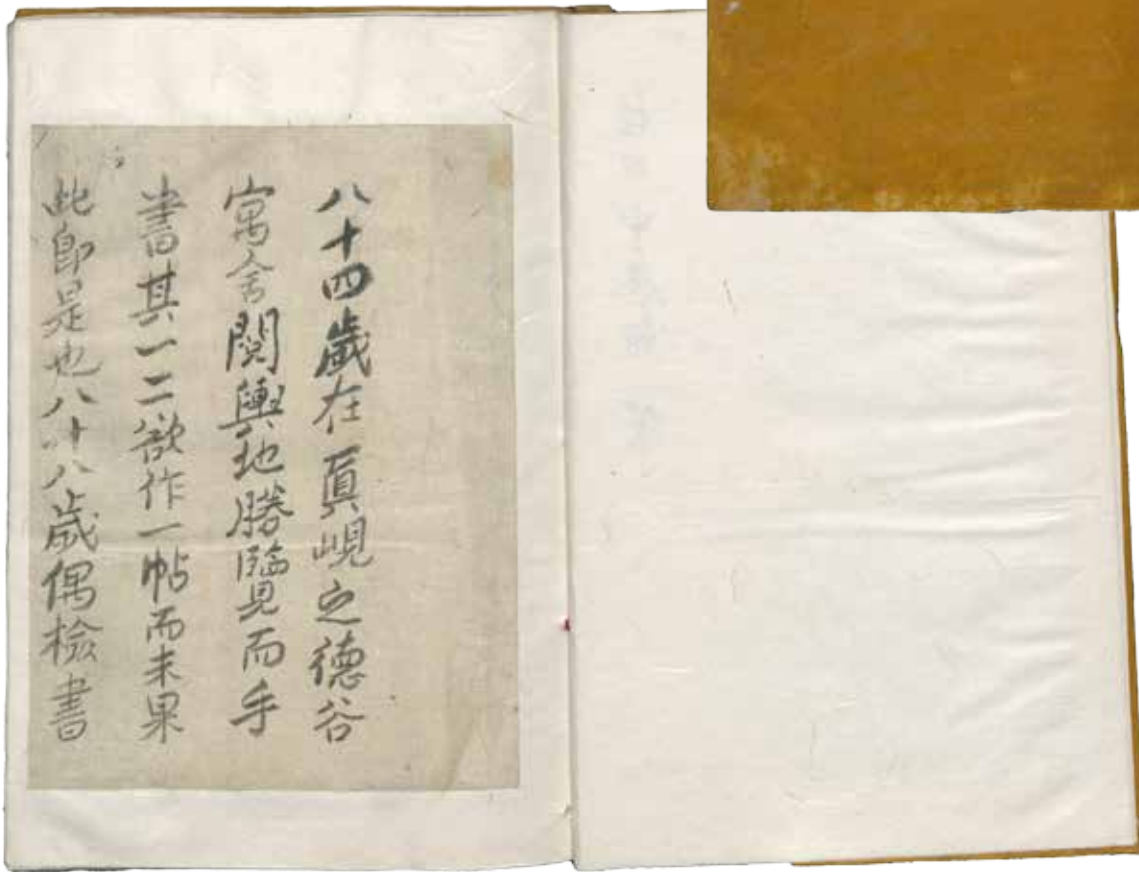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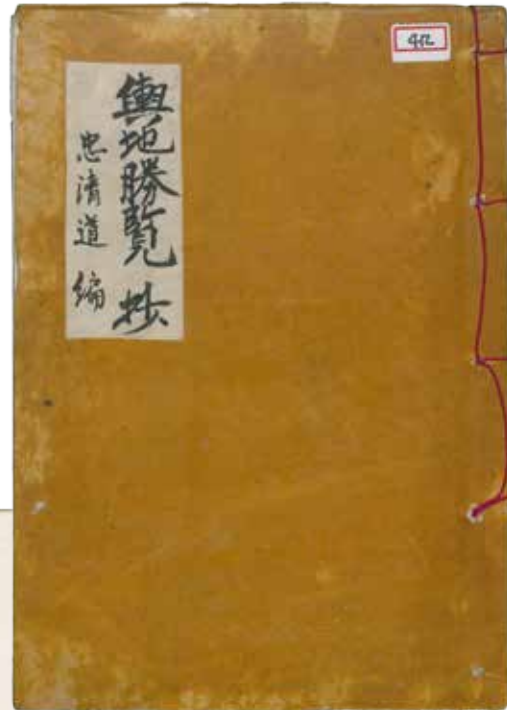


여지승람 초

輿地勝覽 抄

27.3×19.5cm | 필사본

신응조申應朝(1804~1899)가 84세에 『여지승람輿地勝覽』을 보고 글을 모아 88세에 충청도 편을 엮은 책.





1
가고목록
104



2
가장
98



3
가장
99



4
가장초
95



5
가장초
96



6
가장초
97



7
간찰
84



8
간찰
85



9
간찰
87



10
간찰
90



11
간찰
107



12
강원도관찰사 신미년 6월 포평등제
45



13
경륜
66



14
계전선생신공관찰관서서
54



15
공납안
52



16
구암필
67



17
국기
147



18
기문
72



19
기문
75



20
기원당시
62



21
기일
146



22
길제시의절
119



23
납폐지
116



24
납폐지
117



25
단자
105



26
만사
143



27
망실 민씨 행록
102



28
묘소제향의식
132



29
묘소제향홀기
131



30
묘알록
144



31
민적부
110



32
부목
71



33
산송 관련 문서
106



34
상소문 등
55



35
상장례
118



36
선부군 유사
100



37
수령안
53



38
수졸부군 묘지
111



39
시문
61



40
시문
60



41
시축
58



42
시축
59



43
신경한 간찰
77



44
신경한 간찰
79



45
신경한 간찰
89



46
신상현 교지
36



47
신상현 교지
37



48
신상현 교지
38



49
신석화 교지
30



50
신석화 교지
31



51
신석화 교지
32



52
신야 간찰
86



53
신야 간찰
88



54
신야 교지
33



55
신야 교지
34



56
신야 교지
35



57
신야 백패 교지
26



58
신위 간찰
82



59
신응조 간찰
83



60
신응조 교서
27



61
신응조 교지
39



62
신응조 교지
40



63
신응조 교지
41



64
신응조 시권
22



65
신응조 시권
23



66
신응조 유묵
91



67
신의 시권
21



68
신일영 교지
42



69
신일영 교지
43



70
신일영 교지
44



71
신일영 약력
94



72
신택수 시권
24



73
신현 간찰
81



74
신헌조 계해년 포럼등제
50



75
심노신 시권
25



76
십구첩
68



77
을미영모록
133



78
자계지부의절
145



79
잡기
115



80
정표문
56



81
제문
134



82
제문
137



83
제문
138



84
제문
139



85
제문
140



86
제문
141



87
제문
142



88
제의절목
120



89
주련
63



90
지출부
108



91
지출부
109



92
처방문
76



93
평산신씨세계
93



94
평안도관찰사 계유년
추동 포평등제
51



95
표목
69



96
표목
70



97
한글가사
64



98
해복설
65



99
행장
101



100
허부인 행장
103



101
혼수홍정
114



1
가승
153



2
가승
154



3
가승
155



4
가승
156



5
가승
157



6
강자
205



7
경서정문
209



8
고사집
207



9
구계집
191



10
규정집
189



11
남천공 일록
198



12
노은영당지
185



13
동국역대편고
212



14
동양세가년표
151



15
동양세보
167



16
동화선생문집
193



17
면의
178



18
묘알록
169



19
무제
199



20
배달조선 정사
213



21
백자전서
211



22
보첩
202



23
상례비요
177



24
석담이부인전
201



25
소담유고
194



26
수죽거사 진하문등산집
203



27
시집
204



28
여지승람 초
214



29
연계
208



30
열성수교
180



31
영풍세전
152



32
오세보
159



33
용산단지
182



34
운계유사
188



35
운와유고
195



36
율리사창건지
183



37
울봉집
192



38
장절공묘소수호절목
171



39
장절공묘소정식절목
172



40
지장록
200



41
직당집
196



42
진신보 문하
215



43
총열사지
186



44
취은집
190



45
평산신씨 계보
160



46
평산신씨강진파 가승
158



47
평산신씨계보기유합보
161



48
평산신씨문회공파계보갑편
162



49
평산신씨보
164



50
평산신씨보략
163



51
평산신씨사간공파세보
165



52
평산신씨종계안
166



53
표충단지
181



54
학교당 제영집
197



55
학례유범
210



56
한림정지
184